

연구보고서 2020-03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세정

김태완·김문길·정해식·김기태·주유선·강예은·최준영·송아영·김용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유선 계명대학교 교수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김용환 청주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2020-03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발행일 2020년 4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앤컴퍼니

## 발|간|사

「청년기본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정책이 국정 핵심 과제로 다뤄질 수 있는 법적 주춧돌이 마련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 주거, 참여 등 청년 삶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의 생활을 정확히 포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 건강, 교육, 주거, 정책, 소득, 지출, 재산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의 가구 형태, 노동, 사회보험, 경제, 건강,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주거, 청년정책 영역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개입 지점과 근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태, 이행 상태, 주거 상태와 같은 청년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전국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우리 원의 정세정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각 분야 전문가인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김문길, 정해식 연구위원과 김기태 부연구위원, 최준영, 강예은 연구원, 주유선 계명대학교 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김용환 청주대학교 교수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또한 원내 자문위원인 이태진 연구위원과 원외 자문위원인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귀한 조언과 풍부한 경험을 아

---

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또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와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청년들은 자문과 검토,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조사의 쓸모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촘촘하고 세밀한 도움을 주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 연구를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15</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내용 .....	19
제3절 연구 방법 .....	20
제4절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점 .....	21
<b>제2장 조사 내용과 표본 설계 .....</b>	<b>23</b>
제1절 조사 내용 .....	25
제2절 조사표의 개발 .....	36
제3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	39
제4절 표본의 일반 특성 .....	53
<b>제3장 청년의 노동 .....</b>	<b>59</b>
제1절 들어가며 .....	61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62
제3절 소결 .....	94

---

<b>제4장 청년의 사회보험</b> .....	<b>97</b>
제1절 들어가며 .....	99
제2절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	102
제3절 청년의 실직 경험과 소득보장 .....	114
제4절 소결 .....	122
<b>제5장 청년의 경제</b> .....	<b>125</b>
제1절 들어가며 .....	127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128
제3절 소결 .....	146
<b>제6장 청년의 건강</b> .....	<b>149</b>
제1절 들어가며 .....	151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154
제3절 소결 .....	172
<b>제7장 청년의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b> .....	<b>177</b>
제1절 들어가며 .....	179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180
제3절 소결 .....	216



<b>제8장 청년의 주거</b> .....	<b>219</b>
제1절 들어가며 .....	221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225
제3절 소결 .....	250
<b>제9장 청년정책</b> .....	<b>253</b>
제1절 들어가며 .....	255
제2절 정책 인지 .....	257
제3절 정책 인식과 욕구 .....	279
제4절 소결 .....	289
<b>제10장 결론</b> .....	<b>293</b>
제1절 주요 결과 .....	29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 함의 .....	298
<b>참고문헌</b> .....	<b>303</b>
<b>부 록</b> .....	<b>309</b>
부록 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	309
부록 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설문문항 작성 근거 .....	336
부록 3. 최근 10년간의 청년 이슈 동향 .....	342

# 표 목차

〈표 1-1-1〉 청년정책추진단이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 방향 .....	18
〈표 2-1-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 내용 .....	25
〈표 2-1-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 유형 분류 .....	30
〈표 2-3-1〉 표집 블록 단위별 비교 .....	40
〈표 2-3-2〉 층화 구분 .....	41
〈표 2-3-3〉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 설계 .....	41
〈표 2-3-4〉 모집단 현황(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42
〈표 2-3-5〉 각 시도 및 성별 인구 현황 .....	43
〈표 2-3-6〉 표본추출틀 현황(집계구 현황) .....	44
〈표 2-3-7〉 세부 권역별 해당 행정구역 현황 1_서울시 .....	44
〈표 2-3-8〉 세부 권역별 해당 행정구역 현황 1_경기도 .....	45
〈표 2-3-9〉 층화 기준 .....	45
〈표 2-3-10〉 세부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	45
〈표 2-3-11〉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	47
〈표 2-3-12〉 세부 층별 표본 집계구 현황 .....	48
〈표 2-4-1〉 응답자 일반 특성1 .....	56
〈표 2-4-2〉 응답자 일반 특성2 .....	58
〈표 3-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20~34세 청년 고용 동향 .....	63
〈표 3-2-2〉 경제활동 상태 1 .....	64
〈표 3-2-3〉 취업자와 실업자 .....	66
〈표 3-2-4〉 취업자 세부 분석_임금근로자 .....	68
〈표 3-2-5〉 취업자 세부 분석 1_비임금근로자 .....	69
〈표 3-2-6〉 일하는 청년의 근로시간 분포 .....	71
〈표 3-2-7〉 전일제 임금근로 청년의 근로시간 분포 .....	72
〈표 3-2-8〉 일하는 청년의 월 근로소득 .....	72
〈표 3-2-9〉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 청년의 월 근로소득 분포 .....	73
〈표 3-2-10〉 청년의 성별 월 근로소득 분포 .....	73



〈표 3-2-11〉 종사자, 사업장 규모별 최저시급 수급 여부 .....	74
〈표 3-2-1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 청년의 주휴수당 수급 여부 .....	75
〈표 3-2-13〉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76
〈표 3-2-14〉 노동조합 가입 여부 .....	76
〈표 3-2-15〉 현재의 일이 야간, 교대, 주말의 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	78
〈표 3-2-16〉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	79
〈표 3-2-17〉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	80
〈표 3-2-18〉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	81
〈표 3-2-19〉 실업자 세부 분석_확장실업 .....	83
〈표 3-2-20〉 실업자 세부 분석_장기 실업, 단기 실업 .....	85
〈표 3-2-21〉 니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7
〈표 3-2-22〉 유형별 니트 .....	89
〈표 3-2-23〉 2개 이상의 일 .....	91
〈표 3-2-24〉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 .....	93
〈표 4-2-1〉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사업장 기반 가입률 .....	103
〈표 4-2-2〉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	104
〈표 4-2-3〉 연령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	105
〈표 4-2-4〉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	106
〈표 4-2-5〉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108
〈표 4-2-6〉 임시·일용직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사회보험 가입률 .....	109
〈표 4-2-7〉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	111
〈표 4-2-8〉 현 일자리 취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상태-임금근로자 .....	112
〈표 4-3-1〉 실직 청년의 기본적 생계비 확보 방안-1순위 .....	118
〈표 5-2-1〉 청년층 월평균 총생활비 및 식비 .....	131
〈표 5-2-2〉 청년층 월평균 주거비 및 관련 지출 .....	133
〈표 5-2-3〉 청년층 월평균 교육비 및 공사교육비 .....	135
〈표 5-2-4〉 청년층 월평균 통신비,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	137

〈표 5-2-5〉 청년 가구 소득 종류별 월평균 수준 .....	139
〈표 5-2-6〉 청년 가구 재산과 부채 .....	141
〈표 5-2-7〉 청년 가구 학자금, 주택 관련 부채 및 이자 .....	142
〈표 5-2-8〉 청년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경우 .....	143
〈표 5-2-9〉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생활비 및 총재산 .....	145
〈표 6-2-1〉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년 집단별 이유 .....	162
〈표 7-2-1〉 최근 1년 동안 '감정적/심리적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81
〈표 7-2-2〉 최근 1년 동안 '건강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84
〈표 7-2-3〉 최근 1년 동안 '가족 구성원 관련된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86
〈표 7-2-4〉 최근 1년 동안 '금전적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88
〈표 7-2-5〉 최근 1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90
〈표 7-2-6〉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93
〈표 7-2-7〉 최근 1년 동안 '연애/결혼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95
〈표 7-2-8〉 최근 1년 동안 아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198
〈표 7-2-9〉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200
〈표 7-2-10〉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202
〈표 7-2-1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204
〈표 7-2-12〉 최근 1년 동안 '목돈을 빌려준' 경험 .....	206
〈표 7-2-13〉 최근 1년 동안 '장보기를 도와준' 경험 .....	208
〈표 7-2-14〉 최근 1년 동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 ..	210
〈표 7-2-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문항 구성 .....	211
〈표 7-2-1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지지의 원천 .....	213
〈표 7-2-17〉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지의 수준 .....	215
〈표 8-1-1〉 청년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 형태 .....	223
〈표 8-1-2〉 청년의 유형별 임대료 과부담 정도 .....	223



〈표 8-1-3〉 청년 주거 지원 대표 사업 .....	224
〈표 8-2-1〉 청년층의 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 .....	225
〈표 8-2-2〉 청년층의 현 주택의 실평수 .....	226
〈표 8-2-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현 주택의 실평수 .....	227
〈표 8-2-4〉 청년층의 주거 형태 .....	228
〈표 8-2-5〉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 형태 .....	229
〈표 8-2-6〉 청년층 주거 위치(n=3,018) .....	230
〈표 8-2-7〉 청년층 주거 점유 형태 .....	230
〈표 8-2-8〉 청년층 가구 형태 .....	231
〈표 8-2-9〉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유형 .....	232
〈표 8-2-10〉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	233
〈표 8-2-11〉 1인 청년 가구의 혼자 산 기간 .....	233
〈표 8-2-12〉 혼자 사는 이유 .....	234
〈표 8-2-13〉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사 횟수 1 .....	235
〈표 8-2-14〉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사 횟수 2 .....	235
〈표 8-2-15〉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비 출처 .....	236
〈표 8-2-16〉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 .....	236
〈표 8-2-17〉 주거 필수설비기준 충족 여부 .....	238
〈표 8-2-18〉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종합 .....	239
〈표 8-2-19〉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채광 상태 .....	240
〈표 8-2-20〉 청년 주거 환경 상태: 방음 상태 .....	241
〈표 8-2-21〉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습기와 곰팡이 .....	241
〈표 8-2-22〉 청년 주거 환경 상태: 환기 상태 .....	242
〈표 8-2-23〉 청년 주거 환경 상태: 방범 상태 .....	243
〈표 8-2-24〉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재난 안전성 .....	243
〈표 8-2-25〉 청년 주거 환경 상태: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	244
〈표 8-2-26〉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위생 상태 .....	245

---

〈표 8-2-27〉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방의 어려움 .....	246
〈표 8-2-28〉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냉방의 어려움 .....	246
〈표 8-2-29〉	주관적 주거비 부담 특성 .....	248
〈표 8-2-30〉	주관적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식비 감소 .....	249
〈표 8-2-31〉	현재 거처에서 퇴거 위험을 느낀 경험 .....	249
〈표 8-2-32〉	현재 거처에서 퇴거 위험을 느낀 이유 .....	250
〈표 9-2-1〉	경제적 계층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	264
〈표 9-2-2〉	경제활동 상태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	266
〈표 9-2-3〉	건강 상태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	268
〈표 9-2-4〉	청년정책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도 .....	269
〈표 9-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의 충분성 .....	280
〈표 9-3-2〉	주요 영역별 특성별 정책의 충분성 .....	281
〈표 9-3-3〉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 여부와 만족도 .....	285
〈표 9-3-4〉	정책 영역 우선순위(1순위) .....	289
〈표 10-1-1〉	분석 결과 및 검토 과제 .....	296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2-1]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주된 일의 판별 .....	33
[그림 2-2-2] 조사표 개발 .....	38
[그림 3-2-1] 표본의 구성 .....	63
[그림 3-2-2] 비경제활동 청년의 지역 분포 .....	65
[그림 3-2-3] 주요 산업, 직업 분포 .....	70
[그림 4-1-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	100
[그림 4-2-1]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	110
[그림 4-2-2]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	113
[그림 4-3-1] 청년의 실직 경험 .....	115
[그림 4-3-2] 청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 .....	115
[그림 4-3-3] 청년의 재취업 기간 소요 사유별 재취업 기간 .....	116
[그림 4-3-4] 청년의 생계비 확보 방안별 재취업 기간 .....	119
[그림 4-3-5] 실업급여 미신청 사유 .....	120
[그림 4-3-6] 생계비 확보 방법별 실직 기간 동안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 ..	121
[그림 4-3-7] 청년 가구 형태별 실직 기간 동안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 ..	122
[그림 5-2-1] 청년 가구 월평균 총소득 및 총생활비 .....	128
[그림 5-2-2] 총소득, 총생활비 및 총자산 분포 .....	129
[그림 5-2-3]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지출 항목별 비교 .....	146
[그림 6-1-1] 세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152
[그림 6-2-1] 세 끼니를 모두 주로 혼자 식사한다고 답한 청년의 비율 .....	156
[그림 6-2-2] 청년 집단별 외식 끼니당 평균 지출액 .....	158
[그림 6-2-3] 식생활의 양과 질은 충분했는가? .....	159
[그림 6-2-4] 식생활에서 영양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청년 비율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한 청년 비율 .....	160
[그림 6-2-5]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던 비율 .....	161
[그림 6-2-6] 청년 집단별 우울 점수 .....	163
[그림 6-2-7] 실업 상태 혹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 수준 .....	165

[그림 6-2-8] 청년 그룹별 자살 생각 경험 비율 .....	166
[그림 6-2-9] 청년 집단별 아노미 지표 .....	167
[그림 6-2-10] 청년 집단별 주관적 건강 수준 .....	169
[그림 6-2-11] 실업 및 종사상 위치에 따른 주관적 건강 .....	170
[그림 6-2-12] 청년 집단별 행복 수준 .....	171
[그림 6-2-13] 실업 및 종사상 위치에 따른 행복 수준 .....	172
[그림 7-2-1]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	205
[그림 8-1-1] 연령대별 주택 점유 형태: 1985년 2010년 비교 .....	222
[그림 9-2-1]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	258
[그림 9-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	260
[그림 9-2-3] 거주 지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	262
[그림 9-2-4]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율 .....	271
[그림 9-2-5]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2
[그림 9-2-6]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3
[그림 9-2-7] 청년수당, 청년배당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4
[그림 9-2-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5
[그림 9-2-9]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6
[그림 9-2-10]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7
[그림 9-2-11]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8
[그림 9-2-12]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	279
[그림 9-3-1] 청년정책 대상(보편-선별)에 대한 인구집단별 태도 .....	283
[그림 9-3-2]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율 .....	286
[그림 9-3-3]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 비율 .....	287
[그림 9-3-4]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 점수(4점 만점) .....	288

#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 언론사 .....	343
〈부표 2〉 분석 활용 검색어 .....	344
〈부표 3〉 각각의 키워드·연도별 뉴스 기사 수집 현황 .....	345
〈부표 4〉 출현 빈도 상위 50위 단어(고빈도어) .....	350
〈부표 5〉 주제 분석 결과 .....	352

## 부그림 목차

---

[부그림 1] 발행 연도별 전체 뉴스 기사 건수 .....	346
[부그림 2] 데이터에 출현한 고유 단어의 분포(출현 빈도) .....	349
[부그림 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	354
[부그림 4]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일과 사회구조(Topic 0) .....	356
[부그림 5]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인권(Topic 5) .....	356
[부그림 6]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청년(Topic 6) .....	357
[부그림 7]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세계화(Topic 16) .....	357
[부그림 8]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Topic 18) .....	358
[부그림 9]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Topic 1) .....	359
[부그림 10]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경제 상황(Topic 12) .....	359
[부그림 11]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취업(Topic 2) .....	360
[부그림 12]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창업 회사(Topic 3) .....	361
[부그림 1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고용과 실업(Topic 8) .....	361
[부그림 14]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창업(Topic 11) .....	362
[부그림 15]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Topic 4) .....	363
[부그림 16]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관련 법안(Topic 7) .....	363
[부그림 17]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지역청년(Topic 10) .....	364
[부그림 18]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지원(Topic 13) .....	365
[부그림 19]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주거(Topic 15) .....	365
[부그림 20]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사회참여(Topic 9) .....	366
[부그림 21]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문화 여가 콘텐츠(Topic 14) .....	367
[부그림 22]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가치관(Topic 17) .....	367
[부그림 2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네트워크(Topic 19) .....	368



## Abstract

###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Project Head: Cheong, Sejeo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effective youth policy development by identifying the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youth.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needs of youths in terms of households, work, social insurance, economic condition, health, social support and networks, housing, and youth polic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a total of 3,018 people of ages 19 to 34 selected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focuses on youth diversity and understanding the liv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presented for each area, but if necessary,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cross the area. Examples are as follows: 1) the health and social support statu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2) the recognition of youth policy according to income and property level. In addition, by providing the policy implications of each area, the study intended to increase effectiveness in policy-making.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reviewing youth polic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ac-

## 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tual conditions and evidence, and specifying policy direction;  
2) active capturing inequality and enhancing efforts for active  
intervention; 3) the necessity of the specific objects, area,  
in-depth, and additional investigation for elaboration of youth  
social security policy.

\*Key words: Youth, Living Condition, Welfare Needs, Evidence based  
Youth Policy



## 1. 서론

-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정책 수요자의 욕구·실태에 대한 파악이 부재한 채, 고용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되어 왔음.
-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필요성, 공급량,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는 부족함.
- 청년의 문제는 노동뿐 아니라 주거, 건강 등 다차원의 문제임에 따라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차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청년기본법 제11조는 정부가 기본계획 및 효율적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총체적 삶을 실태와 욕구의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조사를 설계·수행하여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특히 노동, 사회보험, 건강, 주거, 경제, 청년정책,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를 파악해 청년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 2. 조사 내용과 표본 설계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를 모집단으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300개 집계구 평균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3,018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표본의 53.04%는 남성, 46.96%는 여성이며, 만 19~24세가 37.38%, 25~29세 32.14%, 30~34세가 30.49%를 구성함.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50.12%, 대학 재학/휴학/수료, 28.86%, 고졸 이하가 21.02%임.
- 가구원의 비율은 77.92%, 가구주는 22.08%로 가구주보다 가구원의 비율이 높았음. 가구주의 74.12%는 남성이었고, 가구주 중 53.91%는 30~34세였음.
- 가구주, 가구원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이 많았고, 비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분포해 있었음.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모 동거 청년이 56.7%로 가장 많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는 4인인 경우가 41.21%로 가장 많았음.
  
- 청년은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가 서로 다르고 생활 방식의 다변화로 생계와 주거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 가구, 가구 규정에 따른 경제 상황, 사적이전의 파악이 어려움.
- 이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1단계)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2단계)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을 10개로 구분함.

### 3. 청년의 노동

- 청년의 노동을 기초 실태와 일하는 청년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 주요 이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일 정책은 다양한 청년의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학업 중에 일을 하는 경우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들 수 있음.
  -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을 살펴본 결과, 사회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취약한 청년의 문제가 드러남. 고용주도 근로자도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우, 주휴수당, 최저시급, 근로 시간, 고용보험 등에 있어 모두 취약하였음. 일과 관련된 경험 또한 일터에서의 청년 노동자 보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함.
  -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정책 지형 검토를 통한 수요, 공급 장벽의 기제와 사각지대의 확인, 청년센터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통한 신뢰와 연대의 경험 제공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청년의 노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집단별 세부 심층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함.
  - 플랫폼을 활용한 일이나 초단시간 근로 청년, 구직 포기 니트(NEET), 지방에 거주하는 장기 실업 청년을 살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나 표본 규모를 확대한 조사가 필요함.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실태조사 규모는 타 인구집단 실태조사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청년층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함.

## 4. 청년의 사회보험

- 4장에서는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살펴 보고, 실직 경험과 소득보장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는 종사상 지위, 연령집단의 차이가 확인됨.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은 청년의 취업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험 가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에 적합하게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초기 청년의 경우에는 가입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업장 기반 가입 관리 강화,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후기 청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취업 기간과 가입률의 관계가 확인되므로 가입 여부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더불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은 실직 후 재취업에 평균 4.8개월을 소요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이는 8.2%에 불과하였음.
  - 실직 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 비용은 23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직 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는데, 주거비 필요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실직 기간 중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5. 청년의 경제

- 총생활비는 월평균 242만 6000원, 청년 비독립 1인은 125만 1000원, 청년 독립 1인은 136만 2000원임.
  - 식비는 총생활비의 37.4%(평균), 34.8%(중위) 수준에서 지출함. 주거비는 총생활비 대비 10.4%, 9.6%임. 청년 독립 1인의 주거비는 32만 1000원으로 총생활비 대비 23.6%를 차지함.
  
- 가구 총소득은 평균 469만 1000원, 중위소득은 450만 원 수준임.
  - 사적이전은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청년 비독립 1인의 사적이전소득은 94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49만 1000원)였음.
  
- 총재산은 약 2억 9900만 원이며,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총재산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함.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의 평균부채액은 6577만 원으로 청년 전체 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았음.
  
-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5만 6000원, 총생활비는 132만 1000원으로 청년이 속한 가구 대비 소득은 43.8%, 지출은 54.5%로 절반 정도였음. 총재산은 4368만 원으로 전체 청년 평균 가구 총재산인 2억 9880만 원의 14.6%에 불과함.
  
-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으며, 식비와 더불어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6. 청년의 건강

- 주관적인 건강 지표 등에서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견줘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으나, 정신건강에서 불안정성과 스트레스가 발견됨.
  - 일부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그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도 더 부정적임. 우울 정도를 묻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청년들이 고령층 다음으로 높음.
  
- 청년들의 건강 문제에서 성별, 학력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격차가 관찰됨.
  - 여성, 고졸 이하, 기타 유형 가구, 저임, 일용직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청년의 건강 수준은 상대적으로 심각함.
  - 불안정 상황의 끝에 이르는 ‘자살 생각’에서 고졸 이하(4.26%), 농어촌(6.40%), 기타 가구(6.52%), 200만 원 이하(4.02%) 청년들은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음.
  - 비교적 쉽게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앞선 세대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반면, 청년 세대들은 취업 전선에서부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
  
- 청년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은 첫째,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바우처 혹은 지역화폐의 활용과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 집단의 미충족 의료율은 4%가 넘고,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임금 청년들은 그 비율이 8% 이상으로 올라감.

## 7. 청년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 청년들은 건강, 가족 구성원, 금전,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가족’과 상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정적/심리적,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의 경우 ‘친구, 학교 선후배’와 논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친척과 같은 전통적 가족이나 관련 전문가 활용은 매우 적었음.
-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를 살펴보았음.
  -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은 물질적 지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지에서 가장 낮았음. 지지를 제공해 준 경험을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이 가장 낮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를 통해 지지의 원천을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 나누어 살펴 봄.
  -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평균 5.57(범위 1~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가족으로부터의 지지(5.63)가 가장 높았고, 중요 주변인(5.58), 친구(5.49) 순이었음.
  - 1인 가구의 경우 가족보다는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서 지지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사회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 8. 청년의 주거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는 15.59%였으며, 부모 독립 여부는 연령 및 학력, 취업 여부와 관계가 있었음.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 중 독립을 고려하는 청년은 30.50%였음.
  
- 청년들의 거주 실행수는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상 및 반지하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실행수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6.27%였으며 옥상이나 반지하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위치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은 0.85%임.
  - 1인 가구를 별도 분석하면, 비독립 1인 가구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40.81%로 가장 많았고, 독립 1인 가구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24.98%, 23.39%였음.
  -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상가나 공장 등과 같은 시설 내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4.59%로 나타남.
  - 독립의 이유는 학교나 학원과의 거리 또는 직장과의 거리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각각 39.96%, 35.97%) 혼자 살게 된 이래 이사 횟수는 평균 1.8회로 나타났으나 6~10회 이상 잦은 이사를 경험한 경우도 4.80%였음.
  
- 청년층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층이 접근 가능한 주거 자원이 공급될 필요가 있음.

## 9. 청년정책

- 전반적 정책 인지도는 약 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충실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집단은 초기 청년(19~25세), 고졸 이하 학력자, 1인 가구, 지역 청년, 낮은 경제적 계층, 불안정 노동 청년, 우울한 청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 등임.
- 청년정책의 제공에 있어 보편성보다 선별성을 더 중시하는 집단으로는 남성, 높은 연령층, 고학력층, 취업자, 2인 이상 가구, 고소득층이 꼽힘.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선별성보다 보편적 정책을 선호함.
- 청년정책의 수혜율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 영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가장 높고, 구직자(대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건강검진, 청년 매입·전세 임대, 청년 전월세 대출, 국가장학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들의 정책 욕구는 고용, 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의 순임.
- 청년 문제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혜율이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을 하고, 정책 만족도,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상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욕구에 상응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

## 10. 결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년정책 검토 과제는 다음 표와 같음.

영역	분석 결과	검토 과제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 청년(예: 실업, 불안정 노동, 1인 가구, 고졸 이하)의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사회적 지지 체계 문제</li> <li>교통비 지출 부담</li> <li>연령별, 종사자 지위별 상이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낮은 실업급여 수급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증진수단의 다양화 (바우처, 지역화폐의 활용) 모색</li> <li>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확대</li> <li>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li> <li>사회보험 확대를 위한 연령별, 종사자별 전략 방안 마련</li> <li>청년정책 공급 시, 청년의 다양성 고려 필요성</li> <li>중앙과 지자체 정책 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수요, 공급 장벽 검토</li> <li>지역사회 공동체 모임 활성화</li> </ul>
참여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특성에 따른 청년정책 인지도 차이(예: 초기 청년, 고졸 이하 청년, 1인 가구, 비수도권, 낮은 경제적 계층, 불안정 노동 종사 청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의 낮은 청년정책 인지도)</li> <li>정책욕구 우선순위 확인: 고용, 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li> <li>집단별 정책 방향 선호 방식 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부 집단별 정책 수단, 소통 전략 마련</li> <li>청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집단별 세부분석 및 논의</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청년의 일 욕구 확인 (경제적 독립 여부, 거주 상태, 학업 이행 상태)</li> <li>과중한 업무량,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과 같은 일 관련 경험</li> <li>낮은 노조 가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방향의 청년 일 정책(일의 보호와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li> <li>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업무 환경, 안전, 건강 관련 대책 방안 모색</li> <li>청년층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예: 청년센터의 인프라 확대 및 권한 실질화)</li> <li>신뢰, 연대의 경험 제공 방안 모색</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li> <li>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 및 진입 가능한 정책 과제 발굴</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에 대한 높은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자기탐색의 지원 방안(공급 체계, 지원 수단) 구체화</li> </ul>

- 이 연구는 기존 지표나 조사에서 살피기 어려웠던 청년 삶의 종합적 실태에 대한 파악과 정책 함의 도출이 가능함.
  -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34세 청년 3,018명을 조사하였으며, 사회적 독립 이행의 다양성과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를 살피기 위하여 생계 단위와 주거 단위를 교차하여 가구 유형을 총 10개로 세분하였음. 또한 종합적 설계를 기반으로 특정 영역뿐 아니라 영역 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연구는 부모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받고 있는 비독립 청년 1인 가구의 영역별 삶의 실태나 문제에 대한 탐색이 가능함.
  
- 사업장 규모, 교육 상태, 독립 상태, 지역 구분 등에 따른 영역별 주요 쟁점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현재 설계된 중앙과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 지형이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더욱 삶에 밀착하여 개발, 모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 연구 결과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불평등의 적극적 포착과 이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삶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사회 보장정책 정교화를 위한 세부 대상과 영역별 심층 조사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청년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표본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함.

\*주요 용어: 청년, 생활실태, 복지욕구, 근거 기반 청년정책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점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랜 시간 청년의 삶이 간과되어 온 데는 청년기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회 통념, 그리고 푸르렀던 날에 대한 망각과 윤색된 기억을 간직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의 문제와 삶은 계량 지표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변화하는, 이미 변화한 세상과 개인을 기존의 틀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는 문제를 문제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형화된 틀에 가두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거나 낚아채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정책 수요자의 욕구와 실태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채, 고용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지표의 뚜렷한 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노동, 주거, 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의 청년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포괄하는 제도와 정책과제가 등장하였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소득, 건강, 서비스, 교육 영역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국가 단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명시하여 포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된 것이다. 2019년 신설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은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의 일뿐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관계부처합동, 2020).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지역 정주, 주력 산업 청년 양성,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취지를 가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지원금, 주거 안정 사업, 교통비 지원 사업과 같은 여러 사회보장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표 1-1-1〉 청년정책추진단이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 방향

분야	추진 전략	주요 개선 과제
생활 지원	복지·건강·교통·문화 등 생활 전 영역에서의 촘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li> <li>▶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li> <li>▶ 청년 우울증 검사체계 개선</li> </ul>
참여 권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 확대</li> <li>▶ 청년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li> <li>▶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li> </ul>
일자리	취업·창업 지원 확대, 새로운 형태 일자리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li> <li>▶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li> <li>▶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 확대</li> </ul>
주거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li> <li>▶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li> <li>▶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li> </ul>
교육	학자금 부담 경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li> <li>▶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li> <li>▶ 현장실습제도 개선</li> </ul>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0).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p. 3.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책 설계는 필요성과 공급량,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청년 의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논의 단계에서 정책 구체화 단계를 거쳐 더 나아가 정책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행해

가는 동시에 구체적 정책 근거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청년기본법 제2장 제11조는 “①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4장에서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 창업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 주거지원(제20조), 청년 복지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의 총체적 삶을 실태와 욕구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설계, 수행하여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삶의 주요 영역인 청년의 노동, 사회보험, 건강, 주거, 경제, 청년정책,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의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 청년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 영역은 청년기본법 제2장 제11조와 제4장 제17조부터 제24조에 언급된 8개 영역과 밀접하며, 우리 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사회보험, 건강, 주거, 경제(생활비, 소득, 부채, 재산), 청년정책,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을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결정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연구는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제1절), 연구의 내용(제2절) 및 연구 방법(제3절)을 소개한다. 제4절

에서는 분석 결과 해석에 대한 당부를 담았다. 제2장에서는 실태조사의 구성과 내용(제1절), 조사표의 개발(제2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제3절), 표본의 일반 특성(제3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 조사표의 각 영역을 청년의 노동(제3장), 사회보험(제4장), 경제(제5장), 건강(제6장),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제7장), 주거(제8장), 청년 정책(제9장)으로 나누어 실태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아울러 종합적 차원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 보고서가 기초 실태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심층 논의는 후속 연구의 과제를 밝혀 둔다.

### 제3절 연구 방법

주된 연구 방법은 실태조사의 개발과 실시, 분석이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연구와 조사 검토, 연구진과 관련 내·외부 전문가, 청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자문회의, 서면검토, 청년 당사자 FGI 및 파일럿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전문가는 각 조사 영역 전문가뿐 아니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표 개발 과정은 제2장 2절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1 대면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 제4절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점

분석 결과의 해석은 수치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뿐 아니라 수치들 간에 내재된 의미와 초래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긍정적 신호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새로운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점들을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다수 연구진 또한 기성세대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비당사자성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조사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쓰임적 태생에 기반하여 기존 조사의 문항과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조사 문항을 활용하더라도 보기 구성이나 질문의 서술에 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보다 잘 답을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이 읽어 내지 못한 지점을 함께 읽어 내 주는 일까지를 독자들이 함께 해 주기를 요청한다. 니트와 같은 청년 내 세부 집단이나 새로운 소수집단의 발견, 또는 현재의 수치가 누적되거나 개입이 지연되었을 때 중·장년기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 등의 문제 발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치를 통해 드러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문제도 포함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술했듯, 청년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과 긍정적 신호들 또한 함께 찾아내 주기를 요청한다.





## 제2장

### 조사 내용과 표본 설계

제1절 조사 내용

제2절 조사표의 개발

제3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제4절 표본의 일반 특성



## 제 2 장 조사 내용과 표본 설계

### 제1절 조사 내용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 기준 시점은 2019년 10월 31일이며, 조사 내용은 청년 개인과 가구의 일반 특성과 삶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인 노동 및 사회보험 실태, 경제, 건강, 주거, 사회적 지지 및 관 계망, 주거, 청년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1).

〈표 2-1-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특성	-성별 -연령 -지역
가구 형태 및 주거 환경	<p>▶ 모든 응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와의 관계</li> <li>-가구 유형(경제적 독립 여부, 거주 상태)</li> <li>-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li> <li>-가구원 중 청년의 수(본인 포함)</li> <li>-가구원 중 아동 수</li> <li>-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li> <li>-거주 이력</li> <li>-주택 위치(지상, 반지하 또는 지하, 옥상)</li> <li>-점유 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등)</li> <li>-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li> <li>-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 또는 보증금</li> <li>-주거용 실패수</li> <li>-주거비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li> <li>-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비를 줄인 경험</li> <li>-거처에서의 퇴거 위험 경험과 그 이유</li> <li>-주거시설의 필수설비 기준 충족 여부</li> <li>-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채광, 방음, 습기와 곰팡이, 환기, 주택 방법, 재난</li> </ul>

26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구분	내용
	<p>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방 문제 경험</li> <li>-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냉방 문제 경험</li> <li>-주택 선택 시 중요 요소</li> </ul> <p>▶ 1인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자 살기 시작한 시기</li> <li>-혼자 살게 된 이유</li> <li>-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의 이사 횟수</li> <li>-주거공간 마련의 소요 자금 출처와 지원 형태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li> <li>-주택 탐색과정에서의 어려움</li> </ul>
<p>노동 및 사회보험 실태</p>	<p>▶ 취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주의 일 여부</li> <li>-일의 개수</li> <li>-근로시간</li> <li>-추가 근로 의향</li> <li>-플랫폼을 활용한 일의 여부</li> <li>-야간, 주말, 교대 근무 여부</li> <li>-총 근로소득</li> <li>-주된 일자리 만족도</li> <li>-주된 일의 수준과 교육수준과의 비교</li> <li>-4대 보험 가입 여부</li> <li>-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li> <li>-국민연금 미납부자의 미납 유형</li> <li>-국민연금 미납부자의 납부예외 사유</li> <li>-국민연금 미납 이유</li> <li>-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li> </ul> <p>▶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직 시기</li> <li>-산업분류</li> <li>-직업분류</li> <li>-사업장규모</li> <li>-종사상 지위</li> <li>-주당 근로시간</li> <li>-세전 월 근로소득</li> </ul> <p>▶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휴수당 적용 여부</li> <li>-시간당 임금 수준</li> <li>-근로시간 형태</li> <li>-고용관계</li> <li>-근로계약 기간 설정</li> </ul>

구분	내용
	<p>-근로지속 가능성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관련 추가 설문(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으로 가입한 경우, 그 이유)</p> <p><b>▶비취업자</b> -지난주 구직활동 여부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지난주에 일을 원하였는지의 여부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직장을 원하지 않은 이유 -이전의 일 경험 여부 ※ 현재 비취업이지만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 자리에 대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취업자와 동일한 조사 항목을 질문</p> <p><b>▶모든 응답자</b> -만 18세 이후 일자리가 있었던 총기간 -취업한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최근 3년 이내 일을 그만둔 경험 -일을 그만둔 이후 재취업 경험 -재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재취업까지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 이유 -일을 그만둔 기간 동안의 생계비 확보 방법 -일을 그만둔 이후 실업급여 신청 여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일을 그만둔 기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생각 -일과 관련된 경험(산업재해, 업무상 상해, 반복 작업, 과중한 업무량,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물리적 폭력의 위험,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야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교육수준(최종 학교/이수 여부/계열) -최종 이수 학교의 소재지 -부모님의 경제활동 여부</p>
청년정책	<p>-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중앙/지자체) -지원 정도에 대한 생각 -지원 방식(선별과 보편)에 대한 의견 -청년정책 유형별 인지·수혜·만족도 (취업 창업/소득/자산금융/주거/건강/교육/문화/교통) -향후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p>
건강	<p>-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p>

구분	내용
	-최근 1년간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의 여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주된 이유 -최근 1년 동안의 건강검진 여부 -주중 식사(횟수, 함께한 사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매식 횟수 -매식 시 한 끼당 지출 비용 -식생활 상황 -문제 음주 -자살 생각 -지난 한 달간의 정신적 어려움 경험 여부 -정신적 어려움 관련 약물 처방 경험 -우울 -아노미 -주관적 행복 -사회에 대한 신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생각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문제별(감정적/심리적, 건강, 금전적, 연애/결혼 문제 등) 도움을 청하는 대상(가족, 친척, 친구·학교 선후배, 직장동료·선후배, 소속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음 등)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받은 경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 -재산, 재무 관리 방식 교육 경험 -금융 불이행 관련 경험 여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활용한 방식(카드, 사채, 부동산, 자동차 매각 등)
경제	-생활비(식비, 월세,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가구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총소득) -가구 부채 및 재산(부채 총액, 학자금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이자)

자료: 저자가 작성함.

## 1. 가구 형태 및 주거 환경

### 가. 가구 형태

사회정책에서 가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을 단위로 한 정책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 제도는 개인을 단위로 설계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요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는 가구 단위의 소득,

재산 등을 기초, 참고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년은 사회적 독립 이행의 상태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취업 준비나 직업훈련 등 생활 형식의 다변화로 생계와 주거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 집단이다. 이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과 정책 관련자들은 청년의 이질성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인 가구에 따른 경제 상황, 사적이전의 파악이라는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제 상태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경제 상태, 경제적으로도 거주 차원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청년과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사적이전 없이 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청년의 경제 상황과 삶의 질은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가구의 정의는 조사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활용하는 가구는 생계와 주거가 복합된 개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또한 생계와 주거가 복합된 개념으로 가구를 규정한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주거를 달리할 경우 다른 가구로 정의한다.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일컫는데, 혈연 또는 비혈연의 가구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과 다를 수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대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세대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여러 차원을 고려하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을 10개로 구분하였다(표 2-1-2). 1단계에서는 ① 주거,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② 부모와 따로 살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세 집단을 구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지, 부부인지,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지 등과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적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10개의 가구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표 2-1-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 유형 분류

분류 1단계	분류 2단계
부모에게서 독립함 (별도 가구임)	① 청년 부부+자녀 가구 ② 청년 부부 가구 ③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 ④ 청년 독립 1인 가구 (셰어하우스 포함, 본인이 가구주임) ⑤ 청년 독립 기타 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가 35세 이상 부부 가구 등)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 받음	⑥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셰어하우스/하숙 포함, 본인이 가구주 아님) ⑦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형제자매와 사는 경우 등)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⑧ 부모 동거 청년 가구 (※부모와 청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 ⑨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혼인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포함)
기타	⑩ 기타 가구 (조손 가구, 친인척 동거 등 ①~⑨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가구)

자료: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p. 2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청년 부부는 가구주가 청년인 부부 가구로 한정하였고 원룸, 고시원 등에서 혼자 거주하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로 분류하였다. 부부 가구라도 가구주가 35세 이상인 경우는 청년 독립 기타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부모+청년 부부(+자녀)로 구성된 경우는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분류 또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식은 청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출 수준, 일의 특성,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의 파악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않은 청년과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않은 청

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생활비, 근로소득,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을 비교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하다. 또한 조사표에는 응답한 청년의 가구주 여부를 질문하여, 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종합하여, 가구 형태의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 유형과 더불어 응답 청년의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청년, 아동의 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 지역, 성별 등을 포함하였다.

## 나. 주거 환경

청년은 하숙, 기숙사, 자취 등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주 형태가 더욱 일정치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생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거지를 조사하게 되면, 청년의 주거실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청년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조사에서는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일 경우, 평일 또는 학기 중 주로 거주하는 곳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기존 조사에서 포함하지 않던 기숙사나 고시원, 상가 내 주거시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에는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거주한 기간, 위치, 점유 형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집의 가격, 면적, 주거비의 부담, 거처에서의 퇴거 위험, 상하수도, 전용입식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과 같은 필수적 설비 기준, 채광, 방음, 습기와 곰팡이, 환기와 같은 거주하는 곳의 상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냉난방의 어려움, 주거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포함되었다. 또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에는 혼자 살게 된 이유, 이사 횟수, 주거와 관련된 소요 자금(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의 출처, 주거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 2. 노동 및 사회보험 실태

청년의 일은 지위와 이행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시기와 상태에 대한 고려 모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취업, 비취업뿐 아니라 자기탐색 과정에 있는 청년의 노동 경험과 사회보험 실태 또한 조사하였다. 또한, 경찰과 비경찰, 취업과 실업, 임금과 비임금 근로, 근로소득과 니트 여부, 고용 다변화를 반영한 n잡, 확장실업, (초)단시간 근로, 플랫폼을 활용한 형태의 일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적용 여부, 노동조합 관련 실태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파악은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근로시간, 근로소득의 순으로 판별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개인이 3개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주된 일로 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일자리가 없다면 근로시간이 긴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3개의 일이 모두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시간도 같다면 3개의 일 중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이 높은 일을 주된 일로 판별한다. 향후 개인이 다수의 일을 갖는 것이 확산된다고 가정한다면, 노동 이력 및 일의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의 접근 방식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은 중장년과 달리 노동 이력이 짧아,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을 경우 주된 일의 판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노동 이력에서 가장 중요했다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자리나 오래 일한 일자리로 주된 일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1]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주된 일의 판별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 주된 일의 판별
▶1순위: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2순위: 근로시간이 긴 일자리 ▶3순위: 근로소득이 높은 순위

자료: 저자가 작성함.

우리 조사에서는 건강이나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야간, 주말, 교대 근무 여부 또한 질문하였으며, 일터에서의 안전과 괴롭힘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업무상 상해,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경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 3. 청년정책

청년정책과 관련되어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오재호, 2018; 이윤주, 김기현, 하형성, 손원빈, 2017)와 낮은 신뢰 수준이 지적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20대는 9.3%에 불과하다(강찬희, 정다미, 2019). 물론 청년이라 하더라도 당장 해당 청년정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청년정책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년들이 모든 정책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라도 이 조사에서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중앙과 지자체 청년정책의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대상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개별 청년정책 인지 정도와 경험 여부,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고용, 창업,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문화, 교통 영역 19개의 제도 인지와 경험 여부, 만족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의 정책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 4. 건강

청년의 정신건강과 식생활, 음주 및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이슈는 청년층 건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강은 적시 개입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의 건강 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작업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제기의 배경과 생활 특성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청년층의 건강 실태와 쟁점을 어떻게 포착해 낼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일상의 식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누구와 함께 하는지,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매식, 식생활의 상태, 규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미충족 의료 경험과 미충족 의료의 이유, 건강검진 경험 유무, 음주 관련 질문 및 장애 유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 청년층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정신적 어려움과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를 찾아간 경험이 있는지, 정신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우울과 행복, 자살 생각, 사회에 대한 신뢰, 아노미에 대한 내용 또한 조사에 포함하였다.

## 5.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은 신체, 정신건강뿐 아니라 여러 위협의 완충장치로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사는 청년이 겪을 수 있는 영역별 문제-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금전적 문제, 연애/결혼 문제-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관련 전문가 등 누구와 의논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와 주는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 6. 경제

가구에서 살았듯, 청년의 경제는 응답자와 조사 단위의 일치성 확보가 어렵다. 소득, 지출(생활비), 부채, 재산은 가구 단위의 파악이 필요하나 청년은 사회적 독립 이행 수준이 상이하여 생계공동체와 주거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비독립 1인 가구, 비독립 기타 가구),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취업 준비나 교육, 기타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의 경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응답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결혼하여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청년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과 지출을 개인 단위로 응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가구 단위로 지출하는 식비를 개인 단위로 환산하여 응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년의 경제 상태 파악은 정책의 타당성 확보, 불평등 개선 효과와 같은 정책 평가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 중요성이 크며, 세대 간 불평등 및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는 청년층 경제 상태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 필요성은 어느 영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사에서는 가구 형태를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계공동체와 주거공동체를 교차하여 구분한바, 가구 단위에 기반한 생활비와 소득, 부채 및 재산을 파악하였다. 비독립 가구의 경우에는 본가의 생활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 응답자 본인의 생활비를, 비독립 기타 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독립 가구의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함으로써 일부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부채, 재산, 지출 영역별 경제 규모를 파악한 조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의 빈곤과 자산, 부채 현황과 같은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응답자와 조사 단위의 일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조사에서는 연구진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재무 관리 교육, 신용불량 경험과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 또한 조사하였다.

## 제2절 조사표의 개발

조사표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주요 영역 및 내용은 착수 워크숍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또 조사표의 개발 과정에서 한국복지패널,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의료패널, 청년패널, 노동패널, 근로환경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거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참고한 연구 중 주요 연구로는 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2019)의 연

구와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2019), 서유정, 이지은(2016),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 등이 있다.

조사표는 연구진 회의, 관련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자문회의, 영역별 전문가,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 전문가로부터의 서면 자문, 청년 당사자 FGI 및 자체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조사 수월성 확보를 위해 문항 순서와 보기 구성 및 표현의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개발된 조사표는 우리 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2019-101호)을 받았다.

청년 당사자 FGI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회는 조사 문항 개발 전 서울·경기권과 부산권 청년을 대상으로, 나머지 1회는 개발된 조사표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및 문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FGI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등 각 영역에 대한 현재의 삶의 실태와 미래의 삶에 대한 생각, 설계된 문항이 청년의 일, 거주 상태 등을 포괄할 수 있는지, 소득, 지출, 부채를 포함하는 경제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포착된 문제 중 하나는 n개의 일자리를 동일한 시점에 시작하여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가 있어, 전술한 주된 일의 판별기준을 연구 목적 및 자문과 연구진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참여한 청년들은 FGI가 열린 지역 청년뿐 아니라, 현재 주 거주지는 해당 지역에 속해 있으나 출신 지역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온·오프라인 자문회의와 서면검토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원내·외 자문위원 2인과 노동, 사회보험, 주거, 경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각 분야 전문가 9명, 3개의 시민단체 및 청년 관련 단체, 1인의 인권 전문가로부터 해당 영역 또는 조사표 구성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문과 서면검토 과정에서는 추가 검토되거나 빠져야 할 문항은 없는지, 보기의 구성은 적절한지, 인권의 차원에서 더 조사될 필요가 있거나 변경

되어야 할 문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또 이렇게 검토된 조사표는 원내·외의 수시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 조사표의 질적 제고 과정을 거쳤다. 조사표 개발의 주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2-2]와 같다.

[그림 2-2-2] 조사표 개발

201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진 회의, 연구 방향성 도출</li> <li>▶선행연구, 관련 문헌, 조사 자료 분석</li> <li>▶각종 조사표 검토 및 조사표 초안 작성</li> </ul>
201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진 회의</li> <li>▶조사표 수정 보완</li> </ul>
201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항 개발, 수정 보완 목적의 청년 FGI 2회</li> <li>▶연구진 회의</li> </ul>
201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표 검토 및 수정 보완 (원내·외 자문위원,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활동가)</li> </ul>
201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FGI, 파일럿 테스트</li> <li>▶조사표 서면검토 및 수정 보완</li> </ul>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 조사 입찰 공고 및 재공고</li> <li>▶조사 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li> <li>▶조사표 서면검토 및 수정 보완</li> </ul>
201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표 서면검토 및 수정 보완</li> <li>▶조사표 개발 완료</li> <li>▶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제2019-101호)</li> </ul>

자료: 저자 작성.

## 제3절 표본 설계 및 가중치

### 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 설계 개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84년 11월 1일생~2000년 10월 31일생)로 선정하였고, 섬 지역, 특수사회시설의 경우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8)를 기준으로 통계청 집계구<sup>1)</sup> 리스트를 활용하여 추출한 300개 집계구에서 평균 10가구를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3018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본의 층화는 총 52개 층이며, 행정구역(시도, 권역, 동부·읍면부)과 집계구 유형(아파트, 일반)을 층화변인으로 둔다. 첫 번째 층화변인인 행정구역의 경우 1차로 시도별 통계 생산을 위해 8개 특별·광역시, 9개 도 지역으로의 층화 단계를 거치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각 4개 권역과 2개 권역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2차는 9개 도 지역의 동부·읍면부로의 층화 단계를 거쳤다. 두 번째 층화변인인 집계구 유형의 경우, 시도별로 30가구를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하였다. 참고로 제곱근배분법은 인구가 적은 시도 지역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즉, 이 조사는 전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추정과 지역별 추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총 300개 표본 집계구에서 평균 10명씩 조사하여 최소 7가구에서 최대 13가구를 조사하였다.

1)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GIS용으로 별도로 선정한 단위. 전국 평균 약 200가구가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됨. 집계구를 활용해 파악 가능한 정보는 집계구 내 세대 수, 가구 수, 1인 가구 수(비율), 아파트 수(비율), 평균 연령, 성·연령별 인구수 등임.

표본추출의 단위는 1차 추출 단위로 각 층에서 집계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고 2차 추출 단위로 각 표본 집계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의 수행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조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단위는 표본 가구 내 청년 1인이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이 가구 내 2인 이상인 경우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2-3-1〉 표집 블록 단위별 비교

구분	읍면동	국가기초구역	집계구	조사구
평균 면적	28.0km <sup>2</sup>	2.9km <sup>2</sup>	1.1km <sup>2</sup>	0.3km <sup>2</sup>
집락 내 동질성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층화 변수 정보 (가구 수, 아파트 비율 등)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층화집락표집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확률표집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접근성	행정자치부나 SGIS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	SGIS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통계청인증조사에 한해 통계청에서 제한적 자료 제공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 〈표 2-3-2〉 층화 구분

(단위: 개)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 광역시(7)	아파트, 일반 집계구	22
	9개 도 지역	10개 지역(시부)	아파트, 일반 집계구	20
		10개 지역(군부)	-	10
전국 계				52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 2. 표본 설계 세부 내용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표본 설계 내역은 다음 〈표 2-3-3〉과 같다.

## 〈표 2-3-3〉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 설계

분류	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모집단: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일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② 표본추출틀: 2018년 기준 통계청 집계구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 규모	① 표본 규모: 전국 3000명(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②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pm 1.83\%$ 포인트 (설계효과 1.41 적용 시 $\pm 2.17\%$ 포인트)
표본추출 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시/도(21개 권역), 동부/읍면부, 주택 유형 ② 표본추출 단위 - 1차: 집계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 집계구 내 가구(집계구당 10가구) → 계통추출 - 최종 조사 단위: 표본 가구 및 조사 대상자
표본배정 방식	- 시/도: 조사 대상자 수 기준 비례배분 - 권역(서울, 경기), 동부/읍면부, 주택 유형(일반/아파트): 비례배분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복합 표본 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 청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현황 등 - 공표 범위: 전국, 권역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 가. 모집단

〈표 2-3-4〉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모집단 현황이며, 〈표 2-3-5〉는 시도 및 성별 인구 현황이다. 전국 일반 가구는 1997만 9188호이고, 총인구는 5162만 9512명, 조사 대상 인구는 1096만 3939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일반 가구의 23.8%와 19.2%를, 조사 대상 인구의 25.7%와 2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4〉 모집단 현황(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가구, %, 명)

시도	일반 가구 수		총인구		조사 대상 인구(19~34세)	
	일반 가구	열%	인구	열%	인구	열%
전국	19,979,188	100.0%	51,629,512	100.0%	10,963,939	100.0%
서울	3,839,766	19.2%	9,673,936	18.7%	2,341,942	21.4%
부산	1,363,608	6.8%	3,395,278	6.6%	697,600	6.4%
대구	957,516	4.8%	2,444,412	4.7%	502,177	4.6%
인천	1,094,749	5.5%	2,936,117	5.7%	633,163	5.8%
광주	578,559	2.9%	1,490,092	2.9%	330,553	3.0%
대전	602,175	3.0%	1,511,214	2.9%	356,741	3.3%
울산	431,391	2.2%	1,150,116	2.2%	236,207	2.2%
세종	119,029	0.6%	312,374	0.6%	66,396	0.6%
경기	4,751,497	23.8%	13,103,188	25.4%	2,816,121	25.7%
강원	628,484	3.1%	1,520,391	2.9%	289,428	2.6%
충북	640,978	3.2%	1,620,935	3.1%	341,518	3.1%
충남	851,124	4.3%	2,181,416	4.2%	454,385	4.1%
전북	732,980	3.7%	1,818,157	3.5%	345,608	3.2%
전남	737,406	3.7%	1,790,352	3.5%	295,272	2.7%
경북	1,094,534	5.5%	2,672,902	5.2%	500,982	4.6%
경남	1,306,394	6.5%	3,350,350	6.5%	628,300	5.7%
제주	248,998	1.2%	658,282	1.3%	127,546	1.2%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 2-3-5〉 각 시도 및 성별 인구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만 19~34세 인구)		
	남자	여자	계
전 국	5,815,407	5,148,532	10,963,939
서 울	1,150,283	1,191,659	2,341,942
부 산	365,843	331,757	697,600
대 구	270,909	231,268	502,177
인 천	333,177	299,986	633,163
광 주	171,953	158,600	330,553
대 전	189,752	166,989	356,741
울 산	133,782	102,425	236,207
세 종	34,317	32,079	66,396
경기도	1,503,672	1,312,449	2,816,121
강원도	162,651	126,777	289,428
충청북도	190,139	151,379	341,518
충청남도	250,796	203,589	454,385
전라북도	187,358	158,250	345,608
전라남도	164,935	130,337	295,272
경상북도	282,948	218,034	500,982
경상남도	354,390	273,910	628,300
제주도	68,502	59,044	127,546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본추출틀 현황은 〈표 2-3-6〉, 세부 권역별 해당 행정구역 현황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2-3-7〉, 〈표 2-3-8〉과 같다. 〈표 2-3-9〉는 표본 설계의 층화 방법을, 〈표 2-3-10〉은 층별 모집단 집계구 수를 정리한 현황이다.

#### 44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2-3-6〉 표본추출틀 현황(집계구 현황)

(단위: 가구, %)

시도	집계구 수		가구	
	집계구	열%	일반 가구	열%
전국	101,536	100.0%	19,979,188	100.0%
서울	18,969	18.7%	3,839,766	19.2%
부산	6,814	6.7%	1,363,608	6.8%
대구	4,946	4.9%	957,516	4.8%
인천	5,744	5.7%	1,094,749	5.5%
광주	2,982	2.9%	578,559	2.9%
대전	3,032	3.0%	602,175	3.0%
울산	2,303	2.3%	431,391	2.2%
세종	549	0.5%	119,029	0.6%
경기	24,877	24.5%	4,751,497	23.8%
강원	3,093	3.0%	628,484	3.1%
충북	3,207	3.2%	640,978	3.2%
충남	4,245	4.2%	851,124	4.3%
전북	3,692	3.6%	732,980	3.7%
전남	3,676	3.6%	737,406	3.7%
경북	5,410	5.3%	1,094,534	5.5%
경남	6,698	6.6%	1,306,394	6.5%
제주	1,299	1.3%	248,998	1.2%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 2-3-7〉 세부 권역별 해당 행정구역 현황 1\_서울시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 2-3-8〉 세부 권역별 해당 행정구역 현황 1\_경기도

권역	해당 지역
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김포시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 2-3-9〉 층화 기준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개)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	아파트, 일반 집계구	22
9개 도 지역	10개 <sup>2)</sup> 지역(시부)	아파트, 일반 집계구	20
	10개 지역(군부)	-	10
전국			52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 2-3-10〉 세부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단위: 가구, %)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아파트	일반	일반 가구	열%
합 계	49,066	35,146	17,324	101,536
서울-북서	1,161	2,101	0	3,262
서울-북동	2,857	3,145	0	6,002
서울-남서	2,542	3,196	0	5,738
서울-남동	2,216	1,751	0	3,967
부산	3,707	3,107	0	6,814
대구	2,882	2,064	0	4,946
인천	3,187	2,557	0	5,744
광주	2,028	954	0	2,982
대전	1,820	1,212	0	3,032

2) 경기도는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전체 9개 도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구분됨.

46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아파트	일반	일반 가구	열%
울산	1,399	904	0	2,303
세종	411	138	0	549
경기-북부	3,321	1,440	1,860	6,621
경기_남부	10,154	5,880	2,222	18,256
강원	1,189	688	1,216	3,093
충북	1,190	697	1,320	3,207
충남	1,365	625	2,255	4,245
전북	1,700	908	1,084	3,692
전남	1,043	520	2,113	3,676
경북	1,764	1,131	2,515	5,410
경남	2,771	1,544	2,383	6,698
제주	359	584	356	1,299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본 크기는 3000을 목표로 하였고, 각 표본 집계구에서 약 10가구를 추출한 후 각 표본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구원 1명의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었다. 이에 따라 표본 설계에 의해 추출되는 1차 추출 단위인 표본 집계구 수는 300개이다.

조사 표본 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통계 작성 단위별 청년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도(precision) 높은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조사의 주요 통계 공표 단위는 지역 구분(서울, 광역시, 시 지역, 읍면 지역), 연령대, 성별 등이다. 이 조사는 1차 추출 단위인 표본 집계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므로 동일 집계구 내 조사 대상자의 유사성으로 유효표본 크기는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오차의 한계를 계산할 때는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해야 한다. 이 조사의 95% 신뢰 수준 모비율 추정의 오차의 한계는  $\pm 1.83\%$ 포인트(설계효과<sup>3)</sup> 적용 시  $\pm 2.17\%$ 포인트)이다.

1차 층인시도별 집계구의 표본배분은 각 시도의 조사 대상자 수(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과 제곱근배분법의 절충 방안으로 우선 할당(각 시도 50가구)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300개 표본 집계를 배분하였다. <표 2-3-11>은 시도별 일반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이다.

<표 2-3-11>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개, 명)

시도	모집단 현황		표본배분 현황(가구 수 기준)		
	집계구 수	조사 대상 인구 (만 19~34세)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서울	18,969	2,341,942	64	38	51
부산	6,814	697,600	19	21	19
대구	4,946	502,177	14	17	15
인천	5,744	633,163	17	20	17
광주	2,982	330,553	9	14	11
대전	3,032	356,741	10	15	12
울산	2,303	236,207	7	12	10
세종	549	66,396	2	6	6
경기	24,877	2,816,121	77	41	60
강원	3,093	289,428	8	13	11
충북	3,207	341,518	9	14	12
충남	4,245	454,385	12	17	14
전북	3,692	345,608	9	14	12
전남	3,676	295,272	8	13	11
경북	5,410	500,982	14	17	15
경남	6,698	628,300	17	19	17
제주	1,299	127,546	4	9	7
합계	101,536	10,963,939	300	300	300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3) 설계효과를 1.41(집계구 내 상관계수를 0.005~0.01로 가정)로 계산한 결과임.

48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구나 집계구를 이용한 표본조사에서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 <표 2-3-12>는 각 시도의 세부 층별 표본 집계구 수 현황이다.

<표 2-3-12> 세부 층별 표본 집계구 현황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집계구	일반 집계구		
서울-북서	4	7	0	11
서울-북동	9	11	0	20
서울-남서	8	11	0	19
서울-남동	8	6	0	14
부산	10	9	0	19
대구	8	6	0	14
인천	9	8	0	17
광주	6	3	0	9
대전	6	4	0	10
울산	4	3	0	7
세종	1	1	0	2
경기-북부	10	5	6	21
경기_남부	30	19	7	56
강원	3	2	3	8
충북	3	2	4	9
충남	4	2	6	12
전북	4	2	3	9
전남	2	1	5	8
경북	4	4	6	14
경남	6	5	6	17
제주	1	2	1	4
합계	140	113	47	300

자료: 한국리서치 작성·제공.

표본 집계구가 재건축, 재개발, 기타 사유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때에는 표본 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실사 단계에서 조사 불응 가구나 조사 불가능 가구가 발생할 경우 표본 가구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예비표본은 향후 조사의 표본 교체를 위해 예비표본 집계구를 당초 표본과는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조사 진행 중 표본 집계구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나 집계구 요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가중치

가중값 산정의 목적은 표본추출 과정에서의 추출률 차이를 보정하고, 조사 대상자의 응답률 차이와 모집단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과 표본 구조를 맞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가중값을 무시하고 분석하여 얻은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층화를 이용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설계가중치는 표본 설계에서 사용된 층화2단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집계구 내의 가구별 추출 확률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집계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집계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집계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가구 수(조사 완료+조사 미완+조사 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 완료 가구 수(응답)

### 가. 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집계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각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 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각 표본 집계구에서는 10가구를 표본 조사하기 때문에  $m_{hi} = 10$ 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상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1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값을 갖게 된다.

## 나. 무응답 조정

이 연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집계구별로 수행되었다. 무응답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조정계수} = \frac{m_{hi}}{r_{hi}}$$

## 다. 표본 가구 내 적격자 추출률 반영

선정된 표본 가구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 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앞서 구한 가구 내 추출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가구 내 추출률 차이를 가중치 작성 과정에 반영하였다.

$$\text{가구내 추출률} = \frac{1}{\text{표본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수}}$$

## 라. 벤치마킹 조정

벤치마킹 조정의 목적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므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벤치마킹 조정은 시도(17)×성(2) 인구분포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보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을 활용하여 모집단 정보와 일치시켰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text{최종 가구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times \text{가구 내 추출률 보정} \\ \times \text{사후층화 보정}$$

모비율 추정 방법 및 분산추정은 모평균 추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조사 변수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dots}}$$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자로부터의 응답 결과로 모비율 추정인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때에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 단위인 표본 집계구의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집계구에서 응답자 수이다.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는 전체 응답자 또는 가구에 대한 가중값의 합계이다.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 설계를 반영한 추정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 단위인 집계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집계구의 응답자 수이다.  $f_h = n_h/N_h$ ,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hat{p}) \right) / w_{...}$ ,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이다.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와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s.e(\bar{y}) = \sqrt{var(\bar{y})}, \quad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 제4절 표본의 일반 특성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3018명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전체와 가구주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2-4-1, 표 2-4-2). 전체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응답자의 53.04%는 남성, 46.96%는 여성이다. 만 19~24세의 응답자가 37.38%를, 다음으로 25~29세의 응답자가 32.14%, 30~34세의 응답자가 30.49%를 차지했다. 학력으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의 응답자가 50.12%로 절반을 차지했고, 대학 재학/휴학/수료의 학력이 28.86%, 그 외 고졸 이하의 학력이 21.02%였다.

지역 구분은 서울, 경기,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지역1 변수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한 지역2 변수로 살펴보았다. 지역2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범주 구분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019, p. 162)

기준을 활용하였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를,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한다. 지역1 변수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별로 비수도권이 47.18%, 경기가 31.46%, 서울이 21.36%를 차지했다. 경기와 서울을 함께 보면 수도권에 52.82%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2 변수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47.41%, 대도시가 46.50%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농어촌도 6.09%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였다. 취업 상태는 크게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취업자가 60.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학력 분포에서 대학 재학/휴학/수료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3.53%를 차지했다. 실업자는 5.52%였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를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가구원의 비율은 77.92%, 가구주 비율은 22.08%로 가구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가구주의 74.12%는 남성이었고, 여성 가구주는 25.88%로 가구주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훨씬 높았다. 가구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47.07%, 여성이 52.93%로 각각 절반에 가깝게 분포해 있었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30~34세가 53.91%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타 연령대보다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연령대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5~29세 가구주는 31.88%, 19~24세의 가구주는 14.21%를 차지했다. 가구원 연령 분포는 가구주와 반대로 19~24세가 가장 많은 42.94%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5~29세 가구원은 32.31%, 30~34세 가구원은 23.85%를 차지했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와 가구원의 경우 모두 대졸 이상이 각

각 61.37%, 46.94%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31.95%의 가구주가 고졸 이하, 35.14%의 가구원이 대학 재학/휴학/수료를 차지했다. 가구주 중 가장 적은 6.69%가 대학 재학/휴학/수료에 분포해 있었고 가구원 중 가장 적은 17.92%가 고졸 이하에 분포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 재학/휴학/수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독립적인 가구로 존재하기보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1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비수도권의 비율이 48.85%, 46.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29.06%, 32.14%, 서울 지역이 22.09%, 21.1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묶어 살펴본다면 가구주의 경우 51.15%, 가구원의 경우 53.29%를 차지한다. 지역2의 가구주와 가구원 분포를 살펴보면, 차례로 중소도시가 48.55%, 47.09%를, 대도시가 47.04%, 46.25%를, 농어촌이 4.41%, 6.56%를 차지했다. 장애 여부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98.65%, 98.36%로 대부분이 없음 응답자였다. 장애 있음 응답자의 경우 가구주가 1.35%, 가구원이 1.64%를 차지했다. 취업 상태의 경우 가구주는 92.15%가 취업자였으나 가구원은 52.11%만이 취업자였다. 가구주 중 실업자는 2.28%, 비경제활동인구는 5.57%로 대부분의 가구주가 취업자에 분포해 있었고, 가구원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1.45%, 실업자는 6.44%를 차지했다.

〈표 2-4-1〉 응답자 일반 특성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가구주	가구원
계		3,018	100	22.08	77.92
성별	남성	1,572	53.04	74.12	47.07
	여성	1,446	46.96	25.88	52.93
연령	19~24세	1,135	37.38	14.21	43.94
	25~29세	988	32.14	31.88	32.21
	30~34세	895	30.49	53.91	23.85
학력	고졸 이하	658	21.02	31.95	17.92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28.86	6.69	35.14
	대졸 이상	1,499	50.12	61.37	46.94
지역1	서울	641	21.36	22.09	21.15
	경기	946	31.46	29.06	32.14
	비수도권	1,431	47.18	48.85	46.71
지역2	대도시	1,410	46.50	47.04	46.35
	중소도시	1,441	47.41	48.55	47.09
	농어촌	167	6.09	4.41	6.56
장애 여부	있음	44	1.57	1.35	1.64
	없음	2,974	98.43	98.65	98.36
취업 상태	취업자	1,874	60.95	92.15	52.11
	실업자	163	5.52	2.28	6.44
	비경제활동인구	981	33.53	5.57	41.45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임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가구 특성과 관련한 응답자 특성을 가구 형태, 1인 가구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가구원 중 청년의 수, 가구원 중 아동 수에 따라 살펴보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56.7%의 부모 동거 청년이었다. 다음으로 청년 독립 1인 가구가 12.21%, 청년 부부+자녀 가구가 11.22%를 차지했다. 이를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분포와 다르게 가구주의 경우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가구 형태가 부모 동거 청년이 아닌 청년 독립 1인 가구(55.32%)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의 절반이 청년 1인 가구에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2.55%의 청년 가구주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이고, 12.28%는 청년 부부이다. 가구원의 경우 71.84%의 청년이 부모 동거 청년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 부부+자녀 가구와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비슷한 8%대로 분포해 있다.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80.82%의 청년은 비1인 가구, 19.18%는 1인 가구이다.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가 55.32%로 비1인 가구(44.68%)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구원의 경우 비1인 가구가 91.06%였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는 4인인 경우가 41.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인(22.78%), 1인(12.21%)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구주의 경우 1인인 경우가 55.3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2인(18.2%), 3인(12.79%)이었다. 가구원의 경우 전체 분포와 동일하게 4인인 경우가 49.93%로 절반에 가깝게 분포했고, 이어서 3인(25.61%), 5인 이상(14.39%)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구원 중 청년의 수의 전체 분포는 2인인 경우가 58.45%로 가장 많고, 1인인 경우가 32.58%를 차지했다. 가구주의 경우 1인인 경우, 즉 본인이 가구주이면서 가구 내 청년이 1인인 청년 1인 가구가 58.41%를 차지하고, 2인인 경우가 40.45%를 차지했다.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 내 청년이 2인인 경우가 63.55%로 가장 많고, 1인인 경우가 25.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가구원 중 아동의 수는 전체적으로는 없음이 81.06%를 차지했고, 1인인 경우가 12.90%, 2인인 경우가 5.45% 분포했다. 가구주와 가구원 기준으로는 전체 분포와 동일하게 가구원 내 아동 없음이 75.49%, 82.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구원 내 아동의 수가 1인인 경우는 가구주는 13.72%, 가구원은 12.66%, 2인인 경우는 가구주는 8.82%, 가구원은 4.5%였다.

58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2-4-2〉 응답자 일반 특성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체	가구주	가구원
계		(3,018)	100	22.08	77.92
가구 형태	청년 부부+자녀	253	11.22	22.55	8.01
	청년 부부	143	6.13	12.28	4.39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	6	0.13	0.60	0.00
	청년 독립 1인	547	12.21	55.32	0.00
	청년 독립 기타	118	3.38	3.06	3.47
	청년 비독립 1인	214	6.97	0.00	8.94
	청년 비독립 기타	27	1.17	0.00	1.50
	부모 동거 청년	1,650	56.70	3.25	71.8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0.90	0.93	0.90
	기타	38	1.18	2.00	0.95
소계		(3,018)	100	100	10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19.18	55.32	8.94
	비1인 가구	2,257	80.82	44.68	91.06
	소계	(3,018)	100	100	100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1인	547	12.21	55.32	0.00
	2인	353	11.87	18.20	10.08
	3인	788	22.78	12.79	25.61
	4인	1,085	41.21	10.44	49.93
	5인 이상	245	11.93	3.25	14.39
	소계	(3,018)	100	100	100
가구원 중 청년의 수	1인	1,493	32.58	58.41	25.26
	2인	1,382	58.45	40.45	63.55
	3인	130	7.92	0.83	9.94
	4인	13	1.05	0.31	1.25
	소계	(3,018)	100	100	100
가구원 중 아동 수	없음	2,486	81.06	75.49	82.63
	1인	376	12.90	13.72	12.66
	2인	140	5.45	8.82	4.50
	3인	14	0.53	1.76	0.18
	4인	2	0.07	0.21	0.03
	소계	(3,018)	100	100	100

주: 1)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2) 1인 가구 여부: 청년 독립 1인+청년 비독립 1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청년의 노동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 3 장 청년의 노동

### 제1절 들어가며

청년의 일과 관련된 쟁점은 다양하나 다음 세 가지로도 추려 볼 수 있다. 먼저, 상태의 문제다. 다수의 연구들은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일자리 진입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실습, 직장 체험 등 일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겠으나 청년의 일은 재학 중에도 존재한다. 덧붙여, 우리는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유독 청년의 일에 대해 알바인지 최종 일자리인지와 같이 일의 성격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사회로의 독립 이행이라는 생애주기의 특성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겠으나, 발생과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생각하면, 청년의 일이 언제까지 하게 될 일인지는 청년 자신도, 사회도 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일 자체의 보호와 함께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의 일은 보호와 지원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일은 변화의 문제와도 밀접하다. 이 변화는 기술, 사회, 노동환경뿐 아니라 청년 세대 가치관과 생활 방식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청년의 일은 현재뿐 아니라 주목받고 있는 문제나, 지금은 소수이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니트,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n잡,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청년의 상태, 보호와 지원, 변화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청년의 일을 분석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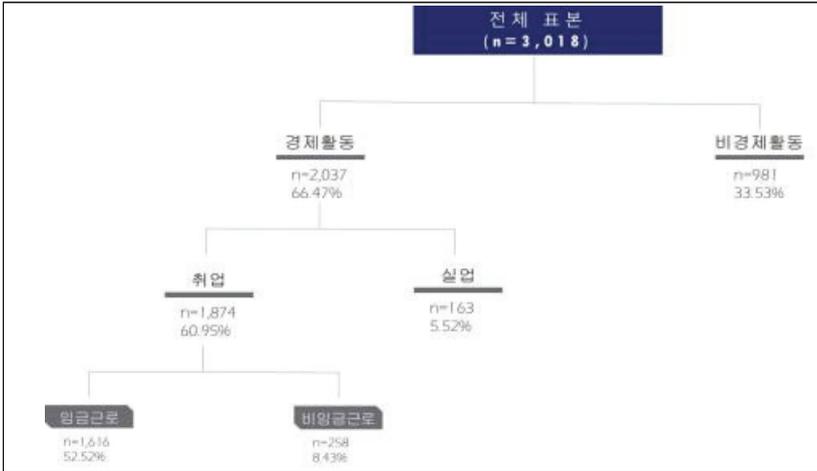
분석 결과는 기초 실태, 일하는 청년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 실태, 주요 이슈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리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기준한 19~34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19~34세의 노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를 기술하였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 실태에서는 산업과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주휴수당, 최저시급, 노동조합, 안전, 일 관련 경험 등을 다뤘다. 청년층 노동의 주요 이슈에서는 확장실업과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장, 단기 실업, 니트(NEET), n잡, 플랫폼을 활용하는 일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각 범주에 해당하는 청년의 표본 수를 고려할 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탐색의 차원에서, 또는 후속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 1. 기초 실태

[그림 3-2-1]은 우리 조사의 표본을 경활과 비경활, 취업과 실업,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한 결과다.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을 제시하였다. 비율은 전체 표본 수 중 각 범주의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 조사에서 경제활동 중인 청년은 표본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전체 조사 대상의 66.47%였으며, 취업 청년은 전체 조사 대상의 60.95%, 실업 청년은 5.52%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조사 대상의 33.53%였다.

[그림 3-2-1] 표본의 구성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참고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20~34세의 고용 동향은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20~34세 청년 고용 동향

(단위: %)

	2020. 1.	2020. 2.	2020. 3.
경제활동참여율	68.5	68.2	66.6
고용률	64.5	63.6	61.7
실업률	5.9	6.8	7.4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 계층은 15~19세, 25~29세, 30~34세와 같이 연령을 5세별로 층화하여 가중값을 산정하였으므로, 연령별로 집계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통계청, 2019, p. 54).

자료: 통계청. (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년 자료를 2020. 4. 15. 인출하여 분석함.

## 가.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율은 66.4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33.53%로, 청년 10명 중 약 7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2-2). 지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이라는 응답이 비경제활동이라는 응답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나, 비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청년만을 지역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그림 3-2-2), 비수도권 청년이 53.61%로 서울 20.22%와 경기 26.16%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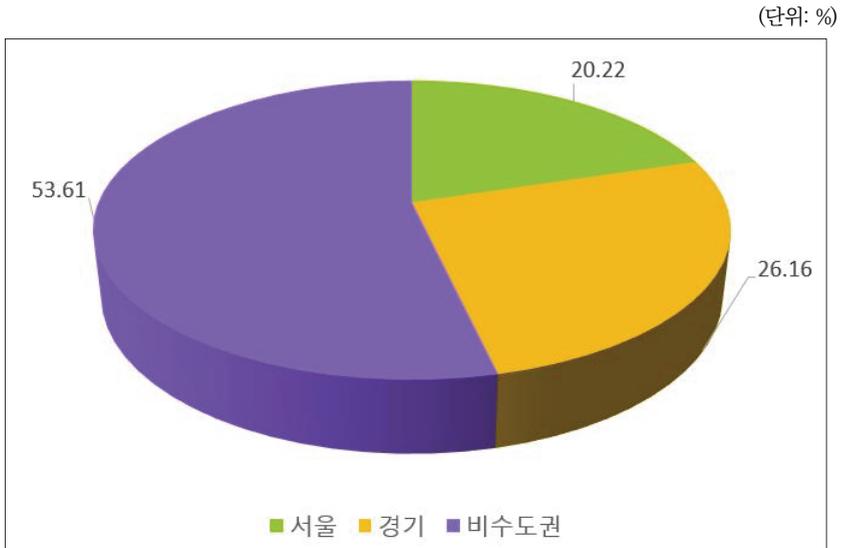
〈표 3-2-2〉 경제활동 상태 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경제활동 (n=2,037)	비경제활동 (n=981)
계		3,018	100	66.47	33.53
성별	남성	1,572	100	68.35	31.65
	여성	1,446	100	64.35	35.65
연령	19~24세	1,135	100	43.74	56.26
	25~29세	988	100	76.66	23.34
	30~34세	895	100	83.60	16.40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517	100	83.32	16.68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870	100	25.93	74.07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1,489	100	82.77	17.23
	기타	142	100	86.47	13.53
지역	서울	641	100	68.25	31.75
	경기	946	100	72.12	27.88
	비수도권	1,431	100	61.90	38.1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59	100	71.35	28.65
	청년 부부	143	100	87.20	12.8
	청년 독립 1인	547	100	93.81	6.19
	청년 독립 기타	118	100	77.90	22.10
	청년 비독립 1인	214	100	28.01	71.99
	청년 비독립 기타	27	100	52.42	47.58
	부모 동거 청년	1,650	100	61.16	38.8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100	84.27	15.73
	기타	38	100	78.58	21.42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2-2] 비경제활동 청년의 지역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취업과 실업

우리 조사에서 경제활동 청년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69%이며, 실업자 비율은 8.31%이다. 실업은 지난주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재학/휴학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졸업인 경우에 비해 실업 상태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다른 가구에 비해 청년 비독립 가구의 실업 비율이 높았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실업의 정의에 근거할 때, 교육 상태, 경제적

독립 여부와 거주 상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양한 상태에 있는 청년의 일에 대한 욕구를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청년 비독립 가구, 학업 중인 청년의 일 욕구를 들 수 있다.

〈표 3-2-3〉 취업자와 실업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취업자 (n=1,874)	실업자 (n=163)
계(경제활동 청년)		2,037	100	91.69	8.31
성별	남성	1,093	100	91.21	8.79
	여성	944	100	92.27	7.73
연령	19~24세	503	100	85.62	14.38
	25~29세	777	100	89.05	10.95
	30~34세	757	100	98.15	1.85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436	100	93.10	6.90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233	100	83.88	16.12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1,246	100	92.62	7.38
	기타	122	100	92.09	7.91
지역	서울	445	100	92.77	7.23
	경기	677	100	90.65	9.35
	비수도권	915	100	91.97	8.03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183	100	99.50	0.50
	청년 부부	124	100	98.60	1.40
	청년 독립 1인	513	100	96.39	3.61
	청년 독립 기타	83	100	98.46	1.54
	청년 비독립 1인	62	100	70.92	29.08
	청년 비독립 기타	16	100	71.00	29.00
	부모 동거 청년	1,010	100	88.13	11.8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17	100	100.00	0.00
	기타	29	100	90.25	9.75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 임금/비임금 근로

임금근로를 살펴보면, 연령별, 학력별, 가구 형태별 분석 결과는 이행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3-2-4). 19~24세의 상용직 비율은 53.13%로 25~29세 81.28%와 30~34세 87.91%에 비해 낮았으며, 일용/자활/공공근로에 해당하는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중인 청년들은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인 경우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자활/공공근로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았다.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는 <표 3-2-5>와 같다.

〈표 3-2-4〉 취업자 세부 분석\_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임금근로			
			상용 (n=1,229)	임시 (n=325)	일용/자활 공공근로 (n=62)	
계(임금근로자)	1,616	100	76.64	19.46	3.89	
성별	남성	873	100	77.19	19.59	3.22
	여성	743	100	76.00	19.31	4.70
연령	19~24세	415	100	53.13	38.75	8.12
	25~29세	619	100	81.28	15.90	2.81
	30~34세	582	100	87.91	9.98	2.11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346	100	75.74	19.52	4.74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188	100	22.33	63.27	14.41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989	100	86.53	11.82	1.65
	기타	93	100	80.22	15.33	4.45
지역	서울	370	100	76.41	18.72	4.87
	경기	544	100	75.36	20.16	4.48
	비수도권	702	100	77.84	19.30	2.87
가구 형태	청년 한부모(한부모)+자녀	132	100	90.14	7.38	2.48
	청년 부부	97	100	88.14	10.76	1.10
	청년 독립 1인	421	100	82.44	15.58	1.98
	청년 독립 기타	61	100	75.38	20.83	3.78
	청년 비독립 1인	44	100	32.36	63.28	4.35
	청년 비독립 기타	10	100	59.98	21.81	18.22
	부모 동거 청년	811	100	72.39	22.56	5.05
	부모 동거 청년 기타	15	100	75.93	18.10	5.97
	기타	25	100	80.24	17.46	2.3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3) 자활, 공공근로는 3 사례로 일용직에 포함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5〉 취업자 세부 분석 1\_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비임금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n=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n=181)	무급가족 종사자 (n=16)	
계(비임금근로자)		258	100	23.74	70.07	6.19
성별	남성	131	100	31.96	61.23	6.81
	여성	127	100	14.44	80.08	5.48
연령	19~24세	25	100	12.56	53.85	33.58
	25~29세	76	100	21.53	74.02	4.45
	30~34세	157	100	26.28	70.28	3.44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62	100	31.07	60.92	8.01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12	100	-	52.16	47.84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162	100	23.32	73.38	3.30
	기타	22	100	18.40	78.56	3.05
지역	서울	43	100	17.51	77.60	4.89
	경기	67	100	29.87	62.91	7.22
	비수도권	148	100	22.54	71.41	6.05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50	100	29.46	68.35	2.18
	청년 부부	25	100	43.47	56.53	0.00
	청년 독립 1인	74	100	31.31	68.69	0.00
	청년 독립 기타	21	100	13.08	75.69	11.23
	청년 비독립 1인	2	100	0.00	100.00	0.00
	청년 비독립 기타	1	100	100.00	0.00	0.00
	부모 동거 청년	82	100	8.93	77.37	13.7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	100	48.12	0.00	51.88
	기타	1	100	0.00	100.00	0.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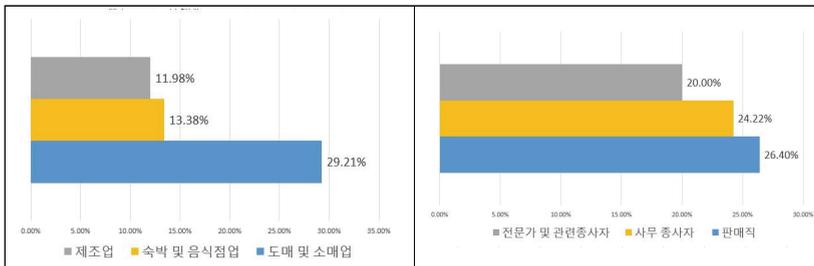
## 2. 일하는 청년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

우리 조사에서는 취업자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뿐 아니라, 현재 비취업 상태이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의 근로 여건과 근로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 가. 산업과 직업

산업유형분석 결과, 조사 대상 청년들은 도매 및 소매업(29.21%)과 숙박 및 음식점업(13.38%), 제조업(11.98%)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6.57%, 교육 서비스업은 6.12%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6.40%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24.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00%), 서비스 종사자(14.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주요 산업, 직업 분포



주: 1)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2) 주요 산업, 직업분포임에 따라 총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근로시간

청년들은 평균 43.26시간을 근로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인 41.5시간에 비해(통계청, 2018) 2시간 정도 많은 수치이다. 청년 근로자 중 초단시간 임금근로자는 청년 중 4.25%였다. 임용빈(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실근로시간 기준 4.2%로 비슷한 수준이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도 높았으며, 40~52시간 근로 비율은 사업장 규모와 정비례하였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가 6.15%, 52시간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29.66%였다.

〈표 3-2-6〉 일하는 청년의 근로시간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15시간 미만	15~40시간	40~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계	1,874	100	4.25	11.55	67.01	17.19	43.26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772	100	6.15	15.02	49.18	29.66	45.36
	5~50인	691	100	3.96	10.92	75.3	9.82	41.30
	50~300인	223	100	0.58	5.89	85.65	7.88	43.12
	300인 이상	133	100	0.00	1.74	93.72	4.54	42.83
	모름	55	100	7.23	19.28	68.19	5.3	39.88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종사자 지위를 전일제 임금근로로 한정할 경우, 임시직 전일제 청년이 상용직 전일제 청년에 비해 52시간 초과 근로하는 비율이 4.3%포인트 높았다.

## 7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3-2-7〉 전일제 임금근로 청년의 근로시간 분포

(단위: 명, %)

구분		계	15~40 시간 미만	40~52 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계(n=1,359)		100	1.36	84.55	14.09	45.67
종사자 지위	상용직 전일(n=1,194)	100	1.16	85.06	13.78	45.61
	임시직 전일(n=146)	100	2.39	79.53	18.08	46.58
	일용, 자활, 공공근로 전일 (n=19)	100	6.96	89.09	3.96	42.86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 근로소득

청년들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의 월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는 응답이 49.49%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했을 때는 비임금근로자의 300만 원 이상 월 근로소득자 비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8〉 일하는 청년의 월 근로소득

(단위: 명, %)

구분	계	50만 원 미만	50만 ~ 100만 원	100만 ~ 150만 원	150만 ~ 200만 원	200만 ~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취업자 (n=1,858)	100	3.45	5.95	4.21	14.62	49.49	22.28
임금근로자 (n=1,616)	100	3.89	6.53	4.47	15.81	51.25	18.05
비임금근로자 (n=242)	100	0.53	2.07	2.49	6.72	37.81	50.38

주: 1) 일시 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16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표 3-2-9>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 청년의 월 근로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계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100만 ~150 만 원	150만 ~200 만 원	200만 ~300 만 원	300만 원 이상
상용직 전일제 (n=1,194)	100	0.05	0.00	0.93	14.16	62.16	22.70
임시직 전일제 (n=146)	100	0.00	1.61	9.63	38.98	41.52	8.26
일용/자활/공공근로 전일제 (n=19)	100	0.00	0.00	15.44	26.51	38.73	19.32

주: 1)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2) 일시 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16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월 근로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할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은 31.27%인 반면 여성은 11.65%에 그쳤다.

<표 3-2-10> 청년의 성별 월 근로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계	50만 원 미만	50만~10 0만 원	100만~1 50만 원	150만~2 00만 원	200만~3 00만 원	300만 원 이상
남성 (n=996)	100	2.82	4.85	2.60	9.83	48.64	31.27
여성 (n=862)	100	4.19	7.26	6.11	20.29	50.50	11.65

주: 1)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2) 일시 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16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라. 최저시급, 주휴수당, 노동조합

청년들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수급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 실태는 다음 <표 3-2-11>과 같다. 임금근로자들은 6.54%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있었으며,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직 14.67%, 일용/자활/공공근로 6.40%, 상용직 4.48%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3.53%가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표 3-2-11> 종사자, 사업장 규모별 최저시급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최저시급 이상	최저시급 미만
임금근로자 전체		1,616	100	93.46	6.54
종사자 지위	상용직	1,229	100	95.52	4.48
	임시직	325	100	85.33	14.67
	일용/자활/공공근로	62	100	93.60	6.40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39	100	86.47	13.53
	5~50인	670	100	96.27	3.73
	50~300인	222	100	97.68	2.32
	300인 이상	131	100	99.52	0.48
	모름	54	100	95.22	4.78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주휴수당의 적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12>와 같다. 종사자 지위의 경우 상용직(54.59%)이 일용/자활/공공근로직과 임시직에 비해 주휴수당을 받는

다는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5.43%에 달했다.

〈표 3-2-1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 청년의 주휴수당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받음	받지 않음	모름
계		1,539	100	49.63	39.39	10.98
종사자 지위	상용직	1,223	100	54.59	34.70	10.71
	임시직	271	100	29.72	58.89	11.39
	일용/자활/공공근로	45	100	30.72	53.35	15.93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492	100	35.28	55.43	9.29
	5~50인	644	100	50.60	36.80	12.60
	50~300인	221	100	62.72	28.37	8.90
	300인 이상	131	100	69.97	20.09	9.94
	모름	51	100	62.71	18.01	19.28
고용관계	직접고용	1,461	100	50.18	38.76	11.06
	간접고용	46	100	51.01	43.38	5.61
	특수고용	32	100	21.22	64.95	13.83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13〉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표이다. 분석 결과 74.80%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1.11%로 다른 사업장 규모에 비해 가장 낮았다.

76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3-2-13〉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입함
계		1,539	74.80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492	61.11
	5~50인	644	79.36
	50~300인	221	82.52
	300인 이상	131	89.46
	모름	51	76.29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비율이 86.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80%로 매우 낮았으며, 노조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07%, 노조가 있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은 4.45%였다. 노동조합이 없다는 응답은 사업장 규모와 반비례했다.

〈표 3-2-14〉 노동조합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아님	노동조합 있고 가입 대상 이지만 노조에 가입 하지 않음	노조에 가입 했음	
계	1,616	100	86.68	4.45	4.07	4.80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39	100	97.24	1.56	0.72	0.48
	5~50인	670	100	91.07	3.16	2.58	3.20
	50~300인	222	100	78.02	5.78	6.34	9.86
	300인 이상	131	100	42.07	18.17	18.22	21.54
	모름	54	100	79.60	7.75	9.55	3.1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마. 야간, 교대, 주말의 일

야간에 하는 일과, 교대로 해야 하는 일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에 따르면, 야간 근로는 남성이 많고(73.87%),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성별 분포는 유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초기 청년(19~24세)의 비율이 45.84%로 높게 나타났다. 주말 근무는 야간이나 교대 근무만큼 성별, 연령, 학력, 지역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가구 형태의 경우 야간, 교대, 주말의 일 모두 청년 독립 1인의 비율이 부모 동거 청년 다음으로 높았다.

78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3-2-15〉 현재의 일이 야간, 교대, 주말의 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야간(n=185)	주말(n=317)	교대(n=109)
성별	남성	73.87	53.04	49.25
	여성	26.13	46.96	50.75
	소계	100	100	100
연령	19~24세	22.88	31.79	45.84
	25~29세	37.88	34.53	26.16
	30~34세	39.24	33.68	27.99
	소계	100	100	100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29.07	27.12	19.62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8.39	19.30	27.05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51.70	44.73	44.17
	기타	10.83	8.85	9.16
지역	서울	14.80	18.01	26.42
	경기	41.66	36.92	35.02
	비수도권	43.54	45.07	38.56
	소계	100	100	1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9.22	11.85	6.23
	청년 부부	8.30	7.98	7.56
	청년 독립 1인	22.59	15.66	12.88
	청년 독립 기타	3.50	6.64	1.62
	청년 비독립 1인	1.56	4.35	6.58
	청년 비독립 기타	0.60	1.31	1.09
	부모 동거 청년	50.95	49.64	60.8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1.44	0.71	1.09
	기타	-	-	-
소계	100	100	1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바. 일과 관련된 청년의 경험

〈표 3-2-16〉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2440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상해, 반복 작업, 과중한 업무량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비율은 0.85%, 업무상 상해 경험 2.37%, 반복 작업 경험 25.32%, 과중한 업무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1.74%였다. 또 혼자서 일하는 피로움과 무서움을 경험했다는 청년은 6.51%였으며,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와 관련된 일 경험이 있는 청년은 7.73%였다. 업무상 상해를 포함하여 이 두 가지는 위험한 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을 경험한 청년도 14.08%나 되었으며, 야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경험한 청년은 12.06%였다.

〈표 3-2-16〉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경험	경험 없음
산업재해	2,440	100	0.85	99.15
업무상 상해	2,440	100	2.37	97.63
반복 작업	2,440	100	25.32	74.68
과중한 업무량	2,440	100	21.74	78.26
혼자서 일하는 피로움과 무서움	2,440	100	6.51	93.49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2,440	100	7.73	92.27
물리적 폭력의 위협	2,440	100	1.35	98.65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2,440	100	14.08	85.92
야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2,440	100	12.06	87.94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17〉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계	3,018	100
매우 충분하다	111	3.89
충분하다	943	31.92
보통이다	1,323	43.62
충분하지 않다	538	17.39
전혀 충분하지 않다	103	3.18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3.62%, 충분하다 31.92%, 충분하지 않다 17.39%, 매우 충분하다 3.89%, 전혀 충분하지 않다 3.1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36.15%였으며, 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청년은 24.66%였다. 그 외에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은 16.18%였다.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10.07%, 원하는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은 6.56%였다.

〈표 3-2-18〉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단위: %)

구분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황
계	100	100	100	100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36.15	36.15	37.69	40.65
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부족	24.66	24.66	25.56	24.40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16.18	16.18	15.72	15.66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10.07	10.07	10.32	5.59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6.56	6.56	5.18	8.69
나이, 성, 학력과 같은 차별 문제	1.84	1.84	1.52	3.81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 부족	3.07	3.07	2.54	0.42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	1.24	1.24	1.20	0.77
기타	0.21	0.21	0.27	0.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청년 노동의 주요 이슈

청년 노동의 주요 이슈는 확장실업과 장·단기 실업, 니트,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 장의 도입부에서 서술했듯, 여기서 살펴볼 이슈들은 표본 수의 한계로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실태조사 표본 규모 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 가. 확장실업

확장실업은 고용보조지표에서 활용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잠재 취업 가능자를 분석하였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지난 1주간 36시간 미만 일했고,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을 원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잠재 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3-2-19>에 따르면, 확장실업은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다.

〈표 3-2-19〉 실업자 세부 분석\_확장실업

(단위: 명, %)

구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n=52)	잠재 취업 가능자 (n=30)	잠재 구직자 (n=62)
성별	남성	56.58	41.94	60.05
	여성	43.42	58.06	39.95
	소계	100	100	100
연령	19~24세	51.52	40.35	43.86
	25~29세	27.83	50.41	31.28
	30~34세	20.64	9.24	24.85
	소계	100	100	100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9.75	11.13	17.34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34.18	34.92	35.35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53.47	47.52	44.86
	기타	2.59	6.43	2.44
	소계	100	100	100
지역	서울	12.85	13.68	20.40
	경기	44.59	36.70	33.46
	비수도권	42.56	49.62	46.14
	소계	100	100	
가구 형태	청년 한부모(한부모)+자녀	0.99	17.17	7.43
	청년 부부	2.55	-	1.75
	청년 독립 1인	11.56	1.52	3.14
	청년 독립 기타	3.78	1.33	4.20
	청년 비독립 1인	9.92	15.11	4.20
	청년 비독립 기타	-	-	-
	부모 동거 청년	62.37	64.88	72.3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61	-	-
	기타	6.21	-	2.95
	소계	100	100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일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장·단기 실업: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표 3-2-20〉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실업자의 장·단기 실업을 살펴본 분석 결과로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 실업의 기준점은 실업 기간 24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단기 실업에 해당하는 비율이 86.56%, 장기 실업에 해당하는 비율은 13.44%로 나타났다. 장·단기 실업 모두 연령별로는 25~2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수도권인 경우가 서울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3-2-20〉 실업자 세부 분석\_장기 실업, 단기 실업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장기 실업 (n=14)	단기 실업 (n=108)
계(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		122	13.44	86.56
성별	남성	66	67.52	56.16
	여성	56	32.48	43.84
	소계	100	100	100
연령	19~24세	43	35.39	39.86
	25~29세	63	44.61	51.56
	30~34세	16	20.00	8.58
	소계	100	100	100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24	16.43	21.46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20	19.64	17.16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72	50.89	55.57
	기타	6	13.04	5.81
	소계	100	100	100
지역	서울	25	11.70	22.78
	경기	49	23.01	40.33
	비수도권	48	65.29	36.89
	소계	100	100	1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1	7.32	0.00
	청년 부부	2	0.00	2.09
	청년 독립 1인	14	4.82	8.43
	청년 독립 기타	-	-	-
	청년 비독립 1인	12	17.08	9.50
	청년 비독립 기타	5	0.00	4.95
	부모 동거 청년	85	70.78	72.49
	부모 동거 청년 기타	-	-	-
	기타	3	0.00	2.54
	소계	100	100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임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 니트(NEET)

〈표 3-2-21〉과 〈표 3-2-22〉는 니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니트는 실업자와 비경활 청년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한 뒤, 비취업자 중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군복무(군입대 대기 포함) 또는 정규교육기관 학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참고로 우리 조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 사례가 있었다.

분석 결과, 니트에 해당하는 청년은 470명이었으며, 이는 표본가중치 적용 전 15.57%, 표본가중치 적용 후 16.29%에 해당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0%포인트 많았으며, 연령은 25~29세가 4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30~34세 32.23%, 19~24세 24.55%의 순이었다. 학력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는 니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경우, 전문대 이상 휴학, 중퇴인 경우, 고등학교 수료·졸업인 경우,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한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이렇게 분류하였을 때, 고등학교 수료·졸업 니트와 전문대이상 수료·졸업 니트의 비율은 20%대로 유사하였다. 참고로 김기현(2017)의 연구에서 2016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니트 비율은 20.3%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고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현(2017)의 연구는 15~29세를 대상으로 니트를 분석했다.

〈표 3-2-21〉 니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계		470	16.29
성별	남성	184	39.45
	여성	286	60.55
	소계	470	100
연령	19~24세	120	24.55
	25~29세	202	43.22
	30~34세	148	32.23
	소계	470	100
학력	고등학교 중퇴 이하	4	0.69
	전문대 이상 휴학, 중퇴	48	10.56
	고등학교 수료 졸업	94	20.03
	전문대 이상 수료 졸업	324	20.03
	소계	470	100
지역	서울	97	21.61
	경기	156	30.64
	비수도권	156	47.75
	소계	470	1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77	20.21
	청년 부부	20	5.02
	청년 독립 1인	33	4.57
	청년 독립 기타	35	4.59
	청년 비독립 1인	28	6.00
	청년 비독립 기타	10	2.39
	부모 동거 청년	256	55.2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4	0.79
	기타	7	1.16
소계	470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임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22〉는 니트 유형을 실업 니트와 취/창업 준비, 진학 준비, 돌봄/가사, 능력/의사 없음/포기, 기타 유형으로 세분한 결과이다. 비경활 인구 중,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직장을 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취업/창업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창업 준비형에, 진학 준비라고 응답한 경우 진학 준비형, 가사, 양육, 간병이라고 응답한 경우 돌봄/가사, 근로 능력이 없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또는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 능력·의사 없음·포기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실업 니트는, 실업자 중 정규학업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실업자의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분한 결과에서 28.14%는 실업 니트로 확인되었고, 취/창업 준비 중 인 니트는 28.44%였으며, 돌봄/가사로 인한 니트 비율 또한 27.03%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근로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니트는 4.35%였다. 이러한 유형은 연령별 특성 또한 반영하고 있었다. 돌봄/가사 니트의 99.41%는 여성이었다.

(표 3-2-22) 유형별 니트

(단위: 명, %)

구분	NEET							
	사례 수	실업 니트 (n=138)	취/창업 준비 (n=130)	진학 준비 (n=26)	돌봄/가사 (n=122)	능력·의사 없음/포기 (n=23)	기타 (n=31)	
계(n=470)	100	28.14	28.44	4.97	27.03	4.35	7.07	
성별	남성	184	62.05	53.19	39.84	0.59	38.21	43.29
	여성	286	37.95	46.81	60.16	99.41	61.79	56.71
	소계	47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령	19~24세	120	35.08	25.91	54.83	1.91	32.28	37.63
	25~29세	202	54.61	56.26	28.06	19.39	34.95	52.34
	30~34세	148	10.31	17.83	17.11	78.70	32.76	10.03
	소계	470	100	100	100	100	100	100
학력	고등학교 중퇴 이하	4	0.00	0.00	2.52	1.59	3.02	0.00
	전문대 이상 휴학, 중퇴	48	12.95	11.18	5.12	3.58	22.53	21.65
	고등학교 수료 졸업	94	20.65	16.79	44.05	17.19	33.02	16.55
	전문대 이상 수료 졸업	324	66.41	72.03	48.30	77.64	41.43	61.80
	소계	47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서울	97	21.97	21.08	10.16	28.21	12.68	10.57
	경기	156	36.33	24.95	18.15	33.61	13.95	38.52
	비수도권	156	41.70	53.96	71.69	38.17	73.36	50.90
	소계	47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77	0.89	0.66	10.82	67.05	0.00	15.74
	청년 부부	20	1.63	3.50	0.00	11.12	12.77	0.00
	청년 독립 1인	33	9.03	4.12	0.00	0.96	11.60	1.39
	청년 독립 기타	35	0.88	0.95	0.00	14.73	0.00	1.22
	청년 비독립 1인	28	7.06	9.37	9.13	0.00	6.36	8.73
	청년 비독립 기타	10	3.87	3.12	4.96	0.64	0.00	0.00
	부모 동거 청년	256	74.67	76.88	70.54	3.09	66.53	72.92
	부모 동거 청년 기타	4	0.00	0.48	0.00	1.99	2.74	0.00
	기타	7	1.98	0.92	4.55	0.42	0.00	0.00
소계	47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입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3) 실업 니트의 경우, 실업자 중 정규학업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므로, 실업자의 사례 수와 다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라. 2개 이상의 일

〈표 3-2-23〉은 2개 이상의 일을 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청년은 조사 대상 중 54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전체 청년 중 1.61%, 취업 청년 중 2.63%를 차지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업 중에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 행정조교, 연구조교 등은 일자리에 포함하지 않고, 졸업 후 정식 일자리로 조교를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로 보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교 업무 특성의 넓은 스펙트럼과 학교별 조교에 대한 지위 부여나 대가 지원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표 3-2-23〉 2개 이상의 일

(단위: 명, %)

구분		2개 이상의 일 (n=54)
전체 청년 중 비율		1.61
취업 청년 중 비율		2.63
성	남성	60.31
	여성	39.69
	소계	100
연령	19~24	31.31
	25~29	33.97
	30~34	34.72
	소계	100
학력	고등학교 수료/졸업	16.16
	전문대 이상 재학/휴학	22.22
	전문대 이상 수료/졸업	40.51
	기타	21.11
	소계	100
지역	서울	11.65
	수도권	57.89
	비수도권	30.46
	소계	1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가구	24.71
	청년 부부 가구	1.88
	청년 독립 1인 가구	30.42
	청년 독립 기타 가구	-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4.70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
	부모 동거 청년 가구	35.62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2.66
	기타 가구	0.00
소계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임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마.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은 김준영 외(2019)의 ‘귀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제공받는 일자리도 있습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우리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의 세밀한 정의 제공 없이, 즉 제외될 수 있는 플랫폼(예: 일반적인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을 제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정교하게 플랫폼 노동 청년을 가려내기 어렵다. 우리 조사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을 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1.00%, 취업 청년의 1.64%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김준영 외(2019)의 연구에서 도출된 취업자 대비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1.7~2.0%이며, 청년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15~29세 기준 취업자의 11.2%, 30대 기준 취업자의 15.9%)는 분석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표 3-2-24〉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

(단위: 명, %)

구분		플랫폼 노동 (n=31)
전체 청년 중 비율		1.00
취업 청년 중 비율		1.64
성	남성	86.02
	여성	13.98
	소계	100
연령	19~24세	24.99
	25~29세	22.41
	30~34세	52.59
	소계	100
학력	고졸 이하	59.02
	대학 재학/휴학/수료	21.38
	대졸 이상	19.60
	소계	100
지역	서울	20.39
	수도권	32.25
	비수도권	47.37
	소계	1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가구	21.54
	청년 부부 가구	4.64
	청년 독립 1인 가구	20.44
	청년 독립 기타 가구	-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6.77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
	부모 동거 청년 가구	46.61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
	기타 가구	0.00
	소계	10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표본 내 6 사례임에 따라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의 일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자리 문제에 치우쳐 왔음을 반성해 온 청년 정책이 다시 청년의 일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영역 간 정책 우선순위를 넘어 생활 전반의 정책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일 문제는 다양한 청년의 삶을 녹록하지 않게 할 것임은 추측 가능하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충분히 포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욕구와 청년들이 처한 일 관련 여건, 실태에 대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던진다. 그리고 이 지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해결과도 무관하지 않다. 분석 결과는 첫째, 청년의 일 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실업의 정의에 근거할 때, 학력별 가구 형태별 분석 결과는 수료,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를 확인시켜 준다. 또한 현재와 같이 발생과 지속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정책이 일 자체의 보호와 일과 청년이라는 인적자본이 미스매치되지 않도록, 불안정 노동이나 단기 일자리의 회전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동기를 유지하게끔 설계될 필요를 시사한다.

둘째, 청년의 일에 대한 보호와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근로 여건과 환경, 일 관련 경험은 연령, 경력 등의 차원에서 권력의 주변부에 놓인 청

년들에 대한 인권, 건강, 안전뿐 아니라 권리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종사자 지위에 대한 고려 또한 요구됨은 물론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중앙과 지자체 청년 지원 제도에 자격 기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수요 장벽, 공급 장벽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한편, 청년센터의 물리적, 인적 인프라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는 청년들에게 신뢰와 연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주춧돌 역할을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권역별 청년소통 열린회의를 통해 수렴된 일 관련 정책 제안 내용(관계부처합동, 2020)은 우리 조사의 분석 결과와도 닿아 있다.

n잡, 플랫폼을 활용한 일, 확장실업, 니트, 비수도권 청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 충분한 표본 규모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7 노인 실태조사는 1만 명을 표본 규모로 설정하여 1만 299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장에서 다룬 일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청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청년 이슈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문제 해결 노력은 한국 사회 구조 전반에 자리 잡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누가 더 취약한지를 살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취약한 집단을 찾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 자체에 목적이 있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는바, 보편적 접근의 확대와 함께 세밀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제4장

## 청년의 사회보험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제3절 청년의 실직 경험과 소득보장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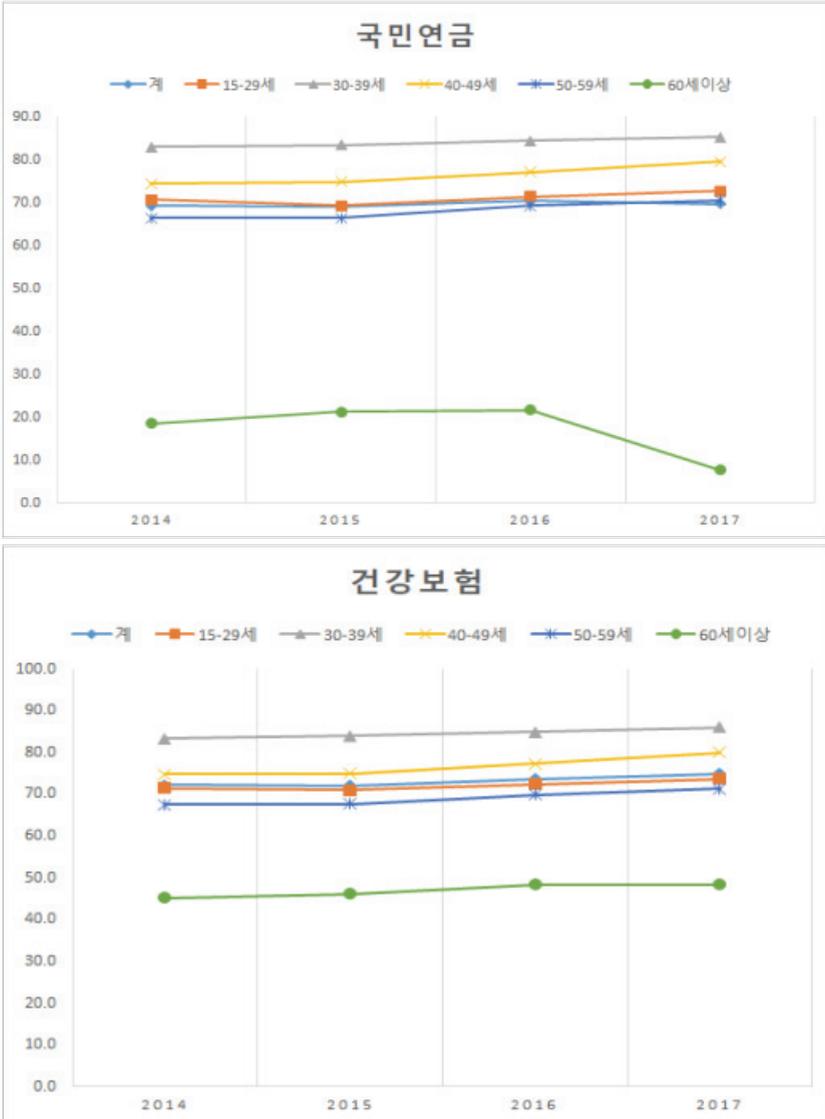
## 제4장 청년의 사회보험

### 제1절 들어가며

통계청(2020b)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난다. 15~29세 임금근로자의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72.5%, 건강보험 가입률은 73.6%이지만, 30~39세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은 각각 85.1%, 85.8%로 차이가 난다(통계청, 2020a).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두 집단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등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5.3%, 건강보험 가입률은 99.2%에 이르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7.3%, 25.0%에 그친다(통계청, 2020b).

[그림 4-1-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20b). 지역별 고용조사-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13))에서 2020년 3월 22일 인출 자료를 재구성함.

2019년 11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394만 4천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255만 5천여 명, 지역가입자는 137만 6천여 명이다. 또한 30세 이상~40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380만 9천여 명, 지역가입자 137만 3천여 명이다(국민연금공단, 2019). 같은 해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1,512만 명이므로(통계청, 2020c), 약 60.6%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 외에도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상태의 명확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 청년층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저소득의 취업하지 못한 인구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구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도 많은 대상이 청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키우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특히 국민연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집중된다. 이는 소득비례연금이 아닌 기초연금과 같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대응은 청년들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한다. 기존에는 청년들의 비정규 노동을 잠시 머무는 일자리로 생각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이행기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점점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년 일자리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가입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 1. 인구집단별 사회보험 가입 상태

사회보험 가입 상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취업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상태를 묻고 있다. 이때 직장가입이 아니고, 지역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업장 기반으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치를 확인하고, 뒤에서 미가입자, 지역가입자를 살펴보도록 한다.<sup>4)</sup>

다음 <표 4-2-1>은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이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률은 67.85%이며,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률은 68.16%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63.97%, 63.32%로 나타난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별로 보면 19~24세 집단에서 크게 낮다.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휴학/수료인 경우, 그리고 청년 비독립 가구에서 사회보험 직장 기반 가입률이 낮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 재학 중인 19~24세 청년층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 부부 가구와 청년 독립 가구에서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가지는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이 일자리 차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청년 집단이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노동시장 참가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 고용 형태 및 종사상 지위,

4) ‘미가입’으로 응답한 이들은 현재 사업장에서 종사자로서 미가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특성 차이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1〉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사업장 기반 가입률

(단위: 명, %)

	사례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1,874	67.85	68.16	63.97	63.32	
성별	남성	1,017	68.31	68.88	64.98	64.07
	여성	857	67.30	67.31	62.77	62.42
연령	만 19~24세	430	52.17	52.34	50.08	48.48
	만 25~29세	674	73.17	74.17	69.36	68.41
	만 30~34세	769	71.97	71.74	67.00	67.15
지역	서울	416	74.92	74.85	71.80	70.52
	경기	526	67.55	68.22	65.86	64.80
	인천	107	67.47	68.80	61.79	59.03
	비수도권	826	64.54	64.67	59.10	59.29
학력	고졸 이하	504	60.44	59.79	59.22	60.24
	대학 재학/휴학/수료	201	32.88	33.93	31.35	30.59
	대졸 이상	1,169	77.08	77.66	71.63	70.28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48	69.23	69.10	62.25	62.92
	청년 부부 가구	162	73.29	75.91	71.55	72.39
	청년 독립 1인 가구	340	70.99	70.73	64.90	64.73
	청년 독립 기타 가구	80	60.89	56.58	53.71	54.60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43	51.20	55.46	50.25	51.51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13	41.33	43.54	43.54	41.33
	부모 동거 청년 가구	940	67.29	67.71	64.36	62.8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23	62.76	62.76	62.76	62.76
	기타 가구	26	67.10	67.10	72.40	67.10

주: 1) 취업자 중 각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제시함.

2)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가입률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집단과 그 특성임.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청년 노동과 사회보험

### 가.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게는 산재보험 70.69%에서 높게는 건강보험 76.62%까지 나타나지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14.81%에서 산재보험 17.37%로 나타난다. 이때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기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4-2-2〉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1,874	67.85	68.16	63.97	63.32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9	91.31	90.66	84.76	83.14
	임시직 임금근로자	325	29.41	31.30	30.95	31.91
	일용직 임금근로자	59	15.25	25.49	19.07	19.07
	자활근로, 공공근로	3	77.02	77.02	56.77	33.79
	소계	1,616	76.37	76.62	71.77	70.69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자	61	27.97	27.97	30.08	34.57
	고용원 없는 자영자	181	11.65	12.53	11.75	12.75
	무급가족종사자	16	0.00	0.00	0.00	3.71
	소계	258	14.81	15.42	15.37	17.3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렇지만 같은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사업장 기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91.31%, 건강보험이 90.66%, 고용보험이 84.76%, 산재보험이 83.14%로 나타난다.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29.41%, 건강보험이 31.30%, 고용보험이 30.95%, 산재보험이 31.91%로 나타난다.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15.25%, 건강보험이 25.49%,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19.07%로 나타난다.

〈표 4-2-3〉 연령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1,613	76.37	76.62	71.78	70.73
19 ~24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216	82.37	80.92	77.31	73.90
	임시직 임금근로자	167	24.33	25.59	24.40	24.37
	일용직 임금근로자	32	9.67	17.27	13.00	13.00
	소계	415	53.98	54.31	51.59	49.76
25 ~29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502	92.06	91.58	85.31	83.42
	임시직 임금근로자	100	39.19	41.98	42.60	43.91
	일용직 임금근로자	15	13.41	27.29	21.25	21.25
	소계	617	81.57	81.98	76.82	75.49
30 ~34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511	94.27	93.79	87.28	86.65
	임시직 임금근로자	58	27.44	29.53	29.88	32.85
	일용직 임금근로자	12	32.70	45.43	32.70	32.70
	소계	581	86.35	86.39	80.44	80.18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편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도 청년의 연령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난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9~24세, 25~29세, 30~34세의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률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9~24세의 경우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낮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이 연령대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차이와 더불어 연령도 낮은 가입률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 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표 4-2-4>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1,613	76.37	76.62	71.78	70.73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267	23.95	26.77	25.96	26.79
	40시간 이상	1,346	86.79	86.53	80.89	79.46
월 근로 소득	100만 원 이하	192	15.34	19.20	18.42	18.41
	101만~200만 원	597	75.43	74.87	72.22	70.94
	201만~250만 원	425	90.04	90.25	82.28	80.07
	251만 원 이상	399	92.25	92.03	85.37	85.29
근로 시간 형태	시간제	257	21.73	24.66	24.12	24.33
	전일제	1,356	86.71	86.46	80.80	79.51
고용관계	직접고용	1,532	78.29	78.36	73.49	72.25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81	35.59	39.71	35.62	38.43
근로계약 기간 설정	계약기간 정해짐	297	70.37	70.24	70.93	69.19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1,316	77.67	78.01	71.97	71.06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4-2-4>는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청년의 사업장 기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회보험별로 적게는 23.95%에서 많게는 26.79%로 나타나는데, 이는 40시간 이상 청년의 가입률 79.46%에서 86.79%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월 근로소득은 100만 원 이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경우 15.34% 수준으로, 101만~200만 원 월 소득을 가지는 청년의 가입률 75.43%, 201만~250만 원 월 소득을 가지는 청년의 가입률 90.04%, 251만 원 이상 월 소득을 가지는 청년의 가입률 92.25%에 비해 크게 낮다. 이러한 월 소득의 차이에 따른 가입률 차이는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집단 간 가입률 차이가 확인되는 일자리 특성은 근로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고용관계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인 경우가 있다.

다음 <표 4-2-5>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장 기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각각 17.65%, 9.42%로 크게 낮다.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각각 16.48%, 1.77%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에서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각각 18.26%, 8.96%로 나타난다. 이렇듯 청년 임시직 근로자에 비해서 청년 일용직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더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시간 미만, 100만 원 이하, 시간제 고용에서 이러한 취약함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짧은 근로시간, 낮은 총임금의 특징을 보이는 일자리에서 사회보험 가입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용주의 가입 기피인지, 저임금을 고려한 청년의 자발적 선택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표 4-2-5〉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임시직 근로자						
계		325	29.41	31.30	30.95	31.91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179	17.65	20.29	20.78	22.50
	40시간 이상	146	44.29	45.22	43.81	43.80
월 근로 소득	100만 원 이하	143	16.48	18.90	18.97	19.94
	101만~200만 원	135	38.83	41.24	43.01	41.91
	201만~250만 원	31	44.48	42.20	33.80	35.83
	251만 원 이상	16	39.72	39.72	32.14	47.98
근로 시간형태	시간제	179	18.26	20.90	21.40	22.17
	전일제	146	43.43	44.36	42.96	44.14
고용관계	직접고용	288	29.75	31.36	31.04	32.02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37	26.65	30.81	30.22	30.99
근로계약 기간 설정	계약기간 정해짐	106	45.00	45.55	50.93	47.86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219	22.04	24.56	21.51	24.36
일용직 근로자						
계		59	15.25	25.49	19.07	19.07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2	9.42	19.21	10.49	10.49
	40시간 이상	17	27.82	39.04	37.56	37.56
월 근로 소득	100만 원 이하	33	1.77	13.72	5.00	5.00
	101만~200만 원	17	28.28	32.18	34.56	34.56
	201만~250만 원	2	51.89	51.89	51.89	51.89
	251만 원 이상	7	41.28	64.61	41.28	41.28
근로 시간형태	시간제	43	8.96	18.27	9.98	9.98
	전일제	16	31.29	43.91	42.24	42.24
고용관계	직접고용	48	16.95	25.03	21.56	21.56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11	7.10	27.74	7.10	7.10
근로계약 기간 설정	계약기간 정해짐	12	19.70	37.95	27.72	27.72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47	13.95	21.86	16.55	16.55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4-2-6〉 임시·일용직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384	27.10	30.35	29.02	29.81
19 ~24세	40시간 미만 근로	146	12.30	14.99	14.78	15.71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129	12.20	15.73	14.46	15.51
	시간제 근로	146	12.24	14.91	14.71	15.64
	5인 미만 사업장	119	16.61	18.51	16.09	15.30
	연령 전체	199	21.79	24.15	22.42	22.40
25 ~29세	40시간 미만 근로	50	26.24	33.12	27.64	31.12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32	22.39	27.04	22.39	22.39
	시간제 근로	52	27.61	34.32	28.97	28.97
	5인 미만 사업장	50	31.62	35.65	30.54	35.13
	연령 전체	115	35.53	39.89	39.58	40.70
30 ~34세	40시간 미만 근로	25	18.45	24.71	25.25	25.25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15	8.30	18.02	18.87	18.87
	시간제 근로	24	18.63	24.94	25.49	25.49
	5인 미만 사업장	29	12.15	17.12	12.15	15.69
	연령 전체	70	28.32	32.21	30.35	32.82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표 4-2-6〉은 청년의 일자리 특성 중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주요 요소로 등장한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시간제 근로에 더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기준으로 각각 연령대에서의 사업장 기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25~29세 연령집단에서 사업장 기반 사회보험 가입률이 미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25~29세 연령집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률이 26.2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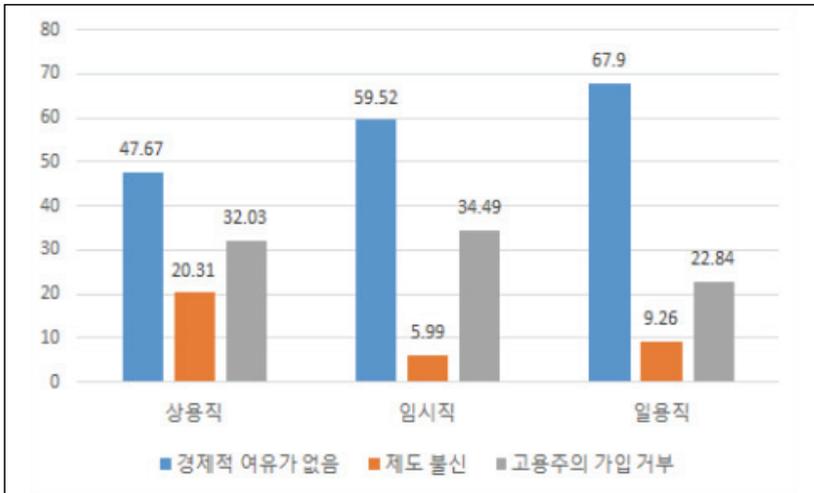
나타나는데, 19~24세 연령집단에서는 12.3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30~34세 집단에서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8.30%만이 사업장가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들 연령대 집단에서 저소득자의 사회보험의 가입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특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76.37%로 나타나며, 미가입자는 17.49%를 차지한다.

[그림 4-2-1]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앞의 [그림 4-2-1]은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를 종사상 지위별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을 선택하는 경우는 임시직, 일용직일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용주의 가입 거부로 인해서 가입하지 못하는 비율은 상용직, 임시직 임금근로자에서 높다.

〈표 4-2-7〉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징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명, %)

		취업자 수	경제적 여유가 없음	제도 불신	고용주의 가입 거부
계		293	57.13	10.63	32.24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174	54.16	7.01	38.83
	5인 이상 9인 미만	58	58.30	17.51	24.19
	10인 이상	55	61.77	16.07	22.15
	모름	6	85.09	0.00	14.91
세전 근로 소득	100만 원 이하	120	61.61	2.25	36.14
	101만~200만 원	117	54.62	13.41	31.97
	201만~250만 원	32	60.82	15.72	23.46
	251만 원 이상	24	40.96	35.50	23.54
주당 근로 시간	20시간 미만	83	65.64	0.45	33.91
	20~30시간	36	54.84	9.65	35.52
	30~40시간	40	54.39	15.47	30.15
	40시간 이상	134	52.99	16.30	30.71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위 〈표 4-2-7〉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청년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징별 미가입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미가입 사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고용주의 가입 거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5) 이하에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제외한 값을 제시한다.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장 규모로 볼 때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가입 거부에 따른 미가입률이 약간 더 높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 없음의 사유는 줄어들고 제도 불신에 따른 미가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진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20시간 미만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제도 불신에 따라 미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가입 거부에 따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표 4-2-8〉 현 일자리 취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상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취업자 수	미가입	직장가입	지역가입	가입 여부 잘 모름
계		1,613	17.49	76.37	2.32	3.83
취업 기간	2개월 이하	198	34.54	50.33	2.36	12.77
	3~5개월	121	32.07	57.58	3.2	7.15
	6~12개월	262	23.48	72.64	0.6	3.29
	13개월 이상	1,032	11.15	84.28	2.63	1.94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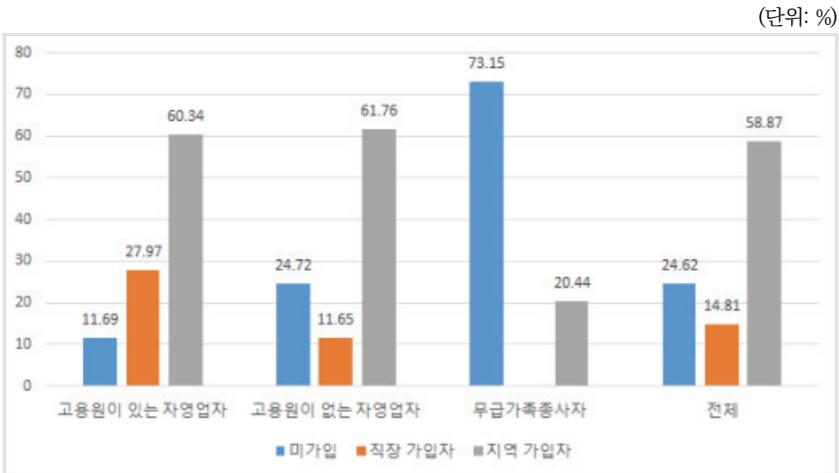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과 사회보험 가입 특성의 관련성이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가입만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 〈표 4-2-8〉을 살펴보면, 자활, 공공근로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미가입률은 2개월 이하 34.54%, 3~5개월까지는 32.07%로 나타나고, 6~12개월까지는 23.48%, 그 이후에는 20%대 미만의 미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2개월 이하 취업한 이들 중 12.77%가 가입 여부를 잘 모른다는 것인데, 가입 여부에 대한 낮은 인지는 기간

경과 이후 미가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에 대한 통지 등을 의무화하고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징

취업 청년 중 약 13.83%는 비임금근로자이다. 이들 비임금근로자는 일의 지속성, 소득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관계를 구성하지 않은 취업자에게 지역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2-2]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위 [그림 4-2-2]는 이들 비임금근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 및 직장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가

입률은 73.68%이며, 이 중에서 지역가입률은 58.87%이다. 지역가입률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미가입률과 직장가입률에서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피용자와 함께 사업장가입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률이 더 높은 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가입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고용원 유무는 해당 사업장의 월 소득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 5100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68만 1500원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 사업장가입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 4700원, 지역가입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 2100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직장가입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49만 6000원, 지역가입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18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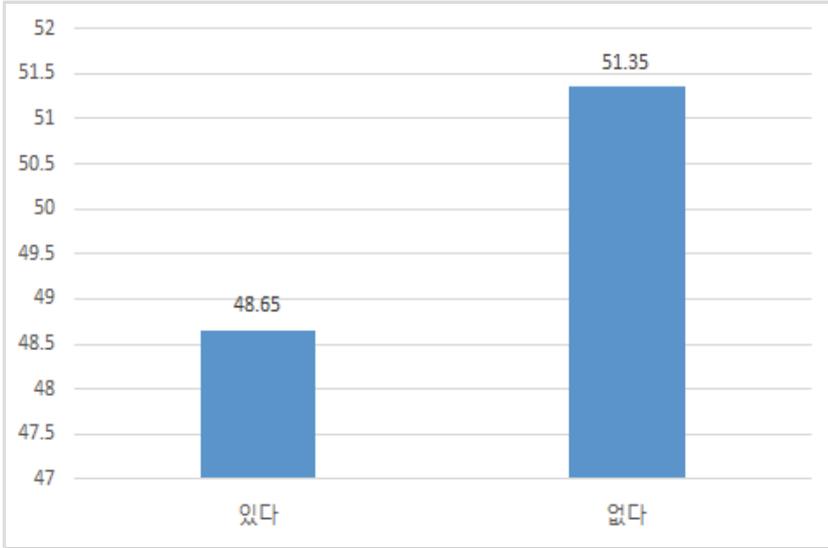
### 제3절 청년의 실직 경험과 소득보장

#### 1. 청년의 실직 경험

다음 [그림 4-3-1]은 18세 이후 1개월 이상 취업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비자발적 실직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 준다. 실직을 경험한 48.65%의 청년 중에서 64.24%는 재취업을 경험하였고, 재취업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4.8개월이다.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별로 보면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이들이 28.52%였으며, 2~3개월이 37.36%, 4~6개월이 17.98%, 7~12개월이 9.89%였으며, 1년 이상 소요된 이들도 6.25%에 달했다.

[그림 4-3-1] 청년의 실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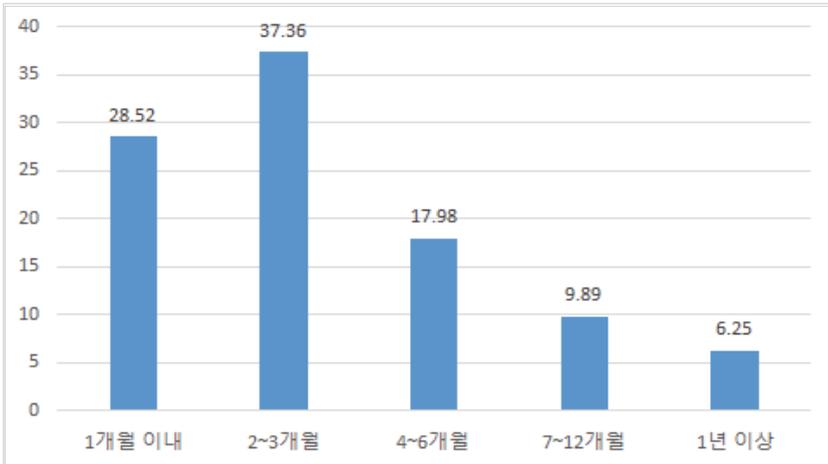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4-3-2] 청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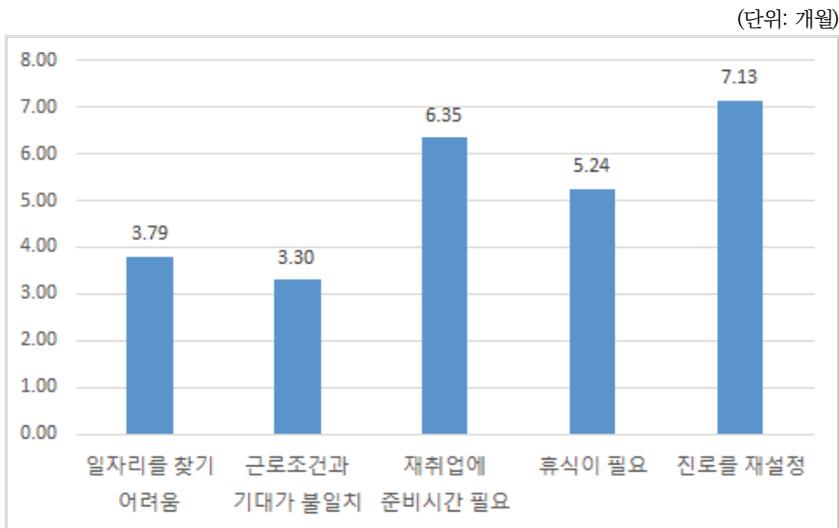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들의 재취업에 일정한 시간이 걸린 이유를 확인해 보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응답, 재취업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응답, 휴식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21~23% 수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유별로 재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3-3]과 같다. 진로를 다시 찾으려고 하였던 이들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7.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고, 재취업에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는 응답을 한 청년들은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6.35개월, 휴식이 더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이들은 5.24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거나, 근로조건과 기대가 불일치하였다는 이들은 각각 3.79개월, 3.30개월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약 2~3개월 짧은 취업 소요 기간을 가졌다.

[그림 4-3-3] 청년의 재취업 기간 소요 사유별 재취업 기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청년의 실직 경험과 소득보장

### 가.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비 확보 방법

실직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를 실업급여를 통해 확보한 이들은 실업 경험자의 8.82%에 불과하였다. 가장 다수의 실직 청년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비율은 39.87%에 이르렀다. 그 외에 저축 등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실직에 대응한 이들은 37.58%였으며,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6.14%, 비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6.99%였다.

청년 가구 유형에 따라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비 확보 방안 1순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먼저 청년 독립 1인 가구, 청년 독립 기타 가구,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의 경우에는 저축 등 기존 재산의 처분을 활용한 비율이 각각 58.00%, 47.68%, 33.68%로 높게 나타난다. 부모 동거 청년 가구, 청년 부부 가구는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다.

〈표 4-3-1〉 실직 청년의 기본적 생계비 확보 방안-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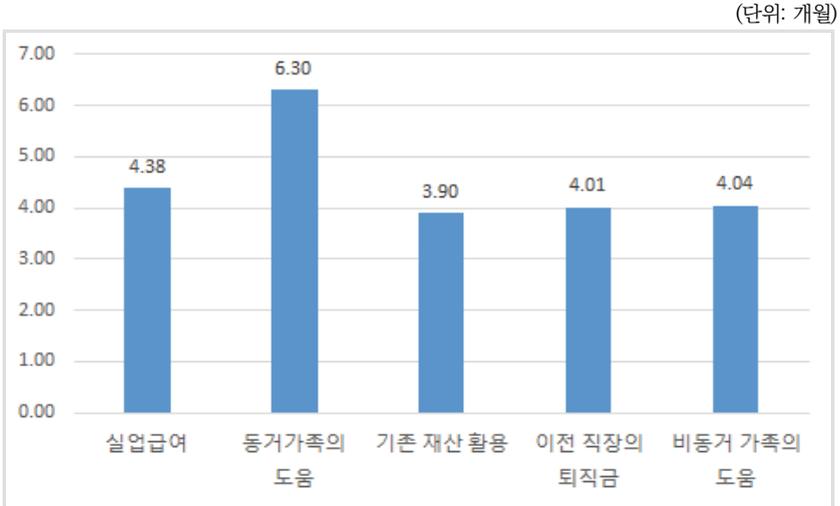
		실업 급여	동거 가족의 도움	저축 등 기존 재산의 처분	이전 직장에 서의 퇴직금	비동거 가족의 도움	대출	기타	
사례 수		1,176	8.82	39.87	37.58	6.14	6.99	0.09	0.5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83	16.06	37.79	32.35	12.63	1.17	0.00	0.00
	청년 부부 가구	52	14.25	34.43	33.94	12.96	3.52	0.00	0.89
	청년 독립 1인 가구	230	11.19	10.55	58.00	10.62	8.20	0.29	1.16
	청년 독립 기타 가구	45	5.94	41.22	47.68	1.54	3.62	0.00	0.00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67	2.96	13.24	20.49	2.49	59.16	0.00	1.66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17	6.54	24.88	33.68	4.98	29.92	0.00	0.00
	부모 동거 청년 가구	657	7.10	50.56	35.52	4.32	2.05	0.09	0.35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7	15.05	43.46	41.49	0.00	0.00	0.00	0.00
	기타 가구	18	19.36	25.29	36.21	3.57	15.56	0.00	0.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생계비를 확보하는 방안별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먼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의 재취업 소요 기간이 6.30개월로 가장 길었고,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를 확보한 경우가 4.38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축 등 기존 재산의 처분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 경우가 3.90개월로 가장 짧았다.

[그림 4-3-4] 청년의 생계비 확보 방안별 재취업 기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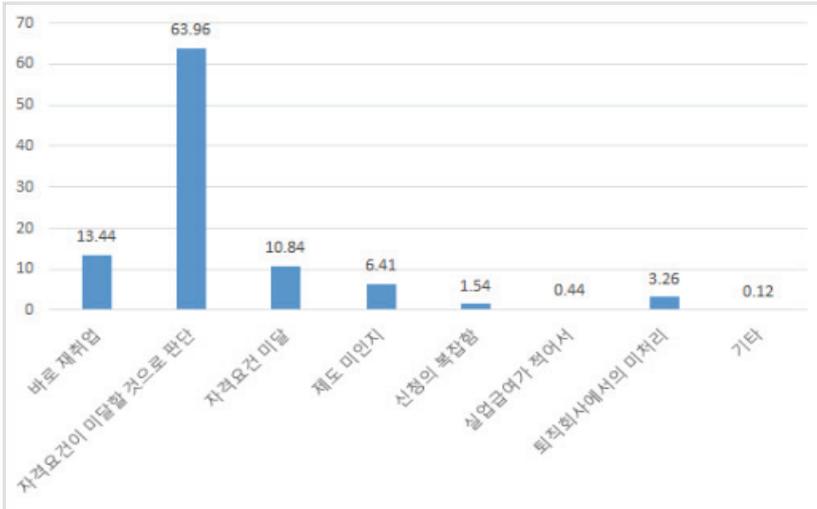
## 나.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미신청 사유

실직에 필요한 생계비를 실업급여 이외의 방법으로 확보한 이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은 3.84%였다. 즉,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실직을 경험했어도 실업급여를 미신청한 청년 중 63.96%는 자발적 퇴직으로 자격 요건이 미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0.84%는 고용료 납부 기간의 문제 즉,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실직 청년의 74.80%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에서 스스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4-3-5] 실업급여 미신청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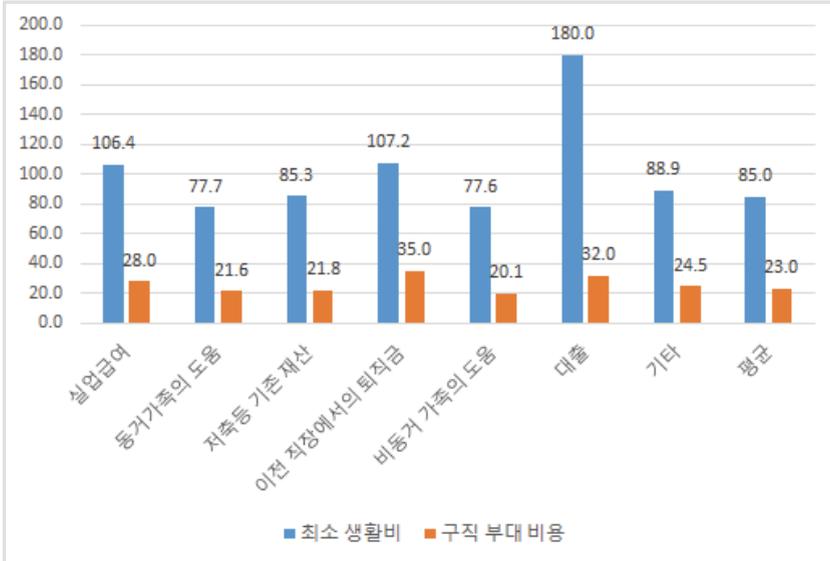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청년의 실직 경험과 필요 생활비

실직을 경험한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생활비는 약 85만 원이고,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이었다. 이러한 필요 비용은 대출을 이용하여 생계비를 확보한 청년이 18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이 각각 107만 2000원, 106만 4000원으로 높았다.

[그림 4-3-6] 생계비 확보 방법별 실직 기간 동안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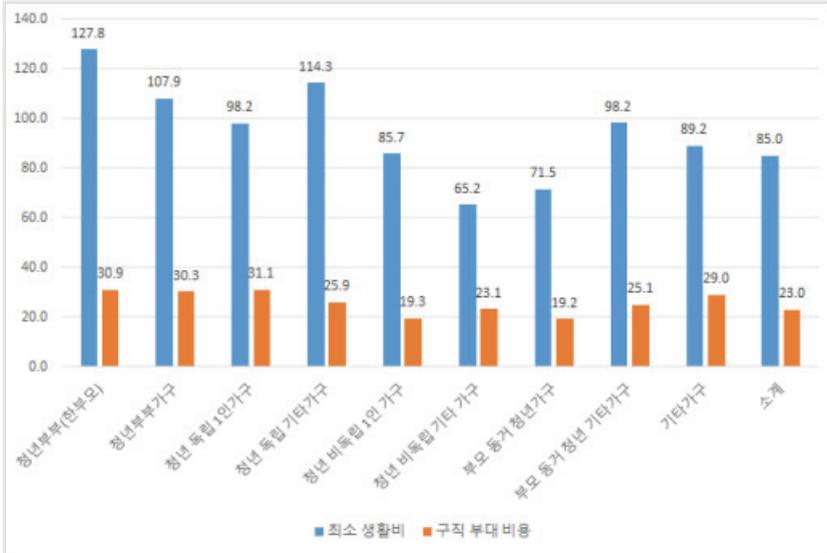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 [그림 4-3-7]은 청년 가구 형태별로 실직을 경험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는 최소 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독립 가구와 같이 스스로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서 최소 생활비가 30만~40만 원가량 높다. 청년들이 이것을 주거비와 같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인지는 이 조사 자료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구직 부대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대체로 주거비 등에서의 소요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4-3-7] 청년 가구 형태별 실직 기간 동안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4절 소결

4장에서는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과 소득보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종사상 지위 특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들의 당장의 소득 상실에 대한 대안과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나머지 1명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특징적인 사실도 발견되는데, 19~24세의 경우에는 종사상 지위 차이보다는 연령에서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특히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두드러진다. 이들 사업장의 취약성에 따른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면,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장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단지 보험료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지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 청년들의 현 일자리 취업기간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에서 짧은 취업기간일수록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대안 모색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행정 차원에서는 가입 여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30~34세 청년들의 경우 저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회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과 함께 가입 지원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30세 이상 청년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함에 있어 이들의 미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재취업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청

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4.8개월이었다. 이런 실직 기간 동안에는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저축 등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대응하고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8.82%에 불과하였다. 한편으로 실직 기간 동안 사용할 생활비의 확보 방법에 따라 실직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실직 기간이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본다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짧은 것도 문제일 것이다. 실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이때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로 판단되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청년의 경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 5 장 청년의 경제

###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정확하게는 청년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상황과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소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생활 유지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자료들에 의하면 청년층의 경우 독립해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거,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다른 지출을 줄여서 생활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p. 106). 우리 조사에서도 실제 청년 특성별로 지출 양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관련 청년의 지출 특성에 부합되는 지원 정책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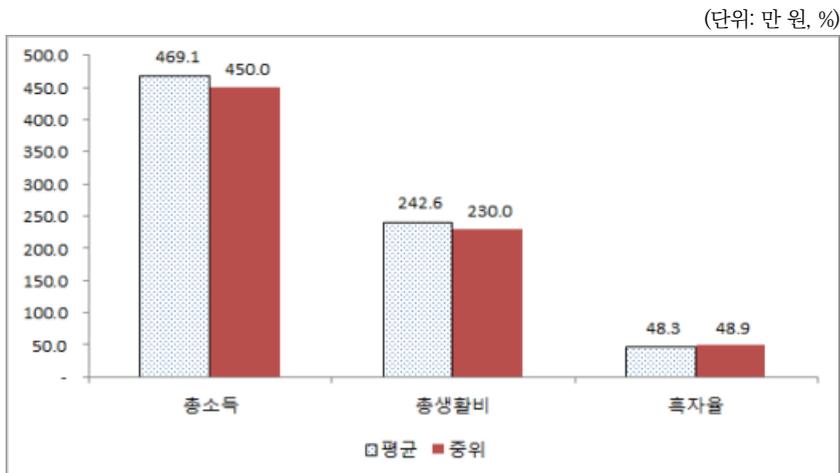
위기 상황(질환, 교육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외부의 조력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산을 들 수 있다.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위기에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 또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는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자산 보유 실태는 어떤 수준일까. 그리고 현재의 자산 보유 수준으로 충분한 생활과 위기 상황에 대처가 가능할까. 이하에서는 우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1. 청년 경제 상황 개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발견된 청년층의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69만 1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42만 6000원을 보여 주어, 48.3%의 흑자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벌어들인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흑자율을 보여 주지만 청년 가구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향후 분석에서 우리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청년 가구 유형에서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여 주는지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5-2-1] 청년 가구 월평균 총소득 및 총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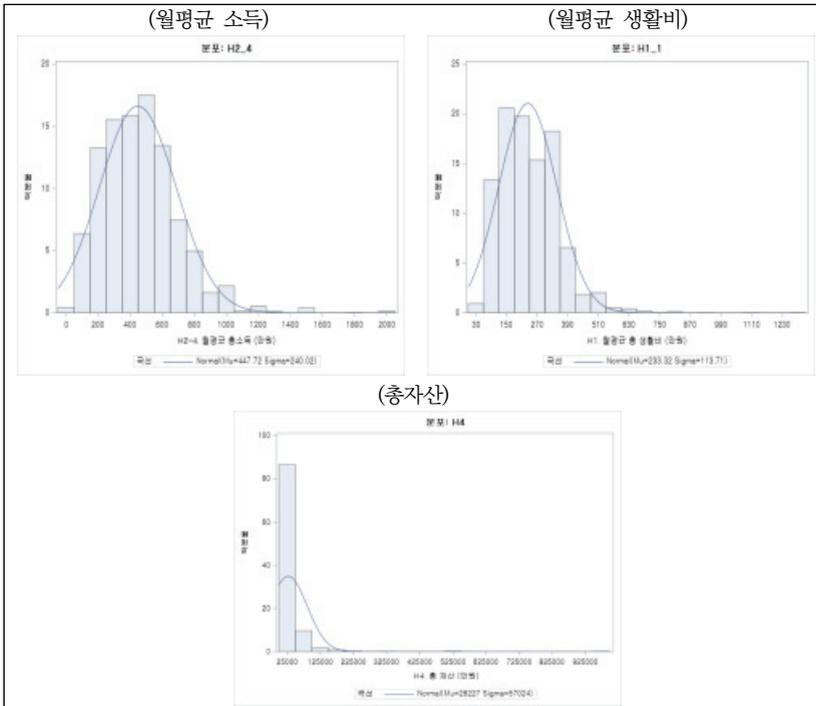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적으로 2억 9880만 원, 중위자산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급히 활

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년 가구 유형별로 자산 분포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른 장과는 다르게 청년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이번 장에서는 비율 보다는 금액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그림 5-2-2]와 같이 소득, 생활비는 물론 자산의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소득과 지출 및 자산 모두 평균과 중위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율보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2-2] 총소득, 총생활비 및 총자산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지출 수준

우리 설문을 통해 확인한 청년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 먼저 청년층의 지출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에 대한 지출은 총생활비, 식비, 주거비(월세와 주거관리비), 교육비(공·사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가 조사되어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총생활비 수준은 월평균 242만 6000원, 중위 기준으로는 230만 원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가계지출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가계지출은 약 333만 원, 소비지출은 254만 원으로 청년이 있는 가구의 총생활비는 가계동향조사 전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통계청, 2019a). 비슷하게 통계청의 전 가구 중위값은 약 215만 원(소비지출)으로 청년 가구의 중위지출에 비해서는 낮았다. 연령을 세분해 보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통계청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245만 원, 중위소비지출은 약 212만 원 수준이었다(통계청, 2019a).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청년에 비해 여성 청년 가구의 총생활비가 소폭이지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총생활비가 높았다. 이는 연령이 19~24세인 경우 학생이거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연령대의 청년보다는 총생활비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학/휴학/수료인 청년의 총생활비가 다른 청년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 형태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기타 가구의 총생활비가 304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모 동거 청년 가구가 290만 원으로 높았다. 낮은 생활비 수준을 보여주는 가구 유형은 청년 비독립 1인으로 125만 1000원, 청년 독립 1인이 136만 2000원으로 순이었다. 총생활비 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청년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출 수준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2-1〉 청년층 월평균 총생활비 및 식비

(단위: 만 원)

구분		총생활비		식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242.6	230.0	90.8	80.0
성별	남성	239.6	225.0	89.1	80.0
	여성	245.9	240.0	92.7	80.0
연령	19~24세	258.6	260.0	89.8	80.0
	25~29세	238.6	220.0	91.6	80.0
	30~34세	227.1	205.0	91.2	80.0
학력	고졸 이하	212.3	200.0	83.3	80.0
	대학 재학/휴학/수료	268.6	280.0	87.6	90.0
	대졸 이상	240.3	230.0	95.8	85.0
지역	서울	253.7	240.0	101.5	90.0
	수도권	244.8	241.0	91.8	80.0
	비수도권	236.0	225.0	85.3	8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32.5	218.0	91.6	80.0
	청년 부부	208.4	200.0	88.0	80.0
	청년 독립 1인	136.2	125.0	50.2	50.0
	청년 독립 기타	207.7	200.0	83.9	80.0
	청년 비독립 1인	125.1	112.0	35.6	30.0
	청년 비독립 기타	171.8	180.0	65.4	50.0
	부모 동거 청년	290.0	290.0	107.7	100.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304.5	305.0	120.0	100.0
	기타	153.9	130.0	57.1	5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식비 지출 규모를 보면, 청년층은 평균적으로 90만 8000원, 중위 기준으로는 8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총생활비의 37.4%(평균), 34.8%(중위) 수준에서 식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특성별로 보면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에 비해 식비 지출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청년의 식비 지출이 많았다. 지역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식비가 가장 높은 101만 5000원이었

으며 비수도권역이 85만 3000원으로 낮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총생활비와 동일하게 부모 동거 청년 기타 및 부모 동거 청년 가구의 식비가 120만 원, 107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낮은 식비를 보여 주고 있는 청년 가구 유형은 청년 비독립 1인과 청년 독립 1인이 각각 35만 6000원, 50만 2000원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중에서 식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지출이 주거비 항목이다. 우리 조사에서는 주거비를 월세와 주거관리비로 구분하여 그 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주거비 전체 평균은 25만 2000원, 중위값은 22만 원으로 총생활비 대비 10.4%, 9.6% 수준이었다.

청년 특성별로 주거비를 보면 성별, 연령, 학력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서울이 27만 500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주거비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에 대한 분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청년 비독립 기타가 34만 5000원(총생활비의 20.1%), 청년 독립 1인이 32만 1000원(총생활비의 23.6%)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이유는 바로 다음 항목인 월세 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비독립 1인의 월세 부담은 25만 원, 청년 독립 1인은 24만 1000원으로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독립하지 않은 청년은 월세보다는 주거관리비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세는 청년이 부담해야 하지만, 주거관리비는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주거관리비 항목에서는 월세에 비해 주거관리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단, 가구 형태에서 청년 독립 1인 가구, 비독립 1인 가구 등은 주거관리비보다 월세가 높았다.

〈표 5-2-2〉 청년층 월평균 주거비 및 관련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25.2	22.0	7.4	0	17.9	20.0
성별	남성	24.9	20.0	7.5	0	17.5	20.0
	여성	25.7	25.0	7.3	0	18.4	20.0
연령	19~24세	25.3	25.0	7.5	0	17.8	20.0
	25~29세	25.6	25.0	8.1	0	17.5	20.0
	30~34세	25.0	20.0	6.1	0	18.5	20.0
학력	고졸 이하	25.8	20.0	10.1	0	15.7	15.0
	대학 재학/휴학/수로	25.1	25.0	7.2	0	17.9	20.0
	대졸 이상	25.2	20.0	6.3	0	18.9	20.0
지역	서울	27.5	25.0	9.6	0	17.9	20.0
	수도권	25.1	20.0	9.1	0	18.9	20.0
	비수도권	24.4	20.0	7.2	0	17.2	2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3.7	20.0	4.6	0	19.1	20.0
	청년 부부	21.8	20.0	3.8	0	18.0	18.0
	청년 독립 1인	32.1	33.0	24.1	30.0	8.0	7.0
	청년 독립 기타	26.2	25.0	9.6	0	16.6	15.0
	청년 비독립 1인	31.3	30.0	25.0	25.0	6.3	3.0
	청년 비독립 기타	34.5	30.0	19.6	0	14.9	10.0
	부모 동거 청년	23.6	20.0	2.3	0	21.3	20.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7.5	20.0	0	0	27.5	20.0
	기타	19.8	15.0	8.0	0	11.7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지출 항목 중 식비, 주거비와 더불어 청년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교육비와 관련하여, 우리 조사에서는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육비 전체적으로는 월평균 28만 3000원으로 식비보다는 적었지만, 주거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공교육비가 가장 많은 19만 9000원이었으며, 사교육비는 8만 4000원 수준이었다.

청년층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연령대 별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19~24세 청년의 교육비가 50만 6000원으로 다른 연령대 청년층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주요하게는 공교육비가 38만 8000원, 사교육비가 11만 7000원으로 동 연령대의 청년은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어 공교육비 등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특성 항목인 대학 재학/휴학/수료한 청년의 교육비가 65만 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다니는 경우 등록금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청년 비독립 1인과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의 교육비 수준이 높았다. 이 중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결국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공교육을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정부부터 청년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청년과 청년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3〉 청년층 월평균 교육비 및 공사교육비

(단위: 만 원)

구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28.3	0	19.9	0	8.4	0
성별	남성	28.2	0	20.1	0	8.1	0
	여성	28.5	0	19.7	0	8.8	0
연령	19~24세	50.6	40.0	38.8	30.0	11.7	0
	25~29세	19.3	0	13.5	0	5.8	0
	30~34세	10.5	0	3.4	0	7.1	0
학력	고졸 이하	11.2	0	4.3	0	7.0	0
	대학 재학/휴학/수료	65.5	55.0	52.6	50.0	13.0	0
	대졸 이상	14.0	0	7.6	0	6.4	0
지역	서울	24.2	0	16.4	0	7.8	0
	수도권	29.2	0	20.9	0	8.2	0
	비수도권	29.6	5.0	20.7	0	8.8	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17.8	10.0	4.8	0	12.9	10.0
	청년 부부	0.6	0	0.1	0	0.5	0
	청년 독립 1인	3.1	0	2.2	0	0.9	0
	청년 독립 기타	11.9	0	3.3	0	8.6	0
	청년 비독립 1인	30.2	25.0	25.8	12.0	4.4	0
	청년 비독립 기타	16.3	7.0	11.1	0	5.2	0
	부모 동거 청년	40.2	10.0	29.7	0	10.5	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4.4	20.0	9.8	0	14.7	5.0
기타	11.2	0	7.8	0	3.4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기타 항목으로 통신비,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출 수준을 보면, 세 항목 중 교통비 평균 지출이 30만 1000원으로 통신비와 문화·여가비에 비해 높았다. 교통비 30만 원은 식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주거비 및 교육

비에 비해서도 높았다. 상식적으로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정책적으로도 주거 및 교육비와 더불어 향후에는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졸 이상에서 교통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 준비, 취업 등으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교통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교통비가 높다는 것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외부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비용과 서울과 같이 낮은 가격의 교통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목의 두 번째 특성은 독립한 청년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지출 수준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 단위 지출을 조사함에 따라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와 문화·여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통신비에서도 청년 1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청년과 차이가 보여, 청년 1인 가구의 통신비는 10만 원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그 밖의 가구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따른 차이로 동거 가구원의 통신비가 함께 포함되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비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았다. 특징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청년 가구의 문화·여가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여가비에서도 역시 청년 1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5-2-4〉 청년층 월평균 통신비,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단위: 만 원)

구분		통신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20.0	20.0	30.1	30.0	20.6	15.0
성별	남성	19.7	20.0	30.3	30.0	20.5	15.0
	여성	20.3	20.0	29.8	30.0	20.6	15.0
연령	19~24세	20.8	20.0	29.7	30.0	19.0	13.0
	25~29세	20.4	20.0	30.5	30.0	21.3	15.0
	30~34세	18.6	20.0	30.1	30.0	21.6	15.0
학력	고졸 이하	19.6	20.0	26.0	20.0	18.1	10.0
	대학 재학/휴학/수료	19.9	20.0	29.4	30.0	18.4	10.0
	대졸 이상	20.2	20.0	32.2	30.0	22.8	20.0
지역	서울	18.9	20.0	26.1	20.0	16.8	10.0
	수도권	21.6	20.0	29.4	30.0	19.2	15.0
	비수도권	19.4	20.0	32.3	30.0	23.1	2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18.6	20.0	28.3	30.0	18.3	15.0
	청년 부부	17.9	20.0	28.7	30.0	22.6	20.0
	청년 독립 1인	10.0	10.0	13.6	10.0	13.4	10.0
	청년 독립 기타	17.4	20.0	25.5	20.0	15.7	10.0
	청년 비독립 1인	7.2	7.0	7.3	5.0	7.1	5.0
	청년 비독립 기타	14.3	12.0	16.8	10.0	11.4	10.0
	부모 동거 청년	24.5	23.0	37.6	35.0	24.5	20.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4.1	25.0	37.1	35.0	29.2	20.0
	기타	15.6	15.0	16.7	10.0	11.1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가구소득과 재산

이하에서는 청년의 가구소득과 재산 수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평균 469만 1000원, 중위소득은 450만 원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 보면, 동 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 가구 경상소득은 2018년 485만 원으로,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다소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통계청, 2019b).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은 2018년 기준 경상소득이 310만 원, 가구주 연령 30~39세는 498만 5000원으로 나타나 우리 조사 기준 30세 미만 가구에 비해서는 높고, 30~39세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공·사적 이전소득은 약 12만 4000원에 불과하다. 연령 특성으로 인해 공적이전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고 금액도 낮았으며, 사적이전은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년 비독립 1인의 사적이전소득은 94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로 49만 1000원이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청년이 부모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징적으로 청년 비독립 1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는 학력에서 대학 이상의 청년이 평균 489만 8000원으로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및 청년 기타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청년 부부 가구가 453만 7000원을 나타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취약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청년이었으며,

독립한 경우에는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장 낮은 236만 4000원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와 기존 분석 결과들과 같이 청년 세대에게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5〉 청년 가구 소득 종류별 월평균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근로 및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455.8	450.0	3.0	0	9.4	0	469.1	450.0
성별	남성	451.7	450.0	3.2	0	9.1	0	464.8	450.0
	여성	460.4	450.0	2.8	0	9.7	0	474.0	460.0
연령	19~24세	436.3	460.0	1.9	0	16.5	0	456.3	480.0
	25~29세	475.4	458.0	2.5	0	6.9	0	485.9	460.0
	30~34세	459.0	400.0	4.8	0	3.3	0	467.2	410.0
학력	고졸 이하	424.3	400.0	2.7	0	2.4	0	430.8	400.0
	대학 재학/휴학/수료	419.7	450.0	2.2	0	23.7	0	446.7	450.0
	대졸 이상	489.8	470.0	3.6	0	4.1	0	498.1	480.0
지역	서울	466.0	480.0	1.0	0	14.4	0	481.5	480.0
	수도권	497.3	500.0	3.3	0	5.3	0	506.5	500.0
	비수도권	423.5	400.0	3.7	0	9.8	0	438.6	400.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408.5	400.0	9.7	0	3.2	0	421.5	400.0
	청년 부부	453.7	450.0	0	0	0.8	0	456.2	450.0
	청년 독립 1인	236.4	230.0	0.9	0	6.0	0	243.3	230.0
	청년 독립 기타	407.5	360.0	4.9	0	1.0	0	414.3	360.0
	청년 비독립 1인	43.0	0	2.1	0	94.4	100.0	139.5	120.0
	청년 비독립 기타	281.7	250.0	1.0	0	49.1	20.0	331.7	280.0
	부모 동거 청년	570.4	550.0	2.3	0	1.5	0	575.7	550.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655.9	500.0	6.0	0	2.2	0	664.2	500.0
	기타	279.3	300.0	5.9	0	16.3	0	301.5	3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이 있는 가구의 총재산은 약 2억 9900만 원, 중위총재산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 평균자산이 4억 3200만 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통계청, 2019b). 하지만 이는 청년이 있는 가구의 평균을 본 것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4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 가구 자산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청년들로 구성된 가구의 자산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연령과 비교해서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만 30세 미만 가구주의 총자산은 약 1억 1000만 원, 가구주 연령 30~39세는 3억 2600만 원으로 우리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년 가구의 총자산이 통계청 기준보다 낮았다(통계청, 2019). 청년 부부 가구가 약 2억 5500만 원,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가 약 2억 3300만 원 등의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총재산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해 통계청 30세 미만 가구주 총자산의 50% 수준에 못 미쳤다. 자산 보유의 주요한 의미 중 하나가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자산을 통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실제 청년 가구 유형을 통해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자산 수준이 높지 않아 본인의 자산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경우, 약 2200만 원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전 가구 평균 부채 수준인 79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충분히 사회 내에서 경력이 축적되지 않아 재산 보유 수준도 낮고 신용도도 높지 않아 부채 역시 전 가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낮은 것은 이자 부담이 높지 않아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부부 가구들이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 부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는 대부분이 주택 관련 부채로 나타났다.

〈표 5-2-6〉 청년 가구 재산과 부채

(단위: 만 원)

구분		총재산		총부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29,880.5	20,000	2,176.9	0
성별	남성	30,332.5	20,000	2,108.3	0
	여성	29,369.9	20,000	2,254.4	0
연령	19~24세	28,497.3	20,000	1,374.9	0
	25~29세	32,556.2	20,000	1,864.2	0
	30~34세	28,755.8	20,000	3,489.8	0
학력	고졸 이하	25,730.9	14,000	1,951.2	0
	대학 재학/휴학/수료	27,924.2	23,000	1,467.2	0
	대졸 이상	32,746.8	20,000	2,680.2	0
지역	서울	43,897.5	28,000	3,025.5	0
	수도권	34,833.9	23,000	2,552.3	0
	비수도권	20,231.2	15,000	1,542.3	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3,282.2	20,000	4,672.5	2,000
	청년 부부	25,472.7	16,000	4,065.5	150
	청년 독립 1인	4,987.3	2,000	638.9	0
	청년 독립 기타	17,718.7	13,500	2,393.0	0
	청년 비독립 1인	3,282.8	100.0	274.9	0
	청년 비독립 기타	12,865.2	3,000	1,392.4	0
	부모 동거 청년	41,457.4	30,000	2,057.3	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40,826.6	30,000	2,672.8	0
	기타	18,004.4	10,000	1,037.6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5-2-7〉 청년 가구 학자금, 주택 관련 부채 및 이자

(단위: 만 원)

구분		학자금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월평균 이자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64.9	0	1,384.3	0	9.4	0
성별	남성	63.0	0	1,324.9	0	9.4	0
	여성	67.2	0	1,451.5	0	9.5	0
연령	19~24세	57.2	0	747.6	0	6.2	0
	25~29세	82.2	0	1,066.9	0	8.0	0
	30~34세	56.1	0	2,499.7	0	14.8	0
학력	고졸 이하	28.9	0	1,253.6	0	1,003	0
	대학 재학/휴학/수료	75.3	0	807.2	0	6.3	0
	대졸 이상	74.1	0	1,771.5	0	10.9	0
지역	서울	47.5	0	1,861.4	0	12.3	0
	수도권	91.4	0	1,578.7	0	10.9	0
	비수도권	55.2	0	1,038.8	0	7.1	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59.7	0	3,697.8	0	17.2	8.0
	청년 부부	49.9	0	3,140.0	0	14.3	0
	청년 독립 1인	41.0	0	322.0	0	3.7	0
	청년 독립 기타	6.7	0	1,959.6	0	22.9	0
	청년 비독립 1인	87.8	0	0.5	0	1.1	0
	청년 비독립 기타	127.4	0	197.8	0	4.9	0
	부모 동거 청년	72.9	0	1,125.9	0	8.7	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6.4	0	1,869.0	0	6.8	0
	기타	76.1	0	751.8	0	14.3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채 종류별로는 주택 관련 부채가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자금 부채는 평균 64만 9000원, 주택 관련 부채는 1384만 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청년 부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가 많았으며, 학자금 부채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부채 수준이 높았다.

부채가 “0원” 이상, 즉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별도로 분석해 보면, 청년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부채 가구 규모는 줄

어 들지만, 부채 관련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8〉 청년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경우

(단위: 만 원)

구분		총부채	학자금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월평균 이자
		954가구	220가구	459가구	828가구
계		6,577.0	875.0	8,416.3	32.8
성별	남성	6,538.2	838.2	8,657.7	33.3
	여성	6,618.4	917.5	8,181.1	32.3
연령	19~24세	5,248.7	640.8	7,499.6	30.4
	25~29세	5,699.2	817.5	7,490.7	28.3
	30~34세	8,314.3	1,423.5	9,355.6	37.9
학력	고졸 이하	5,927.6	876.4	7,509.8	34.7
	대학 재학/휴학/수료	5,774.7	729.3	8,190.2	32.5
	대졸 이상	7,127.4	990.5	8,794.9	32.2
지역	서울	8,677.6	863.5	10,301.1	40.8
	수도권	6,269.4	890.4	8,446.9	30.2
	비수도권	5,665.6	862.9	7,305.0	30.8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8,031.6	1,946.9	8,791.8	31.5
	청년 부부	8,080.3	965.1	8,897.1	30.6
	청년 독립 1인	3,105.1	765.4	4,114.3	21.7
	청년 독립 기타	6,180.9	457.4	8,188.3	61.5
	청년 비독립 1인	2,023.7	924.0	- <sup>1)</sup>	14.2
	청년 비독립 기타	5,225.9	1,485.6	- <sup>1)</sup>	25.4
	부모 동거 청년	6,583.6	801.6	8,673.5	33.3
	부모 동거 청년 기타	11,193.6	300.0	12,164.2	36.8
	기타	3,092.6	761.7	5,073.2	48.2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5-2-8〉을 보면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6577만원으로 청년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세 배 정도 높아진 금액이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의 부

채가 8314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8677만 600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와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 청년 부부 가구의 부채 수준이 높았다. 이는 주택 부채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택 부채, 즉 주거 마련을 위한 모기지 등의 부채가 주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부채는 875만 원으로 특성별로는 30~34세, 대졸 이상의 청년 가구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부채는 역시 주택 관련 부채로 평균 8416만 3000원으로 연령이 높고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관련 부채 금액이 높았다. 한 가구가 구성되어 생활하는 데 있어 주택의 역할이 크고, 이를 마련하는 것이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청년은 학업,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와 독립되어 생활하면서 기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누리던 가정의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혼자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르게 된다. 독립된 생활을 하며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비독립 1인 가구와 독립 1인 가구를 합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 지출 및 자산에 대해 분석해 보면, 월평균 소득은 205만 6000원(중위 소득 200만 원), 총생활비는 132만 1000원(중위지출 120만 원) 수준이었다. 이전에 분석한 전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 469만 1000원, 총

생활비 242만 6000원에 비해 소득은 43.8%, 지출은 54.5%로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청년 가구에 비해서는 흑자(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총재산 수준은 4368만 원으로 전체 청년 평균 가구 총재산인 2억 9880만 원의 14.6%에 불과해 재산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 특성별로는,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 연령과 거주 지역에 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지출 및 총재산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청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지출이 높고 재산은 서울 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9〉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생활비 및 총재산

(단위: 가구, 만 원)

구분	사례 수	총소득		총생활비		총재산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계	761	205.6	200.0	132.1	120.0	4,368.1	1,000	
성별	남성	442	218.9	200.0	134.3	122.0	4,369.0	1,000
	여성	319	185.9	180.0	128.9	120.0	4,366.8	1,000
연령	19~24세	264	149.9	135.0	123.0	114.0	2,417.4	200
	25~29세	277	207.3	200.0	130.9	120.0	4,951.5	1,500
	30~34세	220	280.0	250.0	146.2	140.0	6,314.9	3,700
학력	고졸 이하	199	240.0	220.0	137.1	121.0	5,200.0	1,800
	대학	206	135.5	120.0	122.0	114.0	2,356.7	100
	재학/휴학/수료 대졸 이상	356	237.7	230.0	136.8	125.0	5,374.1	2,000
지역	서울	204	204.0	184.0	134.2	122.0	7,189.8	1,500
	수도권	159	233.4	230.0	140.6	130.0	5,681.3	3,000
	비수도권	398	196.6	200.0	128.1	120.0	2,463.1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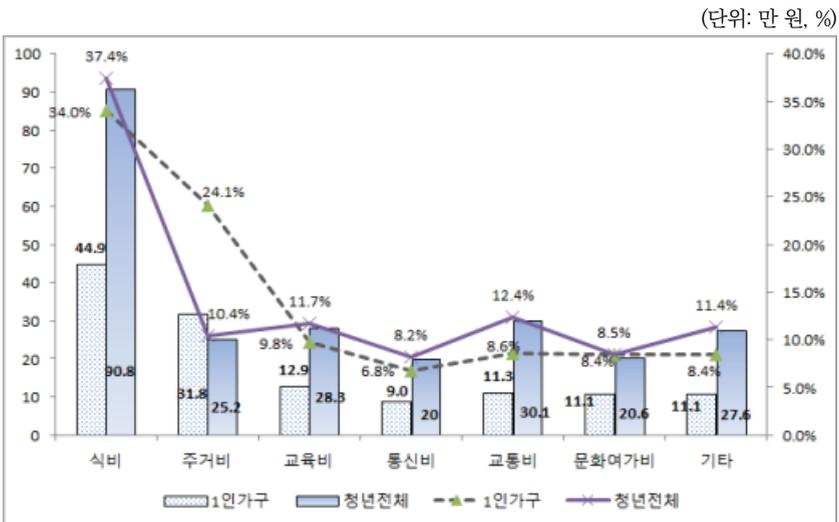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값임. 금액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간 지출 항목별로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총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지출에서 점유하

는 비율이 24.1%에 이르고 있다. 다른 항목들은 모두 청년 전체 가구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는데 이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다른 지출 항목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요인으로 보인다. 결국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 주느냐가 현재 직면한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림 5-2-3]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지출 항목별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경제 상황을 소득, 지출 및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소득, 지출 및 자산은 우리나라 전 가구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청년을 세분하여 혼자 사는 청년은 소득, 지출

및 자산 등에서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전체 가구 비교 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1인 가구에서 현저히 높았으며, 이로 인해 청년 1인의 경우 다른 지출 수준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해석될 수 있다. 식비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다른 비용을 억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 이외에 청년층을 위한 특별교통카드, 문화·여가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된다면 청년 1인 가구의 지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총소득이 높았으며, 독립생활을 하는 청년의 소득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부모로부터 비독립한 경우 사적 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았다. 자산은 우리나라 전 가구에 비해 청년이 있는 가구의 자산은 적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가구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즉 청년을 중심으로만 구성된 경우 사회 진입 초기라는 점에서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 수준도 그리 높지는 않았다. 반면에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에 한정 시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 부채 대부분은 주택 관련 부채였지만, 30대 중반에도 학자금 부채를 1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가구 유형으로는 청년 부부와 청년 비독립 가구라는 점에서 청년 부부는 학자금에 주택 부채라는 두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비독립 가구는 부모에게 학자금 부채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학자금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탕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청년의 경우 독립하거나 독립하여 혼자 사는 가구의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청년 부부, 청년 한부모 가구 등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점에서 초기 진입 비용으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주택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은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선 이상의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청년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외의 경우 버스 공영화를 통해 비용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년의 비용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에서도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교통비를 줄여 주는 정책이나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형태의 교통비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담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나가는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보조해 주는 정책, 가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부채를 유예하거나 줄여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청년의 건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 6 장 청년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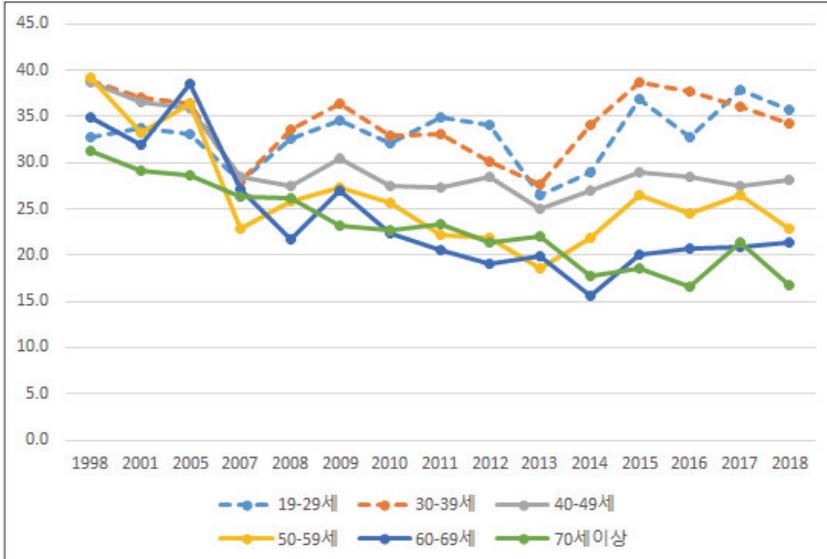
### 제1절 들어가며

청년기는 인생의 가장 건강한 시기로 인식된다. 건강 문제는 노년을 앞둔 중년 이후에 주로 등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다. 실제로 청년은 역동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와 주로 결부됐다. 손희경, 이성례, 이민아, 김송이(2016)는 개항 이후 한국의 예술작품에 나타난 시대별 젊은이의 이미지를 연구했는데, 개항기 청년의 경우 ‘구국의 동량’으로 자주 등장했다. 이 시기를 지나 해방 이후 청년들은 폭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패배주의에 젖은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역동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재현됐다. 이를테면, 1970년대에는 “씩씩하게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성취하는”(p. 7), 그리고 1980년대에는 “군부 권력과 권위에 반기를 드는”(p. 8) 모습으로 등장한다. 청년 그룹을 설명하는 단어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청년들은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회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증가”했다(p. 10).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합인 ‘청년의 건강’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야 정책적인 의제로 등장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의 건강 문제에 청년 건강 문제가 가려진 탓도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의 건강 지표가 1990년대 이후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림 6-1-1] 세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c).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에서 2020. 3. 12. 인출.

[그림 6-1-1]을 보면, 1998년 이후 세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세대에 걸쳐 스트레스 인지율 수준이 완만하게 줄었다. 반면 19~29세와 30~39세 청년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벌리면서 가장 높게 유지됐다. 그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역시 40대였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c).

청년들의 건강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가 연구의 초점이 돼 왔다. 육체적인 건강 수준은 아동 및 노인 인구보다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6-1-1]에서 보듯이, 정신건강에 한정해서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정책

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증가했다. 초점은 청년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 요인에 있었다. 청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실업 상태(장재윤 외, 2004), 건강 및 사회적 지지, 삶의 기대요인(이명숙, 2015), 고용 형태 및 차별 경험(정세정, 2016) 등이었다.

이명숙(2015)은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청년 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세대는 행복과 정서적 안녕의 측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정신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가족 및 지인의 지지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건강 문제는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재윤 외(2004)는 청년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실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노출 가설과 정신건강 수준이 원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들어간다는 선택 가설을 검증했다.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3차에 걸친 조사 결과, 노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신건강이 안 좋은 학생들이 실업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세정(2016)은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상용/임시 여부에 따라, 차별 경험의 유무가 주관적 건강 및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차별의 경험은 분석의 대상이 된 건강 지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지경, 이윤주(2018)는 20대 청년 1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청년 전체의 7%가 심한 우울증 상태에, 8.6%가 심한 불

안증, 22.9%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고 풀이했다. 여성, 고졸 이하, 미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가 고위험 집단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청년의 건강 수준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은 분석해 냈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이를테면 소득, 주거, 교육 수준 등의 분석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한계도 있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이번 장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또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식생활, 음주 등의 건강행동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적 결정 요인들(소득, 학력, 고용 형태, 차별 경험, 주거 형태)에 따른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우울, 아노미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을 살펴본 뒤, 청년들의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에 근거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 1.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청년 가구 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네 가지 범주로 단순화했다. ‘청년 부부+자녀 가구’, ‘청년 부부 가구’ 등 다섯 가지 범주를 독립 가구로,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및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의 두 가지 유형을 ‘비독립 가구’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부모 동거 가구로, 마지막으로 조손 가구, 친인척 동거 등의 유형을 ‘기타 가구’로 정리했다.

또 지역 구분을 다른 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묶어서 비교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서, 다른 범주를 사용했다. 또 소득 구간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의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예상 가능하듯이, 부모 동거 청년 가구에서 월 총소득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 2. 분석 결과

### 가. 건강 관련 활동

건강검진의 경우, 조사 대상 청년 가운데 32.5%가 최근 2년 동안 검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부터 청년 건강검진 대상 집단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함께 사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 720만 명에게도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했다(서한기, 2018. 11. 21.). 청년 집단 유형 가운데에서는 독립 가구(45.6%)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른 가구 유형이 20%대에 머문 것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까지는 청년 가운데 세대주만 무료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했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400만 원 집단의 비율(38.8%)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집단에 독립 가구들이 상당수 분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독립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은 361만 원이었고, 비독립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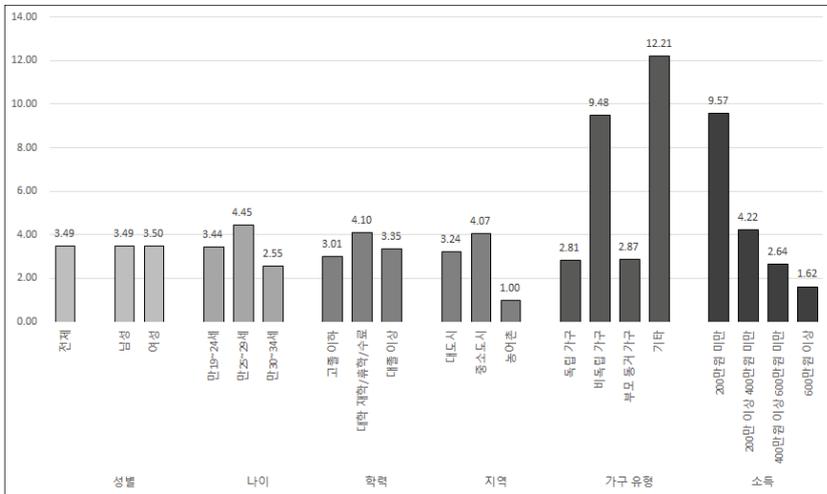
구는 167만 원,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577만 원이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1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한다는 청년의 비율은 39.23%였다. 참고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조사 하루 전에 아침 식사를 거른 비율은 28.9%였다(임재희, 2019. 10. 27.). 이번 조사가 ‘지난 1주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하루 전’ 아침 식사 여부를 묻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점심 식사를 거의 안 한 비율은 0.58%, 저녁 식사를 거의 안 한 비율은 0.72%로 매우 낮았다.

대체로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를 보면 아침은 가족(60.24%)과, 점심은 가족 외 사람들(66.84%)과, 그리고 저녁은 가족(58.03%)과 주로 함께했다.

[그림 6-2-1] 세 끼니를 모두 주로 혼자 식사한다고 답한 청년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혼자서 식사한다고 답한 비율도 아침, 점심, 저녁별로 17~3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를 주로 혼자 먹는

다고 답한 이들이 3.49%였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모든 끼니를 주로 혼자 해결하는 셈이었다.

청년 집단별로 '세끼 홀로 식사'족의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6-2-1 참고). 성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만 원 미만 월 소득을 가진 집단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9.57%)이 세끼 모두를 주로 혼자 해결했고,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그 비율은 1.62%까지 떨어졌다. 저소득층에 속한 청년들이 식사를 함께할 식구 혹은 공동체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가구와 부모 동거 가구에 속한 청년의 '혼밥' 비율이 낮은 반면, 기타 가구(조손 가구, 친인척 동거)에 속한 청년의 혼밥 비율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혼자 밥 먹는 비율이 다른 독립 가구보다 높은 점이 이채로웠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 청년이 홀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혼밥'과 짧은 식사 시간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Moon, Cha, 2018), 위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점(김길원, 2015. 12.17)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혼밥 및 짧은 식사 시간은 청년들의 현재 및 미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행동은 취약 청년 집단에서 자주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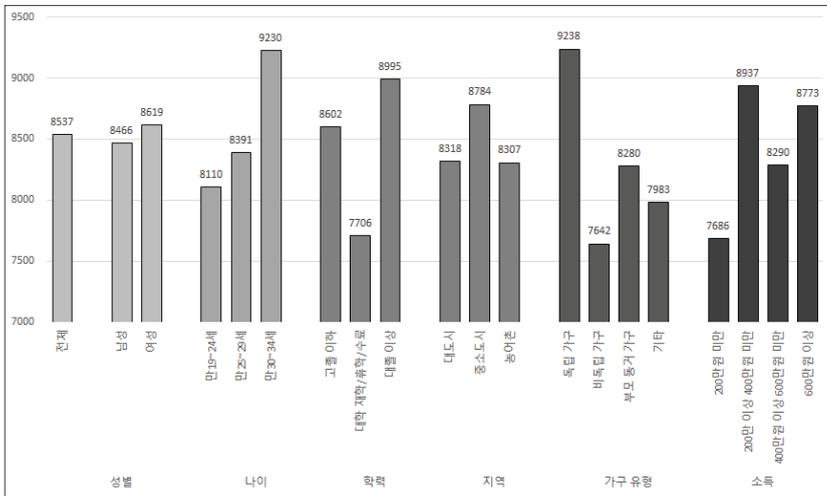
청년이 하루에 세끼 식사에 쓰는 시간은 85.5분이었다. 아침에 23.1분, 점심에 33.7분, 저녁 38.1분이었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구욕구 조사에서 청년 집단별로 식사 시간을 나누어서 보면, 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집단이 88.4분으로 식사 시간이 가장 길었고, 대졸 이상 85.0분, 고졸 이하 82.2분으로 짧았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집단이 전반적으

로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청년 가운데 집밥을 제외한 배달이나 급식 등으로 외식을 하는 경우는 1주 1~3끼(26.43%)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주일 4~6끼(21.86%), 1주일 7~9끼(21.01%) 등이었다. 청년들의 건강행동에서 중요한 점은 외식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얼마나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외식을 하느냐일 것이다. 외식의 위생 및 영양 수준이 가격과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청년들이 한 끼 식사에 쓰는 비용을 살펴봤다(그림 6-2-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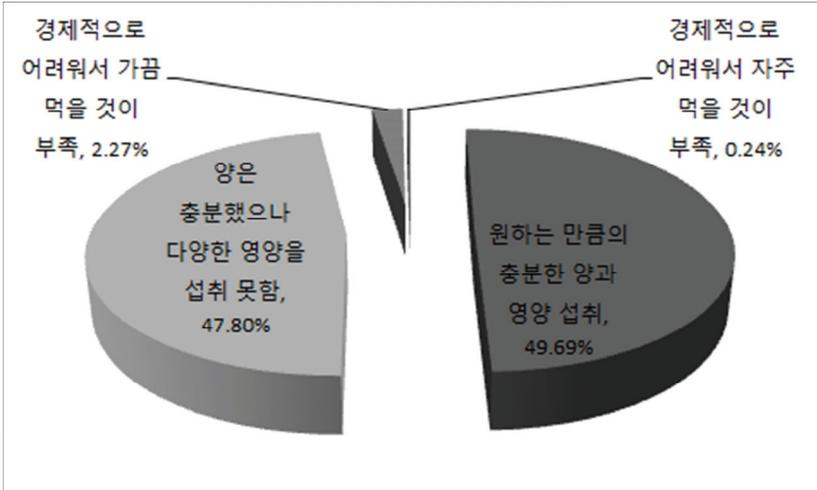
[그림 6-2-2] 청년 집단별 외식 끼니당 평균 지출액

(단위: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6-2-3] 식생활의 양과 질은 충분했는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들은 끼니당 평균 8537.1원을 지출했다. 외식 끼니당 지출액은 청년 집단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다. 모든 집단을 통틀어서 한 끼당 비용이 7642원(비독립 가구)에서 9238원(독립 가구) 사이에 위치했다. 다만, 청년 집단 사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끼니당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세는 관찰됐다.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 집단이 한끼로 쓰는 지출액이 7686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월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청년 집단이 한 끼에 쓰는 비용이 8937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월 소득 600만 원 가구에 속한 청년의 경우 끼니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설문조사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사 먹는 밥’에 포함했느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을 듯하다. 설문에서는 ‘사 먹는 밥’으로 배달음식, 포장음식, 종교단체 제공 음식에 대해서 급식을 포함했는데, 안정적인 직장에서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대학의 구내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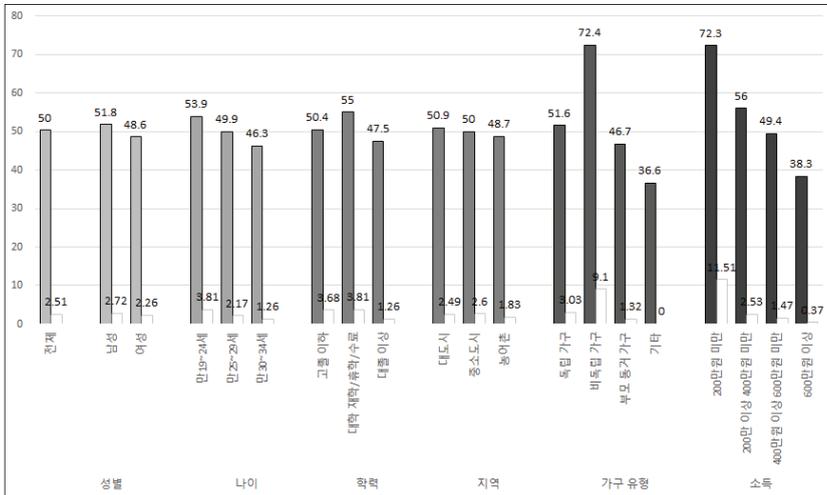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값 등이 이 결과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의 식생활에서 양과 질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49.7%는 ‘영양소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식사를 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절반(47.8%)은 양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만, 질을 고려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림 6-2-4 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3%, 0.2%였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음식의 양 혹은 질을 챙기지 못했던 비율은 50.3%였다(47.8%+2.3%+0.2%). 이를 집단별로 나눠서 보면, 학력별, 지방별,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6-2-4] 식생활에서 영양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청년 비율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한 청년 비율

(단위: %)



주: 열은 혹은 진한 회색 막대는 ‘식생활에서 영양까지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이고, 하얀 막대는 ‘경제적인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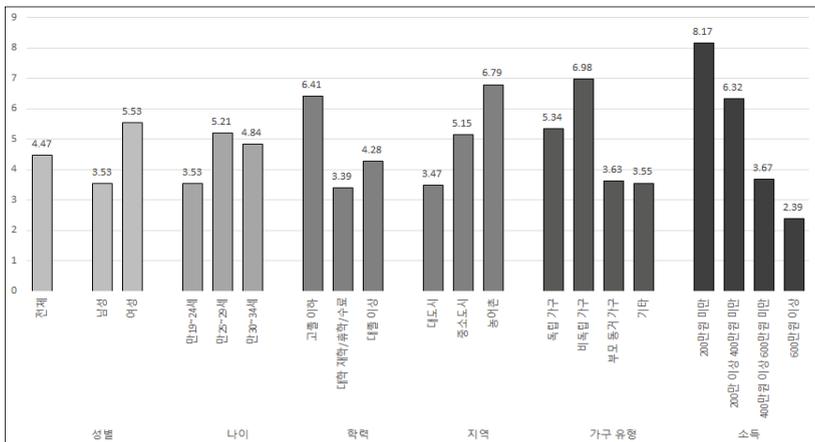
자료: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그러나 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 청년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비율이 70%가 넘었다. 반대로 600만 원 이상 고소득 청년이 만족스럽지 못한 식단을 마주하는 경험은 30%대에 머물렀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한 경험을 한 비율도 소득 200만 원 미만 청년 집단에서는 10%가 넘었다. 또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구의 청년도 경제적인 문제로 끼니를 걱정한 비율이 10%에 육박했다.

소득 200만 원 미만 청년 및 비독립 가구의 청년의 끼니당 지출도 다른 청년 집단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이들은 식생활에 적게 지출을 하면서도 생계비 지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집단의 교집합인 소득 200만 원 미만 비독립 가구의 경우 한 달 총수입이 114만 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5]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6-2-1〉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년 집단별 이유

(단위: %)

	경제적인 이유	시간이 없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상이 가벼워서	$\chi^2$ (df)
전체	16.63	37.04	2.84	29.51	13.98	
성별						
남성	20.80	30.82	3.41	29.00	15.96	2.41(4)
여성	13.63	41.52	2.43	29.88	12.55	
지역						
대도시	21.02	41.05	1.56	22.04	14.32	5.32(8)
중소도시	12.46	34.74	4.17	33.46	15.18	
농어촌	24.19	34.98	0	35.32	5.51	
학력						
고졸 이하	21.83	28.60	1.46	37.87	10.24	15.08(8)
대학 재학 등	13.84	28.65	10.98	31.51	15.02	
대졸 이상	14.64	46.17	0.00	23.34	15.85	
소득						
~200만 원	24.54	29.71	10.06	29.53	6.15	18.30(12)
200만~400만 원	20.78	43.52	0	24.43	11.27	
400만~600만 원	12.46	28.25	0	36.66	22.64	
600만 원~	4.37	46.31	5.48	28.9	14.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끼니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병원비에도 부담을 느낄 듯하다.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4.47%였다. 미충족 의료의 경험은 집단에 따라 발생 비율이 다르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8.17%), 고졸 이하(6.41%), 여성(5.53%), 농어촌(6.79%) 청년에게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자주 발생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로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37.0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29.51%), 경제적 이유(16.63%), 증상이 가벼워서(13.98%), 교통편이 불편해서 (2.84%)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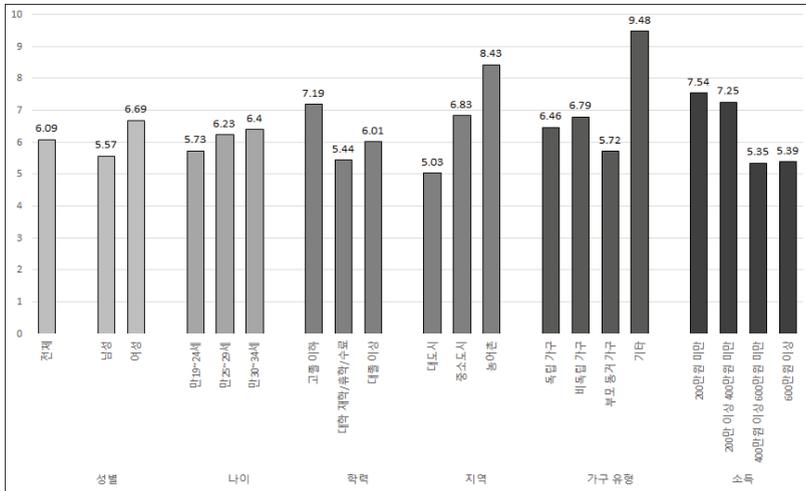
제시됐다. 다만 <표 6-2-1>에 제시된 수치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134명에 한정된 설문이었다. 집단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나. 정신건강

청년의 건강 문제는 자주 정신건강에서 비롯되고, 정신건강의 문제로 종종 귀결된다. 청년의 건강 문제는 상병이나 노령보다는 과도한 경쟁, 암울한 취업 시장, 전망 없는 미래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의 우울 수준을 살펴보았다. CES-D 우울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점수는 6.09였다.

[그림 6-2-6] 청년 집단별 우울 점수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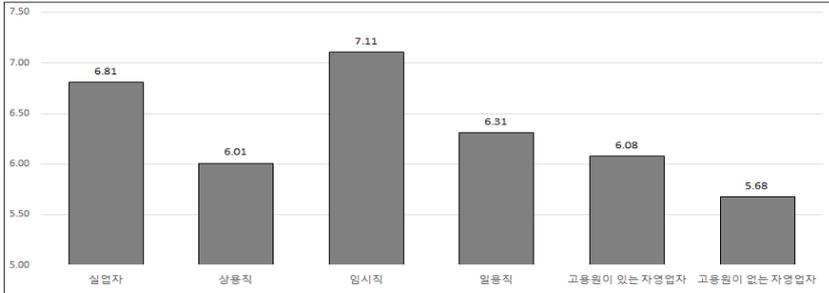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이 척도를 기준으로 16점이 넘으면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고,<sup>6)</sup> 개인적인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상담이 권유된다. 청년 집단별로 우울증 점수를 보면, 집단별 격차와 불평등의 양상이 우울지표의 차이로 드러난다. 남녀, 도/농,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우울 수준의 차이가 다른 건강 지표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대도시(5.03)보다 농어촌(8.43)에서 우울의 정도가 심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우울의 양상은 특히 월 소득 4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만 원 미만 집단(7.54)과 200만~400만 원 집단(7.25)에서 우울의 수준이 비슷했고, 소득이 400만 원을 넘으면서 우울의 정도는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인구를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울 수준을 살펴보았다. 취업 인구 가운데는 임시직(7.11)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실업인구(6.81), 일용직(6.31) 순이었다. 상용직(6.01)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08)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8)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임을 고려할 때,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6)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가 흔히 사용된다(신재동, 여유진, 2009). 여기에서는 20문항에 걸쳐 0~3점 척도의 설문을 수행한다.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이 쓰인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복지패널의 선례에 따라, 1~4점 척도, 11문항으로 내용을 줄였다. 1~4점에 걸친 변수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고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신재동, 여유진, 2009). 이렇게 나온 총점에 11분의 20을 곱했는데, 11문항의 총점 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인 60점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에 대해서 크론바흐 알파값을 산출한 결과 .8852가 나와서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림 6-2-7] 실업 상태 혹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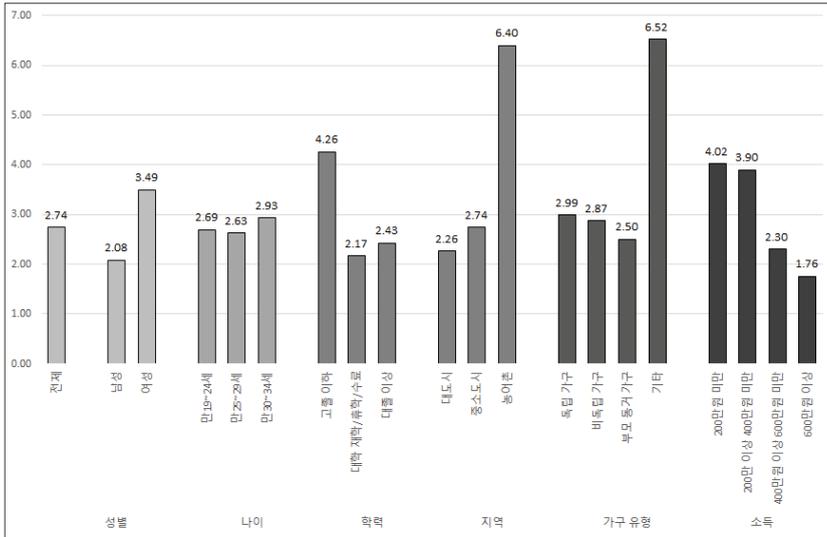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이 우울의 소용돌이에서 나오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2.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자살 생각에서 있어서는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별, 학력, 지역, 소득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가 도드라졌다. 여성(3.49%)이면서, 고졸 이하의 학력(4.26%)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6.40%), 조손이나 다른 친척과 함께 살면서(6.52%),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4.02%)에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8] 청년 그룹별 자살 생각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청년 집단의 아노미 수준을 물어보았다. 아노미(Anomie)는 “규범적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에 맞추어 살아 왔던 가치들의 붕괴, 혹은 갈망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Nisbet, 1965, p. 46; 박성훈, 장안식, 이재경, 2009, p. 5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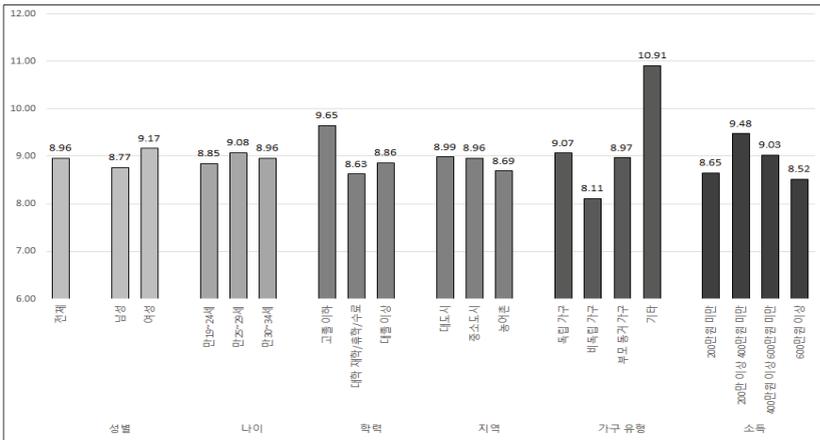
아노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Srole(1956)의 척도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했다.<sup>7)</sup> 여성이 남성보다, 고졸 이하에서 다른 학력 집단보다 상대적

7) 이번 연구에서는 Srole의 아노미 척도 5문항에 정해식 외(2017)이 첨가한 여섯 번째 문항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를 첨가하고, ①번 문항을 ‘요즘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로 일부 수정하고, ⑦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와 ⑧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두 문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에 대해서 크론바흐 알파값을 산출한 결과 .7844가 나와서 문항의

으로 아노미 지표 수준이 높은 점은 다른 건강 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6-2-9] 청년 집단별 아노미 지표

(단위: 점)



주: Srole(1956)의 아노미 지표 산출을 위한 5개 설문 항목에 3개를 추가하고 한 항목을 수정한 결과임. 문항별로 아노미 수준이 낮으면 0점, 높으면 3점까지 할당할 결과 총점 24점 대비 수치를 제시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년의 아노미 지표가 농어촌보다 높았다. 도시 지역의 사회 변화 속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더 빠른 것이 청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득 수준에 따른 분포에서도 2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소득이 떨어질수록 아노미 수준이 올라가지만, 200만 원 미만 저소득 집단에 와서는 아노미 수준이 다시 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집단에서는 200만 원 미만 저소득 집단보다 오히려 200만~400만 원 소득 집단이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종 더 부정적인 건강 지표를 보인다. 이들 집단에서 독립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거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세대가 아직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집단에 견줘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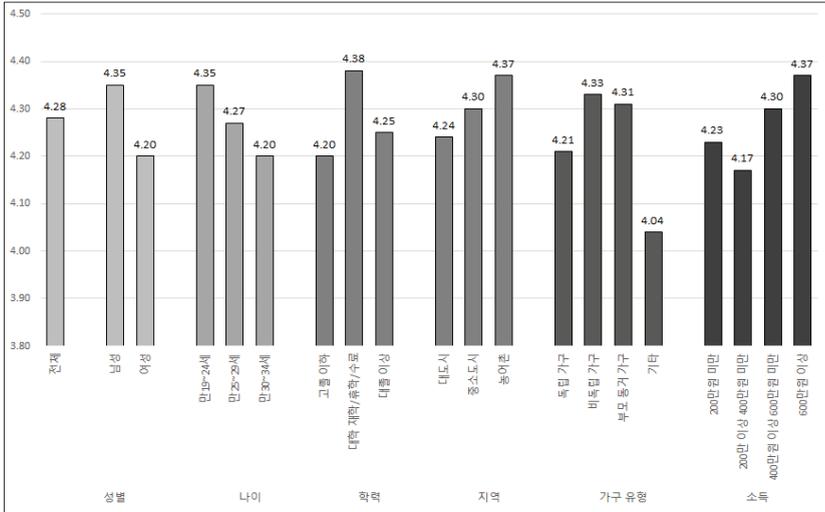
앞선 설문에서 우울 지표가 16점을 넘거나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 367명에 한정해서 전문가(의사, 상담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11.9%만이 전문가를 만났다고 답했다. 또 367명 가운데 8.4%가 정신적인 문제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물론,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의지로 혹은 주변의 도움으로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다. 주관적 건강 및 행복 수준

청년 집단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4.28로 평균적으로 건강한 수준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강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그림 6-2-10] 청년 집단별 주관적 건강 수준

(단위: 점)



주: 주관적 건강을 묻는 5점 척도(5점: 아주 건강하다~1점: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기준 집단별 평균임.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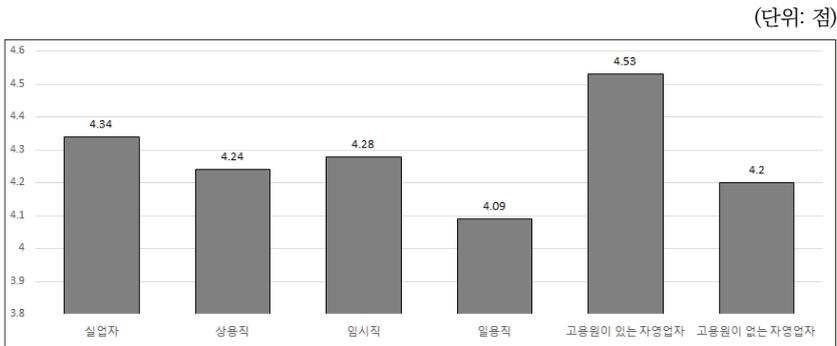
청년 집단 안에서도 나이가 젊을수록 건강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의 건강 수준이 가장 좋았다. 대학 재학생의 건강 수준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주관적인 건강 수준에서도 모두 다른 고졸 및 대졸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터에 속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청년 집단들의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사는 청년들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청년에 견줘 양호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았는데,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200만~400만 원대 집단보다 높았다.

실업 및 종사상 위치에 따른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다. 반대편의 끝에는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자리했다. 실업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상용직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띄는데, 청년 실업의 지속 기간에 따라 주관적 건강 수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2-11] 실업 및 종사상 위치에 따른 주관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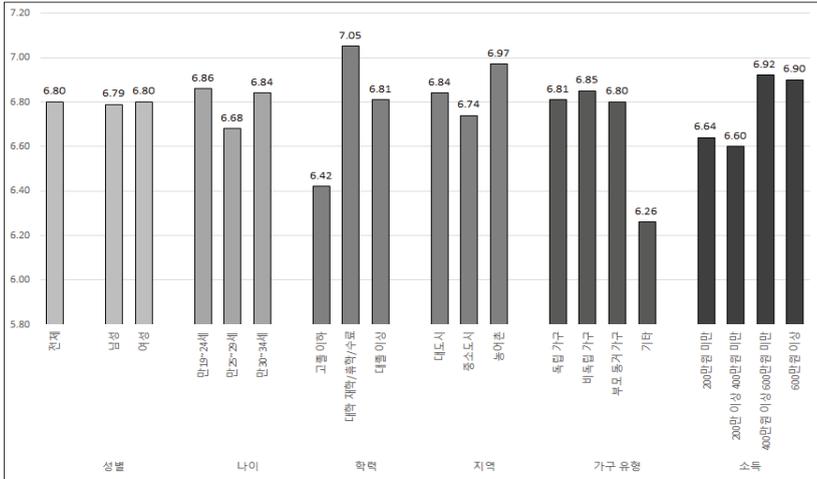


주: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10점 척도로 반영함. 높을수록 행복했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들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을 복지패널을 통해서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았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문항을 만들 때, 비교를 위해서 이 문항을 복지패널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복지패널에서 19~34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의 평균은 4.09로 이번 조사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다. 복지패널과 조사 문항의 편집이 다른 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만 19~34세 집단을 설정했다면, 복지패널의 경우 조사 기간이 한 달에 한정되지 않아서 조사 시점을 특정한 기준의 만 나이 연령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도, 19~34세 청년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4.28(이번 조사 기준) 혹은 4.09(복지패널 기준)로, 복지패널상의 다른 세대들보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12] 청년 집단별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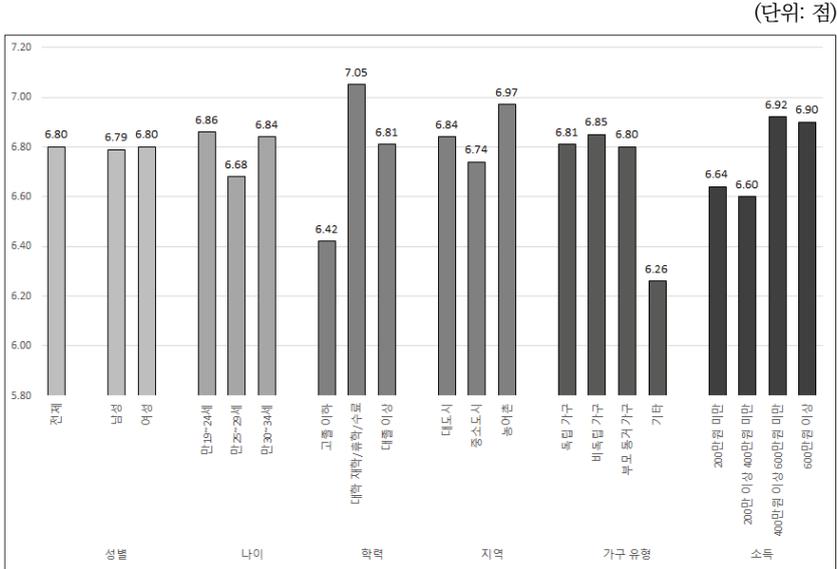
(단위: 점)



주: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10점 척도로 반영함. 높을수록 행복했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청년 집단별 행복 수준을 보면, 19~24세, 대학 재학생, 농어촌, 비독립 가구, 수입 400만~600만 원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25~29세, 고졸 이하, 중소도시, 기타 가구 유형, 소득 400만 원 미만, 일용직인 청년들의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6-2-13] 실업 및 종사상 위치에 따른 행복 수준



주: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10점 척도로 반영함. 높을수록 행복했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청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관적인 건강 지표 등에서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견줘서 상대적으로 좋은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 영역으로 오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정성과 스트레스가 자주 발견된다. 일부 지표에서는 그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도 더 부정적이다. 우울 정도를 묻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0~3 척도에서 청년들이 0.56으로 81세 이상 고령층(1.1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복지패널 자료 기

준). 다른 세대들의 평균은 0.5를 넘지 않았다. 청년들 가운데 다수는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위계의 말단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노동시장 가운데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취업 전선의 변두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정성은 예외적이라거나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하거나 진입할 예정인 다른 집단에 견줘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결국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세대의 불안과 불건강은 이들에게도 다가올 문제다.

특히 이번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청년들의 건강 문제에서 성별, 학력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격차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여성, 고졸 이하, 기타 유형 가구, 저임, 일용직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청년의 건강 수준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정서적인 불안정 상황의 끝에 이르는 ‘자살 생각’에서 고졸 이하(4.26%), 농어촌(6.40%), 기타 가구(6.52%), 소득 200만 원 미만(4.02%) 청년들은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인 개입의 여지를 남긴다.

청년 건강의 문제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를 반영한다. 비교적 쉽게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앞선 세대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반면, 청년 세대들은 취업 전선에서부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경쟁의 과정에서 청년 집단 내부의 경쟁의 룰도 공정하지 않다. 성별, 학력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기 어려웠지만, 부모의 자산 수준에 따른 격차 역시 존재한다. 청년의 건강 수준을 낮추는 이와 같은 사회적 결정 요인

들은 여성, 농어촌, 저학력, 저임 청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원인(causes of causes)'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Marmot, 2016). 여기서 원인의 원인이란 취약한 청년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리킨다.

물론 이와 같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아픈 청년들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 역시 필요하다. 첫째,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식사를 위한 바우처 혹은 지역화폐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청년들에게만 배타적으로 활용될 이유는 없다. 노인이나 한부모,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청년 가운데 절반은 끼니를 때우긴 하지만 영양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3% 정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한 경험이 있었다. 국가가 청년들의 끼니만은 챙겨 주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청년 집단의 미충족 의료율은 4%가 넘고,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임금 청년들은 그 비율이 8% 이상으로 올라간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병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취약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아픈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가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아픈 청년들의 치료라도 손쉽게 해 주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들의 대학 재학, 취업 준비 등을 위한 물질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나이에 기초 자산을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은 이미 Ackerman과 Alstott(2010)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들은 청년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안을 제시했다. 청년은 학업이나 사업, 결혼, 집 구입 등 원하

는 대로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할 때 상환하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 및 대상 집단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은 사회적인 숙의 및 합의의 대상이다. 청년 집단 사이에서 생기는 격차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다.





# 제7장

## 청년의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 7 장 청년의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 제1절 들어가며

사회적 지지는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망,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 받는 정서적 혹은 제도적으로 받는 지지를 뜻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지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Lin, Dean, & Ensel, 1986). 이처럼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는 청년을 비롯하여 빈곤층, 이민자 등 여러 취약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우울이나 자살행위와 같은 정신건강(Ioannou, Kassianos, & Symeou, 2019; Kleiman, Liu, 2013), 신체적 건강(Uchino, Cacioppo, & Kiecolt-Glaser, 1996)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지지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우울증이나(Xu & Wei, 2013), 가정폭력(Beeble, Bybee, Sullivan, & Adams, 2009)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완충시켜 주는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되어 왔다(Dumont & Provost, 1999; McCubbin et al., 1980).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작용에 주목하여,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빈곤, 고용 악화, 주거 악화 등 여러 영역에서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측정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이 밖에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경험은 이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며, 이는 이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Irani, 2018).

우리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 1. 각종 문제 대처 경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영역은 다양하다. 이를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관련 문제, 금전적 문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로 나누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처하는지 그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첫째, 아래 <표 7-2-1>를 통해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경로를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5.96%)가 친구나 학교 선후배와 같은 또래와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였다. 가족(28.29%)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없음’이 12.90%, 이러한 감정적/심리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7.75%이다.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지만, 이는 이러한 고립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친척(0.76%)이나, 직장동료 및 선후배(2.87%), 관련 전문가(1.01%)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경로를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여부, 지역, 가구 형태, 1인 가구 여부, 가구원 수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학교 선후배를 가장 먼저 찾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인 30~34세의 경우 친구, 학교 선후배보다는 ‘가족’을 가장 먼저 찾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의 경향에서도 이미 부부 가구(청년 부부+자녀, 청년 부부 가구)를 이룬 형태의 경우, 가족과 상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 중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대상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집단(경활 실업)이다. 이들 중 10.14%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다른 집단에 비해 이러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7-2-1〉 최근 1년 동안 ‘감정적/심리적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28.29	0.76	45.96	2.87	0.46	1.01	7.75	12.90
성별	남성	1,572	25.53	0.54	45.17	3.03	0.30	1.13	9.02	15.28
	여성	1,446	31.41	1.01	46.84	2.69	0.64	0.88	6.31	10.21
연령	19~24세	1,135	20.49	0.77	54.65	1.35	0.37	1.22	7.71	13.45
	25~29세	988	27.75	0.32	47.09	3.38	0.21	0.99	7.42	12.84
	30~34세	895	38.43	1.21	34.11	4.21	0.83	0.78	8.14	12.29

18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학력	고졸 이하	658	23.97	0.91	44.97	3.73	0.07	1.45	9.53	15.36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21.59	0.20	54.07	0.59	0.51	0.80	8.34	13.89
	대졸 이상	1,499	33.96	1.01	41.70	3.82	0.59	0.95	6.66	11.30
경제 활동 여부	경찰 취업	1,874	28.50	0.82	44.57	4.42	0.65	0.86	7.60	12.58
	경찰 실업	163	23.46	2.96	49.87	0.45	0.28	1.94	10.14	10.90
	비경찰	981	28.71	0.29	47.84	0.44	0.14	1.13	7.62	13.82
지역	서울	641	27.62	0.12	51.49	3.03	0.07	2.05	4.82	10.78
	수도권	946	30.67	1.57	44.95	2.14	0.65	0.69	8.96	10.36
	비수도권	1,431	27.01	0.50	44.12	3.28	0.51	0.76	8.27	15.55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52.24	1.53	22.43	4.53	0.00	0.28	9.52	9.47
	청년 부부	143	60.44	0.00	18.74	2.17	0.00	0.00	5.17	13.48
	청년 독립 1인	547	15.33	0.19	51.33	6.47	0.98	1.09	9.45	15.18
	청년 독립기타	118	41.37	0.61	29.85	4.89	1.63	1.09	4.37	16.19
	청년 비독립 1인	214	14.77	1.21	63.11	1.26	0.00	1.36	6.36	11.95
	청년 비독립 기타	27	34.90	0.00	42.81	5.74	0.00	0.00	0.51	11.43
	부모 동거 청년	1,650	24.07	0.73	51.45	1.96	0.50	1.14	7.63	12.52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23.22	0.00	46.50	0.00	0.00	0.00	11.80	18.49
	기타 가구	38	7.66	3.37	41.80	0.00	0.00	6.29	9.80	31.8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15.13	0.56	55.61	4.57	0.62	1.18	8.32
2인 이상 가구		2,257	31.42	0.81	43.67	2.47	0.42	0.97	7.61	12.6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가구 원 수	1인	547	15.33	0.19	51.33	6.47	0.98	1.09	9.45	15.18
	2인	353	42.39	0.55	31.16	3.65	0.60	0.82	5.92	14.92
	3인	788	32.16	1.31	41.95	2.92	0.11	0.79	8.65	12.11
	4인	1,085	27.07	0.81	49.39	2.04	0.52	0.85	6.89	12.43
	5인 이상	245	24.38	0.32	50.99	1.21	0.23	2.11	9.05	11.71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둘째,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경로를 살펴보았다(아래 <표 7-2-2> 참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55.54%) 가족을 제일 먼저 찾았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없음(19.69%)을 제외하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경로는 친구, 학교 선후배(10.68%)였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세부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모두 ‘가족’이 가장 높지만,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 독립 1인 가구, 즉 청년 본인이 가구주로서 부모에게서 이미 독립한 가구의 경우, 가족과 상의하는 비율이 32.58%로 다른 가구(전체 평균 55.54%)보다 상당히 낮다. 대신 친구 및 학교 선후배를 가장 먼저 찾는 경우가 21.24%로, 다른 가구(전체 평균 10.6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건강 문제에 대해 가족과 가장 많이 의논하지만, 이들 뿐 아니라 친구 및 학교 선후배 또한 상당 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 집단(10.48%), 현재 실업 중인 청년(12.70%), 1인 독립 가구(11.40%) 등에서 전체 평균인 7.3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84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7-2-2〉 최근 1년 동안 '건강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 료, 선후배	소속단 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55.54	0.40	10.68	1.54	0.22	4.55	7.37	19.69
성별	남성	1,572	51.44	0.48	11.65	1.53	0.19	4.72	7.97	22.03
	여성	1,446	60.18	0.31	9.59	1.56	0.25	4.37	6.70	17.04
연령	19~24세	1,135	54.79	0.23	11.96	0.47	0.16	3.00	6.81	22.58
	25~29세	988	53.51	0.28	12.09	1.84	0.17	4.10	8.09	19.90
	30~34세	895	58.61	0.74	7.63	2.54	0.33	6.94	7.30	15.91
학력	고졸 이하	658	44.90	0.61	14.46	2.03	0.50	5.24	10.48	21.80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56.40	0.23	10.57	0.00	0.14	2.83	6.02	23.80
	대졸 이상	1,499	59.51	0.41	9.16	2.23	0.14	5.26	6.85	16.43
경제 활동 여부	경활 취업	1,874	53.61	0.45	11.77	2.31	0.26	5.36	7.69	18.54
	경활 실업	163	56.16	1.05	10.57	1.01	0.28	1.98	12.70	16.24
	비경활	981	58.96	0.20	8.71	0.23	0.13	3.51	5.92	22.34
지역	서울	641	60.38	0.49	12.18	2.05	0.07	2.62	4.53	17.67
	수도권	946	56.24	0.70	10.62	1.26	0.25	7.06	7.20	16.67
	비수도권	1,431	52.98	0.16	10.04	1.50	0.26	3.76	8.78	22.62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71.19	0.00	2.51	2.12	0.00	7.30	6.71	10.17
	청년 부부	143	71.88	0.00	2.15	2.01	0.00	5.53	3.33	15.11
	청년 독립 1인	547	32.58	0.70	21.24	4.78	1.00	4.80	11.40	23.50
	청년 독립 기타	118	55.45	0.00	8.00	2.77	0.00	6.16	9.45	18.17
	청년 비독립 1인	214	60.66	0.37	12.60	0.86	0.00	3.58	3.25	18.69
	청년 비독립 기타	27	61.62	2.75	17.91	0.00	0.00	0.00	2.99	14.73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 료, 선후배	소속단 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부모 동거 청년	1,650	55.26	0.42	10.52	0.68	0.10	3.77	7.63	21.62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52.95	0.00	9.42	3.98	0.00	7.51	5.50	20.63
	기타 가구	38	37.52	1.56	22.35	1.92	3.22	11.43	5.00	16.9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42.78	0.58	18.10	3.36	0.64	4.35	8.44	21.75
	2인 이상 가구	2,257	58.57	0.36	8.92	1.11	0.12	4.60	7.12	19.20
가구 원 수	1인	547	32.58	0.70	21.24	4.78	1.00	4.80	11.40	23.50
	2인	353	61.13	0.16	9.46	2.28	0.32	5.98	4.87	15.80
	3인	788	58.31	0.69	8.90	1.72	0.00	4.97	7.64	17.78
	4인	1,085	58.95	0.34	9.27	0.52	0.14	3.66	6.16	20.97
	5인 이상	245	56.44	0.00	9.36	0.70	0.00	5.20	9.45	18.86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셋째, 아래 <표 7-2-3>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처 경로를 살펴보면, 56.30%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족을 제일 먼저 찾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친구, 학교 선후배(15.95%)였다. 가족 문제인데도 친척과 상의하는 비율은 1.17%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관련 전문가(0.25%)를 찾았던 경험은 매우 적었다.

가족을 가장 먼저 찾는 경향은 세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건강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과 의논한다는 비율이 44.67%로 다른 가구 형태(전체 평균 56.30%)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기타 가구 또한 38.83%로 적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경우는

38사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가족 구성원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위의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6.21%).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현재 실업 중인 청년층에서는 두 배 이상 높은 13.40%로 나타났다.

〈표 7-2-3〉 최근 1년 동안 ‘가족 구성원 관련된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료, 선후배	소속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56.30	1.17	15.95	1.17	0.26	0.25	6.21	18.68
성별	남성	1,572	54.15	1.01	15.38	1.11	0.21	0.21	7.18	20.75
	여성	1,446	58.73	1.35	16.61	1.23	0.31	0.30	5.12	16.35
연령	19~24세	1,135	51.55	1.16	17.35	0.75	0.22	0.38	6.27	22.31
	25~29세	988	55.34	0.91	16.78	0.97	0.23	0.21	6.68	18.87
	30~34세	895	63.14	1.46	13.37	1.89	0.33	0.13	5.65	14.04
학력	고졸 이하	658	47.82	1.75	19.64	1.54	0.00	0.32	7.44	21.49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53.74	0.63	15.25	0.24	0.22	0.40	6.50	23.03
	대졸 이상	1,499	61.34	1.24	14.82	1.55	0.39	0.14	5.33	15.00
경제활동 여부	경활 취업	1,874	57.19	1.20	16.44	1.65	0.23	0.25	5.75	17.28
	경활 실업	163	53.44	2.39	16.56	0.98	0.00	0.50	13.40	12.73
	비경활	981	55.15	0.92	14.98	0.33	0.34	0.21	5.86	22.22
지역	서울	641	62.48	2.55	16.57	0.25	0.00	0.10	4.65	13.41
	수도권	946	53.35	1.35	20.01	1.29	0.08	0.21	6.81	16.90
	비수도권	1,431	55.48	0.43	12.97	1.50	0.50	0.34	6.52	22.26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 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73.90	1.18	12.25	1.86	0.00	0.00	5.05	5.76
	청년 부부	143	70.13	1.39	8.48	0.76	0.00	0.00	4.08	15.16
	청년 독립 1인	547	44.67	1.49	17.77	2.48	0.75	0.32	9.10	23.42
	청년 독립 기타	118	56.27	0.64	14.55	2.33	0.00	0.00	5.38	20.83
	청년 비독립 1인	214	51.85	3.60	19.68	0.34	0.00	0.65	3.06	20.82
	청년 비독립 기타	27	63.75	0.00	1.92	0.00	0.00	2.59	13.92	17.82
	부모 동거 청년	1,650	54.40	0.81	16.87	0.89	0.29	0.19	6.35	20.2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65.76	0.00	15.75	0.00	0.00	0.00	0.00	18.49
	기타 가구	38	38.83	3.22	23.69	0.00	0.00	2.34	10.14	21.7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47.28	2.26	18.46	1.79	9.48	0.44	6.91	22.47
	2인 이상 가구	2,257	58.44	0.92	15.36	1.04	0.20	0.20	6.04	17.79
가구 원 수	1인	547	44.67	1.49	17.77	2.48	0.75	0.32	9.10	23.42
	2인	353	59.14	1.24	13.04	1.51	0.00	0.49	7.01	17.57
	3인	788	60.66	1.17	15.66	1.01	0.00	0.11	5.85	15.55
	4인	1,085	57.73	0.86	15.69	0.92	0.21	0.31	5.59	18.70
	5인 이상	245	52.16	1.87	18.49	0.62	0.67	0.00	5.29	20.90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을 살펴보면, 가족이 62.15%로 가장 많았다. 친구, 학교 선후배와 가장 먼저

논의한다는 응답이 10.69%로 그 뒤를 이었지만, 가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은 8.09%로 나타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에게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가구 형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또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위의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문제’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게,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는 비율이 41.80%로 다른 가구 형태(전체 평균 62.1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표 7-2-4〉 최근 1년 동안 ‘금전적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62.15	0.62	10.69	1.42	0.20	0.32	8.09	16.51
성별	남성	1,572	59.19	0.51	11.47	1.71	0.12	0.61	8.27	18.12
	여성	1,446	65.49	0.76	9.80	1.09	0.29	0.00	7.88	14.68
연령	19~24세	1,135	65.32	0.61	9.44	0.86	0.38	0.00	6.97	16.42
	25~29세	988	59.63	0.30	12.12	1.75	0.12	0.64	8.46	16.98
	30~34세	895	60.91	0.99	10.70	1.77	0.06	0.39	9.06	16.11
학력	고졸 이하	658	53.17	0.30	15.30	2.58	0.39	0.83	9.22	18.22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68.96	0.70	7.78	0.07	0.14	0.00	6.04	16.32
	대졸 이상	1,499	61.99	0.72	10.43	1.72	0.16	0.30	8.79	15.90
경제 활동	경활 취업	1,874	57.79	0.57	12.86	2.09	0.30	0.53	9.26	16.60
	경활 실업	163	66.15	0.72	9.06	0.59	0.00	0.00	14.05	9.43
	비경활	981	69.41	0.71	7.01	0.35	0.05	0.00	4.97	17.51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 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지역	서울	641	69.30	0.97	11.15	1.06	0.00	0.22	6.24	11.06
	수도권	946	60.49	0.87	12.05	1.59	0.13	0.28	9.23	15.37
	비수도권	1,431	60.02	0.30	9.57	1.47	0.34	0.40	8.16	19.73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74.40	1.50	5.63	2.29	0.00	0.00	8.42	7.76
	청년 부부	143	70.68	0.00	5.63	0.80	0.00	0.74	5.33	16.82
	청년 독립 1인	547	41.80	0.36	18.81	3.75	0.78	0.59	12.35	21.56
	청년 독립 기타	118	60.02	0.60	6.89	0.00	0.00	0.68	12.65	19.15
	청년 비독립 1인	214	74.97	0.89	7.19	0.34	0.00	0.00	3.08	13.52
	청년 비독립 기타	27	69.27	0.00	7.91	0.00	0.00	0.00	8.09	14.73
	부모 동거 청년	1,650	45.98	0.00	12.55	0.00	0.00	0.00	17.48	23.99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48.89	1.61	18.28	0.00	0.00	3.95	12.02	15.25
	기타 가구	38	48.89	1.61	18.28	0.00	0.00	3.95	12.02	15.25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53.85	0.55	14.59	2.51	0.49	0.38	8.98	18.64
	2인 이상 가구	2,257	64.12	0.64	9.76	1.16	0.13	0.31	7.87	16.00
가구 원 수	1인	547	41.80	0.36	18.81	3.75	0.78	0.59	12.35	21.56
	2인	353	63.31	0.34	8.44	1.34	0.00	0.77	8.54	17.25
	3인	788	63.12	0.58	9.67	1.29	0.00	0.33	9.45	15.55
	4인	1,085	66.43	0.88	9.72	1.06	0.26	0.15	6.63	14.88
	5인 이상	245	65.17	0.39	9.91	0.62	0.00	0.19	5.70	18.02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섯째,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안전 문제의 경우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29.12%)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 역시 가족과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경우가 38.99%로 가장 많았고 친구, 학교 선후배라는 응답이 16.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독립 1인 가구가 두드러지는데,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친구, 학교 선후배와 의논한다는 응답이 22.96%로, 가족(21.19%)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았다. 이는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립 가구를 이룬 청년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친구 및 학교 선후배와 같이 비혈연 관계와의 유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지지망 활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 가구의 경우 이러한 안전 문제와 해당이 없다는 응답이 27.54%로 전체 평균인 29.12%보다 다소 낮게 나왔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1인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인식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 및 탐색할 필요가 있다.

〈표 7-2-5〉 최근 1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38.99	0.38	16.03	4.46	0.33	0.93	9.76	29.12
성별	남성	1,572	34.74	0.42	15.10	6.06	0.46	1.42	11.29	30.51
	여성	1,446	43.78	0.34	17.09	2.66	0.18	0.38	8.05	27.5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 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연령	19~24세	1,135	39.97	0.29	16.42	2.08	0.22	0.36	9.85	30.81
	25~29세	988	35.62	0.45	18.20	4.44	0.40	1.22	9.63	30.04
	30~34세	895	41.33	0.41	13.28	7.42	0.38	1.32	9.79	26.07
학력	고졸 이하	658	30.83	0.54	16.85	7.83	0.69	1.08	11.54	30.65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41.61	0.10	16.01	0.74	0.09	0.33	9.40	31.73
	대졸 이상	1,499	40.90	0.47	15.71	5.20	0.31	1.21	9.23	26.97
경제 활동	경찰 취업	1,874	37.12	0.48	16.41	7.12	0.45	1.12	9.80	27.50
	경찰 실업	163	34.65	0.39	17.44	1.53	0.00	0.82	15.64	29.53
	비경찰	981	43.09	0.19	15.12	0.12	0.16	0.60	8.73	31.98
지역	서울	641	40.94	0.28	23.21	3.71	0.24	0.90	7.32	23.40
	수도권	946	41.31	0.67	13.48	5.07	0.38	1.53	11.60	25.95
	비수도권	1,431	36.55	0.23	14.49	4.40	0.33	0.54	9.64	33.82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54.67	0.36	8.51	7.40	0.38	0.67	8.81	19.20
	청년 부부	143	47.72	0.69	7.06	5.28	0.00	1.62	10.00	27.62
	청년 독립 1인	547	21.19	0.66	22.96	11.57	0.99	0.98	12.59	29.05
	청년 독립 기타	118	41.51	0.00	11.36	2.66	0.00	0.00	9.68	34.79
	청년 비독립 1인	214	43.38	1.07	22.96	1.05	0.00	1.01	4.74	25.79
	청년 비독립 기타	27	44.28	0.00	5.92	2.75	0.00	0.00	13.05	33.99
	부모 동거 청년	1,650	38.60	0.25	16.45	2.90	0.25	0.78	9.81	30.9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19.75	0.00	13.20	5.50	0.00	7.99	9.97	43.59
	기타 가구	38	21.78	0.00	28.13	0.00	1.92	3.95	12.89	31.33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29.25	0.81	22.96	7.75	0.63	0.99	9.74	27.87
	2인 이상 가구	2,257	41.30	0.28	14.39	3.68	0.25	0.92	9.77	29.41
가구 원 수	1인	547	21.19	0.66	22.96	11.57	0.99	0.98	12.59	29.05
	2인	353	41.51	0.35	12.77	3.68	0.22	1.69	10.80	28.97
	3인	788	39.64	0.28	16.20	4.71	0.29	1.00	9.88	28.01
	4인	1,085	41.87	0.38	14.69	2.74	0.22	0.36	9.57	30.18
	5인 이상	245	43.47	0.32	16.51	3.44	0.19	1.98	6.31	27.77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여섯째,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을 살펴 보면, 친구, 학교 선후배가 37.90%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 30.37%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친척(0.60%)이나 관련 전문가(0.97%), 소속단체 지인(0.57%)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34세로 가장 높은 연령집단의 경우, 가족이라는 응답이 33.84%로 친구, 학교 선후배(24.15%)보다 높았다.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미 부부를 이루고 부모에게서 독립한 가구(청년 부부+자녀, 청년 부부)의 경우에는 친구, 학교 선후배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가족과 상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7-2-6)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 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30.37	0.60	37.90	4.31	0.57	0.97	8.87	16.41
성별	남성	1,572	28.71	0.66	37.74	4.81	0.61	1.11	9.70	16.65
	여성	1,446	32.24	0.54	38.08	3.75	0.53	0.80	7.93	16.13
연령	19~24세	1,135	29.56	0.64	46.48	2.27	0.79	1.05	7.11	12.09
	25~29세	988	28.02	0.49	40.97	5.45	0.45	1.05	8.69	14.88
	30~34세	895	33.84	0.68	24.15	5.63	0.42	0.78	11.20	23.31
학력	고졸 이하	658	27.99	0.45	36.82	4.41	10.05	0.97	9.48	18.83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29.28	0.69	48.57	0.77	0.36	1.09	8.34	10.91
	대졸 이상	1,499	31.99	0.62	32.21	6.32	0.49	0.90	8.91	18.56
경활	경활 취업	1,874	29.72	0.63	34.27	5.92	0.49	0.97	8.96	19.03
	경활 실업	163	27.59	0.00	47.38	5.98	1.77	0.39	10.41	6.48
	비경활	981	32.00	0.65	42.95	1.12	0.51	1.06	8.44	13.27
지역	서울	641	27.58	0.57	48.04	5.12	0.11	0.62	5.77	12.19
	수도권	946	29.79	1.07	36.28	4.77	0.91	1.59	10.84	14.76
	비수도권	1,431	32.02	0.31	34.40	3.64	0.55	0.71	8.95	19.41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45.07	0.38	16.87	6.31	0.38	0.00	10.24	20.75
	청년 부부	143	43.81	0.00	15.93	2.19	0.00	0.74	9.44	27.88
	청년 독립 1인	547	15.90	0.67	41.45	7.78	1.08	0.76	10.85	21.51
	청년 독립 기타	118	37.74	0.00	24.51	3.31	0.00	0.00	11.80	22.64
	청년 비독립 1인	214	25.45	0.55	52.37	2.16	0.35	1.47	5.85	11.81
	청년 비독립 기타	27	22.95	0.00	52.52	2.75	0.00	0.00	4.82	16.96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부모 동거 청년	1,650	29.59	0.78	42.60	3.77	0.66	1.01	8.41	13.19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34.28	0.00	11.57	3.98	0.00	12.34	9.97	27.85
	기타 가구	38	18.77	0.00	50.34	3.75	0.00	3.95	6.41	16.79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19.37	0.62	45.42	5.74	0.81	1.02	9.04	17.99
	2인 이상 가구	2,257	32.98	0.60	36.12	3.97	0.51	0.96	8.83	16.03
가구 원 수	1인	547	15.90	0.67	41.45	7.78	1.08	0.76	10.85	21.51
	2인	353	35.74	0.00	29.18	3.34	0.19	1.21	9.74	20.59
	3인	788	31.77	0.72	35.19	4.36	0.48	0.57	9.37	17.54
	4인	1,085	31.21	0.64	40.23	3.74	0.64	1.19	7.64	14.71
	5인 이상	245	34.25	0.79	40.09	3.61	0.36	0.94	9.22	10.73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연애/결혼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을 살펴보면, 친구, 학교 선후배가 52.61%로 가장 높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이러한 연애/결혼의 과업을 마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최근 1년간 연애/결혼 문제에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른 영역의 결과와 유사하게, 실업 상태 청년의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비율(14.72%)이 전체 평균(9.05%)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여러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7-2-7〉 최근 1년 동안 '연애/결혼 문제' 대처로 인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 료, 선후배	소속단 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계		3,018	14.52	0.54	52.61	1.90	0.26	0.02	9.05	21.13
성별	남성	1,572	13.83	0.41	53.26	1.92	0.22	0.04	10.11	19.89
	여성	1,446	15.31	0.68	51.87	1.87	0.25	0.00	7.49	22.53
연령	19~24세	1,135	10.20	0.80	59.79	0.80	0.43	0.00	9.06	18.93
	25~29세	988	13.12	0.55	57.45	1.55	0.00	0.00	8.21	19.12
	30~34세	895	21.31	0.21	38.69	3.60	0.24	0.07	9.93	25.95
학력	고졸 이하	658	14.07	0.18	49.77	2.54	0.12	0.00	9.21	24.11
	대학 재학/휴학 /수료	861	8.98	0.77	61.83	0.19	0.14	0.00	9.14	18.94
	대졸 이상	1,499	17.90	0.55	48.48	2.61	0.33	0.04	8.93	21.15
경제 활동	경활 취업	1,874	15.79	0.45	52.02	2.92	0.26	0.00	8.74	19.82
	경활 실업	163	10.79	0.00	59.21	0.71	0.00	0.39	14.72	14.18
	비경활	981	12.84	0.78	52.58	0.26	0.22	0.00	8.68	24.67
지역	서울	641	13.34	0.31	66.28	2.04	0.00	0.00	4.15	13.89
	수도권	946	14.49	0.82	49.58	2.67	0.30	0.07	11.32	20.75
	비수도권	1,431	15.08	0.45	48.43	1.32	0.29	0.00	9.75	24.66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 자녀	259	26.64	0.38	22.90	2.85	0.00	0.00	9.64	37.60
	청년 부부	143	34.09	0.60	28.56	3.45	0.00	0.00	1.99	31.31
	청년 독립 1인	547	9.38	0.49	61.07	4.28	0.53	0.18	10.91	13.15
	청년 독립 기타	118	22.06	0.00	34.41	4.46	0.00	0.00	8.76	30.32
	청년 비독립 1인	214	5.52	0.55	67.33	0.23	0.00	0.00	7.29	19.08
	청년 비독립 기타	27	14.22	0.00	51.85	0.00	0.00	0.00	8.24	25.68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동료, 선후배	소속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부모 동거 청년	1,650	12.06	0.63	58.89	1.14	0.29	0.00	9.48	17.49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9.82	0.00	29.82	0.00	0.00	0.00	9.97	50.39
	기타 가구	38	3.55	0.00	57.25	1.94	0.00	0.00	10.89	26.37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7.98	0.51	63.35	2.81	0.34	0.11	9.59	15.31
	2인 이상 가구	2,257	16.08	0.54	50.06	1.68	0.21	0.00	8.92	22.51
가구 원 수	1인	547	9.38	0.49	61.07	4.28	0.53	0.18	10.91	13.15
	2인	353	24.16	0.31	41.58	3.01	0.00	0.00	5.11	25.83
	3인	788	17.10	0.55	47.97	1.65	0.00	0.00	10.25	22.48
	4인	1,085	12.66	0.54	54.37	1.30	0.23	0.00	9.41	21.50
	5인 이상	245	11.70	0.78	57.69	0.88	0.62	0.00	7.55	20.78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각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7-2-8>과 같다. 감정적/심리적 문제,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 학교 선후배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문제, 금전 문제,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과 상의하는 영역 중에서는 금전 문제 비율이 62.15%로 가장 높았고, 친구 및 학교 선후배와 상의하는 영역에서는 연애/결혼 문제가 52.61%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 또한 적게는 6.21%(가족 구성원 문제)에서 9.76%(안전 문제)

까지 나타났다. 영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인 가구, 실업 상태의 청년층에서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결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들 집단이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 및 탐색이 필요하다.

〈표 7-2-8〉 최근 1년 동안 이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단위: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호배	직장동료, 선호배	소속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감정적/심리적 건강	28.29	0.76	45.96	2.87	0.46	1.01	7.75	12.90
가족 구성원 관련 금전적	55.54	0.40	10.68	1.54	0.22	4.55	7.37	19.69
안전	56.30	1.17	15.95	1.17	0.26	0.25	6.21	18.68
본인의 취업/학업 연애/결혼	62.15	0.62	10.69	1.42	0.20	0.32	8.09	16.51
	38.99	0.38	16.03	4.46	0.33	0.93	9.76	29.12
	30.37	0.60	37.90	4.31	0.57	0.97	8.87	16.41
	14.52	0.54	52.61	1.90	0.26	0.02	9.05	21.13

주: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사회적 관계망-“받을 수 있는 지지”

사회적 관계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우리 연구에서는 첫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둘째,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셋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각각 몇 명인지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으로 나누어 대략의 크기를 가늠해보았다. 이와 같은 항목은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를 대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실제적, 정서적 지지의 세 영역은 사회적 지지의 주요 축으로(Cohen & Wills, 1985),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사회통합조사 등 대표성을 담보하는 전국 조사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문항이다. 따라서 청년뿐 아니라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60.80%로 가장 높았다(〈표 7-2-9〉 참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18.66%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한국사회통합조사의 응답 분포와 유사한 것이다. 한국사회통합조사에는 연령이 19~29세, 30대(30~39), 40대(40~49), 50대(50~59), 60대(60~69)와 같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 우리 조사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9세~30대를 뺀 나머지 집단을 분석하면, 1~2명이라는 응답이 57.59%, 없다는 응답이 19.69%로 우리 조사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청년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비율이 22.98%로 다른 가구 구성의 평균(18.66%)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위의 여러 영역의 문제 발생 시 대처 경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듯,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본인이 가구주인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의 결여, 양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의 결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7-2-9〉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계		3,018	18.66	60.80	17.58	2.30	0.65
성별	남성	1,572	20.46	56.37	19.18	3.04	0.94
	여성	1,446	16.63	65.80	15.78	1.47	0.32
연령	19~24세	1,135	22.55	54.73	18.77	3.07	0.88
	25~29세	988	17.37	64.57	15.80	1.50	0.76
	30~34세	895	15.26	64.27	18.00	2.22	0.25
학력	고졸 이하	658	20.81	60.30	16.37	1.89	0.63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24.50	53.53	18.20	2.93	0.84
	대졸 이상	1,499	14.40	65.20	17.74	2.11	0.55
경제 활동	경찰 취업	1,874	16.68	63.23	17.24	2.38	0.48
	경찰 실업	163	20.42	57.18	19.07	0.30	3.03
	비경찰	981	21.97	56.99	17.97	2.50	0.57
지역	서울	641	17.87	69.00	10.89	1.76	0.49
	수도권	946	14.72	64.09	18.77	1.95	0.47
	비수도권	1,431	21.65	54.90	19.82	2.79	0.84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13.03	69.31	16.25	0.68	0.73
	청년 부부	143	14.92	62.67	19.85	2.56	0.00
	청년 독립 1인	547	22.98	57.22	16.30	2.35	1.15
	청년 독립 기타	118	13.42	65.12	19.22	2.24	0.00
	청년 비독립 1인	214	18.20	54.13	22.90	2.24	0.00
	청년 비독립 기타	27	13.83	47.76	29.20	9.22	0.00
	부모 동거 청년	1,650	19.45	60.56	17.00	2.33	0.66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16.74	58.30	24.96	0.00	0.00
	기타 가구	38	33.53	59.65	6.82	0.00	0.0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21.24	56.09	18.70	2.94	1.02
	2인 이상 가구	2,257	18.05	61.92	17.32	2.15	0.56
가구 원 수	1인	547	22.98	57.22	16.30	2.35	1.15
	2인	353	18.57	58.90	19.43	2.46	0.64
	3인	788	19.68	61.54	15.73	2.07	0.97
	4인	1,085	17.12	63.20	16.88	2.40	0.41
	5인 이상	245	17.71	56.69	23.00	2.21	0.38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둘째, 아래 <표 7-2-10>는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1~2명이라는 응답이 58.93%로 가장 많았다. ‘없다’라는 응답은 6.78%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응답의 18.66%보다 상당히 줄어든 편이다. 2018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의 19세~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집단의 경우, 1~2명이라는 응답이 64.67%였다. 이를 본 연구의 청년과 엄밀

히 비교하며, 이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7-2-10〉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계		3,018	6.78	58.93	30.03	3.43	0.82
성별	남성	1,572	7.65	57.34	29.74	4.03	1.23
	여성	1,446	5.80	60.72	30.35	2.76	0.37
연령	19~24세	1,135	7.51	53.86	32.52	3.69	1.42
	25~29세	988	6.10	61.49	29.54	2.22	0.65
	30~34세	895	6.62	62.44	27.49	3.18	0.27
학력	고졸 이하	658	8.04	58.88	28.87	3.13	1.08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8.09	53.75	32.08	4.93	1.15
	대졸 이상	1,499	5.50	61.94	29.33	2.70	0.52
경제 활동	경활 취업	1,874	6.72	60.19	29.65	2.79	0.64
	경활 실업	163	9.69	57.51	28.47	2.01	2.32
	비경활	981	6.41	56.87	30.97	4.85	0.91
지역	서울	641	4.29	55.32	37.48	2.71	0.19
	수도권	946	6.92	57.92	30.97	3.46	0.73
	비수도권	1,431	7.82	61.24	26.02	3.75	1.17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5.95	69.61	20.86	2.86	0.73
	청년 부부	143	7.57	64.12	26.17	2.15	0.00
	청년 독립 1인	547	9.91	59.28	26.86	2.91	1.03
	청년 독립 기타	118	5.07	54.79	35.19	4.95	0.00
	청년 비독립 1인	214	7.39	47.15	38.66	5.63	1.17
	청년 비독립 기타	27	5.57	38.76	46.46	9.22	0.00
	부모 동거 청년	1,650	6.20	58.08	31.36	3.42	0.9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1.47	62.61	35.92	0.00	0.00
기타 가구	38	12.97	65.19	20.60	1.24	0.00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9.00	54.87	31.15	3.90	1.08
	2인 이상 가구	2,257	6.26	59.89	29.76	3.32	0.76
가구 원 수	1인	547	9.91	59.28	26.86	2.91	1.03
	2인	353	7.13	62.79	26.61	2.45	1.02
	3인	788	6.17	63.18	27.22	2.62	0.82
	4인	1,085	6.17	57.15	31.89	4.12	0.67
	5인 이상	245	6.53	52.78	35.62	4.13	0.93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셋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위의 두 영역(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3~4명이라는 응답이 40.42%로, 1~2명이라는 응답(40.10%)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았다.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비율도 5.79%로 위의 두 영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한국사회통합조사에서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집단을 보면, 1~2명이라는 비율이 52.73%, 3~4명이라는 비율이 32.59%, 아무도 없다는 비율은 7.18%였다. 즉 우리 조사에서의 청년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 즉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2-1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계		3,018	5.79	40.10	40.42	11.56	2.14
성별	남성	1,572	6.49	38.53	40.25	12.24	2.49
	여성	1,446	5.01	41.86	40.61	10.77	1.75
연령	19~24세	1,135	5.99	36.82	41.72	12.71	2.76
	25~29세	988	5.40	40.13	41.70	10.75	2.02
	30~34세	895	5.96	44.08	37.47	10.99	1.51
학력	고졸 이하	658	7.21	41.56	41.02	7.86	2.34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7.04	35.23	40.91	14.42	2.40
	대졸 이상	1,499	4.48	42.28	39.88	11.45	1.91
경제 활동	경찰 취업	1,874	5.72	41.60	39.70	11.20	1.78
	경찰 실업	163	6.52	38.50	42.00	8.41	4.57
	비경찰	981	5.80	37.62	41.46	12.72	2.40
지역	서울	641	3.95	38.43	45.88	11.46	0.28
	수도권	946	6.04	38.76	43.25	9.78	2.16
	비수도권	1,431	6.46	41.74	36.06	12.78	2.97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4.58	51.28	36.29	6.75	1.09
	청년 부부	143	4.70	48.14	34.83	10.72	1.60
	청년 독립 1인	547	7.85	44.69	34.49	10.36	2.62
	청년 독립 기타	118	4.63	36.41	45.92	13.04	0.00
	청년 비독립 1인	214	4.75	34.01	44.68	13.29	3.28
	청년 비독립 기타	27	5.57	35.10	38.20	15.99	5.15
	부모 동거 청년	1,650	5.77	37.01	42.19	12.80	2.2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2.57	23.53	69.54	4.36	0.00
1인 가구 여부	기타 가구	38	15.15	55.33	24.53	1.24	3.76
	1인 가구	761	6.73	40.81	38.19	11.42	2.86
	2인 이상 가구	2,257	5.57	39.93	40.95	11.58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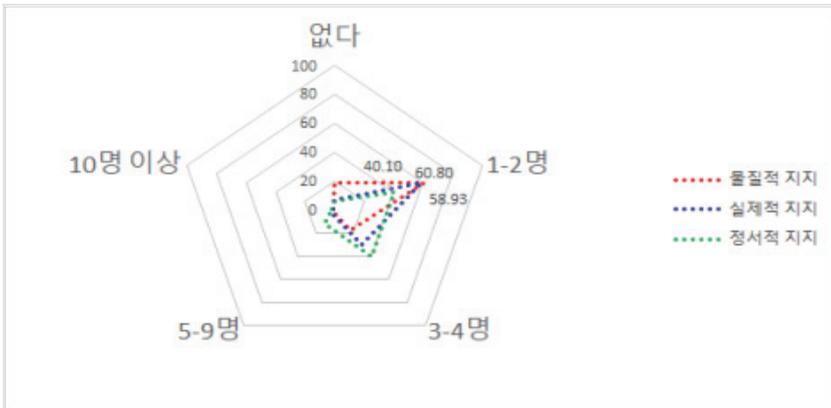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가구 원 수	1인	547	7.85	44.69	34.49	10.36	2.62
	2인	353	4.91	46.49	37.92	9.02	1.66
	3인	788	6.58	42.44	38.70	11.08	1.21
	4인	1,085	4.99	38.56	41.97	12.42	2.06
	5인 이상	245	5.83	29.86	16.89	13.22	4.21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아래 [그림 7-2-1]는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 실제적, 정서적 지지 모두 1~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4명 이상이라는 응답 또한 정서적 지지가 다른 지지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아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물질적 지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 조사의 청년들은 정서적 지지, 실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2-1]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사회적 관계망-“사회적 지지 제공 경험”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사회적 지지 또한 사람들에게 신체 및 정신 건강, 자기 존중감 등 여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에서는 위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 제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물질적(돈을 빌려주는 행위), 실제적(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sup>8)</sup>), 정서적(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눔) 지지로 나누어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첫째, 목돈을 빌려준 경험(물질적 지지)은 대부분의 사람(87.42%)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1년에 한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6.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위의 분석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청년들은 물질적 지지 측면에서 받는 지지, 주는 지지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2〉 최근 1년 동안 ‘목돈을 빌려준’ 경험

(단위: 명, %)

구분		1주일 에 두 번 이상	1주일 에 한 번	1달 에 한 번	1년 에 두세 번 이상	1년 에 한 번	전혀 없음	
계		3,018	0.35	0.48	2.10	3.00	6.64	87.42
성별	남성	1,572	0.17	0.76	2.30	3.69	7.07	86.00
	여성	1,446	0.56	0.18	1.88	2.22	6.15	89.02
연령	19~24세	1,135	0.55	0.70	3.09	3.11	4.63	87.92
	25~29세	988	0.33	0.21	1.84	2.50	6.39	88.72
	30~34세	895	0.14	0.51	1.16	3.39	9.36	85.43

8) 구체적인 문항은 받는 사회적 지지인 경우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회적 지지인 경우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으로 약간 다르지만 이는 모두 실제적 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		1주일에 두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 없음	
학력	고졸 이하	658	0.45	0.73	2.70	3.74	6.53	85.85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0.54	0.62	2.91	3.26	4.06	88.61
	대졸 이상	1,499	0.21	0.30	1.39	2.54	8.17	87.39
경제 활동	경찰 취업	1,874	0.33	0.36	2.08	3.14	8.28	85.81
	경찰 실업	163	1.23	0.00	3.43	4.42	5.74	85.17
	비경찰	981	0.26	0.79	1.92	2.52	3.80	90.71
지역	서울	641	1.14	0.40	1.26	1.98	6.01	89.21
	수도권	946	0.07	0.69	2.97	2.76	7.54	85.98
	비수도권	1,431	0.19	0.39	1.90	3.63	6.32	87.57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0.00	0.37	0.65	2.27	6.98	89.72
	청년 부부	143	0.75	0.70	1.30	0.91	10.29	86.04
	청년 독립 1인	547	0.18	0.92	1.70	4.38	10.34	82.48
	청년 독립 기타	118	0.63	0.00	3.65	2.73	5.73	87.26
	청년 비독립 1인	214	0.00	0.00	1.42	3.16	6.72	88.70
	청년 비독립 기타	27	0.00	0.00	5.37	13.22	0.00	81.42
	부모 동거 청년	1,650	0.47	0.51	2.42	2.98	5.56	88.0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0.00	0.00	4.56	0.00	15.47	79.96
1인 가구 여부	기타 가구	38	0.00	0.00	3.37	0.00	0.00	96.63
	1인 가구	761	0.12	0.58	1.60	3.94	9.03	84.74
가구 원 수	2인 이상 가구	2,257	0.41	0.46	2.22	2.78	6.07	88.05
	1인	547	0.18	0.92	1.70	4.38	10.34	82.48
	2인	353	0.76	0.53	2.78	2.72	7.34	85.87
	3인	788	0.48	0.60	1.09	2.91	6.13	88.69
	4인	1,085	0.21	0.31	2.52	2.93	6.02	88.01
5인 이상	245	0.39	0.37	2.31	2.32	5.26	89.35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둘째,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주었다는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전혀 없다'(36.65%)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물론 이는 물질적 지지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한 달에 한 번' 도와준 경험을 했다는 비율도 1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 지지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의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지지 분석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7-2-13〉 최근 1년 동안 '장보기를 도와준' 경험

(단위: 명, %)

구분		1주일 이상	1주일 한 번	1달 한 번	1년 두세 번 이상	1년 한 번	전혀 없음	
계		3,018	11.97	15.04	18.15	12.65	5.54	36.65
성별	남성	1,572	10.90	14.51	18.61	12.24	5.93	37.81
	여성	1,446	13.18	15.63	17.64	13.12	5.09	35.34
연령	19~24세	1,135	9.75	15.22	19.18	13.79	5.46	36.61
	25~29세	988	12.02	14.50	17.57	12.42	5.94	37.55
	30~34세	895	14.64	15.39	17.51	11.51	5.21	35.74
학력	고졸 이하	658	9.47	12.05	19.98	14.12	5.14	39.24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9.46	14.11	16.78	13.35	6.31	39.98
	대졸 이상	1,499	14.46	16.83	18.81	11.64	5.26	33.64
경제 활동	경활 취업	1,874	12.48	15.90	18.56	12.34	5.16	35.56
	경활 실업	163	11.20	12.76	17.84	14.92	3.96	39.32
	비경활	981	11.17	13.85	17.47	12.84	6.48	38.19
지역	서울	641	14.90	23.47	17.30	12.94	7.12	24.28
	수도권	946	12.96	13.89	19.02	13.65	5.25	35.23
	비수도권	1,431	9.98	11.99	17.96	11.86	5.01	43.19

구분			1주일에 두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 없음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19.72	12.86	14.95	11.31	4.91	36.24
	청년 부부	143	15.99	18.80	11.68	9.80	4.43	39.30
	청년 독립 1인	547	7.27	10.53	16.21	14.00	7.57	44.42
	청년 독립 기타	118	14.20	14.95	21.40	7.75	2.12	39.58
	청년 비독립 1인	214	5.56	7.33	15.04	19.55	9.08	43.44
	청년 비독립 기타	27	15.70	7.34	20.75	29.25	3.30	23.67
	부모 동거 청년	1,650	11.40	16.84	20.26	12.19	5.23	34.08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20.60	24.50	11.02	6.37	4.04	33.47
	기타 가구	38	13.79	22.54	13.65	10.29	3.42	36.31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6.65	9.37	15.79	16.01	8.12	44.06
	2인 이상 가구	2,257	13.23	16.39	18.72	11.86	4.92	34.89
가구 원 수	1인	547	7.27	10.53	16.21	14.00	7.57	44.42
	2인	353	15.22	18.71	15.76	9.16	4.63	36.52
	3인	788	15.08	16.88	18.34	11.47	4.86	33.36
	4인	1,085	10.73	14.43	20.23	13.59	5.89	35.13
	5인 이상	245	11.89	14.59	15.01	13.76	4.44	40.31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를 제공한 경험도 다른 지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응답이 27.44%로 가장 높았다. ‘1년에 두세 번 이상’이라는 응답도 21.42%로, 정서적 지지의 제공 경험은 다른 지지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1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7-2-14〉 최근 1년 동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

(단위: 명, %)

구분		1주일에 두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 없음	
계		3,018	5.12	13.74	27.44	21.42	7.84	24.44
성별	남성	1,572	2.93	11.72	27.27	22.04	7.26	28.78
	여성	1,446	7.60	16.02	27.63	20.72	8.50	19.54
연령	19~24세	1,135	4.64	14.95	28.37	19.77	8.64	23.64
	25~29세	988	4.78	11.15	29.10	22.45	7.17	25.35
	30~34세	895	6.08	14.98	24.54	22.36	7.58	24.46
학력	고졸 이하	658	4.73	9.43	27.25	19.44	9.10	30.04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4.47	14.30	25.89	21.90	9.03	24.42
	대졸 이상	1,499	5.67	15.22	28.40	21.97	6.63	22.10
경제 활동	경활 취업	1,874	4.74	13.60	28.00	21.42	7.62	24.62
	경활 실업	163	4.59	9.18	27.42	19.74	8.96	30.11
	비경활	981	5.92	14.74	26.41	21.69	8.06	23.19
지역	서울	641	3.41	13.98	28.87	27.75	9.21	16.77
	수도권	946	5.64	13.88	28.04	21.48	10.22	20.76
	비수도권	1,431	5.56	13.53	26.38	18.51	5.64	30.37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6.06	15.76	24.05	26.38	6.01	21.75
	청년 부부	143	8.29	14.99	22.09	23.78	5.22	25.63
	청년 독립 1인	547	4.61	12.78	24.94	19.43	10.29	27.96
	청년 독립 기타	118	6.76	18.27	20.73	26.58	5.88	21.77
	청년 비독립 1인	214	4.87	14.50	31.76	22.45	6.13	20.29
	청년 비독립 기타	27	8.24	13.22	22.49	27.65	13.14	15.25
	부모 동거 청년	1,650	4.60	13.12	29.43	20.29	7.96	24.60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2.46	14.51	34.09	22.66	11.07	15.22
	기타 가구	38	5.89	9.73	11.09	8.46	16.45	48.37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761	4.71	13.40	27.42	20.53	8.77	25.17
	2인 이상 가구	2,257	5.22	13.82	27.44	21.63	7.62	24.27

구분		1주일에 두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 없음	
가구 원 수	1인	547	4.61	12.78	24.94	19.43	10.29	27.96
	2인	353	7.56	14.91	21.96	22.62	6.97	25.98
	3인	788	5.75	14.39	29.96	21.67	6.26	21.98
	4인	1,085	4.17	13.62	28.99	21.23	8.08	23.92
	5인 이상	245	5.35	12.71	25.26	22.45	8.40	25.81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4.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Zimet et al(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12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체적 문항은 아래 <표 7-2-15>와 같다.

<표 7-2-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의미 있는 주변인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의미 있는 주변인	2) 나에게서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가족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가족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의미 있는 주변인	5) 나에게서 나를 진정으로 위해 줄 사람이 있다.
친구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구분	문항
가족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친구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의미 있는 주변인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
가족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친구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자료: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에서 재인용.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계산은 전체, 혹은 가족, 친구, 기타 의미 있는 주변인의 세 하위 영역 내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우리 연구에서도 전체, 세 하위 영역의 값을 모두 제시하였다.

아래 <표 7-2-16>는 전체 사회적 지지 척도값, 세 하위 영역(가족, 친구, 중요 주변인)의 척도값을 보여 준다. 전체 평균값은 5.57(표준편차=.02; 범위 1~7)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 준다. 이를 지지의 원천별로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5.63(표준편차=.02)로 가장 높았고, 중요 주변인이 5.58(표준편차=.02), 친구가 5.49(표준편차=.02) 순이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며, 아직 부부 가구를 꾸리지 않은 청년 독립 가구(청년 1인 가구 등)의 경우, 가족보다는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서 받는 지지가 큰 것으로 보아, 전통 사회의 가족 중심적 지지 원천에서 벗어나 전형적 가족 외에서 받는 지지가 높아졌으며,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7-2-1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지지의 원천

(단위: 점)

구분		가족	친구	기타 중요한 사람	전체	
계		3,018	5.63(.02)	5.49(.02)	5.58(.02)	5.57(.02)
성별	남성	1,572	5.60(.03)	5.46(.03)	5.53(.03)	5.53(.02)
	여성	1,446	5.66(.03)	5.53(.03)	5.64(.02)	5.61(.02)
연령	19~24세	1,135	5.64(.03)	5.55(.03)	5.61(.03)	5.60(.03)
	25~29세	988	5.59(.03)	5.45(.03)	5.53(.03)	5.52(.03)
	30~34세	895	5.66(.03)	5.45(.04)	5.61(.03)	5.57(.03)
학력	고졸 이하	658	5.42(.04)	5.26(.04)	5.39(.04)	5.36(.04)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5.70(.04)	5.58(.04)	5.63(.03)	5.64(.03)
	대졸 이상	1,499	5.67(.03)	5.53(.03)	5.63(.03)	5.61(.02)
경제활동	경활 취업	1,874	5.58(.02)	5.44(.02)	5.54(.02)	5.52(.02)
	경활 실업	163	5.58(.10)	5.45(.08)	5.52(.08)	5.52(.08)
	비경활	981	5.73(.03)	5.58(.03)	5.67(.03)	5.66(.03)
지역	서울	641	5.54(.03)	5.41(.03)	5.46(.03)	5.47(.03)
	수도권	946	5.64(.03)	5.51(.04)	5.64(.03)	5.60(.03)
	비수도권	1,431	5.66(.03)	5.51(.03)	5.60(.03)	5.59(.03)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5.74(.06)	5.44(.06)	5.66(.05)	5.61(.05)
	청년 부부	143	5.79(.07)	5.65(.08)	5.78(.08)	5.74(.07)
	청년 독립 1인	547	5.28(.05)	5.26(.04)	5.28(.04)	5.28(.04)
	청년 독립 기타	118	5.65(.10)	5.49(.09)	5.66(.10)	5.60(.08)
	청년 비독립 1인	214	5.73(.07)	5.65(.07)	5.67(.07)	5.69(.06)
	청년 비독립 기타	27	5.99(.17)	5.76(.19)	5.82(.20)	5.85(.17)
	부모 동거 청년	1,650	5.65(.03)	5.51(.02)	5.59(.02)	5.59(.02)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5.55(.23)	5.69(.18)	5.77(.17)	5.67(.18)
1인 가구 여부	기타 가구	38	5.16(.14)	4.95(.23)	5.19(.17)	5.10(.16)
	1인 가구	761	5.45(.04)	5.41(.04)	5.43(.04)	5.43(.04)
	2인 이상 가구	2,257	5.67(.02)	5.51(.02)	5.62(.02)	5.60(.02)

구분		가족	친구	기타 중요한 사람	전체	
가구원 수	1인	547	5.28(.05)	5.26(.04)	5.28(.04)	5.28(.04)
	2인	353	5.63(.05)	5.51(.05)	5.61(.05)	5.58(.05)
	3인	788	5.65(.04)	5.46(.04)	5.57(.04)	5.56(.03)
	4인	1,085	5.66(.03)	5.52(.03)	5.62(.03)	5.60(.03)
	5인 이상	245	5.81(.07)	5.66(.06)	5.74(.06)	5.74(.06)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4) 평균(표준편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위에서 살펴본 지지의 원천뿐 아니라 지지의 수준별로 낮은 사회적 지지(1~3점), 보통의 사회적 지지(3~5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5~7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 <표 7-2-17>은 이를 수준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응답자(73.46%)가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0.8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부분의 세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1.6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듯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으며 1인 가구인 가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편이었다.

〈표 7-2-17〉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지의 수준

(단위: 명, %)

구분		낮은 사회적 지지	중간 사회적 지지	높은 사회적 지지	
계		3,018	0.80	25.74	73.46
성별	남성	1,572	0.88	27.77	71.35
	여성	1,446	0.72	23.44	75.84
연령	19~24세	1,135	0.73	25.54	73.73
	25~29세	988	0.66	26.77	72.57
	30~34세	895	1.04	24.90	74.06
학력	고졸 이하	658	1.61	33.23	65.16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0.54	24.71	74.75
	대졸 이상	1,499	0.62	23.19	76.19
경제활동	경찰 취업	1,874	1.11	26.70	72.19
	경찰 실업	163	0.38	29.38	70.24
	비경찰	981	0.32	23.39	76.28
지역	서울	641	0.27	26.27	73.46
	수도권	946	1.19	24.24	74.57
	비수도권	1,431	0.79	26.50	72.71
가구 형태	청년 부부 (한부모)+자녀	259	0.58	21.29	78.14
	청년 부부	143	0.75	15.65	83.60
	청년 독립 1인	547	1.75	37.49	60.77
	청년 독립 기타	118	1.09	24.88	74.02
	청년 비독립 1인	214	1.03	21.43	77.55
	청년 비독립 기타	27	0.00	18.60	81.40
	부모 동거 청년	1,650	0.56	25.49	73.95
	부모 동거 청년 기타	22	0.00	22.49	77.51
1인 가구 여부	기타 가구	38	4.52	48.65	46.83
	1인 가구	761	1.49	31.65	66.86
	2인 이상 가구	2,257	0.64	24.34	75.02

구분		낮은 사회적 지지	중간 사회적 지지	높은 사회적 지지	
가구원 수	1인	547	1.75	37.49	60.77
	2인	353	1.17	24.59	74.24
	3인	788	0.99	23.44	75.57
	4인	1,085	0.55	25.04	74.41
	5인 이상	245	0.00	21.65	78.35

주: 1) 청년 한부모+자녀 가구는 부부+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0% 이하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4) 평균(표준편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실태 파악을 통해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인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했던 경험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 Zimet et al.(1988)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를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먼저 각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문제, 금전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경우가, 감정적/심리적 문제,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는 친구, 학교 선후배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척과 같은 전통적 확대가족은 더 이상 오늘날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활용이

낮은 원인을 비용의 문제, 정보 미비 등과 같은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 관련 서비스 및 정책의 부재로 볼 것인지 혹은 이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볼 것인지는 추가적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에게 제공한 경험의 빈도수를 통해 ‘받는’ 측면과 ‘주는’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영역을 물질적, 실제적,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년은 받고-주는 모든 측면에서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받고-주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은 가족보다는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서 지지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전통적 가족을 벗어나 맺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쌓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관적 사회적 지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높은 사회적 지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일관되게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 결여가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은 가족에게서 받는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족 이외 다른 주변인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적 지지 결여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위험 요인과 맞물린다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Wang, Mann,

Lloyd-Evans, Ma, & Johnson, 2018). 따라서 이러한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지역사회 공동체 모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에 정책적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들 1인 가구의 다른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생활 상태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 구체화가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8장

## 청년의 주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 8 장 청년의 주거

### 제1절 들어가며

주거시장에서 청년의 불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청년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청년이 주요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주거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상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주거복지 소요 대상과는 달리 사회주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청년을 위한 주거 마련과 관련한 금융 지원, 주거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주거 정보 제공 및 교육 관련 사업 등 또한 마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주거복지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주거 확보에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반영한다. 청년 가구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비오(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가구주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8.9%였으며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는 경우는 24.7%, 이를 종합하면 주거빈곤<sup>9)</sup>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주 가구는 33.1%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3분의 1정도가 주

9) 김비오(2019)는 주거빈곤 해당 여부 변수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주거비 과부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빈곤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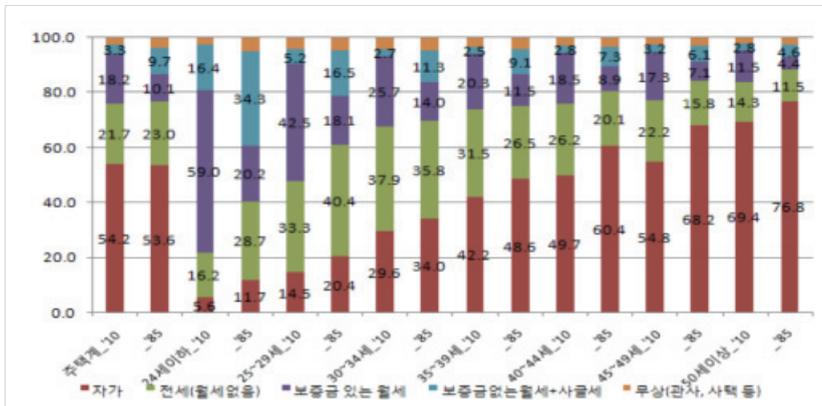
거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교하더라도 청년의 월세 전환 증가폭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1]을 살펴보면 1985년 대비 2010년에 이미 자가나 전세 비율이 청년층에서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월세 등 임차제도의 변화로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와 같은 유형의 점유 형태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월세로의 전환 비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1-1] 연령대별 주택 점유 형태: 1985년 2010년 비교

(단위: %)



자료: 박준오. (2014).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 분석 - 결혼치수를 중심으로 -. 대전: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청년의 주거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쏠리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또는 1인 가구 청년층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는 비독립 청년이나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비해 주거 상황이 열악

할 가능성이 높다(임덕영 외, 2017). 아래 표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의 청년에 비해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58.3%) 자가의 비율은 6.7%로 매우 낮다. 같은 연구에서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1인 청년 가구의 약 31%가 임대료로 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비 과부담 경험을 하고 있었다.

〈표 8-1-1〉 청년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 형태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	계
전체	57.2	17.9	19.9	1.7	3.3	100
청년 1인 가구	6.7	21.6	58.3	8.6	4.8	100
청년 부부 가구	33.6	35.3	24.6	0.8	5.7	100
청년 부부+자녀 가구	50.6	27.7	15.5	0.9	5.3	100
부모+청년 가구원	70.3	12.7	14.3	0.9	1.8	100
기타 청년 가구원	55.3	17.0	21.3	1.9	4.5	100

자료: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표 8-1-2〉 청년의 유형별 임대료 과부담 정도

구분	RIR 20% 이상	RIR 30% 이상
전체	45.37	21.94
청년 1인 가구	52.62	31.15
청년 부부 가구	42.20	16.97
청년 부부+자녀 가구	49.14	21.20
부모+청년 가구원	39.98	17.73
기타 청년 가구원	46.26	24.41

자료: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청년 주거 지원은 크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렴하게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표 8-1-3〉 청년 주거 지원 대표 사업

청년 주거 정책	
주거지 공급	행복주택
	청년 전세 임대
	공공기숙사(서울: 행복기숙사)
	역세권2030(서울)
	희망하우징(서울)
	사회주택(서울)
	쉐어하우스(서울)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주: 본 표에서 소개된 프로그램 외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진행 중인 추가적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음.

자료: 마이홈포털, 청년주거지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서울주거상담, 청년주거지원 (<https://www.seoulhousing.kr/html/0504001.do>)(2020. 6. 30. 인출)

그러나 이러한 정책 또한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청년의 신분과 소득에 따라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빈곤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적어 여전히 청년의 다양한 주거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년 주거는 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으로 청년 주

거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과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의 어떠한 특성이 주거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청년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주거에 있어 어려움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청년층 중에서도 특별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점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청년의 주거는 기초 분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실태, 청년층 주거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기초 분석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평균 월 77.69개월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417개월로 분석되었다. 0은 현재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지 만 1개월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8-2-1〉 청년층의 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재 주택의 거주 기간	77.69	81.41	0	41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평균적으로 조사 대상 청년들이 생활하는 주택의 실평수는 22.74평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주택의 위치에 따른 실평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옥상 및 지하에 사는 경우 주거공간의 실평수가 13.81평로 나타나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상에서 거주하는 경우 22.82평으로 나타나 비교적 주거공간의 실평수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옥상 및 지하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주거 위치에서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생활공간의 크기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의 위치와 비슷하게 일반주택과 비주택 여부에 있어서도 그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확인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평균 실평수가 23.63평인 것에 비해 비주택은 그 크기가 9.43평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절대 비율은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이들의 주거 환경의 적절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거 취약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주거 지원에 이러한 취약 청년에 대한 고려와 지원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독립 유형에 따라서도 주거공간의 평수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독립 청년 또는 부부/한부모 청년에 비해 그 주거공간의 실평수가 13.61평으로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표 8-2-2〉 청년층의 현 주택의 실평수

(단위: 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재 주택의 평수	22.74	9.83	1	8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8-2-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현 주택의 실평수

(단위: 명, 평)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남성	1,572	22.84	.27
여성	1,446	22.62	.26
취업	1,874	22.41	.23
미취업	1,144	23.25	.33
지상	2,993	22.82	.19
옥상 및 지하	25	13.81	1.25
일반주택	2,807	23.63	.18
비주택	211	9.43	.89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청년층의 주거 형태를 주택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과반수(53.81%)의 조사 대상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이 16.66%로 많았다. 아파트 및 다세대, 일반단독 등은 적절한 주거 형태로 일반적 주택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청년들의 일부는 주거 형태로 명명하기 어려운 공간, 즉 비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한다. 고시원, 기숙사, 상가나 공장 내 주거시설, 쪽방 등 일반적 주거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조사 결과 약 211명(6.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의 경우 특수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단형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리되기 때문에(진미운, 최상희, 임덕영, 이경애, 김경미, 최은영, 정진선, 이원호, 김기태, 김두겸, 이재운, 2018)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주택의 유형에 포함하였으며,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거 형태를 일반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여 각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이가 어릴수록 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비주택 주거 비율이

8.72%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이에 비해 만 30~34세는 4.22%로 나타났다. 저연령 청년의 비주택 거주 비율의 경우 기숙사 및 학교 근처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학력 결과를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는데 대학 재학 집단의 비주택 거주 비율이 11.5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비주택 거주 여부 역시 서울 거주 청년들의 경우 비주택 거주 비율이 10.84%로 수도권 3.11%, 비수도권 6.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가구 구성 여부에 따른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비주택 거주 비율이 11.75%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취업 청년에 비해 비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다(8.06%). 종합하였을 때 주택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존재하며 특히 독립을 하여 생활하는 비교적 어린 청년들이 이러한 비주택 거주 가능성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8-2-4〉 청년층의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일반주택	일반단독	275	9.54
	다가구 단독주택	305	8.91
	영업 겸용 단독주택	54	1.77
	아파트	1,549	53.81
	다세대/연립주택	505	16.66
	오피스텔	119	3.03
비주택	고시원	59	1.54
	기숙사	103	3.25
	상가, 공장, 여관 내 주거시설	44	1.29
	쪽방	1	0.02
	기타	4	0.16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8-2-5〉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반주택	비주택
		비율	비율
남성	1,572	92.71	7.29
여성	1,446	94.89	5.11
만 19~24세	1,135	91.28	8.72
만 25~29세	988	94.65	5.35
만 30~34세	895	95.78	4.22
비독립 청년	1,951	93.66	6.34
청년 부부	402	98.90	1.10
청년 독립	665	88.25	11.75
서울	641	89.16	10.84
경기/인천	946	96.89	3.11
비수도권	1,431	93.70	6.30
고졸 이하	658	95.67	4.33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88.42	11.58
대졸 이상	1,499	95.98	4.02
취업	1,874	94.88	5.12
미취업	1,144	91.94	8.06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청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위치이다. 적절한 주택은 지상에 지어져 적절한 채광과 환기를 보장하며 쾌적한 공간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옥상 및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총 25명(0.85%)으로 나타났다.

〈표 8-2-6〉 청년층 주거 위치(n=3,01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지상	2,993	99.15
옥상 및 반지하	25	0.85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층의 주거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55.40%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그 뒤를 이어 20.22%, 보증금 있는 월세 16.84%, 보증금 없는 월세 2.30%, 사글세 또는 연세를 내는 경우도 2.87%로 나타났으며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역시 2.37%로 나타났다. 자가나 전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어려움이 적을 수 있으나 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를 지출하는 청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표 8-2-7〉 청년층 주거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계	3,018	100
자가	1,576	55.40
전세	583	20.22
보증금 있는 월세	607	16.84
보증금 없는 월세	88	2.30
사글세 또는 연세	85	2.87
일세	0	0.00
무상	79	2.3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1인 청년 가구 주거 특성

조사 대상 청년 중 1인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주거 상황을 살펴보았다.

〈표 8-2-8〉 청년층 가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1인 가구	761	19.18
1인 가구가 아님	2,257	80.82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분석되었다. 비독립 1인 가구의 경우 독립 1인 가구에 비해 기숙사 거주 비율이 40.81%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4.98%로 가장 높았다.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독립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14.44%로 높게 나타났다(비독립 1인 가구 1.30%). 비독립 1인 가구와는 달리 독립 1인 가구는 쪽방과 기타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1명씩 조사되었다.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비독립 1인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비독립 1인 가구는 고시원 거주 비율이 독립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청년 1인 가구인데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주거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표 8-2-9〉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유형

(단위: 명, %)

구분	비독립 1인 가구		독립 1인 가구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일반단독	2	1.18	14	2.62
다가구 단독주택	53	23.83	133	23.39
영업 겸용 단독주택	0	0	15	3.00
아파트	3	1.30	78	14.44
다세대/연립주택	31	14.16	135	24.98
오피스텔	3	7.66	93	16.75
고시원	20	10.08	39	6.89
기숙사	87	40.81	15	2.97
상가, 공장, 여관 내 주거시설	3	0.98	23	4.59
쪽방	0	0	1	0.16
기타	0	0	1	0.2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독립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본 결과 독립 1인 가구는 11명(2.32%)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독립 1인 가구는 21.83% 비독립 1인 가구는 6.76%였고 월세에 있어 청년의 경제적 독립이 보증금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10〉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비독립 1인 가구		독립 1인 가구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자가	0	0	11	2.32
전세	16	6.76	116	21.83
보증금 있는 월세	89	41.29	334	60.27
보증금 없는 월세	24	11.92	49	8.39
사글세 또는 연세	76	36.76	3	0.50
일세	0	0	0	0
무상	9	3.27	34	6.69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1인 청년 가구는 약 3년 혼자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 0개월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최대 223개월을 혼자 생활한 청년 가구도 있었다.

〈표 8-2-11〉 1인 청년 가구의 혼자 산 기간

(단위: 월)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독립기간	761	39.15	38.81	0	223

주: 1) 최소값 0의 경우 독립을 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경우임.

2)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혼자 살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가 학교/학원 또는 직장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또는 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는 39.96%였으며 직장과의 거리는 35.97%로 이 둘을 합친 경우 다수의 1인 청년 가구가 직장, 학교 등과의 거리로 인해 원가족 등에서 떨어져 혼자 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혼자 살기 시작한 경우는 14.39%였으며 취업/진학/고시 등의 준비는 7.25%, 함께 살던 가족의 상황 변화로 인한 경우는 2.32%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진학 또는 고시의 경우도 학원 등에 통학을 할 필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청년들이 진로 또는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12〉 혼자 사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264	39.96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304	35.97
취업/진학/고시 등 준비 때문에	54	7.25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21	14.39
함께 있던 가족의 상황 때문에 (이주, 사망 기타)	17	2.32
기타	1	0.11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며 월 세로의 전환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인데(임덕영 외, 2017) 이러한 경우 한곳에 오래 정착하여 머무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에 응한 청년들의 경우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평균 1.80번의 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경우가 23.39%, 1~5회가 71.81%, 6~10회는 3.98%. 10회 이상으로 매우 잦은 이사를 경험한 경우는 7건으로 0.82%로 나타났다.

〈표 8-2-13〉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사 횟수 1

(단위: 명, 회, %)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이사 횟수	761	1.80	2.49	0	30

주: 빈도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결과이며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8-2-14〉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사 횟수 2

(단위: 명, 회)

이사 횟수	사례 수	비율
0회	162	23.39
1~5회	559	71.81
6~10회	33	3.98
10회 이상	7	0.82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관련 소요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비독립 1인 가구는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79.37%로 가장 많았으나 독립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6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립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월 임대료의 경우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도 29명(4.99%) 있었다. 월 관리비의 경우 비독립 1인 가구는 부모님이 부담하거나(48.08%) 해당 없는 경우(34.72%)가 많았는데 이는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표 8-2-15〉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비 출처

(단위: 명, %)

	부모님		공공		본인		기타		해당 없음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월 임대료	197	32.01	1	0.16	375	44.30	2	0.25	186	23.28
비독립 1인	168	79.37	0	0	21	10.60	0	0	25	10.03
독립 1인	29	4.99	1	0.25	354	63.53	2	0.39	161	30.39
월 관리비	13	20.35	1	0.13	500	60.14	2	0.25	127	19.13
비독립 1인	105	48.08	0	0	34	17.20	0	0	75	34.72
독립 1인	26	4.52	1	0.20	466	84.65	2	0.39	52	10.24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 1인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그렇다’(12.30%), ‘그렇다’(32.43%)의 응답이 총 44.73%로 나타났다.

〈표 8-2-16〉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비 부담

(단위: 개,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1인	14	5.86	57	27.83	57	26.12	43	19.29	43	20.89
독립 1인	78	12.30	179	32.43	129	24.17	100	18.14	69	12.96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비독립 1인 가구 역시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비율이 총 33.69%로 나타나 독립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비독립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에서 비독립 1인 가구의 응답이 20.89%로 독립 1인 가구의 응답 12.96%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주거

비 부담은 독립 1인 가구에서 주되게 관찰될 가능성이 높았다.

### 3. 청년층 주거 환경 특성

#### 가. 물리적 주거기준 미달 여부

적절한 부엌과 화장실 및 목욕시설은 모든 가구에 필수시설로 갖추어져야 하며 미충족되었을 때 적절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청년들의 많은 경우 이러한 적절한 필수시설설비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93.52%) 4.09%의 청년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공동 사용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필수 시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는 청년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시설설비 충족 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공용 또는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공용하는 비율이 6.3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의 청년들은 공용시설의 비율이 7.57%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기숙사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 유형 중에는 청년 부부 또는 한부모 가구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98.31%),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는 공용 사용이 4.44%,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3.97%였다.

〈표 8-2-17〉 주거 필수설비기준 충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	갓춤(단독)	갓춤(공용)	미충족
계	3,018	93.52	4.09	2.39
남성	1,572	92.93	4.66	2.41
여성	1,446	94.2	3.43	2.37
만 19~24세	1,135	90.95	6.19	2.86
만 25~29세	988	93.22	4.51	2.27
만 30~34세	895	97.00	1.06	1.94
서울	641	90.89	6.32	2.79
경기/인천	946	95.26	3.16	1.58
비수도권	1,431	93.56	3.69	2.75
고졸 이하	658	95.13	2.41	2.46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88.65	7.57	3.78
대졸 이상	1,499	95.66	2.78	1.56
비독립 가구	1,951	92.72	4.99	2.28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98.31	.29	1.40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91.59	4.44	3.97
1인 가구	761	77.95	13.55	8.50
2인 이상 가구	2,257	97.22	1.84	.94
취업	1,874	94.85	3.34	1.81
미취업	1,144	91.45	5.24	3.30
주택	2,807	97.37	1065	.98
비주택	211	36.04	40.50	23.46
지상	2,993	93.54	4.07	2.39
옥상 또는 지하	25	92.05	5.98	1.9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필수설비 충족의 문제는 주택 유형과도 관련이 있었다. 비주택의 경우 필수시설의 적절한 충족(시설이 있고 단독 사용) 비율이 36.04%로 매우 낮았으며 공용 사용이 40.50%, 미충족도 23.4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환경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채광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비율이 93.87%였으나 이에 비해 방음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70.98%였으며, 습기나 곰팡이에 주거 환경이 불량한 경우는 12.99%로 나타나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범 상태의 경우 9.32%, 약 10%의 청년이 불량함을 보고하여 주거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의 주거 공간은 이 밖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경우 8.54%,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7.99%로 나타나 청년층의 주거 환경에서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2-18〉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종합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채광 상태	2,805	93.87	213	6.13
방음 상태	2,107	70.98	911	29.02
습기와 곰팡이	2,621	87.01	397	12.99
환기 상태	2,798	93.48	220	6.52
주택의 방범 상태	2,724	90.68	294	9.32
재난 안전성	2,786	92.69	232	7.31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2,749	91.46	269	8.54
위생 상태	2,773	92.01	245	7.99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주거 환경 상태의 각 요소를 가구 형태, 취업 여부, 비주택 여부, 주택 위치를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채광 상태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비주택인 경우와 옥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주택이나 지상에 위치한 주택과 비교하여 불량했으며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채광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다른 유형의 가구 형태로 생활하는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34%).

〈표 8-2-19〉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채광 상태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846	95.03	105	4.97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81	94.92	21	5.08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78	87.66	87	12.34
취업	1,874	1,727	93.17	147	6.83
미취업	1,144	1,078	94.95	66	5.05
주택	2,807	2,632	94.51	175	5.49
비주택	211	173	84.27		15.73
지상	2,993	2,788	4.02	205	5.98
옥상 또는 지하	25	17	75.45	8	24.55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방음 상태 역시 가구 유형과 비주택 여부, 그리고 주택의 위치에 따라 양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2-20〉 청년 주거 환경 상태: 방음 상태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438	74.24	513	25.76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264	66.67	138	33.33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405	61.81	260	38.19
취업	1,874	1,269	69.05	605	30.95
미취업	1,144	838	73.98	306	26.02
주택	2,807	1,987	71.86	829	28.14
비주택	211	120	57.84	91	42.16
지상	2,993	2,095	71.19	898	28.81
옥상 또는 지하	25	12	46.53	13	53.4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습기와 곰팡이는 옥상이나 지하에 사는 경우 불량한 비율이 54.12%였다.

〈표 8-2-21〉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습기와 곰팡이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722	88.53	229	11.47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37	83.74	65	16.26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62	84.19	103	15.81
취업	1,874	1,623	86.77	251	13.23
미취업	1,144	998	87.39	146	12.61
주택	2,807	2,440	87.03	367	12.97
비주택	211	181	86.77	30	13.23
지상	2,993	2,610	87.37	383	12.63
옥상 또는 지하	25	11	45.88	14	54.12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환기 상태의 경우 독립 가구에서 불량함 비율이 가장 높은 12.5%로 나타났으며 비주택의 경우 역시 그 비율이 13.31%, 옥상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44.51%로 환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2-22〉 청년 주거 환경 상태: 환기 상태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840	94.75	111	5.25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78	93.98	24	6.02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80	87.5	85	12.5
취업	1,874	1,721	92.6	67	7.4
미취업	1,144	1,077	94.86	67	5.14
주택	2,807	2,618	93.94	189	6.06
비주택	211	180	86.69	31	13.31
지상	2,993	2,784	93.81	209	6.19
옥상 또는 지하	25	14	55.49	11	44.51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방범 상태의 경우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은 방범 상태가 불량한 비율이 14.88%로 주택 거주자 8.95%에 비해 높았으며 옥상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취약한 비율이 35.2%로 지상 거주자 9.1%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 안전성은 다른 주거 환경 요소에 비해 집단 간 차이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타 요소들과 동일하게 독립 여부나 주택의 위치, 비주택 여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3〉 청년 주거 환경 상태: 방법 상태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780	91.78	171	8.2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59	89.26	43	10.74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85	87.54	80	12.46
취업	1,874	1,674	89.82	200	10.18
미취업	1,144	1,050	92.02	94	7.98
주택	2,807	2,546	91.05	261	8.95
비주택	211	178	85.12	33	14.88
지상	2,993	2,707	90.9	286	9.1
옥상 또는 지하	25	17	64.8	8	35.2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8-2-24〉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재난 안전성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821	93.61	130	6.39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71	91.96	31	8.04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94	89.55	71	10.45
취업	1,874	1,709	91.70	165	8.30
미취업	1,144	1,077	94.23	67	5.77
주택	2,807	2,601	93.03	206	6.97
비주택	211	185	87.59	26	12.41
지상	2,993	2,767	92.8	226	7.2
옥상 또는 지하	25	19	80.29	6	19.71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의 경우 청년 독립 가구가 불량함을 보고한 비율이 12.81%로 비독립 가구의 7.71%, 청년 부부 가구의 7.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8-2-25〉 청년 주거 환경 상태: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797	92.29	154	7.71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68	92.08	34	7.92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84	87.19	81	12.81
취업	1,874	1,688	90.69	186	9.31
미취업	1,144	1,061	92.67	83	7.33
주택	2,807	2,561	91.55	246	8.45
비주택	211	188	90.15	23	9.85
지상	2,993	2,731	91.58	262	8.42
옥상 또는 지하	25	18	77.84	7	22.16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현재 거주하는 곳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역시 청년 독립 가구와 옥상 또는 지하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6〉 청년 주거 환경 상태: 위생 상태

(단위: 명, %)

구분		양호함		불량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독립 가구	1,951	1,809	92.8	142	7.02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72	92.61	30	7.39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592	87.98	73	12.02
취업	1,874	1,708	91.34	166	8.66
미취업	1,144	1,065	93.07	79	6.93
주택	2,807	2,585	92.13	222	7.87
비주택	211	188	90.27	23	9.73
지상	2,993	2,756	92.20	237	7.80
옥상 또는 지하	25	17	70.12	8	29.88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1명(3.45%)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독립해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비독립 또는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가구에 비해 응답 비율이 6.91%로 높았다. 또한 옥상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21.73%로 지상에 거주하는 청년 응답 비율 3.29%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옥상 또는 지하에 거주하는 청년의 수는 적지만 이러한 주택의 위치가 여러 주거 변수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7〉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방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없었음		있었음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2,907	96.55	111	3.45
비독립 가구	1,951	1,908	97.71	43	2.29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82	95.22	20	4.78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617	93.09	48	6.91
취업	1,874	1,793	95.97	81	4.03
미취업	1,144	1,114	97.47	30	2.53
주택	2,807	2,703	96.53	104	3.47
비주택	211	204	96.95	7	3.05
지상	2,993	2,887	96.71	106	3.29
옥상 또는 지하	25	20	78.27	5	21.73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방에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158명(4.85%)으로 난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8-2-28〉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냉방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없었음		있었음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2,860	95.15	158	4.85
비독립 가구	1,951	1,865	95.74	86	4.26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402	380	94.69	22	5.31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665	615	93.11	50	6.89
취업	1,874	1,769	94.90	105	5.10
미취업	1,144	1,091	95.53	53	4.47
주택	2,807	2,665	95.28	142	4.72
비주택	211	195	93.18	16	6.82
지상	2,993	2,838	95.18	155	4.82
옥상 또는 지하	25	22	90.98	3	9.02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주거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물리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나 청년이 현재 자신의 주거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청년이 느끼는 주관적 주거비 부담을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선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38, 표준편차 .03) 옥상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평균 2.65, 표준편차 .26) 지상에 거주하는 청년(평균 3.48, 표준편차 .02)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은 그 열악성으로 인해 월세 등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주택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주택 거주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만 30~34세 집단이 그 이하 연령집단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가구 청년의 경우 그 평균이 2.89점(표준편차 .05)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월세 등으로 주거를 유지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전세나 자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9〉 주관적 주거비 부담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주거비 부담	3,018	3.48	1.15
남성	1,572	3.52	0.03
여성	1,446	3.43	0.03
취업	1,874	3.38	0.03
미취업	1,144	3.62	0.04
지상	2,993	3.48	0.02
옥상 및 지하	25	2.65	0.26
일반주택	2,807	3.46	0.03
비주택	211	3.38	0.09
만 19~24세	1,135	3.68	0.03
만 25~29세	988	3.41	0.04
만 30~34세	895	3.30	0.04
비독립 가구	402	3.69	0.03
청년 한부모/부부 가구	665	3.18	0.06
청년 독립 1인/기타 가구	1,951	2.89	0.05
서울	641	3.32	0.05
경기/인천	946	3.24	0.04
비수도권	1,431	3.71	0.03
고졸 이하	658	3.30	0.05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	3.70	0.04
대출 이상	1,499	3.43	0.03
자가	1,576	3.84	0.03
전세	583	3.15	0.05
월세 외	859	2.92	0.05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비를 줄인 경험이 있는지에 주거비 부담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687명 중 46.12%가 식비를 줄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필수생활비 축소로 이어지는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30〉 주관적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식비 감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비율)
있음	318(46.12)
없음	369(53.88)
계	687(1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층의 주거 점유 형태나 이사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거불안이 상당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거처에서 퇴거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18명인 3.6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44.16%의 청년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세나 관리비가 밀려서 위험을 느꼈다는 청년은 23.88%, 거주 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경우는 23.11%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계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 위험을 느낀 경우는 6.58%, 기타 2.27%로 분석되었다.

〈표 8-2-31〉 현재 거처에서 퇴거 위험을 느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있음	118	3.60
없음	2,900	96.4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8-2-32〉 현재 거주에서 퇴거 위험을 느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서	29	23.88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49	44.16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서	6	6.58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32	23.11
기타	2	2.2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과 관련한 경제활동 이슈와 함께 주거에 있어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제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주택시장은 청년이 아닌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계층이 자가 비율이나 안정적 주거 확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높아진 부동산 가격 앞에서 청년이 안정된 주거를 자력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제도의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은 중요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은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는 인구집단으로 연령에 따라 ‘청년’이라는 범주에 묶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의 경험은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층 안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를 심각하고 다양하게 경험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수이지만 여전히 비주택, 옥상이나 반지하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물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주거 환경에서의 열악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 주거 지원은 청년 전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비주택이나 열악한 주거 위치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60~80%인 행복주택이나 시세의 85%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sup>10)</sup>과 같은 질 높은 주거 환경은 공공임대의 유형이라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sup>11)</sup> 저소득 또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진입조차 어려울 수 있다. 주택 제공과 함께 금융 지원도 청년에 대한 주요 지원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대출과 금융 지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위해 청년들이 마냥 대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는 취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면 대출은 오히려 청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회적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방향에 있어 청년 내 취약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이나 취약성을 기초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의 내용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현재의 청년 주거 지원의 방향이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주거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하고 있으나 신혼부부의 많은 경우 그 연령상 청년의 범주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로 이루어지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같은 특별공급대상자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https://www.khug.or.kr/hug/web/lr/ph/lrph000002.jsp>)

11) 행복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같은 논쟁도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고려하지 않음.

계획까지 포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현재의 주거로드맵에 있어서 특징은 소득이 높은 경우 질 높은 혹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임대나 주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 조건이 좋지 않은 형태의 주거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의 경우 주거 유지의 지속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오랫동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 환경으로 실제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선호와는 거리가 멀 수 있으며 사회 초년부터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복잡한 유형 문제, 민간임대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주거비 부담의 문제나 적절하지 못한 주거 환경의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보가 취약한 청년은 이러한 주택시장에서 열악함을 경험하기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 내 취약성이 높은 대상은 더욱 주거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 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복지 및 주거 지원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거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한 청년의 주거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주거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며 단기적으로는 청년의 주거 지원 확대의 기초 속에서 주거 불평등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9장

## 청년정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정책 인지

제3절 정책 인식과 욕구

제4절 소결



## 제 9 장 청년정책

### 제1절 들어가며

####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규정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명시한 『청년기본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오는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청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법 제정에 앞서 정부는 2019년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시행령 마련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을 취합·분류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합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 182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들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처럼 취합·분류된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2019)을 발주하였는데, 연구용역에서 청년들의 정책 인식과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이

분류하고 있는 5가지 영역별 정책 범주(중분류)에 대해 인지, 필요성, 수혜 여부, 도움 정도, 도움이 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참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설문하였다.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영역에 맞춰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기준으로 청년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취약 청년을 분류해 내고 이들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책 대상인 청년층이 가지는 다양성이다. 청년층은 여타의 정책 대상들과 달리 상당히 분화되어 있으며, 매우 동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느 세대보다 이질적이고 분절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이나 태도 역시 이질적이고 분절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또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청년 유형에 배태된 정책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활용하고, 향후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홍보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 2. 분석 방법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에 수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실태를 가구 형태, 주거 환경, 노동과 사회보험, 청년정책, 육체·정신 건강,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경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책에 대한 문항

은 청년정책 일반에 대한 인지도, 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대상의 범위에 대한 선호, 주요 세부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정책과 관련된 문항들을 기초통계량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별 취약성을 기준으로 한 인식의 차이와 욕구를 파악할 것이다. 동 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청년의 범주를 다양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인지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내용보다는 기초통계량 중심으로 청년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고,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지점을 찾아서 정책 함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제2절 정책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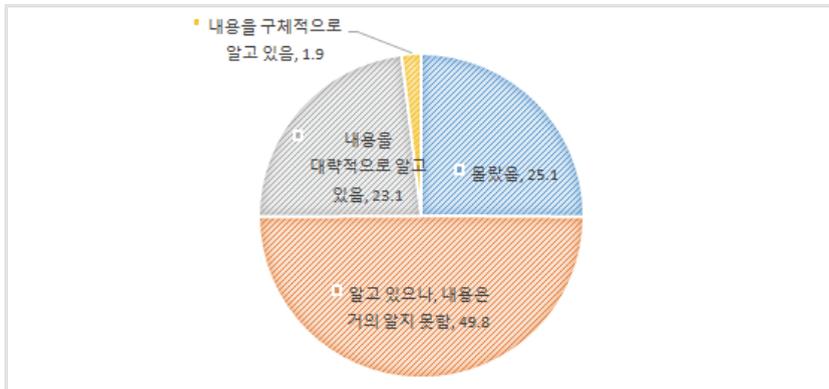
###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래 그림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 상태를 보여 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를 ‘모른다’, ‘알고 있지만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한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같이 분류하였다. 청년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25.1%이고,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9.8%로 나타나 전체 청년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가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가 23.1%,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가 1.9%로 나타나 전체 청년의 4분의 1 정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2-1]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나누어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정책 인지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 연령대를 초기-중기-후기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청년의 32%가 청년정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 청년(20%), 후기 청년(22%)보다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정책 인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연령대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정책욕구와 정책 관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상당한 인지도의 차이를 보인다. 4개의 응답 문항에 대해서 학력별로 완전히 비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도는 대졸 이

상, 대학 재학 등, 고졸 이하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일수록 정책 인지도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해진다는 점, 청년정책이 취약 청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모두 고려할 때 이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의 대상 설정과 홍보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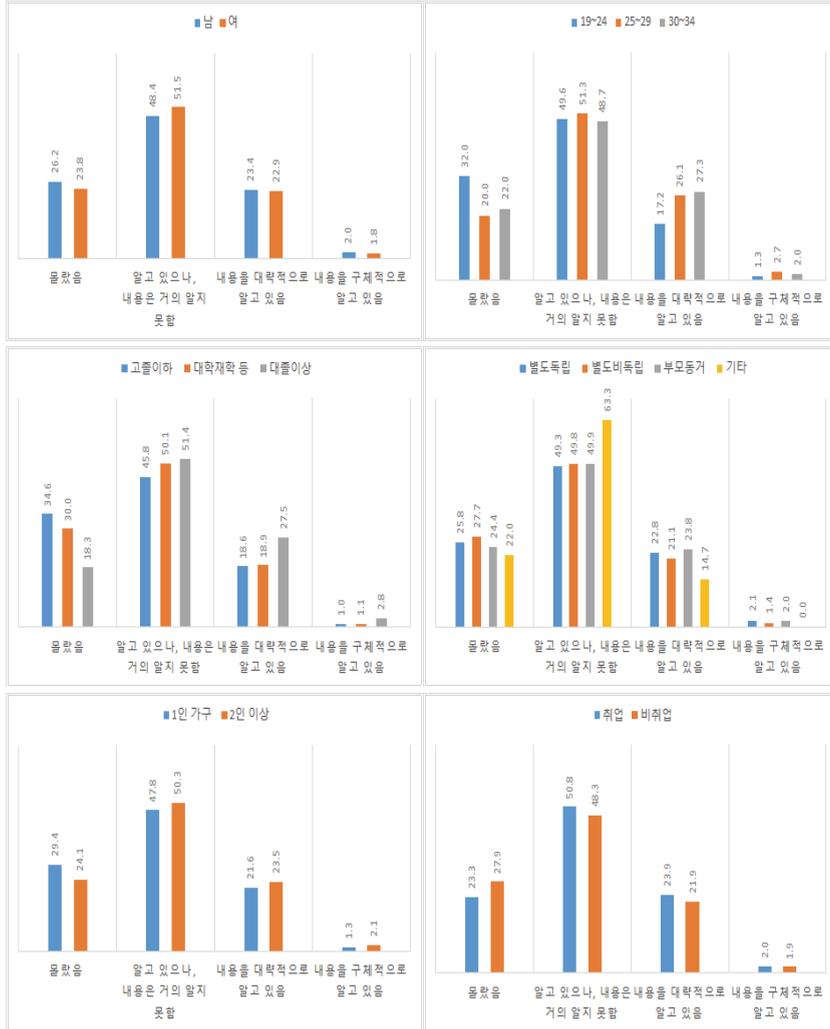
한편, 청년의 가구 구성 형태를 부모와의 주거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경우 유형별로 유의할 만한 인지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29.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24.1%가 이와 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까지 대략 알고 있는 경우는 전자는 21.6%, 후자는 23.5%,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전자는 1.3%, 후자는 2.1%로 1인 가구 청년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단독 가구의 취약성이 높다는 점<sup>12)</sup>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의 대상 설정과 홍보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청년정책을 고용정책과 등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용정책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업 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예상과 달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유의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는 응답이 취업자(23.3%)보다 비취업자(27.9%)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직관에 부합한다 하겠다. 그럼에도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12) 소득빈곤율, 주거빈곤율, 다차원적 빈곤지수 등이 청년 단독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문길 외, 2017).

[그림 9-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학력별, 지역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도 대학생을 위주로 한다는 점<sup>13)</sup> 등에서 대학생과 비대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 청년과 지방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데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구분을 통해 지역별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청년정책 대상과 홍보,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마련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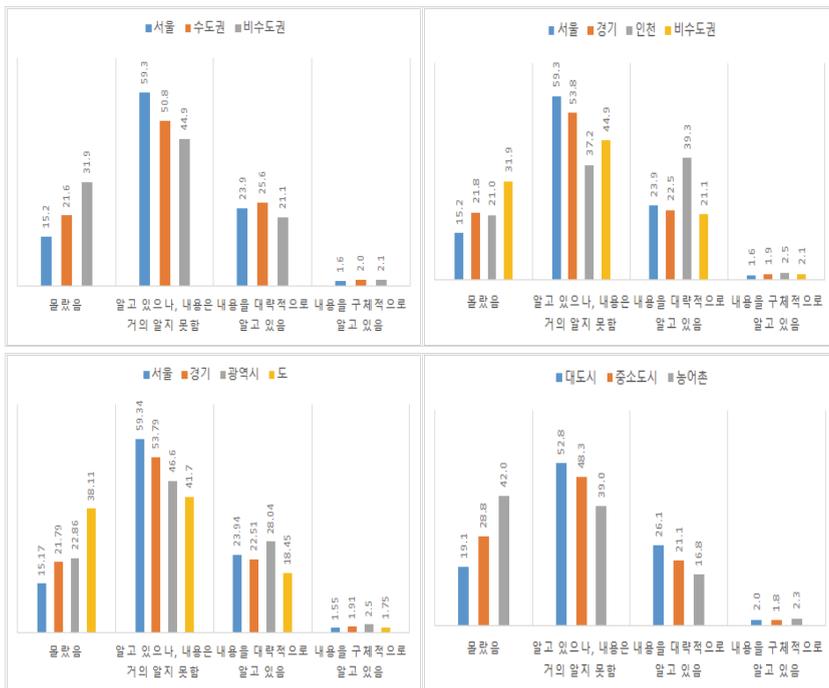
아래 그림들은 다양한 방식의 지역 구분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을 서울-서울 외 수도권(경기, 인천)-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의 인지도 차이를 보여 준다. 지역별로 상당히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데, 모른다는 비수도권, 수도권, 서울의 순으로 나타나 확실히 서울 지역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도권을 경기도와 인천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것인데, 모른다는 응답은 경기도와 인천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알고 있다는 응답을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인천의 청년들이 경기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을 서울-경기-광역시-도로 구분했을 때의 인지도 차이를 보여 준다. 모른다는 응답은 경기도와 광역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도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이 38.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 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지역 청년들의 인지도가 확연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13) 대형 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 지원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다. 네 번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한 것인데, 여기서도 지역별로 인지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관한 바와 같이 모른다는 응답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의 거버넌스 단위가 중앙정부-광역단위 지방정부로 크게 나뉘어 있고,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함의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그림 9-2-3] 거주 지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경제·경제활동·건강 상태별

김문길 외(2017)는 청년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경제력, 주거, 고용, 안정성,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의 6개 차원을 구성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 6개 영역 중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해 경제력, 경제활동, 건강의 영역별로 정책 인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경제적 계층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을 보여 준다. 경제적 계층은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중산층(중위소득 50~150% 미만)-부유층(중위소득 150% 이상) 및 5분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계층별로 정책 인지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몰랐다는 응답은 소득 중산층의 경우 전체 평균과 비슷한 25.3%인 데 비해 소득빈곤층은 31.7%, 소득부유층은 19.2%로 저소득층일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더라도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부유층과 소득 5분위가 각각 3.4%, 3.8%로 전체 평균 1.9%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과 마찬가지로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득보다 통계적 유의미성은 더 강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몰랐다는 응답의 경우 재산 1분위가 32.7%, 재산 5분위가 17.3%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경제력으로 계층을 나누어 볼 때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소득계층보다 재산계층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9-2-1〉 경제적 계층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단위: %)

구분		몰랐음	알고 있음.			$\chi^2$		
			거의 알지 못함	대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전체		25.1	49.8	23.1	1.9	-		
소득	소득 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31.7	50.1	16.9	1.4	20.414**	
		중위소득 50~150% 미만	25.3	49.7	23.3	1.7		
		중위소득 150% 이상	19.2	50.5	26.9	3.4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30.2	48.0	20.2	1.6	27.800**	
		소득 2분위	27.1	48.8	22.6	1.4		
		소득 3분위	25.4	47.2	25.5	1.9		
		소득 4분위	22.2	53.8	22.8	1.3		
		소득 5분위	19.8	51.1	25.3	3.8		
	재산	재산 계층	중위재산 50% 미만	30.0	50.5	18.3	1.2	35.867***
			중위재산 50~150% 미만	26.2	46.1	25.4	2.3	
중위재산 150% 이상			19.0	53.8	25.0	2.2		
재산 5분위		재산 1분위	32.7	48.3	18.0	1.0	47.463***	
		재산 2분위	23.6	51.8	22.8	1.8		
		재산 3분위	27.3	46.0	24.6	2.0		
		재산 4분위	24.2	49.3	23.9	2.6		
		재산 5분위	17.3	53.8	26.6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취업 여부에 따른 인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취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취업자보다 모른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모른다는 비율은 상용직이 가장 낮고,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지위가 안정적인 청년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활력이 강한 청년일수록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좋고 그에 따라 정책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이 상용직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참여-성과’의 경로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임시, 일용, 자활근로자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른다는 응답은 직접고용 21.4%, 간접고용 37.8%, 특수고용 48.0%로 나타나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의 문제를 안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특수고용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낮은 정책 인지는 계약기간 여부와 근로지속 가능성을 통해 살펴보다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는 두 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다. 최근 3년 이내 실업 경험과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9-2-2〉 경제활동 상태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단위: %)

구분	모름	알고 있음.			$\chi^2$	
		거의 알지 못함	대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취업 여부	취업	23.3	50.8	23.9	2.0	0.153
	비취업	27.9	48.3	21.9	1.9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0	52.2	24.9	2.0	14.085*
	임시·일용·자활근로	26.9	49.0	22.5	1.8	
	자영업·무급가족 종사	29.1	47.1	21.5	2.3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	21.8	51.6	24.8	1.9	3.340
	전일제 근로자	25.6	50.4	22.0	2.0	
고용 형태	직접고용	21.4	52.2	24.4	2.0	24.071**
	간접고용	37.8	37.8	24.3	0.0	
	특수고용	48.0	31.5	20.5	0.0	
계약기간 여부	정해져 있지 않음	21.8	53.0	23.5	1.7	9.046*
	정해져 있음	24.7	44.2	28.2	2.8	
근로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21.8	52.5	23.9	1.8	10.436*
	해도 될 수 있음	27.8	41.3	28.1	2.8	
3년 이내 실업 경험	경험 없음	26.9	49.3	22.4	1.4	13.765**
	경험 있음	22.3	50.7	24.2	2.7	
적극적 구직활동	했음	20.08	43.41	32.62	3.89	22.725***
	하지 않았음	29.47	49.29	19.74	1.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들의 건강 상태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건강검진 여부에 따른 인지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인데,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체에 종사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sup>14)</sup> 그리고 이들은 정보 접

근성에서도 우위에 있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조사 시점인 2019년부터 20대와 30대의 청년들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됨에 따라 정책 홍보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건강검진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등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울척도(CES-D)<sup>15)</sup>는 정책 인지도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한다. 우울한 청년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33.94%로 우울하지 않은 청년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우울한 청년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마인드링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신건강 관련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노미 척도<sup>16)</sup>는 정책 인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실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계층을 보면 종사상 지위에서는 취업자가 77.8%, 상용직이 78.5%로 확인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5) 우울척도는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서 심각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0~33점으로 재코딩한 후 점수를 합산해서 33점 중 9점이 넘을 경우 우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16) 아노미(anomie) 척도는 Srole(1956)이 구성한 5가지 문항에 '⑥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⑦ 요즘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많다', '⑧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의 3개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 응답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0에서 3점까지의 점수로 재코딩한 후 합산한 점수가 24점 중 13점 이상일 경우

자살 생각 여부에 따라서도 정책 인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정책 인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험 여부는 정책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는데,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조건, 건강상의 조건 모두에서 취약한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제공과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표 9-2-3〉 건강 상태별 청년정책 인지 현황

(단위: %)

구분	모름	알고 있음.			$\chi^2$	
		거의 알지 못함	대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건강검진	받았다	22.05	47.60	27.41	2.95	22.248***
	받지 않았다	26.56	50.92	21.07	1.45	
우울척도 (CES-D)	우울하지 않음	23.99	50.46	23.54	2.01	18.274***
	우울함	33.94	44.85	19.82	1.39	
아노미 척도	비아노미	24.99	49.63	23.42	1.95	2.577
	아노미	25.58	50.85	21.71	1.87	
주관적 건강 상태	아주 건강	26.53	47.74	23.43	2.30	21.274*
	건강한 편	23.02	52.50	22.75	1.72	
	보통	28.72	43.88	25.39	2.01	
	건강하지 않은 편	36.55	46.08	17.37	0.00	
	건강이 아주 안 좋음	54.91	19.4	25.69	0.00	

아노미 상태인 것으로 정의했다.

구분		모름	알고 있음.			$\chi^2$
			거의 알지 못함	대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1년 동안 자살 생각	예	24.78	49.92	23.35	1.94	6.851
	아니요	35.98	46.73	15.50	1.79	
1달간 정신적 감당 어려움	예	24.50	50.05	23.47	1.98	11.771**
	아니요	33.73	46.71	18.2	1.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세부 정책별 인지

#### 가. 청년 일반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인지 여부와 수혜 여부, 그리고 만족도를 조사한 청년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동 조사에서 청년정책의 영역을 취업·창업, 소득, 자산·금융, 주거, 건강, 교육, 문화, 교통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주요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표 9-2-4〉 청년정책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도

(단위: %)

영역	프로그램	안다	모른다	계
취업 창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45.7	54.3	100.0
	구직활동지원금	35.5	64.6	100.0
	창업성공패키지	31.4	68.6	100.0
	청년전용 창업자금(대출, 교육)	30.3	69.7	100.0
	내일배움카드(구직자, 재직자)	39.7	60.3	100.0
소득	(지자체)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42.3	57.7	100.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1.4	3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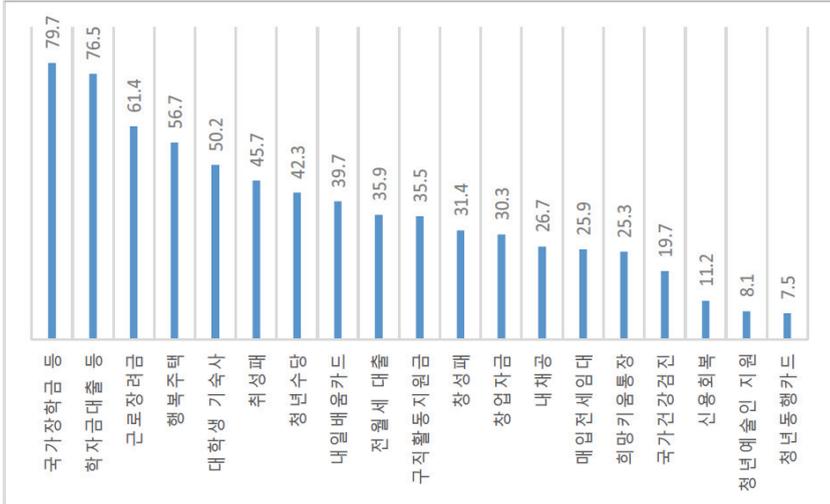
영역	프로그램	안다	모른다	계
자산 금융	내일채움공제	26.7	73.3	100.0
	청년희망키움통장	25.3	74.7	100.0
	청년 신용회복 지원	11.2	88.9	100.0
주거	청년 매입·전세 임대	25.9	74.1	100.0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56.7	43.3	100.0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	35.9	64.1	100.0
	대학생 기숙사	50.2	49.8	100.0
건강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19.7	80.3	100.0
교육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79.7	20.3	100.0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76.5	23.5	100.0
문화	청년예술인 지원(공연지원, 청춘마이크)	8.1	91.9	100.0
교통	청년동행카드(산업단지 교통비)	7.5	92.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아래 그림은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도(‘안다’고 응답한 비율)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다.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로 79.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으로 76.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61.4%), 행복주택 공급(56.7%), 대학생 기숙사(50.2%)가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또는 청년배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42.3%로 비교적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 청년수당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35.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비해 인지율이 낮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2-4]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청년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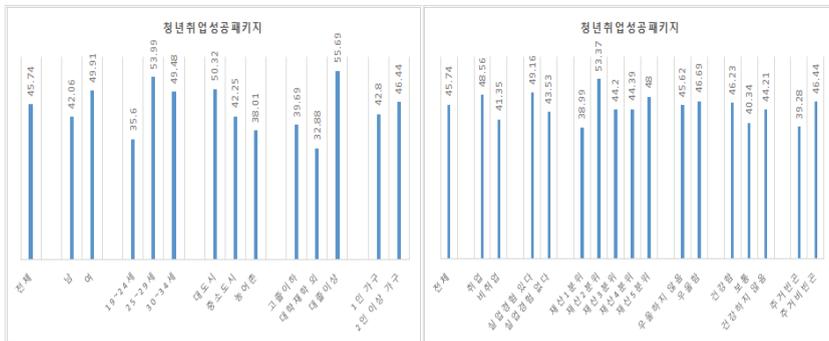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별 인지율을 청년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모든 세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영역별로 인지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과 인지율이 가장 높지는 않더라도 청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취업·창업 영역에서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인지율(안다는 응답 비율)은 45.7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지율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중기, 후기, 초기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인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구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취업 여부와 실업 경험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그리고 실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없는 청년에 비해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5분위에 따라서 인지율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재산 2분위에 있는 청년의 인지율이 53.37%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재산의 분위가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우울로 측정된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인지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를 초과하는 주거빈곤 여부에 따라서는 빈곤집단의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2-5]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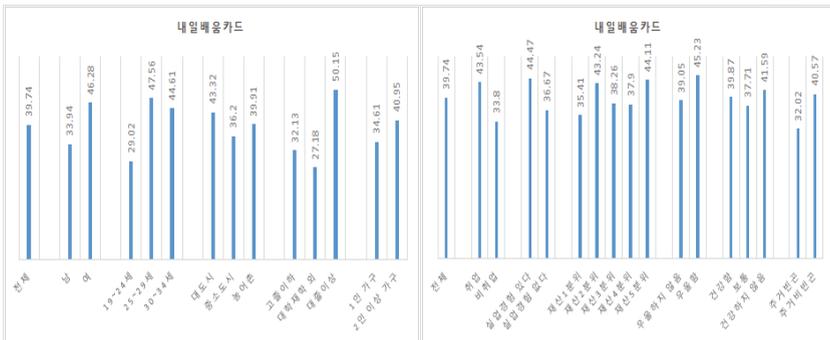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적인 인지율은 39.74%로 약 40%의 청년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 청년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외의 순으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 규모별로도 2인 이상 가구의 인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가 이 프로그램의 인지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 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비례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최상층인 5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우울한 청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율을 보이지만,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많은 주거빈곤 청년의 인지율이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낮은 인지율을 보이지만, 주관적 건강 상태를 제외한 모든 집단 구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9-2-6]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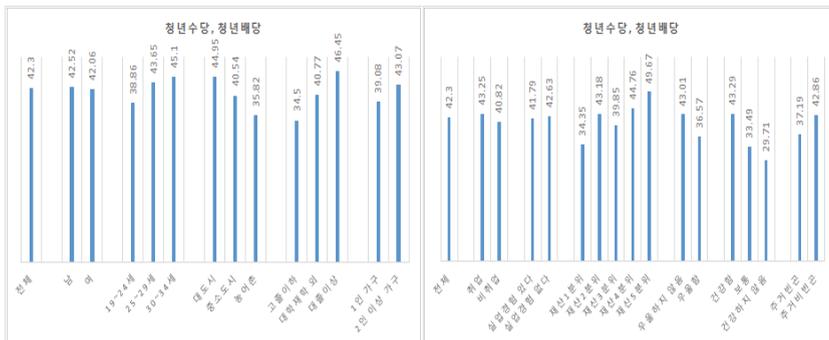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소득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과 중앙정부의 근로장려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율은 42.3%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보다는 낮지만 내일배움카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율이 의미 있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높은 인지율을,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대학 재학 외, 고졸 이하의 순으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앞선 두 프로그램과 달리 학력 수준에 비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가구 규모, 취업 여부, 실업 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재산분위별로는 2분위를 제외하면 높은 분위에 속할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인지율의 차이를 보이는데, 우울하지 않은 청년과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인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주거빈곤 여부는 인지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그림 9-2-7] 청년수당, 청년배당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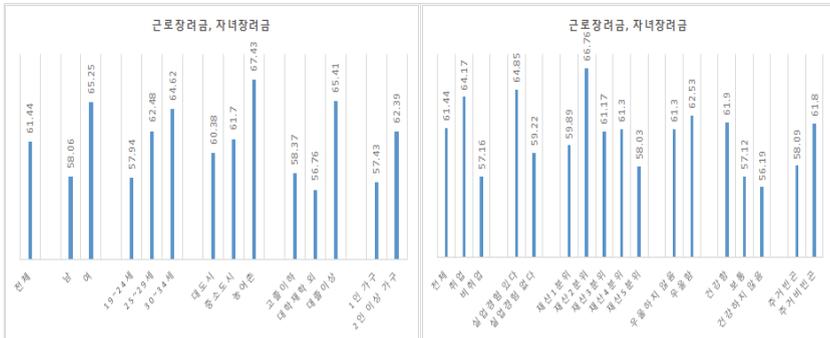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과 같이 임금근로 청년에 대한 세제(소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1.44%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앞선 세 프로그램보다 인지율이 높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외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고, 가구 규모별로는 2인 이상 가구의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와 실업 경험 여부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한 변수는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취업자와 실업 유경험자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재산분위와 우울 정도, 주관적 건강 상태, 주거빈곤 여부에 따른 인지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2-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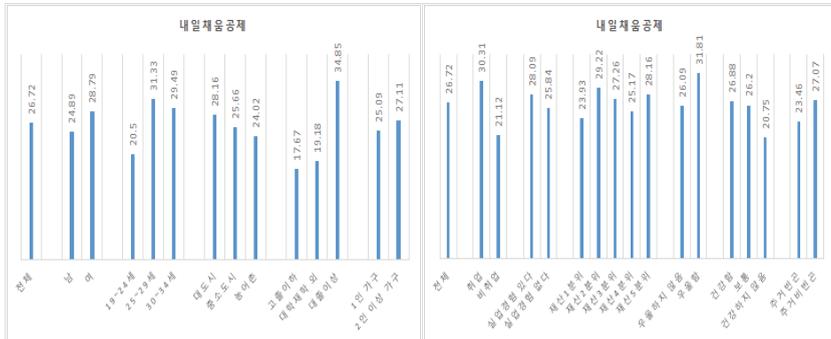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자산과 금융 영역에서는 내일채움공제와 희망키움통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율은 26.72%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지율이 낮은 것은 아직 대상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시행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탓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연령대별로 인지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25~29세 연령대 청년들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인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구 규모와 재산분위, 건강 상태, 그리고 주거빈곤 여부는 인지율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자와 실업 유경험자의 인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9]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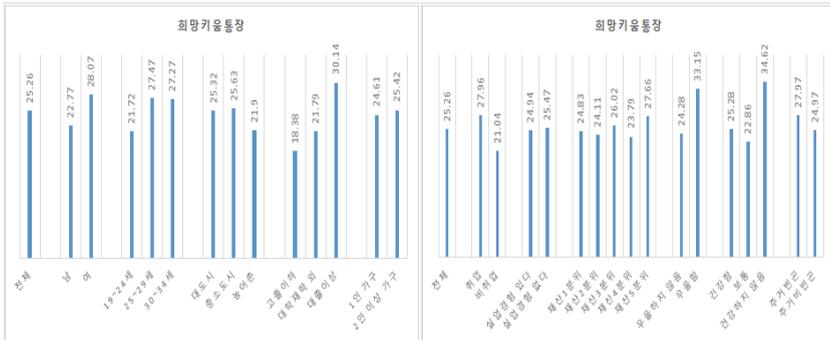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지율은 25.26%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가구 규모, 실업 경험 여부, 재산분위,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주거빈곤 여부에 따라 인지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25~29세 청년층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우울 정도가 심각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인

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2-10]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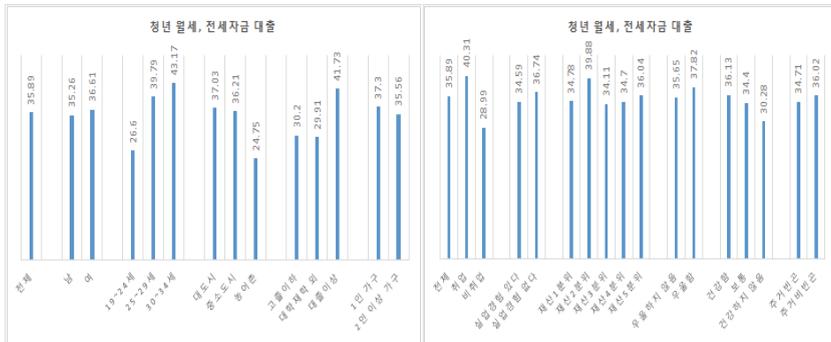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 월세·전세자금 대출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인 인지도는 35.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모든 프로그램들의 경우 여성의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별 인지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간 연령층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고졸 이하와 대졸 재학 외의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준의 인지도율을 보인다. 재산분위별로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지역, 가구 규모, 실업 경험 여부, 우울척도, 주관적 건강 상태, 주거빈곤 여부에 따른 인지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역을 대도시·중소도

시-농어촌으로 구분해서 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가 비싼 지역일수록 인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역을 서울-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의 순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데, 주거비용이 비싼 서울시보다 수도권에서 조금 더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sup>17)</sup>

[그림 9-2-11]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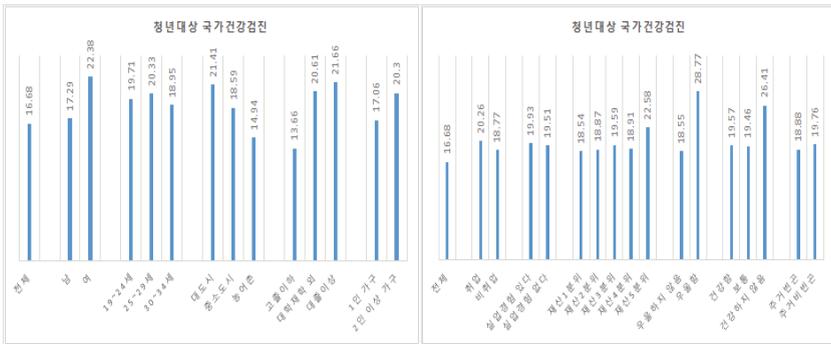
그리고 건강 영역의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6.68%로 나타나 앞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인 내일배움카드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그리고 가구 규모별로는 2인 이상 가구 청년의 인지율이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과는 달리 이는 의미

17)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 40.04%, 수도권 42.05%, 비수도권 29.91%이고, 카이제곱 통계량은 34.092, 유의 수준은 0.000이다.

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신 우울척도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우울한 청년들의 인지율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9-2-12]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청년 유형별 인지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정책 인식과 욕구

#### 1. 정책 일반 평가

##### 가. 충분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충분성을 질문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각각 11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의 충분성

(단위: 점)

구분		중앙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체		5.29	4.97
성	남	5.30	4.97
	여	5.29	4.96
연령	19~24세	5.34	5.02
	25~29세	5.26	4.96
	30~34세	5.28	4.91
지역	대도시	5.55	5.15
	중소도시	5.07	4.82
	농어촌	4.66	4.40
학력	고졸 이하	5.09	4.82
	대학 재학 등	5.41	5.15
	대졸 이상	5.31	4.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충분성을 영역별 취약성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집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고용 관련 영역에서는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최근 3개월 내 실업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고, 경제력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소득보다는 재산계층별 인식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재산계층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건강 상태와 관련한 몇 가지 변수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우울척도, 주관적 건강 상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지난 1개월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표 9-3-2〉 주요 영역별 특성별 정책의 충분성

(단위: 점)

구분		중앙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체		5.29	4.97
취업 여부	취업	5.22	4.89
	비취업	5.42	5.08
종사상 지위	상용직	5.28	4.95
	임시·일용·자활	4.96	4.72
	자영업 등	5.26	4.88
실업 경험	있음	5.15	4.87
	없음	5.39	5.03
자산 빈곤	빈곤층	5.09	4.80
	중산층	5.29	4.99
	부유층	5.46	5.07
우울척도	비우울	5.37	5.03
	우울	4.54	4.38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함	5.32	4.99
	보통	5.02	4.75
	건강하지 않음	4.72	4.67
1년간 자살 생각	예	4.35	4.36
	아니요	5.32	4.98
1개월간 정신적 부담	예	4.52	4.29
	아니요	5.34	5.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정책 대상: 보편-선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청년정책의 대상의 포괄성에 대해 견해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취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는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선별하지 않

는 보편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수당제도라 하더라도 선별과 보편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취약한 계층을 선별하여 제한적 영역을 두껍게 채워 주는 방식과 선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년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얇지만 넓게 지원하는 방식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청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을 수당사업과 같은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반에 대해 질문함에 따라 엄밀한 태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전체적으로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자는 42.89%, 후자는 57.11%로 나타나 후자가 14%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선별을 더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보편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도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별을 더욱 선호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보편을 더욱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학력 수준별로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선별을 선호하는 정도가 대졸 이상 학력자에서 가장 강했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 대학 재학생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청년들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생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8)</sup> 이어서 취업 여부로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미성은 약하지만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선별을 선호하고, 비취업자는 보편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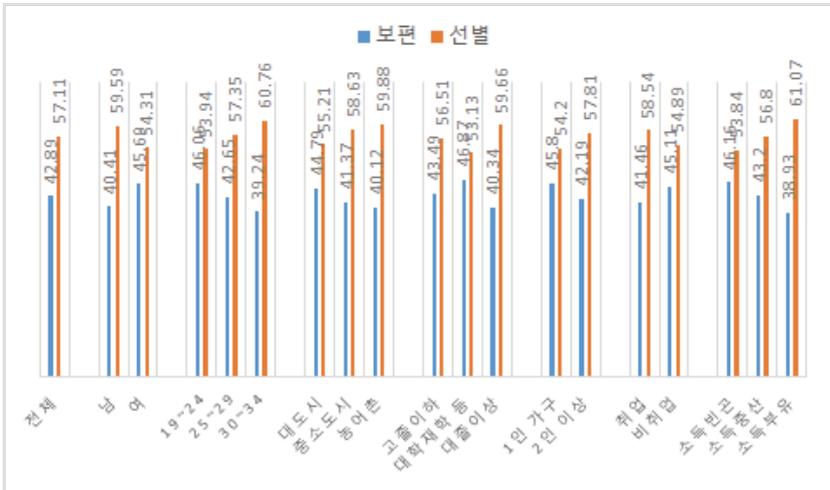
18) 학력별 취업자 비율은 고졸 이하 78.0%, 대학 재학 외 22.7%, 대졸 이상 75.8%(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임.

타나 학력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감안할 때 학력별, 취업 여부별 인식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규모별로는 청년 1인 가구의 청년이 선별보다 보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계층별로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발견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선별을 선호하고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보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선별할 경우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림 9-3-1] 청년정책 대상(보편-선별)에 대한 인구집단별 태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2. 세부 정책프로그램별 수혜 여부와 만족도

### 가. 청년 전체

조사 대상 청년들의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율과 만족도는 아래 표와 같다. 수혜율부터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이 32.74%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이 14.62%로 그 뒤를 잇는다. 이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8.30%, ‘내일배움카드’ 6.7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5.98%, ‘대학생 기숙사’ 5.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혜율 상위 6개 프로그램 중 1, 2, 6위가 대학생을, 3, 4, 5위가 취업자와 구직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5위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는 대학졸업반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6개 프로그램 중 4개의 프로그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높다는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학생이 청년층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데다, 대체로 대상 포괄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높은 것은 청년 실업 완화와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상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는 한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대상과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9-3-3〉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 여부와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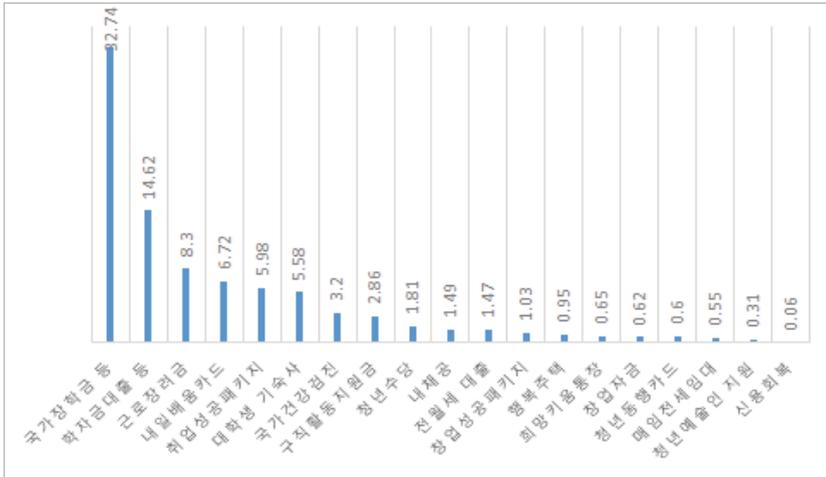
영역	프로그램	수혜율	만족도			만족 (점수)
			만족	보통	불만족	
취업 창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5.98	65.2	22.2	12.7	2.61
	구직활동지원금	2.86	73.5	21.3	5.2	2.87
	창업성공패키지	1.03	59.9	35.4	4.7	2.73
	청년전용 창업자금(대출, 교육)	0.62	53.5	26.7	19.9	2.40
	내일배움카드(구직자, 재직자)	6.72	69.4	21.5	9.1	2.77
소득	(지자체)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1.81	71.3	25.1	3.6	2.8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8.3	75.4	19.6	5.1	2.94
자산 금융	내일채움공제	1.49	76.0	18.7	5.3	2.92
	청년희망키움통장	0.65	71.2	15.9	12.9	2.63
	청년 신용회복 지원	0.06	100.0	0.0	0.0	3.00
주거	청년 매입·전세 임대	0.55	77.6	22.4	0.0	3.05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0.95	64.7	27.4	7.9	2.65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	1.47	77.5	22.5	0.0	2.97
	대학생 기숙사	5.58	70.9	19.3	9.8	2.71
건강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3.2	84.5	15.0	0.6	3.18
교육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2.74	79.9	14.4	5.8	2.96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14.62	70.6	24.5	5.0	2.81
문화	청년예술인 지원(공연지원, 청춘마이크)	0.31	69.2	30.8	0.0	2.84
교통	청년동행카드(산업단지 교통비)	0.6	57.8	31.5	10.8	2.72

주: 만족 점수는 4점 만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9-3-2]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아래 그림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만족하는 비율 옆에 불만족하는 비율도 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중 수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건에 불과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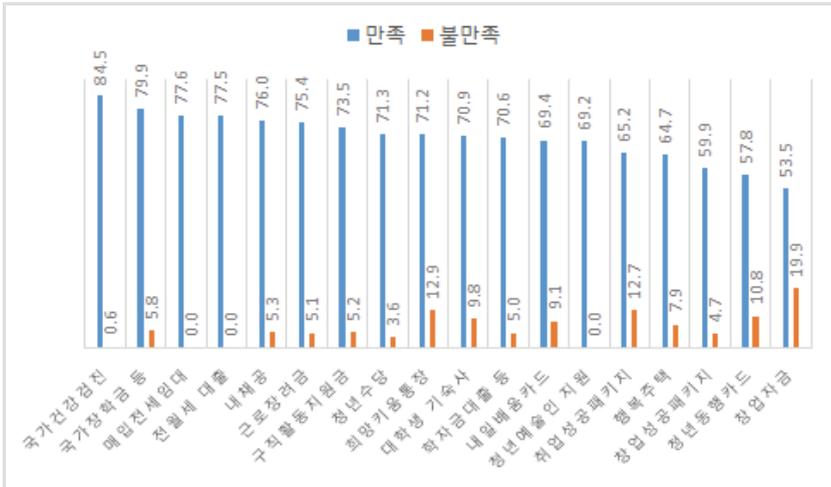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으로 84.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79.9%),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77.6%),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77.5%), ‘내일채움공제’(76.0%)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은 53.5%로 조사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청년동행카드’(57.8%), ‘창업성공패키지’(59.9%)가 60%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청년전용 창업자금’(19.9%)으로 만족도와 불만족도의 두 측면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두 번째로 불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희망키움통장’(12.9%)

인데, 이는 만족도(71.2%)에서는 18개 프로그램 중 9번째이고 전체 만족도 평균(70.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도 불만족도는 두 번째 순위로 꼽힌 것이 특징적이다.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9-3-3]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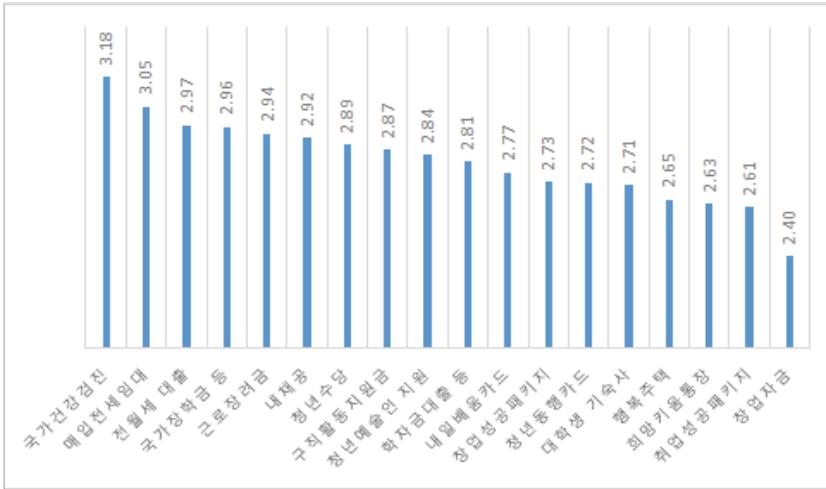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아래 그림은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고려한 점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프로그램은 위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이지만 두 번째 순위는 청년 매입·전세 임대로 바뀐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이 세 번째 위치에 오고, 위 그림에서 두 번째였던 국가장학금 등은 네 번째 위치로 내려오게 된다. 이처럼 상위 프로그램만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인지도와 수혜 여부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과 주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

도가 높다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 자체가 욕구에 부합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나 홍보 노력 등에 비추어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참여자(수혜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9-3-4]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 점수(4점 만점)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정책욕구

정부가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1순위로 꼽은 정책 영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고용 지원이 32.89%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꼽혔고, 다음은 29.88%가 꼽은 자기탐색 지원 사업이다. 동 사업에는 교육훈련,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어 역시 1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소득 지원이 12.04%로 세 번째

로 꼽혔고, 주거 지원이 10.87%로 네 번째, 그리고 학자금 지원이 6.74%로 다섯 번째로 꼽혔다. 그리고 4.53%의 청년이 자산 지원을 꼽아 자산 지원에 대한 정책욕구도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정책들은 1% 내외의 청년들이 선택하였다.

〈표 9-3-4〉 정책 영역 우선순위(1순위)

(단위: %)

순위	정책 영역	비율
1	고용(취업, 창업) 지원	32.89
2	자기탐색 지원 사업	29.88
3	소득 지원	12.04
4	주거 지원	10.87
5	학자금 지원	6.74
6	자산 지원	4.53
7	건강관리 지원	1.49
8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0.47
9	여가/문화 지원	0.41
10	법률 지원	0.31
11	신용회복 지원	0.28
12	기타	0.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4절 소결

### 1. 요약

정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정책 인지율을 살펴보면 약 25%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집단을 분류해 보면 초기 청년(19~25세), 고졸 이하 학력자, 1인 가구, 지역 청년, 낮은 경제적 계층, 불안정 노동 청년, 우울한 청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 등이다.

세부 정책 프로그램별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세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청년 유형별 인지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혹은 요보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의 인지율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차이를 유발하는 집단 구분 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실업 경험, 재산 수준, 우울척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들의 충분성에 대해 묻은 결과(10점 만점)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는 5.29점, 지방자치단체는 4.97점을 얻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충실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지역과 학력 수준 정도이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취업 여부와 실업 경험 여부, 그리고 자산 계층과 정신적,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로 꼽힌다. 대체로 이들 변수로 구분된 취약한 계층의 청년들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보편성보다는 선별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집단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의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편성보다 선별성을 더 중시하는 집단으로는 남성, 높은 연령층, 고학력층, 취업자, 2인 이상 가구,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선별성보다 보편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범위의 대상에게 많은 지원이 가능한 선별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정책이 대학생, 수도권 후

은 대도시 중심의 선택된 청년들의 전유물로 인식됨에 따라 취약계층으로까지 청년정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향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정책의 수혜율과 만족도는 정책 인지도와는 다른 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혜율의 경우 교육 영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직자(대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건강검진, 청년 매입·전세 임대, 청년 전월세 대출, 국가장학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욕구가 강한 영역으로는 고용, 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용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2. 정책 함의

첫째, 이와 같이 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유형의 청년들의 전반적인 정책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들의 욕구에 대응할 만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청년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인지에 주된 차이를 유발하는 집단 구분 변수로 꼽히는 성,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실업 경험, 재산 수준, 우물척도 등은 향후 청년정

책의 대상을 고려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척도를 통해 요보호 혹은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변수들은 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수로 구분된 취약계층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여타의 측면에서 야기되는 정책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정책욕구에 상응하는 정책 개발과 소통,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통상적인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선별적 방식보다 보편적 방식의 청년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은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결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요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인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설계된 것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소위 취약계층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청년 계층별 보편-선별의 지향점을 논하는 것의 효용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보편과 선별의 문제를 각 정책이 갖는 목적과 이념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책 수혜율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규정하는 대상의 규모와 시행 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청년 문제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혜율이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참여자(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적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0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 함의



# 제 10 장 결론

## 제1절 주요 결과

〈표 10-1-1〉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관계부처합동, 2020)이 분류한 5개 영역에 대해 우리 조사의 영역별 분석 결과와 검토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취약 청년의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사회적 지지 체계 문제와 교통비 지출 부담, 그리고 연령과 종사자 지위별 상이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낮은 실업급여 수급 경험 문제를 확인하였다. 고졸 이하, 농어촌,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은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비율도 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 결여 문제와 함께 높은 교통비(비독립 1인 가구 7만 원, 독립 1인 가구 13만 6000원)는 청년들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19~24세는 종사상 지위 차이보다는 연령에서의 차이가, 30~34세의 경우에는 저소득 문제가 사회보험 가입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생활 지원 영역의 개선 방안으로서 바우처,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건강 증진 수단의 다양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확대, 사회보험 관리 행정의 개선, 보험료의 보조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사회적 지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모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표 10-1-1〉 분석 결과 및 검토 과제

영역	분석 결과	검토 과제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 청년(예: 실업, 불안정 노동, 1인 가구, 고졸 이하)의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사회적 지지 체계 문제</li> <li>교통비 지출 부담</li> <li>연령별, 종사자 지위별 상이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낮은 실업급여 수급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증진수단의 다양화(예: 바우처, 지역화폐의 활용) 모색</li> <li>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확대</li> <li>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li> <li>사회보험 확대를 위한 연령별, 종사자별 전략 방안 마련</li> <li>청년정책 공급 시, 청년의 다양성 고려 필요성</li> <li>중앙과 지자체 청년정책 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수요, 공급 장벽 검토</li> <li>지역사회 공동체 모임 활성화</li> </ul>
참여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특성에 따른 청년정책 인지도 차이(예: 초기 청년, 고졸 이하 청년, 1인 가구, 비수도권, 낮은 경제적 계층, 불안정 노동 종사 청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의 낮은 청년정책 인지도)</li> <li>정책욕구 우선순위 확인: 고용, 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li> <li>집단별 정책 방향(보편 대 선별) 선호 방식 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세부 집단별 정책 수단, 소통 전략 마련</li> <li>청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집단별 세부 분석 및 논의</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청년의 일 욕구 확인(경제적 독립 여부, 거주 상태, 학업 이행 상태)</li> <li>과중한 업무량,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과 같은 일 관련 경험</li> <li>낮은 노조 가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방향의 청년 일 정책(일의 보호와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li> <li>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업무 환경, 안전, 건강 관련 대책 방안 모색</li> <li>청년층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예: 청년센터의 인프라 확대 및 권한 실질화)</li> <li>신뢰, 연대의 경험 제공 방안 모색</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li> <li>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 및 진입 가능한 정책 과제 발굴</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에 대한 높은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자기탐색의 지원 방안(공급 체계, 지원 수단) 구체화</li> </ul>

참여와 권리의 영역에서는 청년정책 인지도가 청년의 세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초기 청년, 고졸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비수도권, 낮은 경제적 계층, 불안정 노동 종사 청년,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일 경우 청년정책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정책욕구의 우선순위는 고용, 자기탐색, 소득, 주거, 학자금, 자산의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보편과 선별로 구분된 청년정책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 집단별로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서 청년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세부 집단별 정책 수단과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리 조사는 다양한 청년의 일 욕구 또한 확인하였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실업의 정의에 근거하여, 분석 결과는 일자리 정책이 수요,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를 포착해야 함을 보여 준다. 또 청년들의 일 관련 경험(과중한 업무량 경험: 21.74%,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7.73%,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14.08% 등)은 연령과 경력 등의 차원에서 권력의 주변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종사자 지위에 대한 고려 또한 요구된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중앙과 지자체 청년 지원 제도에 자격 기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수요 장벽, 공급 장벽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즉, 분석 결과는 청년의 일 정책은 일의 보호와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양방향의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는 발생과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업무 환경, 안전, 건강 관련 대책 방안(예: 실태조사와 대처방안 홍보, 예방 등)을 모색해야 하며, 청년센터의 인프라 확대와 권한 실질화 등을 통한 보호 지원 체계의 구축과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조의

설립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등을 통한 신뢰와 연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의 경우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전체 지출의 60% 이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 필요성과 함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 및 이들이 진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자기탐색의 경우, 청년들은 고용 지원(32.89%) 다음으로 자기탐색 지원(29.88%)이 필요한 정책이라 응답했다. 참고로 실직을 경험한 청년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로를 재설정(7.13개월)하는 경우,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에 청년정책은 청년의 자기탐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 함의

### 1.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34세 청년 3,018명을 조사함으로써 실태 파악과 정책 함의 도출을 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청년 논의의 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회적 독립 이행의 다양성과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를 살피기 위하여 생계 단위와 주거 단위를 교차하여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와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기타로 구분한 뒤 최종 10개의 가구 유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우리 조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이나 가계금융조사의 청년 1인 가구가 포착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받고 있는 비독립 청년 1인 가구의 영역별 삶의 실태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독립 청년 1인 가구 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셋째, 우리 조사는 최대한 종합적 삶의 실태를 담고자 하였기 때문에 특정 영역뿐 아니라 영역 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별 기초 실태를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영역 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성에 따른 삶의 모습 등을 심층 분석할 것이다.

## 2. 정책 함의

### 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형의 검토와 정책 구체성 제고의 기반 마련

청년은 그 어느 생애주기보다 종합적 접근을 요한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자주 자료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 수의 측면에서 다른 자료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며, 경찰 상태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상태에 따른 주거, 건강 등의 실태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밀함을 요하는 청년정책 설계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연구는 청년 이슈에서 쟁점별 실태 파악을 가능케 하는 주요 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구주 여부, 독립 상태, 교육 상태, 경제 상황, 경찰 상태, 장애 여부 등은 그 자체가 실태도, 살펴야 할 대상의 범주도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비수도권 청년의 장기 실업, 니트, 비경찰 집중화, 재학 중이거나 장기 실업 상태인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와 경험, 청년정책의 인지 정도, 만족 정도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찾아내는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경찰 여부나 취업, 실업 상태와 경제적 독립 여부를 교차

하여 이들의 교통비, 주거비 등의 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 지원의 충분성 판단 근거로 참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조사는 현재 설계된 중앙과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들의 지형이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삶에 더욱 밀착하여 개발, 모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나. 불평등의 적극적 포착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 제고

오늘의 청년이 공정에 민감한 것은 청년들이 앞선 세대의 삶을 통해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즉 원인의 원인(cause of cause)이 소득과 자산을 넘어 기회, 사회, 문화 자본 등 다차원의 불평등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강화하는지를 목도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이 살고 있는 사회는 평균적 삶의 수준과 사회보장제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긍정적이라 평가될 수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불안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청년 지원을 위한 개입 지점은 적극적 포착과 정책적 노력 없이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사회보험 영역에서 청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개입을 위해서는 가입 지원뿐 아니라 연령별 개입 전략이 필요하며, 그에 수반된 전달체계의 개선과 계층별 지원 또한 필요함을, 실업의 대처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타 영역의 지원 필요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불평등의 적극적 포착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문제의 발견과 개입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여부, 지원의 수준은 심층 분석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한다.

#### 다. 표본 규모의 확대와 심층, 부가 조사 필요성 제기

조사 결과는 표본 규모의 확대와 청년 사회보장정책 정교화를 위한 세부 대상과 영역별 심층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불리한 정체성이 중첩된 청년,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실태라든가,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에 대한 조사,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현재는 소수이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청년 내 소수집단(예: 플랫폼 노동자, n잡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조사, 안전에 있어서 위험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실태는 표본 규모의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표본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는 객관적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인식조사에 대한 설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들은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청년 실태조사 시, 심층, 부가 조사 형태의 설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표본의 규모는 타 인구집단의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대면 조사와 웹조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생활 특성상 대면조사가 쉽지 않은 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등장 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보장정책들이 보편성을 지향하는 추이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와 정책관련자들에게는 무한정한 자원이나 완전무결한 보편적 사회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책들 속에서 배제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과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선별과 보편이라는 대립 구도로 이해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는바, 보편적 지향과 함께, 세밀함을 잊지 않는 것이 공공의 책무이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강찬희, 정다미. (2019).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 “대체 누가 받나요”. 2019년 2월 19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593&code=11151100>에서 2020. 3. 14.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0).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 고용노동부(2015).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국민연금공단. (2019). 2019년 11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전주: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연구원(2017). 2017 국민노후보장패널.
- 국토교통부(2017). 2017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2018).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패널 워킹페이퍼. 8(8).
- 김길원. (2015). 당신의 식사시간은.. “15분 이내면 위염 위험 1.9배”,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6194700017>에서 2020. 3.14 인출.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정책 2015-47.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 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9).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 개선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마이홈포털, 청년주거지원 (retrieved from: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2020. 04. 16).
- 박성훈, 장안식, 이재경 (2009).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사회연구 18(2), 45-72.
- 박준오. (2014).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 분석 - 결혼차수를 중심으로 -. 대전: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세종: 국무조정실.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62.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주거상담. 청년주거지원 (retrieved from: <https://www.seoulhousing.kr/html/0504001.do>) (2020. 04. 16)
- 서유정, 이지은. (2016).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 서울: 나눔의 집.
- 서한기. (2018).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연합뉴스. 2018년 11월 21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1/728109/>에서 2020.3. 14 인출.
- 손희경, 이성례, 이민아, 김송이. (2016). 시대별 젊은이의 표상 특별전 전시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신재동, 여유진. (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건강 관련 지표. 보건복지포럼. 22-29.
- 오재호. (2018).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슈 & 진단, 338, 1-26. 경기연구원.
-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윤주, 김기현, 하형성, 손원빈.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임성근, 김기현, 정지운, 조세현, 탁현우, 문국경, ..., 도수관.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임용빈. (2019).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월간 노동리뷰. 168. 117-120.
- 임재희. (2019). 한국인 10명 중 3명 '아침 결식'... 걷기·유산소 운동 '저조'. 2019년 10월 27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810557&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810557&cID=10201&pID=10200). 2020. 3. 14. 인출.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20), 121-144.
- 정세정. (2016).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관적 건강과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1, 197-224.
- 정영미. (2012). 정보검색연구. 증보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질병관리본부(2016).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retrieved from: <https://www.khug.or.kr/hug/web/lr/ph/lrph000002.jsp>) (2020. 04.16).
- 진미윤, 최상희, 임덕영, 이경애, 김경미, 최은영, 정진선, 이원호, 김기태, 김두겸, 이채운.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 청년기본법. 법률 제 16956호 (2020).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9a).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8&conn_path=I2) 에서 인출.
- 통계청. (2019b).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6&conn_path=I2) 에서 인출.

- 통계청. (2019c).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에서 2020.3.12. 인출.
- 통계청. (2019d).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15. 인출.
- 통계청. (2020b). 지역별 고용조사-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I3))에서 2020년 3월 22일 인출.
- 통계청. (2020c).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3))에서 2020년 3월 23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청년패널.
-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7 GOM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6 한국의료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 한국복지패널.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 Ackerman, B, & A. Alstott. (2010). 왜 사회적 지분인가?, 분배의 재구성(pp. 79~110). 서울: 나눔의 집.
- Beeble, M. L., Bybee, D., Sullivan, C. M., & Adams, A. E. (2009). Mai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well-being of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2 yea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4), 718-729. [http](http://)

- s://doi.org/10.1037/a001614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 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43-363. <http://dx.doi.org/10.1023/A:1021637011732>.
- Ioannou, M., Kassianos, A. P., & Symeou, M. (2019). Coping With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Perceived Social Support Protects Against Depressive Symptoms Only Under Moderate Levels of Stress. *Frontiers in Psychology*, 9, 2780. <https://doi.org/10.3389/fpsyg.2018.02780>.
- Irani, A. S. (2018). Positive altruism: Helping that benefits both the recipient and giver. Master of Applied Positive Psychology (MAPP) Capstone Projects. 152.
- Kleiman, E. M., & Liu, R. T. (2013).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in suicide: Findings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2), 540-545.
- Lin, Dean, & Ensel,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Cambridge: Academic Press.
- Marmot, M. (2016). *The Health Gap*.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 McCallum, & Andrew Kachites. (2002). Mallet: a machine learning for language toolkit. <http://mallet.cs.umass.edu>.
- McCubbin, H.I., Joy, C.B., Caubie, A.E., Comeau, J.K., Patterson, J.M., & Needle, R.H.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 Moon, U., Cha, S. (2018). Mealtimes with Parents vs. Mealtime Alone:

- Consequences for the U.S.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1), 21-36.
- Nisbet, R. (1965). *Emile Durkheim*.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Srole, L. (1956).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6), 709-716.
-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 341-362.
- Uchino BN, Cacioppo JT & Kiecolt-Glaser JK.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ological processes: a review with emphasis on underlying mechanisms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sychol Bull.* 119(3). 488-531. doi: 10.1037/0033-2909.119.3.488.
- Wang, J., Mann, F., Lloyd-Evans, Ma, & Jhonson. (2018). Associations between lonelin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outcomes of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iatry*, 18(156). <https://doi.org/10.1186/s12888-018-1736-5>
- Xu, J., & Wei, Y. (2013).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n empirical study with adult survivors of Wenchuan earthquake. *PloS one*, 8(10), e7904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7904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부록 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응답자ID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관기관 : **K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Market Research** 한국리서치
-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문선희 팀장 02-3014-0134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김보미 차장 02-3014-1056

접거자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차	② 대체가구원
응답자 선정	만19~34세(1984년 11월 1일생 - 2000년 10월 31일생)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일일기준).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_____ 세 ※ 만19~34세만 응답 가능	
주소1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세부주소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 최종 설문 조사 후 체크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 A. 가구형태 및 주거환경 (2019. 10. 31. 기준)

### A1. 귀하와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권,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① 응답자가 가구주임      ② 가구주 아님

### A2. 다음은 청년의 다양한 가구형태입니다. 귀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1단계 ⇨ 2단계 순서로 분류)

- ※ 고사원, 원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⑥에 해당  
 ※ 청년부부 : 가구주가 청년(만19~34세인 부부가구)  
 (부부가구라도 가구주가 35세 이상인 경우는 '⑥청년 독립 기타가구'로 분류)  
 ※ 부모+청년부부(자녀는 '⑥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로 분류)

분류 1단계	분류 2단계
부모에게서 독립함 (별도 가구임)	① 청년 부부 + 자녀가구 ② 청년부부가구 ③ 청년 한부모 + 자녀가구 ④ 청년 독립 1인 가구 (세어하우스 포함, 본인이 가구주임) ⑤ 청년 독립 기타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가 35세 이상 부부가구 등)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 받음 (별도 가구 아님)	⑥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세어하우스/하숙 포함, 본인이 가구주 아님) ⑦ 청년 비독립 기타가구 (형제자매와 사는 경우 등)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⑧ 부모 동거 청년가구 (※부모와 청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 ⑨ 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 (※혼인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포함)
기타	⑩ 기타가구(조손가구, 친인척 동거 등 ①~⑨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가구)

#### (A2에서 ⑥, ⑧ 부모 동거 청년만 응답)

### A2-1. 귀하께서는 주거 독립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A3.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 가구원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 군입대나 학업 등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본가 식구를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단,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사는 경우는 별도 가구임)

구분	가구원수	
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명
2) 가구원 중 청년(만19~34세)의 수 (본인 포함)		명
3)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이라면 평일 또는 학기 중에 주로 거주하시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A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 ② 다가구 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④ 아파트
- ⑤ 다세대/연립주택
- ⑥ 오피스텔
- ⑦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 ⑧ 고시원
- ⑨ 기숙사
- ⑩ 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⑪ 쪽방
- ⑫ 기타

A5. 그 집에서 언제부터 거주하십니까?

\_\_\_\_\_년 \_\_\_\_\_월

A6. 귀 덕의 주택 내 위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지상                      ② 반지하 또는 지하                      ③ 옥상 (옥탑)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면 윗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이 아닌 지상으로 응답바람

A7. 귀 덕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 A7-2
- ② 전세 → A7-1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A7-1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A7-1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A7-1
- ⑥ 일세 → A7-1
- ⑦ 무상 → A8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동안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일 일정액의 짐세를 감하는 경우
-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짐세를 내는 경우
- 무상 : 한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기숙사'는 ① 사글세 또는 연세, '하숙'은 ④ 보증금 없는 월세로 포함

A7-1. (A7의 ②,③,④,⑤,⑥ 응답자)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셨습니다가?

- 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 ② 해당 없음(예: 기숙사)
  - ③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 ④ 모르겠다
- A7에서 ②,③은 A7-2로 이동  
→ A7에서 ④,⑤,⑥은 A8로 이동

A7-2. (A7의 ①,②,③ 응답자) 현재 살고 있는 계산 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응답)

\_\_\_\_\_ 만원

A8. 현재 거주하고 계산 곳의 주거용 실 평수(전용면적은 몇 평입니까? (※ 3.3m<sup>2</sup>≈1평)

\_\_\_\_\_ 평

A9. 지난 1년 동안 주거비가 부담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A9-1
- ② 그렇다 → A9-1
- ③ 보통이다 → A10
- ④ 그렇지 않다 → A10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A10

A9-1. 주거비 부담 때문에 가구의 식료품이나 식사비용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그런 편이다
- ② 가끔씩 그런 편이다
- ③ 그런 적이 거의 없다
- ④ 한 번도 없다

A10. 현재의 거주에서 퇴거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 ① 예 → A10-1
- ② 아니오 → A11

A10-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서
- ②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 ③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서
- ④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예: 기숙사)
- ⑤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서
- ⑥ 기타 ( )

A11. 다음은 주거시설의 필수적 설비 기준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까?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 ① 모두 갖추고, 단독사용  
② 모두 갖추고, 공동사용  
③ 갖추지 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음

A1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곳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사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시해주세요.

구분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
1) 채광상태	①	②	③	④
2) 방음상태 (열방, 옆집, 층간의 소음)	①	②	③	④
3) 습기와 곰팡이	①	②	③	④
4) 환기상태 (창문 개폐 여부, 통풍상태)	①	②	③	④
5) 주택의 방범상태 (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①	②	③	④
6)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①	②	③	④
7)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	①	②	③	④
8) 주택 위생상태(악취, 벌레 등)	①	②	③	④

A13.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 난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② 몇 번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한 번도 없었다

A14.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운 여름 냉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② 몇 번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한 번도 없었다

A15. 귀하께서는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대중교통접근성 (지하철, 버스)  
② 본인의 학교, 직장, 학원까지의 거리  
③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학교, 직장, 학원까지의 거리  
④ 공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  
⑤ 방범, 안전 등 주거환경  
⑥ 독립된 별도의 욕실과 화장실 구비 여부  
⑦ 방음 정도  
⑧ 적정 비용

※ A16-A20은 청년 독립/비독립 1인 가구(A2에서 ④,⑥ 응답자)만 응답합니다.  
 ※ 1인 가구가 아닌 청년은 B파트(7쪽)로 이관해주세요.

A16. 귀하는 언제부터 혼자 살게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A17. 귀하는 어떠한 이유로 혼자 살게 되셨습니까?

- ①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 ②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 ③ 취업/진학/고시 등 준비 때문에
- ④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 ⑤ 함께 있던 가족의 상황 때문에(이주, 사망 등)
- ⑥ 기타( )

A18.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 \_\_\_\_\_회

A19.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요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A19-1. 자원출처	A19-2. 지원형태 (지원을 받은 경우)
1) 보증금	① 부모님 ② 친척 ③ 민간 ④ 공공 ⑤ 본인 ⑥ 기타 ⑦ 보증금 없음(*A7에서 ④~⑦)	/
2) 월 임대료 (사금융/연세/임세 포함)	① 부모님 ② 친척 ③ 민간 ④ 공공 ⑤ 본인 ⑥ 기타 ⑦ 월 임대료 없음(*A7에서 ①,②,③)	
3) 월 관리비	① 부모님 ② 친척 ③ 민간 ④ 공공 ⑤ 본인 ⑥ 기타 ⑦ 관리비 없음	

A20. 주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저렴한 주택 부족
- ② 치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
- ③ 주거시설이 좋지 않음(환기, 난방, 오래됨 등)
- ④ 원하는 집(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부족함
- 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찾기 어려움(부동산 사기에 대한 불안함)
- ⑥ 나이나 성별 등 때문에 차별을 겪음
- ⑦ 기타 ( )
- ⑧ 특별한 어려움 없음



## 청년층 노동 및 사회보험 실태

### B. 취업자 (2019년 10월 31일을 기준)

B1. (2019년 10월 31일 기준) 귀하는 지난주에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였습니다가?

※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시는 경우 취업에 해당함

※ 학업 중에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 행정조교, 연구조교 등은 일자리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졸업 후 정식 일자리로 조교를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로 파악하고, 근로소득으로도 파악합니다.

- ① 수입을 목적으로 일함 → B1-1  
 ②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함 → B1-1  
 ③ 직장은 있으나 일시휴직 중(육아휴직, 병가, 사업부진 등) → B1-1  
 ④ 일하지 않았음 → **제로 이득(11억)**

B1-1. 귀하는 현재 몇 개의 일(직장)을 하고 계십니까?

\_\_\_\_\_ 개

B1-2.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하셨습니다가?

지난 1주 동안 \_\_\_\_\_ 시간 근로 (※일시휴직자는 0시간 응답)

B1-3. 귀하는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가?

- ① 예 → B1-4      ② 아니오 → B1-5

B1-4.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1-5. 귀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제공받는 일자리도 있습니까?  
(예: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심부름, 배달, 대리운전, 번역)

- ① 예      ② 아니오

B1-6. 귀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다음의 근무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야간 근무    ② 주말 근무    ③ 교대 근무    ④ 해당 없음(※ ①-③ 응답불가)

B1-7. 귀하가 지난 한 달(10월) 동안 일을 통해 벌게 된 총 근로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근로장학금은 제외, 고용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만을 파악)

월 \_\_\_\_\_ 만원

## B2.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

※ 현재 일자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주된 일자리 판단 : (1) 4대보험 가입 일자리 최우선, 4대보험 미가입 시 (2) 근로시간이 길수록 (3)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문번호	구분	현재의 경제활동
B2-1	입직시기	_____년 _____월부터 현재까지
B2-2	산업분류 (2자리)	1) 사업체 명 : 2) 사업체가 하는 일 :
B2-3	직업분류 (3자리)	1) 직무(내가 하는 일) : 2) 직위(※ 있으면 기입) :
B2-4	사업장 규모	① 1-4명                      ⑤ 50-99명                      ⑧ 500-999명 ② 5-9명                      ⑥ 100-199명                      ⑨ 1000명 이상 ③ 10-29명                      ⑦ 200-299명                      ⑩ 잘 모르겠다 ④ 30-49명                      ⑧ 300-499명
B2-5	총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B2-6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포함)	일주일에 _____ 시간 (※ 일시휴직 중인 경우 휴직 전 평균 근로시간 입력)
B2-7	세전 월 근로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 일시휴직 중인 경우 휴직 전 급여 입력)
※ 아래 항목은 임금근로자(B2-5=①~④)만 응답. 비임금근로자(B2-5=⑤~⑦)는 B3으로 이동		
B2-7-1	주휴수당 적용	① 받음                      ② 받지 않음                      ③ 모름 (※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B2-7-2	시간당 임금 수준	① 최저시급 이상                      ② 최저시급 미만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당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B2-8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② 전일제
B2-9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플랫폼일자리 포함)
B2-10	근로계약 기간 설정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B2-11	근로지속 가능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b>B2-12</b> ②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b>B2-12</b>
B2-12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	①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독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라던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 ④ 현재 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B2-13	노동조합 가입 여부	① 회사에 노동조합 없음 ② 회사에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③ 회사에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음 ④ 노조에 가입했음

## B3.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B4. 현재 주된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①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② 일의 수준이 높다  
 ③ 일의 수준이 알맞다  
 ④ 일의 수준이 낮다  
 ⑤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 B5. 귀하는 현재 다음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B5-1	국민연금	① 미가입 ① 직장 가입자(공무원,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포함) ② 지역 가입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B5-2	건강보험	① 미가입 ① 직장 가입자 ② 지역 가입자 ③ 직장가입 피부양자 ④ 의료수급권자
B5-3	고용보험	① 미가입 ① 가입함 ② 해당 없음(공무원, 군인, 교직원, 비임금근로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B5-4	산재보험	① 미가입 ① 가입함 ② 해당 없음(공무원, 군인, 교직원, 비임금근로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 B2-5에서 '임금근로자(①상용②임사③일용④자활/공공근로)' 이면서 B5-1.국민연금 '②지역가입자'는 B6으로

→ B2-5에서 '비임금근로자(⑤⑥자영업자, ⑦무급가족종사자)' 이면서 B5-1.국민연금 '②지역가입자'는 B7로

→ B5-1.국민연금 '①직장가입자'는 B7로

→ B5-1.국민연금 '①미가입자'는 B8로

→ B5-1.국민연금 '③가입여부를 잘 모름'은 0114쪽 1로 이동

[상용임사일용자활/공공 근로자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만 응답]

B6. 귀하께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미만)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미달
- ② 근로계약 기간(1개월 미만)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미달
- ③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여서
- ④ 사용자의 가입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국민연금 ①직장/②지역가입자 모두 응답]

B7.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① 납부하고 있음 → D1로 이동(14쪽)
-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 B7-1

B7-1.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미납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납부예외자 → B7-2
- ② 보험료 미납 → B7-3

B7-2. (납부예외자) 귀하의 납부예외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 ② 3개월 이상 입원
  - ③ 생활 곤란
  - ④ 학업(재학)
  - ⑤ 기타(자연재해 등)
- D1로 이동(14쪽)

B7-3. (미납 이유) 귀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 D1로 이동(14쪽)

[국민연금 ⑥미가입자만 응답]

B8. 귀하께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 ③ 사용자(고용주)의 가입 거부 때문에
- D1로 이동(14쪽)

### C. 비취업자 (2019년 10월 31일을 기준)

C1. (2019년 10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습니까?

- ① 예 → C1-1  
 ② 아니오 → C2

C1-1. (실업자)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에 전념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아니오'에 해당

-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 후 C3으로 이동

C2. (비경험)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 ① 원하였음              ② 원하지 않았음

C2-1.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에 전념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아니오'에 해당

- ① 예                      ② 아니오

C2-2.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직장을 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능력 없음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창업 준비 중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_\_\_\_\_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C3. 그렇다면 이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적이 있으면 '있음'에 해당

- ① 일 한적 있음 → C4  
 ② 한 번도 일한 적 없음 → D6으로 이동(15쪽)

[현재 비취업이지만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C4.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동시에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신 경우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주된 일자리 판단 : (1) 4대보험 가입 일자리 최우선, 4대보험 미가입 시 (2) 근로시간이 길수록 (3)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문번호	구분	가장 최근의 경제활동
C4-1	입직시기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C4-2	산업분류 (2자리)	1) 사업체 명 : 2) 사업체가 하는 일 :
C4-3	직업분류 (3자리)	1) 직위(내가 하는 일) : 2) 직위(※ 있으면 기입) :
C4-4	사업장 규모	① 1~4명                      ⑤ 50~99명                      ⑧ 500~999명 ② 5~9명                      ⑥ 100~199명                      ⑩ 1000명 이상 ③ 10~29명                      ⑦ 200~299명                      ⑪ 잘 모르겠다 ④ 30~49명                      ⑧ 300~499명
C4-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C4-6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포함)	일주일에 _____ 시간
C4-7	세전 월 근로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 아래 항목은 임금근로자(C4-5=①~④)만 응답. 비임금근로자(C4-5=⑤~⑦)는 'C5. 4대보험'으로 이동		
C4-8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② 전일제
C4-9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플랫폼일자리 포함)
C4-10	근로계약 기간 설정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C4-11	근로지속 가능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b>C4-12</b> ②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b>C4-12</b>
C4-12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	①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동시착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 ④ 현재 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C4-13	노동조합 가입 여부	① 회사에 노동조합 없음 ② 회사에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③ 회사에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음 ④ 노조에 가입했음

## C5. 귀하의 마지막 일자리 당시 다음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C5-1	국민연금	㉞ 미가입 ① 직장 가입자(공무원,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포함) ② 지역 가입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C5-2	건강보험	㉞ 미가입 ① 직장 가입자 ② 지역 가입자 ③ 직장가입 피부양자 ④ 의료수급권자
C5-3	고용보험	㉞ 미가입 ① 가입함 ② 해당 없음(공무원, 군인, 교직원, 비임금근로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C5-4	산재보험	㉞ 미가입 ① 가입함 ② 해당 없음(공무원, 군인, 교직원, 비임금근로자) ③ 가입여부를 잘 모름

→ D1로 이동(14쪽)



## D4-1. (D4의 1,2 순위 모두 ②~⑦ 응답) 귀하께서는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셨습니까?

(※최근 3년 내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예 → D5  
 ② 아니오 → D4-2

## D4-2. 귀하께서 일을 그만 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자영업 개시 등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②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예: 자발적으로 그만둠, 단기 아르바이트)  
 ③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서  
 ④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⑤ 실업급여 액수에 비해 고용센터 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  
 ⑥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⑧ 기타( )

## D5. 귀하께서는 일을 그만 둔 기간에 월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비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다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기준)

구분	개인기준
1) 최소 생활비(월평균)	만원
2)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 (월평균)	만원

## D6. 귀하께서는 현재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② 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부족(예: 고용안정성,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  
 ③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④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  
 ⑤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려움  
 ⑥ 나이, 성, 학력과 같은 차별 문제  
 ⑦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 부족  
 ⑧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정보 부족  
 ⑨ 기타( )

D7. 귀하는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을 제외한 ②-⑨는 주관적으로 판단해 응답)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①	②
2) 업무상 상해 (산업재해 인정 무관)	①	②
3) 반복 작업	①	②
4) 과중한 업무량	①	②
5)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①	②
6)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①	②
7) 물리적 폭력의 위험	①	②
8)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①	②
9) 야간노동으로 인한 피로	①	②

D8. 귀하께서는 2019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당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지 않다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D9.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대학원 졸업 후 전문대에 입학했을 경우, 대학원 졸업 기입해 주세요)

9-1) 최종학교	9-2) 이수 여부	[09-1에서 ④고등학교 응답자만] 9-3) 고등학교 계열	[09-1에서 ⑤⑥⑦ 응답자만] 9-4) 대학(원) 전공계열
① 무학 <b>011</b>	① 재학	① 일반계/인문계(종합고 인문계 포함)	① 인문계열
② 초등학교	② 휴학	② 특목고(과학고, 외고)	② 사회계열
③ 중학교	③ 중퇴	③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③ 교육계열
④ 고등학교	④ 수료	④ 특성화고(상업계/공업계/농업계 등)	④ 공학계열
⑤ 전문대학	⑤ 졸업	⑤ 예술체육고교	⑤ 자연계열
⑥ 대학교		⑥ 마이스터고교	⑥ 의약계열
⑦ 대학원	※ 9-1)중학교 이하는 →D10으로	⑦ 기타	⑦ 예체능계열
		→ 응답 후 D10으로	→ 응답 후 D10으로

D10. (초등학교 재학 이상) 현재 재학 중 또는 최종 이수한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1) 시/도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⑱ 해외(→D11로)

2) 시군구 \_\_\_\_\_

D11. 귀하의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1-1) 아버지	11-2) 어머니
① 하고 있음 ② 하고 있지 않음 ③ 해당 없음	① 하고 있음 ② 하고 있지 않음 ③ 해당 없음

## E. 청년 정책

E1. 귀하는 정부(중앙, 지자체)가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 ① 몰랐음 → E4  
 ② 알고 있으나, 주요 지원제도의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함 → E2  
 ③ 알고 있으며, 주요 지원제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 E2  
 ④ 알고 있으며, 주요 지원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 E2

E2. 귀하는 청년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정도가 현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3. 귀하는 청년을 위하여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정도가 현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정책추진단 분류 사업>

- 고용 - 지속적 미래 능력 개발(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준비 지원(취성패, 대일센터, 구직활동지원금), 비전향 청년 취업지원 및 권익보호(일학습병행,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 창업 - 청년창업지원(창업패키지, 창업공간)
- 주거 - 주거공간 확대(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 사회적 주택), 청년 주거비용 지원(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학생 기숙사 확충
- 복지 - 건강관리 강화(국가건강검진 확대, 마인드링크)
- 금융 - 청년 금융지원(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내채공, 희망키움)
- 문화 - 청년예술인 지원(청춘마이크)
- 교육 -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참여 - 청년 권리 강화, 청년 고용 해소, 참여소통 확대

E4. 귀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5. 다음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포괄하는 주요 분야의 정책입니다. 해당란에 응답해 주세요.

구분	5-1) 인지여부		5-2) 수행여부		5-3)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취업 창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구직활동지원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 준비공간과 자금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청년전문 창업자금(대출, 교육)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내일배움카드(구직자, 재직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소득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지방자치단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자산 금융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청년 목돈마련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 청년 목돈마련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청년 신용회복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주거	청년 매입·전세임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행복주택(공공임대 주택 공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대학생 기숙사(공공·연합기숙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건강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교육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화	청년예술인 지원(공연지원, 청춘마이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교통	청년동행카드(산업단지 교통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E6. 앞으로 정부가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자기탐색 지원 사업(예: 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 ② 고용(취업·창업) 지원
- ③ 소득 지원(생활비, 교통비 등)
- ④ 자산 지원(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⑤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 ⑥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⑦ 학자금 지원
- ⑧ 신용회복 지원
- ⑨ 여가/문화 지원
- ⑩ 법률 지원
- ⑪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⑫ 기타( )



F8. 최근 1년 동안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고 사먹는 경우가 평일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집밥을 제외한 배달음식, 포장음식, 급식, 종교단체 제공음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 주 기준, 평일 1회 사먹고, 1회 급식 하는 경우 5\*1+5\*1=10회 해당)

- ① 거의 먹지 않는다(월 1회 미만) →F9
- ② 1주 1~3끼 →F8-1
- ③ 1주 4~6끼 →F8-1
- ④ 1주 7~9끼 →F8-1
- ⑤ 1주 10~12끼 →F8-1
- ⑥ 1주 13~15끼 →F8-1

F8-1. 최근 1년 동안 주중에 밥을 사먹을 때, 본인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지출하신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집밥을 제외한 배달음식, 포장음식, 급식, 종교단체 제공음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 친구 만남, 데이트 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님)

평균 \_\_\_\_\_ 원

F9.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상황이나 여력은 되지만, 체중조절 등의 이유로 먹지 않은 경우는 ①에 표시)

- ①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영양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었다(예 고깃국, 고기, 밥 등)
- ②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영양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지는 못했다
-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F10. 최근 한 달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 소주7잔 또는 맥주 355CC 5캔, 여성: 소주5잔 또는 맥주 355CC 3캔 이상을 마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한달에 1번 미만
- ② 한달에 1번 정도
- ③ 한달에 2~3번 정도
- ④ 1주일에 1번 정도
- ⑤ 1주일에 2~3번 정도
- ⑥ 거의 매일

F11.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F12. 귀하께서는 지난 한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F1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로 관련 전문가(예: 의사, 상담가)를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F14.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감기약, 다이어트 목적의 약 제외)

- ① 예    ②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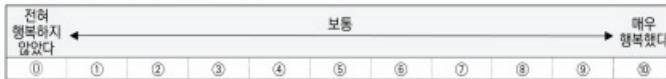
F15. 당신은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셨습니까?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쫄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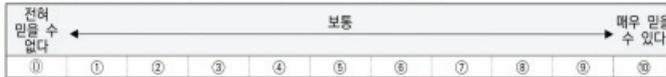
F16.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설문에 답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요즘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아이를 낳아서 앞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따름이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요즘 공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단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6)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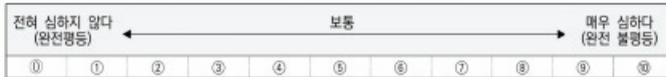
F17.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F18.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F1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G.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 G1.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공식 혹은 비공식적 경로로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귀하에게 생긴 다음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한 가지 경로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의 실제 경험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1) 감정적/심리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금전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안전과 관련된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연애/결혼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G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항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 G3.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웃이면 친척, 친구, 이웃 또는 친지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 자주 하십니까?

	1주일에 두세번 이상	1주일에 한번	1달에 한번	1년에 두세번 이상	1년에 한번	전혀 없음
1) 목돈을 빌려줌	①	②	③	④	⑤	⑥
2)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눔	①	②	③	④	⑤	⑥

G4. 다음 문장에 대해 해당하는 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에게서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에게서는 나를 친정으로 위해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까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5.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재무관리형식에 대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예: 저축, 부채관리, 재테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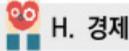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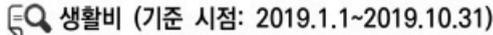
구분	G5-1) 재무관리 교육 경험		[G5-1-1]의무교육 G5-2) 도움정도				
	예	아니오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가족 내(예: 부모님, 형제지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예: 주민센터, 청년관련 단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민간금융기관(예: 은행, 보험회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자인이나 기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G6.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G6-1 이음      ② 있음 →G6-1

G6-1. 신용불량 판정 전, 귀하는 대출금(이자)을 상환하기 위해 다음 시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 ② 사채를 빌렸다
- ③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
- ④ 자동차를 매각했다
- ⑤ 가족 및 친지에게 돈을 융통했다
- ⑥ 전월세 보증금을 빼서 돈을 마련했다
- ⑦ 기타 ( )

(유의사항)

- ※ 가구단위의 비용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천안직, 이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유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2018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 한 경우 월 생활비에 50만원을 포함합니다.
- ※ 만원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0.5) 단, 1만원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H1. 귀댁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1~10월 동안 가구에서 지출하신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주세요.

- ※ '비독립 1인가구'는 본가의 생활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년 응답자 본인의 생활비를 응답해 주세요.
- ※ '비독립 기타가구'는 본가의 생활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그 외 가구는 '가구 기준'으로 최대한 응답해 주세요.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1. 총 생활비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식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광열수도비, 보육료비, 의료서비스비, 보건의료비, 세군, 사회보장부담금 등 포함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운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담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만원
	1-1. 식비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뷔페서 먹는 술(음주) 비용 등	만원
1-2. 주거비	1-2-1. 월세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만원
	1-2-2. 주거관리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만원
1-3. 교육비	1-3-1. 공교육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공교육비는? ※ 공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입학금, 교차비, 문방구비, 유학비 등	만원
	1-3-2. 사교육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사교육비는? ※ 사교육비: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감정고사비, 학생의 여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만원
1-4. 통신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TV/유선방송 등	만원
1-5. 교통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만원
1-6. 문화/여가비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터,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장습료, 일반인의 여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여행(간이차) 구입비, 화분 구입비, 아동용자전거 등	만원

### 가구소득 (기준 시점: 2019.1.1~2019.10.31)

※ '비독립 1인가구'는 본가의 가구소득을 응답받기 어려우므로 청년 응답자 본인의 소득을 응답  
 '비독립 기타가구'는 본가의 가구소득을 응답받기 어려우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응답  
 - 단, 본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2-3. 사적이전소득'에 기입해야 함  
 ※ 그 외 가구는 가구 기준으로 최대한 응답해 주세요.

#### H2. 귀 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2-1	근로 및 사업소득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사정상응직, 자영업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	원 천 백 십 일	만원
2-2	공적이전소득 귀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 ※청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	원 천 백 십 일	만원
2-3	사적이전소득 귀 가구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 부모를 제외한 친척, 인간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 ※ 조그맣을, 대학교 장학금을 받는 경우와 단순 장학금(예: 성직장학금)은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	원 천 백 십 일	만원
2-4	총소득 귀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 근로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	원 천 백 십 일	만원

### 가구 부채 및 재산 (기준 시점: 2019.10.31)

※ '비독립 1인가구' 및 '비독립 기타가구'는 본가의 부채/자산을 제외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세대 기준으로 응답  
 ※ 그 외 가구는 가구 기준으로 최대한 응답해 주세요.

#### H3. 2019.10.31. 기준 귀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의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

구분	해당항목	총 금액 (※ 없음 0)	
3-1	부채 총액 2019.10.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대안시스템청 미성환금 포함), 빚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월은 돈), 외상, 대리인 계통(※ 미래 인 계통의 경우 향후 부야 하는 금액만 기재), 기타	원 천 백 십 일	만원
3-2	학자금부채 2019.10.31. 기준 학자금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공교육 혹은 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한 부채액	원 천 백 십 일	만원
3-3	주택관련부채 2019.10.31. 기준 주택관련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전세, 월세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이 스스로 책임지는 주택관련 부채액	원 천 백 십 일	만원
3-4	(월평균)이자 2019년 해당 기간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월 평균 이자는 얼마입니까?	원 천 백 십 일	만원

#### H4. 귀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의 기준, 청년 명의의 사업장(가게도 포함)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재산	2019.10.31. 기준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 소유부동산(전세보증금, 전세금 받은 것 등) ※ 금융자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발라준 돈 등) ※ 금융채권(장기예금, 채권,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발라준 돈 등) ※ 거주하지 않는 소유부동산(가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농기계, 농수산물, 자동차 및 기타(화물차, 오토바이 등)	원 천 백 십 일	만원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 파악  
②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자료 보관 방법]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작성하신 조사표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구수행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법률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이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 부록 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설문문항 작성 근거

아래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포함된 설문문항의 출처 또는 기반이 되는 조사를 정리한 것이며, 일부 문항의 표현과 보기 구성은 조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A. 가구 형태 및 주거 환경	A1	가구주 여부	- 연구진 작성
	A2	가구유형	- 연구진 작성
	A2-1	주거독립 고려 여부	- 연구진 작성
	A3	가구원 수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A4	거주주택 유형	- 주거실태조사(2017)
	A5	거주지 거주 시작일	- 주거실태조사(2017)
	A6	주택 내 위치	- 주거실태조사(2017)
	A7	현재 주택 점유 형태	- 주거실태조사(2017)
	A7-1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2018)
	A7-2	주거지 가격	- 주거실태조사(2017)
	A8	주거지 실행수	- 주거실태조사(2017)
	A9	주거비 부담 정도	-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2018)
	A9-1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식비 감액 여부	-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2018)
	A10	주거지 퇴거 위험 경험 여부	-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2018)
	A10-1	주거지 퇴거 위험 이유	-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2018)
A11	시설의 필수적 설비기준 구비	- 주거실태조사(2017)	
A12	거주지 시설 상태	- 주거실태조사(2017)	
A13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 불가 경험	- 연구진 작성	
A14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 불가 경험	- 연구진 작성	
A15	주거지 선택 시 우선순위 3가지	- 연구진 작성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청년층 노동 및 사회 보험 실태 - B. 취업자	A16	독거 시기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A17	독거 이유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A18	독거 이후 이사 횟수	- 주거실태조사(2017)
	A19	주거지 마련 소요 자금 출처	- 연구진 작성
	A20	주거지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B1	지난 1주일 근로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1-1	하고 있는 일의 개수	- 연구진 작성
	B1-2	지난 1주일 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1-3	지난 1주일 추가근로 희망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1-4	지난 1주일 추가근로 가능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1-5	온라인을 통한 근로 여부	- 전국민 경제활동 특성 조사(김준영 외, 2019)
	B1-6	야간, 주말, 교대근무 포함 여부	- 청년단체 검토 후 추가
	B1-7	지난 1달 근로소득	- 청년단체 검토 후 추가
	B2	<b>주된 일자리 관련</b>	
	B2-1	주된 일자리 입직 시기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2	주된 일자리 산업분류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3	주된 일자리 직업분류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4	주된 일자리 사업장 규모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5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6	주된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7	주된 일자리 세전 근로소득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B2-7-1	주된 일자리 주휴수당 적용	- 청년단체 검토 후 추가	
B2-7-2	주된 일자리 시간당 임금 수준	- 연구진 작성	
B2-8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형태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B2-9	주된 일자리 고용관계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B2-10	주된 일자리 근로계약 기간 설정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B2-11	주된 일자리 근로지속 가능성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B2-12	주된 일자리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B2-13	주된 일자리 노동조합 가입 여부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338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청년층 노동 및 사회 보험 실태 - C.비취 업자	B3	주된 일자리 만족도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B4	주된 일자리와 교육수준 적합도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B5-1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B5-2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B5-3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B5-4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B6	국민연금 지역가입 이유	- 연구진 작성
	B7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 한국복지패널(2018)
	B7-1	국민연금 미납 유형	- 한국복지패널(2018)
	B7-2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 한국복지패널(2018)
	B7-3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는 이유	- 한국복지패널(2018)
	B8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는 이유	- 한국복지패널(2018)
	C1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1-1	(실업자) 지난주 근로 가능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2	(비경황) 지난주 근로 희망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2-1	지난주 근로 가능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2-2	구직활동/취업하지 않는 이유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3	이전의 직장 경험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	<b>가장 최근 일자리 관련</b>	
	C4-1	가장 최근 일자리 입직 시기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2	가장 최근 일자리 산업분류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3	가장 최근 일자리 직업분류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4	가장 최근 일자리 사업장 규모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5	가장 최근 일자리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6	가장 최근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C4-7	가장 최근 일자리 세전 근로소득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C4-8	가장 최근 일자리 근로시간 형태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C4-9	가장 최근 일자리 고용관계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C4-10	가장 최근 일자리 근로계약 기간 설정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C4-11	가장 최근 일자리 근로지속 가능성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C4-12	가장 최근 일자리 근로지속 불가능사유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C4-13	가장 최근 일자리 노동조합 가입 여부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C5	<b>마지막 일자리 당시 4대보험 가입 관련</b>	
	C5-1	마지막 일자리 당시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C5-2	마지막 일자리 당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C5-3	마지막 일자리 당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C5-4	마지막 일자리 당시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청년층 노동 및 사회 보험 실태 - D. 모든 응답자	D1	18세 이후 총 근로 기간	- 연구진 작성
	D1-1	근로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	- 연구진 작성
	D2	3년 이내 일을 그만둔 경험 여부	- 연구진 작성
	D3	일을 그만둔 후 재취업 여부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3-1	재취업 소요기간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3-2	재취업 소요기간 이유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4	일을 그만둔 후 생계비 확보 방안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4-1	일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 여부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4-2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2015)
	D5	월평균 적정 생활비/구직 부대 비용	- 연구진 작성
	D6	청년일자리 관련 문제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D7	근로환경 관련 경험 여부	- 연구진 작성
	D8	2019년 최저임금 적정도	- 연구진 작성
	D9	교육수준	- 청년패널조사(2017)
D10	최종 이수 학교 소재지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34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D11	부모님 경제활동 여부	- 연구진 작성
E. 청년 정책	E1	정부 청년 지원제도 인지 여부	- 연구진 작성
	E2	중앙정부 지원수준 만족도	- 연구진 작성
	E3	지방정부 지원수준 만족도	- 연구진 작성
	E4	청년 지원사업 제공 방식	- 연구진 작성
	E5	청년정책 인지 여부, 수혜 여부, 만족도	- 연구진 작성
	E6	청년정책 강화 영역 3순위	- 연구진 작성
F. 건강	F1	장애 여부	- 국민노후보장패널(2017)
	F2	건강상태 정도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F3	지난 1년 미충족의료 여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3-1	미충족의료 이유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4	최근 2년 건강검진 여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5	최근 1년 아침식사 관련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6	최근 1년 점심식사 관련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7	최근 1년 저녁식사 관련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8	최근 1년 평일 기준 외식 여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8-1	최근 1년 한끼 평균 식비	- 연구진 작성
	F9	최근 1년 식생활 걱정 정도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F10	최근 1달 음주 횟수	- 한국복지패널(2018)
	F11	최근 1년 자살생각 여부	- 한국복지패널(2018)
	F12	최근 1달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 한국의료패널(2016)
	F13	최근 1년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 방문 여부	- 연구진 작성
	F14	최근 1년 정신과 약물 사용 경험	- 한국의료패널(2016)
	F15	우울척도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
	F16	아노미 척도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
	F17	어제의 행복 정도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
F18	사회 신뢰 정도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	
F19	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9)	
G.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G1	사회적 관계망 범위	- 한국종합사회조사(2012)
	G2	사회적 관계망 인원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2018)
	G3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어느 정	- 한국종합사회조사(2003-2005)

영역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출처 또는 기반
		도 자주 했는지	
	G4	사회적지지 경험 정도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1988)
	G5	재무관리방식 교육 경험, 도움 정도	- 청년단체 검토 후 추가
	G6	금융채무불이행자 경험 여부	- 연구진 작성
	G6-1	금융채무불이행자 판정이전 시도 경험	- 연구진 작성
H. 경제-생활비	H1	총 생활비 항목별 지출금액	- 한국복지패널(2018)
H. 경제-가구소득	H2	가구 총소득 항목별 소득금액	- 한국복지패널(2018)
H. 경제-가구부채 및 재산	H3	가구 부채 및 이자 항목별 금액	- 한국복지패널(2018)
	H4	가구 전체 재산 금액	- 한국복지패널(2018)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3. 최근 10년간의 청년 이슈 동향

### 1. 분석 개요

여기서는 최근 10년간의 청년 이슈 동향을 탐색적으로 살핀다. 경향성의 탐색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슈 변화를 파악하여 지형을 검토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이슈 경향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의 문제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갖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나타난 청년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이슈에 대한 시계열적 지형과 주요 문제의 영역과 변화의 양상 등을 살피고자 한다.

### 2.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빅카인즈와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명사 추출의 한글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술 분석, 주제 분석, 주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10년간의 뉴스 기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모든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 포털 사이트로 언론진흥재단과 협약이 되

어 있는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의 최신 뉴스 기사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부표 1>은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목록으로, 이를 활용하면 국내 대부분 언론사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는 언론진흥재단과 언론사의 협약이 이루어진 데이터만을 제공하므로 각각의 언론사들과 언론진흥재단 사이의 협약 일자 확인이 필요하다. 언론진흥재단과 협약된 대부분의 언론사는 2010년 이전에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OBS, YTN 등은 2010년 이후에 언론진흥재단과 협약이 이루어졌다. OBS와 YTN은 방송사이므로 해당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전체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중앙지이면서 국내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세 언론사의 데이터가 제외되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표 1>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 언론사

구분	매체명
중앙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 종합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	KBS, MBC, OBS, SBS, YTN
전문지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자료: 저자 작성.

빅카인즈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청년”이라는 단어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 53만 2166건이 검색되었으나 다수의 불용

기사 또한 추출되었다. 이에 정제된 데이터 확보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진 논의 과정을 거쳐 청년 관련 키워드 17개 (노동 관련 4개, 경제 관련 4개, 정책 관련 3개, 건강 관련 5개, 주거 관련 1개)를 설정하였고, 해당 키워드 기반의 검색식을 구성하여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였다. <부표 2>는 청년 관련 키워드와 각각의 키워드를 검색에 활용한 검색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검색식을 통해 빅카인즈 뉴스 기사 데이터 베이스와 주요 3개 언론사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였고, Python에 기반을 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Crawler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부표 2> 분석 활용 검색어

구분	내용	검색식	
검색어	노동	노동, 일자리, 니트, 실업	청년 (AND) 노동 청년 (AND) 일자리 청년 (AND) 니트 청년 (AND) 실업
	경제	경제, 생활비, 소득, 부채	청년 (AND) 경제 청년 (AND) 생활비 청년 (AND) 소득 청년 (AND) 부채
	정책	사회보험, 국민연금, 정책	청년 (AND) 사회보험 청년 (AND) 국민연금 청년 (AND) 정책
	건강	건강, 정신건강, 불안, 우울, 자살	청년 (AND) 건강 청년 (AND) 정신건강 청년 (AND) 불안 청년 (AND) 우울 청년 (AND) 자살
	주거	주거	청년 (AND) 주거

자료: 저자 작성.

수집된 데이터는 <부표 3>과 같으며 총 개수는 71만 3502건이다. 키워드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 키워드로 수집된 데이터가 18만 2058건으로 전체의 25.5%에 해당한다. 그다음 “일자리” 키워드로 수집한 데이

터가 17만 1468건,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로 수집한 뉴스 기사가 12만 4263건이며, 나머지는 4만 5000건 이하였다. 그러나 “경제”, “일자리”, “정책”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일반성이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수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다른 키워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동시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키워드들은 상대적으로 특정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가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표 3〉 각각의 키워드·연도별 뉴스 기사 수집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총합
건강	1,695	2,054	2,188	2,051	2,130	3,488	3,867	4,637	5,502	2,907	30,519
경제	8,411	9,637	13,920	12,087	12,921	28,081	27,156	25,476	29,472	14,897	182,058
국민연금	102	247	291	262	190	679	754	647	859	515	4,546
노동	1,712	1,806	2,699	2,298	2,028	9,626	6,811	6,461	7,351	3,642	44,434
니트	51	54	66	87	55	182	154	145	134	36	964
부채	359	665	854	597	752	1,364	1,456	1,723	1,221	464	9,455
불안	998	1,408	1,626	1,241	1,280	2,623	2,878	2,732	2,667	1,114	18,567
사회보험	88	209	226	174	179	291	342	459	357	196	2,521
생활비	223	352	553	328	322	678	802	1,079	843	437	5,617
소득	1,505	1,897	2,440	1,693	1,963	4,304	5,164	7,404	9,735	4,967	41,072
실업	4,090	4,052	3,927	2,504	1,959	6,477	5,576	6,515	5,619	2,228	42,947
우울	201	294	275	247	300	444	469	545	527	246	3,548
일자리	8,364	7,962	10,889	8,976	8,695	24,987	23,843	27,715	35,990	14,047	171,468
자살	384	648	762	608	664	984	715	789	738	346	6,638
정신건강	53	72	70	99	88	127	195	233	254	148	1,339
정책	4,999	5,344	8,851	6,228	6,639	13,457	16,852	22,682	26,939	12,272	124,263
주거	409	439	977	479	779	1,797	3,272	5,211	6,855	3,328	23,546
합계	33,644	37,140	50,614	39,959	40,944	99,589	100,306	114,453	135,063	61,790	713,502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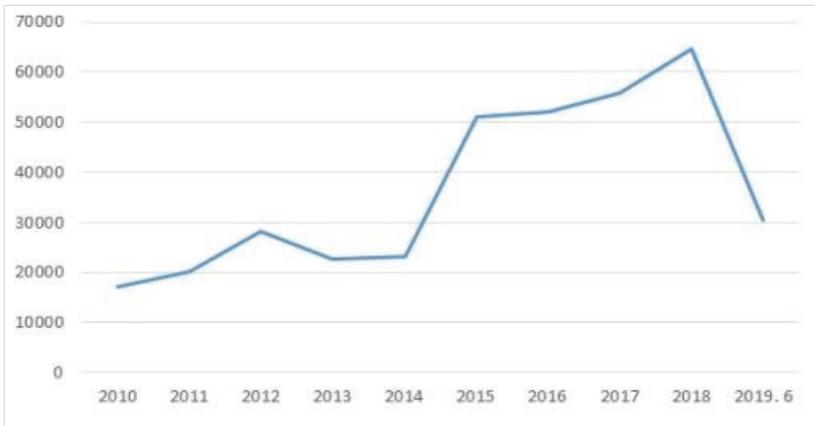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가. 기술 분석

청년과 관련된 17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71만 3502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키워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과 불용 기사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기사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총 36만 5579건이었다. 데이터를 연도별로 표현하면 [부그림 1]과 같다. 전반적으로 뉴스 기사의 수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4년 2만 3251건에서 2015년 5만 954건으로 2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은 6개월간의 데이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그림 1] 발행 연도별 전체 뉴스 기사 건수

(단위: 건)



주: 2019년의 기사는 2019년 6월까지의 수집 건수임.  
자료: 저자 작성.

## 나. 데이터 전처리 결과

한글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제거 기법을 적용한 후, 단어 간의 중복을 제거한 결과, 총 12만 3293개의 고유 단어(Unique Term)가 추출되었다. [부그림 2]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나타난 각각의 고유 단어들의 분포(출현 빈도)이다.

그래프는 반비례 형태를 띤다. 순위가 떨어질수록 빈도가 떨어지는 형태로, 단어의 사용 빈도는 단어의 순위에 반비례한다는 Zipf의 법칙과 유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또한 상위 20% 단어들의 빈도가 전체의 약 9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출현 빈도 상위 단어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부표 4〉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출현 빈도 상위 50위 단어를 나타낸 것이다. 출현 빈도 상위 단어를 살펴봤을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122만 5470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모든 검색식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빈도 측면에서 “청년”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빈도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살펴보면, 2위에 “일”, 3위에 “일자리”, 12위에 “고용”, 13위에 “취업”, 19위에 “창출”, 26위에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단어들은 모두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또한 16위의 “문제”와 29위의 “확대” 등은 청년 취업 문제 또는 청년 취업 확대와 같이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이슈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주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4위의 “지원”, 5위의 “사업”, 9위의 “정부”, 10위의 “사회”, 11위의 “정책”, 21위의 “추진” 등은 주로 정부의 정책으로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또는 지원 정책

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위의 “기업”, 7위의 “지역”, 8위의 “경제”는 지역 경제와 경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청년들의 경제 상황과 같은 경제 관련 주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18위의 “교육”, 30위의 “대학”, 33위의 “문화”, 41위의 “만원”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상황, 대학 졸업과 함께 취업시장에 맞닥뜨린 상황, 88만 원 세대, 78만 원 세대와 같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7위의 “후보”, 42위의 “정치”, 43위의 “의원”, 45위의 “국가” 등은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관심을 나타내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국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 관련 법안들, 대표적으로 청년기본법안 및 각 지자체 청년 관련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부표 4〉 출현 빈도 상위 50위 단어(고빈도어)

(단위: 건)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청년	1,225,470	26	채용	198,618
2	일	827,094	27	후보	196,931
3	일자리	669,822	28	필요	195,749
4	지원	599,737	29	확대	195,718
5	사업	501,294	30	대학	189,103
6	기업	498,320	31	생각	187,606
7	지역	470,938	32	성장	182,080
8	경제	466,644	33	문화	179,586
9	정부	460,300	34	서울	179,286
10	사회	419,817	35	중소기업	178,811
11	정책	389,323	36	시간	178,451
12	고용	367,191	37	노동	178,156
13	취업	350,497	38	센터	175,653
14	창업	343,443	39	이상	175,332
15	시장	275,992	40	운영	174,738
16	문제	274,237	41	만원	172,816
17	대표	272,989	42	정치	168,450
18	교육	239,493	43	의원	168,119
19	창출	235,405	44	참여	160,798
20	사람	234,136	45	국가	159,233
21	추진	227,821	46	분야	155,995
22	산업	226,409	47	기관	154,510
23	계획	222,888	48	대상	152,844
24	국민	215,300	49	활동	152,175
25	한국	214,451	50	투자	152,009

자료: 저자 작성.

#### 다. 주제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해 총 20개의 주제를 추출하였고, 각 주제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를 기반으로 주제명을 설정하였다. 각 주제명은 연구진 3인이 각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뒤, 함께 논의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부표 5>는 주제 분석 결과와 각 주제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 20개를 표현한 것이다. 또 이를 종합하여 6가지 범주로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Topic 0, Topic 5, Topic 6, Topic 16과 Topic 18은 청년들이 맞닥뜨린 사회구조적인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Topic 1과 Topic 12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한 상황에 가까우며, 이는 주제 단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Topic 1은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으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낸다. Topic 12는 “청년의 경제 상황”으로 청년들과 관련된 경제활동 및 금융 상황에 대한 주제를 보여 준다.

Topic 2와 Topic 3, Topic 8과 Topic 11은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Topic 4와 Topic 7은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 및 법적 노력과 관련 있다. Topic 4는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로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주제를, Topic 7은 “청년 관련 법안”으로 청년 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접근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Topic 10, Topic 13과 Topic 15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Topic 9, Topic 14, Topic 17과 Topic 19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과 관련된 주제라 볼 수 있다.

〈부표 5〉 주제 분석 결과

주제 순번	주제명	주제 단어	범주
Topic 0	청년의 일과 사회구조	노동, 고용, 임금, 시간, 일, 비정규직, 근로자, 정부, 근로, 청년, 정규, 노동자, 노조, 최저임금, 기업, 도입, 일자리, 노사, 임금피크제, 정년	청년들이 맞닥뜨린 사회구조적인 상황
Topic 5	인권	북한, 일, 사건, 경찰, 통일, 운동, 북, 군, 평화, 김정은, 남북, 역사, 변호사, 정부, 서울, 단체, 청년, 인권, 전쟁, 국가	
Topic 6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청년	경제, 정부, 일자리, 정책, 성장, 기업, 고용, 창출, 시장, 중소기업, 규제, 산업, 대책, 투자, 확대, 추진, 개혁, 방안, 구조, 필요	
Topic 16	세계화	한국, 중국, 미국, 세계, 일본, 일, 국가, 현지, 해외, 달러, 경제, 유럽, 정부, 독일, 국제, 대통령, 영국, 프랑스, 총리, 글로벌	
Topic 18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산업, 기업, 기술, 농업, 차, 생산, 개발, 협력, 사업, 분야, 식품, 회장, 투자, 국내, 수출, 스마트, 자동차, 성장, 에너지, 공장	
Topic 1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	대학, 교육, 학생, 취업, 학교, 졸업, 과정, 인재, 대학생, 양성, 프로그램, 직업, 일, 학과, 현장, 지원, 준비, 교수, 전문, 운영	청년들이 처한 상황
Topic 12	청년의 경제 상황	금융, 대출, 은행, 만원, 자금, 펀드, 투자, 금리, 청년, 지원, 일, 소득, 신용, 보증, 상품, 가입, 상환, 희망, 서민, 회사	
Topic 2	청년 취업	청년, 일자리, 취업, 채용, 기업, 지원, 일, 고용, 창출, 사업, 중소기업, 구직, 지역, 기관, 인력, 인턴, 제공, 박람회, 참여, 센터	청년들의 취·창업
Topic 3	청년 창업 회사	시장, 대표, 일, 서비스, 판매, 전통, 운영, 청년, 제품, 회사, 브랜드, 업체, 고객, 게임, 상품, 상인, 디자인, 푸드, 카페, 시작	
Topic 8	청년의 고용과 실업	청년, 고용, 실업, 증가, 인구, 취업자, 일자리, 조사, 취업, 감소, 평균, 수준, 여성, 포인트, 전체, 고령, 분석, 기록, 기준, 대비	

주제 순번	주제명	주제 단어	범주
Topic 11	청년 창업	창업, 지원, 기업, 청년, 사업, 센터, 혁신, 벤처, 기술, 투자, 스타트, 육성, 성장, 창조경제, 중소기업, 창출, 창업자, 벤처기업, 아이디어, 자금	
Topic 4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후보, 의원, 선거, 대표, 정치, 공약, 일, 대선, 정당, 위원장, 정책, 총선, 새누리당, 청년, 민주당, 민주, 지지, 투표, 위원, 출마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권 및 법적 노력
Topic 7	청년 관련 법안	대통령, 국회, 일, 국민, 정부, 의원, 개혁, 법안, 문제, 법, 대표, 청와대, 경제, 정치, 국정, 야당, 처리, 청년, 박근혜, 문재인	
Topic 10	지역 청년	지역, 사업, 도시, 추진, 일자리, 조성, 문화, 시민, 지원, 계획, 경제, 주민, 창출, 관광, 활성, 시장, 광주, 정책, 발전, 산업	청년정책
Topic 13	청년 지원	청년, 지원, 예산, 만원, 복지, 정부, 사업, 소득, 일, 확대, 정책, 지급, 수당, 제도, 사회, 공제, 대상, 재정, 편성, 연금	
Topic 15	청년의 주거	주택, 임대, 주거, 가구, 청년, 서울, 공급, 서울시, 사업, 공공, 도시, 계획, 지역, 일, 지원, 공간, 신혼부부, 아파트, 시설, 개발	
Topic 9	청년의 사회참여	청년, 일, 사회, 활동, 문화, 참여, 행사, 정책, 지역, 개최, 회장, 진행, 대표, 서울, 대회, 단체, 참석, 주제, 재단, 시민	
Topic 14	청년 문화 여가 콘텐츠	영화, 일, 작품, 작가, 감독, 공연, 청년, 음악, 배우, 방송, 이야기, 드라마, 예술, 모습, 사랑, 연기, 무대, 자신, 노래, 선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Topic 17	청년의 가치관	사회, 문제, 사람, 생각, 국민, 세대, 경제, 필요, 시대, 청년, 정치, 한국, 국가, 미래, 삶, 자신, 현실, 나라, 변화, 교수	
Topic 19	청년의 네트워크	사람, 일, 생각, 시간, 집, 마음, 자신, 시작, 가족, 삶, 건강, 부모, 친구, 아버지, 돈, 아이, 길, 교회, 생활,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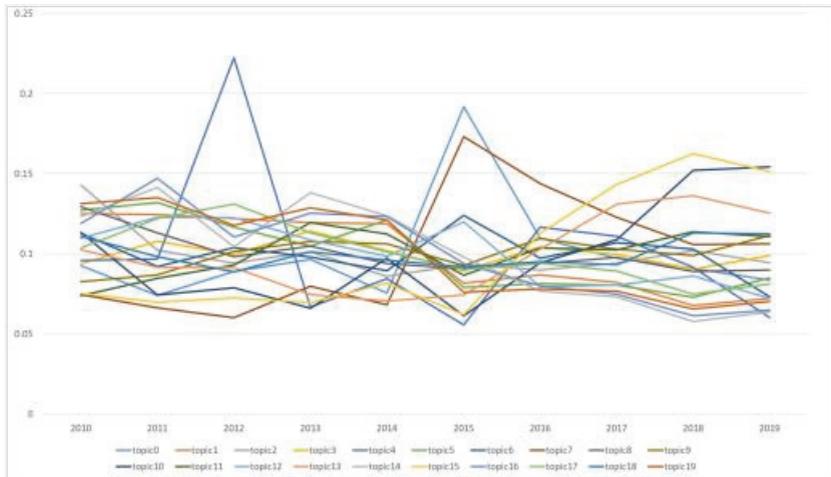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라. 시계열 분석 결과

시계열 분석은 주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부그림 3]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개 주제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부그림 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비율)



주: Topic 0: 청년의 일과 사회구조, Topic1: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 Topic 2: 청년 취업, Topic 3: 청년 창업 회사, Topic 4: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Topic 5: 인권, Topic 6: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청년, Topic 7: 청년 관련 법안, Topic 8: 청년의 고용과 실업, Topic 9: 청년의 사회참여, Topic 10: 지역 청년, Topic 11: 청년 창업, Topic 12: 청년의 경제 상황, Topic 13: 청년 지원, Topic 14: 청년 문화 여가 콘텐츠, Topic 15: 청년의 주거, Topic 16: 세계화, Topic 17: 청년의 가치관, Topic 18: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Topic 19: 청년의 네트워크.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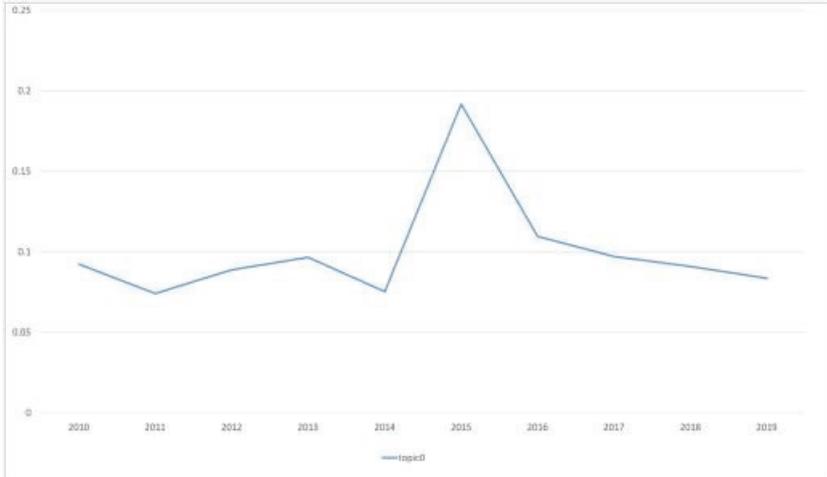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6가지 범주별 시계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상황과 관련하여, [부그림 4]는 청년의 일과 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Topic 0).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5년 갑자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이후부터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 일자리 또는 청년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였고, 관련 기사가 많이 등장함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임성근 외, 2018). [부그림 5]는 “인권”과 관련된 이슈의 변화를 나타낸다(Topic 5). 참고로 2010년경에는 2010년 북한인권실태 조사 및 북한 인권 개선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에 관한 이슈, 2014년 북한 인권 백서 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안전 채택 등과 같은 북한 인권 이슈와 더불어 2010년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과 학생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부그림 6]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청년”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6). 이 주제는 2015년까지 관심이 증대되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가하다가 이후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그림 7] “세계화”는 청년 이슈에 관한 외국 상황 및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Topic 16). 일본, 중국, 유럽과 미국 같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청년 관련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 청년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내용들이 발견된 바 있다. [부그림 8]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주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Topic 18).

청년이 직면하는 구조적 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은 큰 변화가 없거나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회구조, 경제구조,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상황들이 청년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구성원의 문제에 해당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특별한 정책 및 변화가 등장하지 않는 한 시계열 분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사회 인식과 관련된 인권 및 세계화와 같은 내용은 특정 시기의 관심을 받다가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부그림 4]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일과 사회구조(Topic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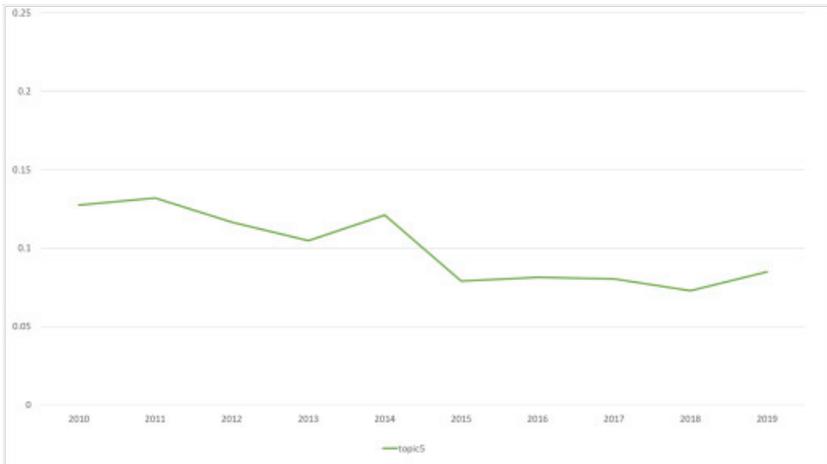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5]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인권(Topic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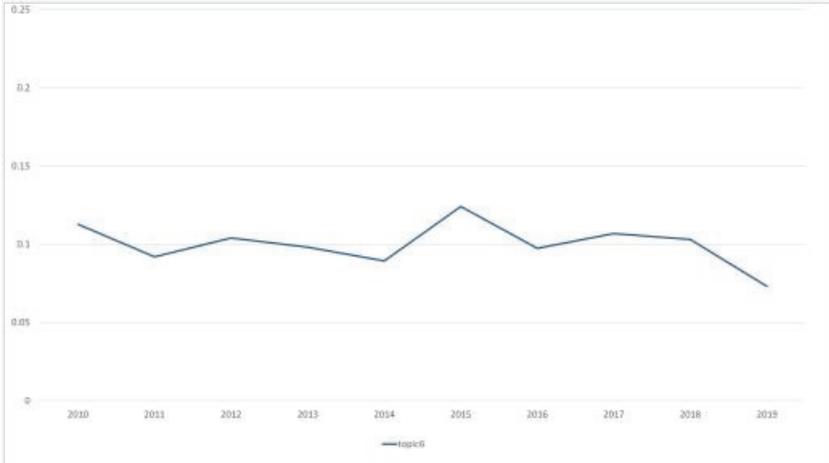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6]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청년(Topic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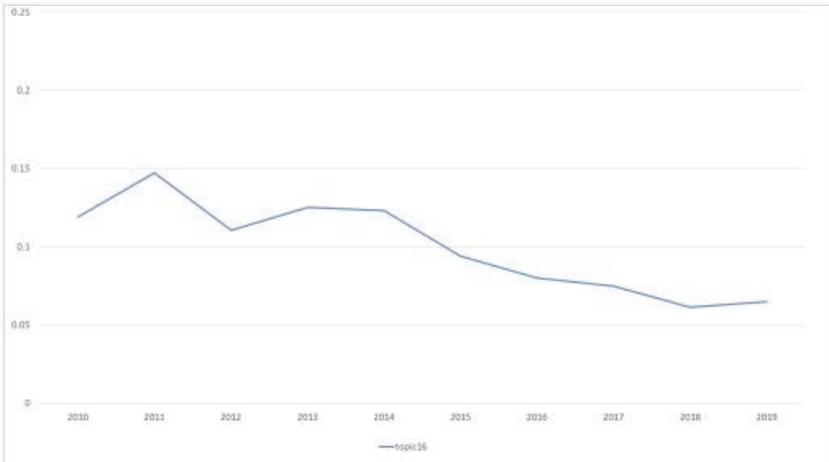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7]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세계화(Topic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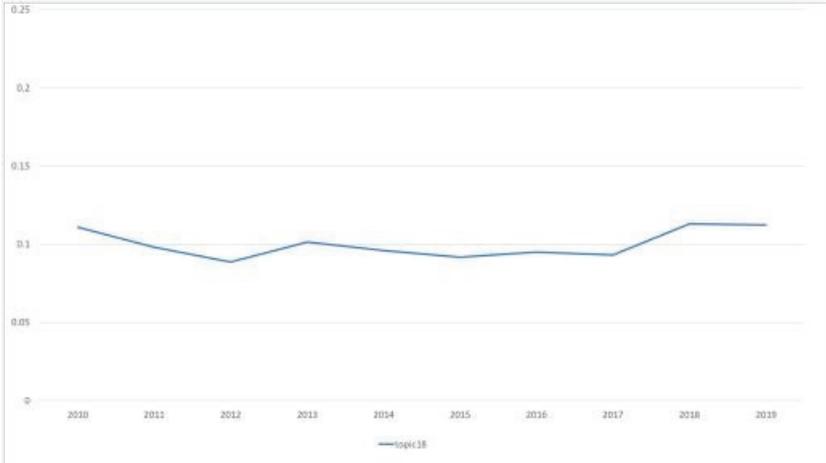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8]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Topic 18)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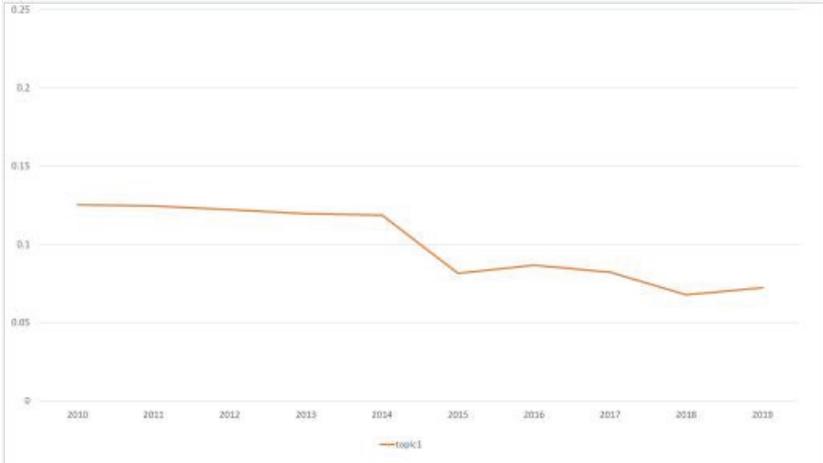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둘째, 청년들이 처한 상황으로 주로 청년들의 어려움과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그림 9]는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과 관련된 주제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1). 2014년 이후의 하락세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대책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었거나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그림 10] “청년의 경제 상황”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2). 청년층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지만, 특정 계층보다는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청년층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부그림 9]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Topi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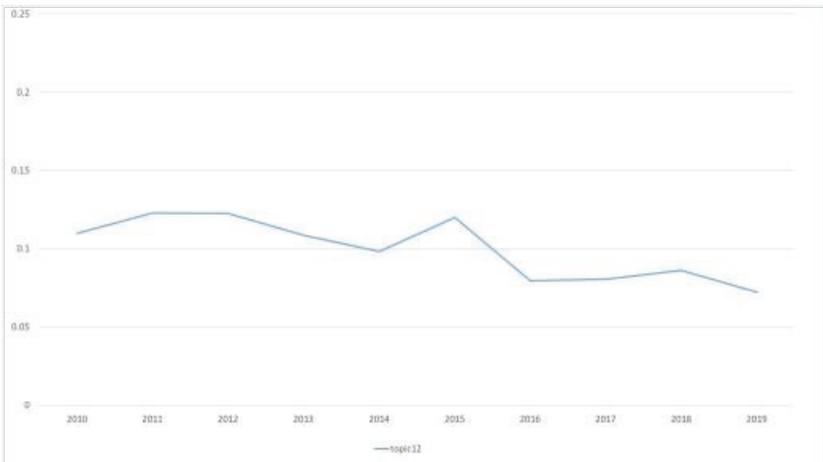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0]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경제 상황(Topic 12)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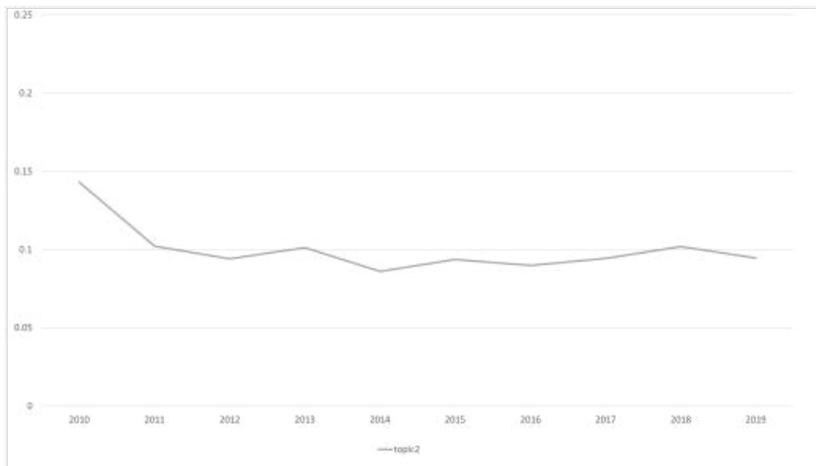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셋째로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주제이다. [부그림 11]은 청년 취업과 관련된 주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Topic 2).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그림 12]는 “청년 창업 회사”와 관련된 주제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3). [부그림 13]은 “청년의 고용과 실업” 주제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8). 이 주제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의 고용과 실업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정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그림 14]는 “청년 창업” 주제의 변화를 보여 주며(Topic 11), 2010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그림 11]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취업(Topic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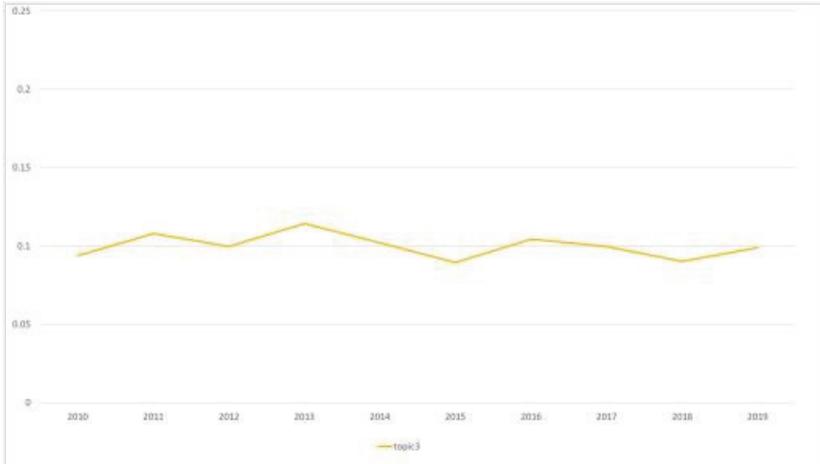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2]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창업 회사(Topic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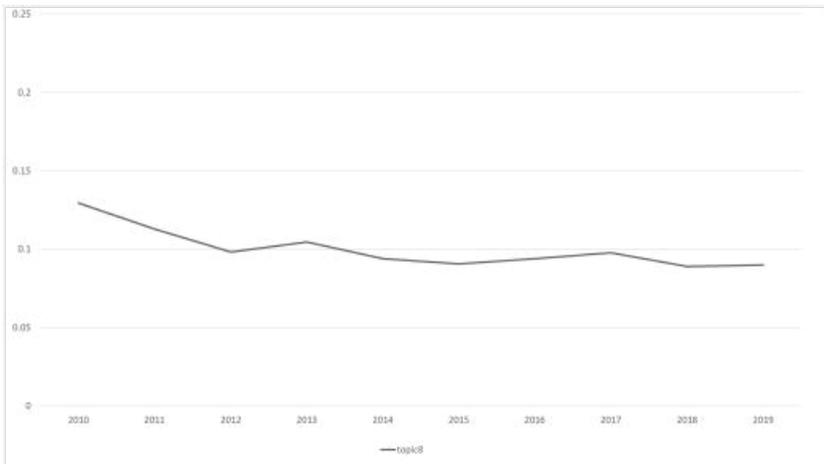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고용과 실업(Topic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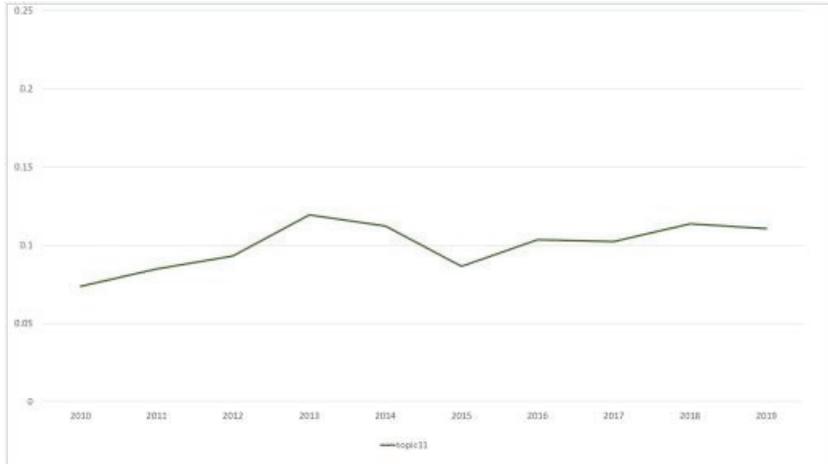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4]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창업(Topic 11)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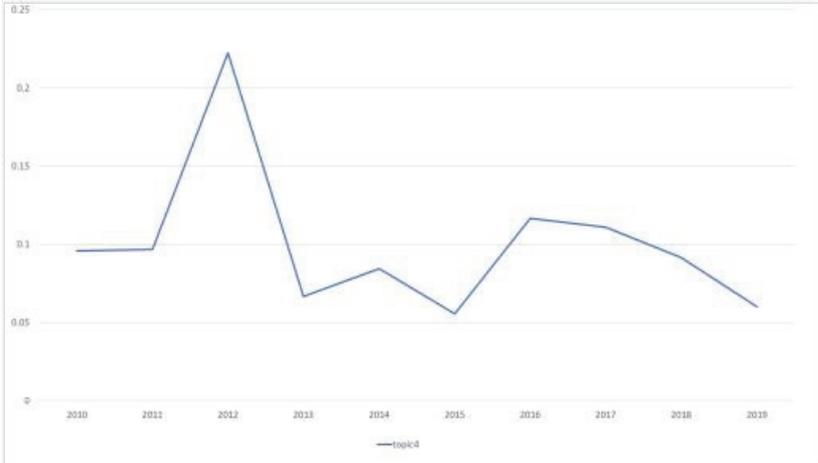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넷째,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 및 법적 노력과 관련된 주제이다. [부그림 15]는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와 관련된 주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Topic 4). 2011년과 2012년에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감소하다 다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은 대선이 있던 시기로 선거와 관련하여 청년 문제들이 다뤄지면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그림 16]은 “청년 관련 법안”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7). 이 주제는 2014년에서 2015년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청년발전기본법안 또는 청년경제기본법 등의 발의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그림 15]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Topic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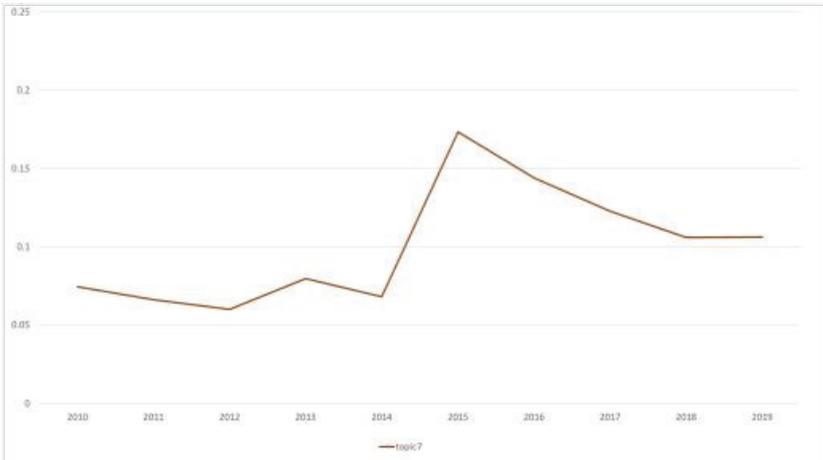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6]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관련 법안(Topic 7)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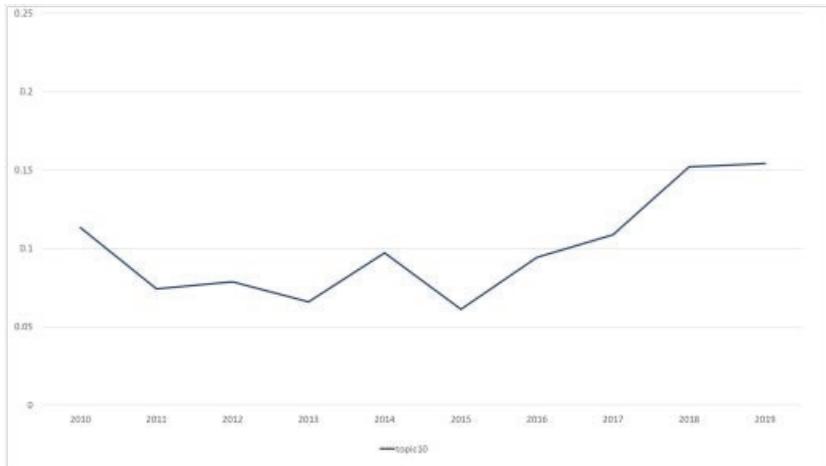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섯째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제이다. [부그림 17]은 “지역 청년”의 변화를 보여 준다(Topic 10). 이 주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 청년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청년정책을 개발, 수립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그림 17]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지역청년(Topic 10)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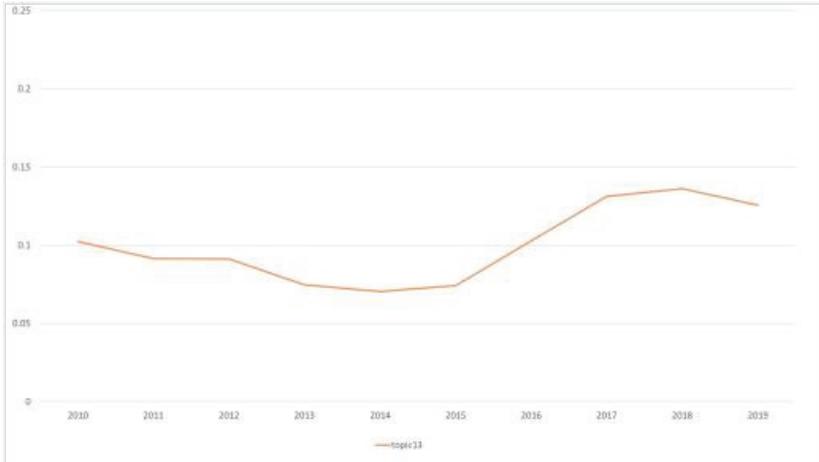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8] “청년 지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3). 2014년 이후 청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그림 19] “청년의 주거”는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5). 2015년 시작된 행복주택사업부터 2018년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발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부그림 18]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자원(Topic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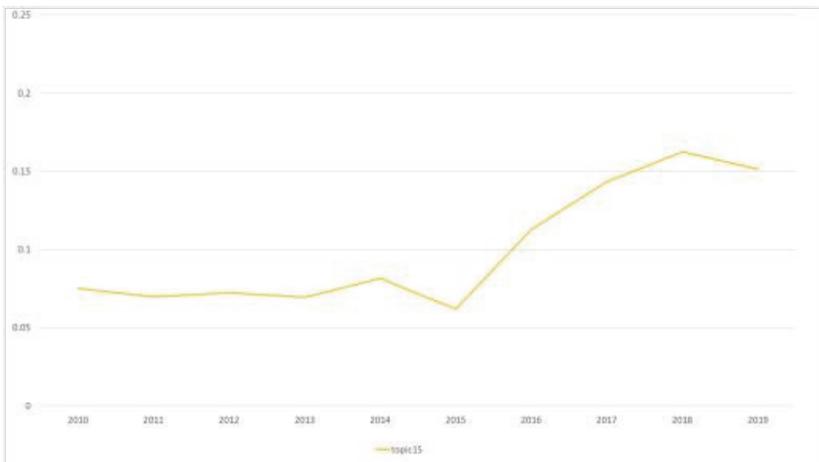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9]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주거(Topic 15)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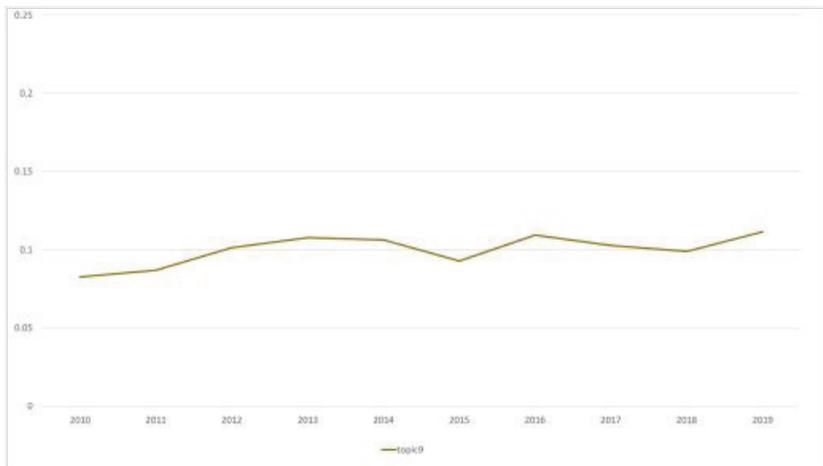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은 청년들의 생각, 행동과 관련된 주제이다. [부그림 20]은 “청년의 사회참여” 주제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주제는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Topic 9). 점차 증가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그림 21] “청년 문화 여가 콘텐츠”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4). [부그림 22] “청년의 가치관” 주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7). 청년의 가치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지만, 주거, 청년 지원, 창업까지 다른 이슈들이 더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락세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그림 23] “청년의 네트워크” 또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opic 19).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또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부그림 20]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사회참여(Topic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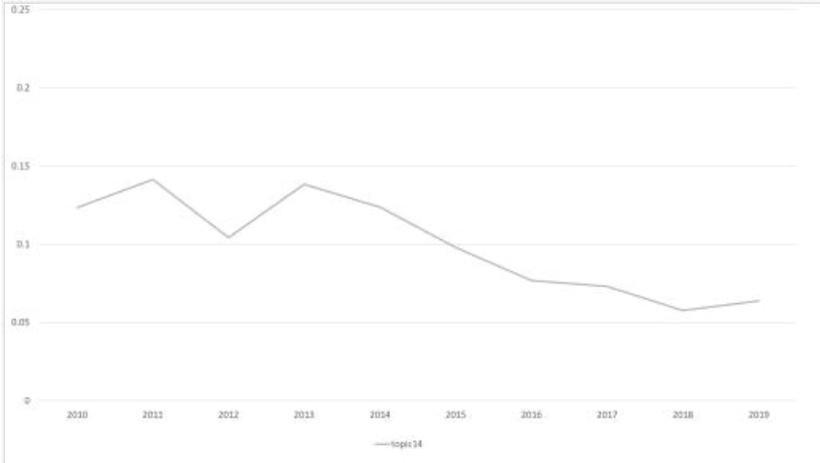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1]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 문화 여가 콘텐츠(Topic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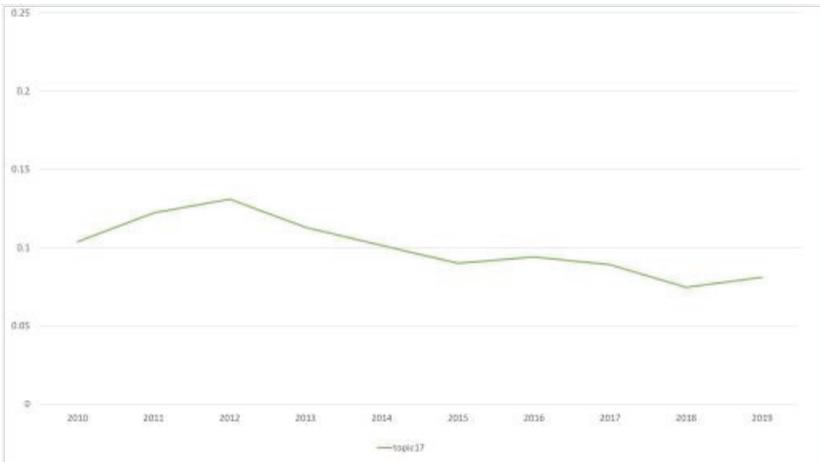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2]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가치관(Topic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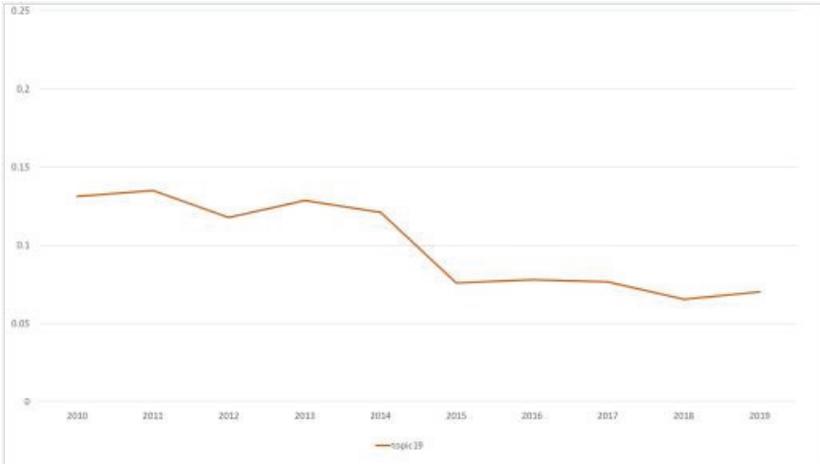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3] 토픽모델링 시계열 분석 결과: 청년의 네트워크(Topic 19)

(단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 4. 분석의 함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이슈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영역별 이슈들은 관련 정책의 등장이나 선거 등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대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청년 이슈는 청년 담론의 등장에서 정책의 구체화 단계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 청년의 이슈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뉴스 기사는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소개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 또는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청년 관련 사건들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청년 이슈에 대한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뉴스 기사가 아닌 청년들이 현실의 삶에서 작성한 글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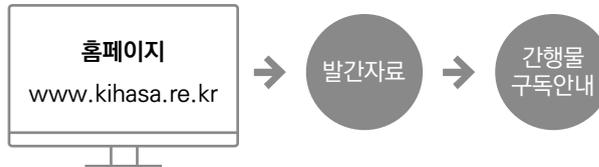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